

건축사

1999 **5** vol. 361

칼럼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은 수요자를 위하여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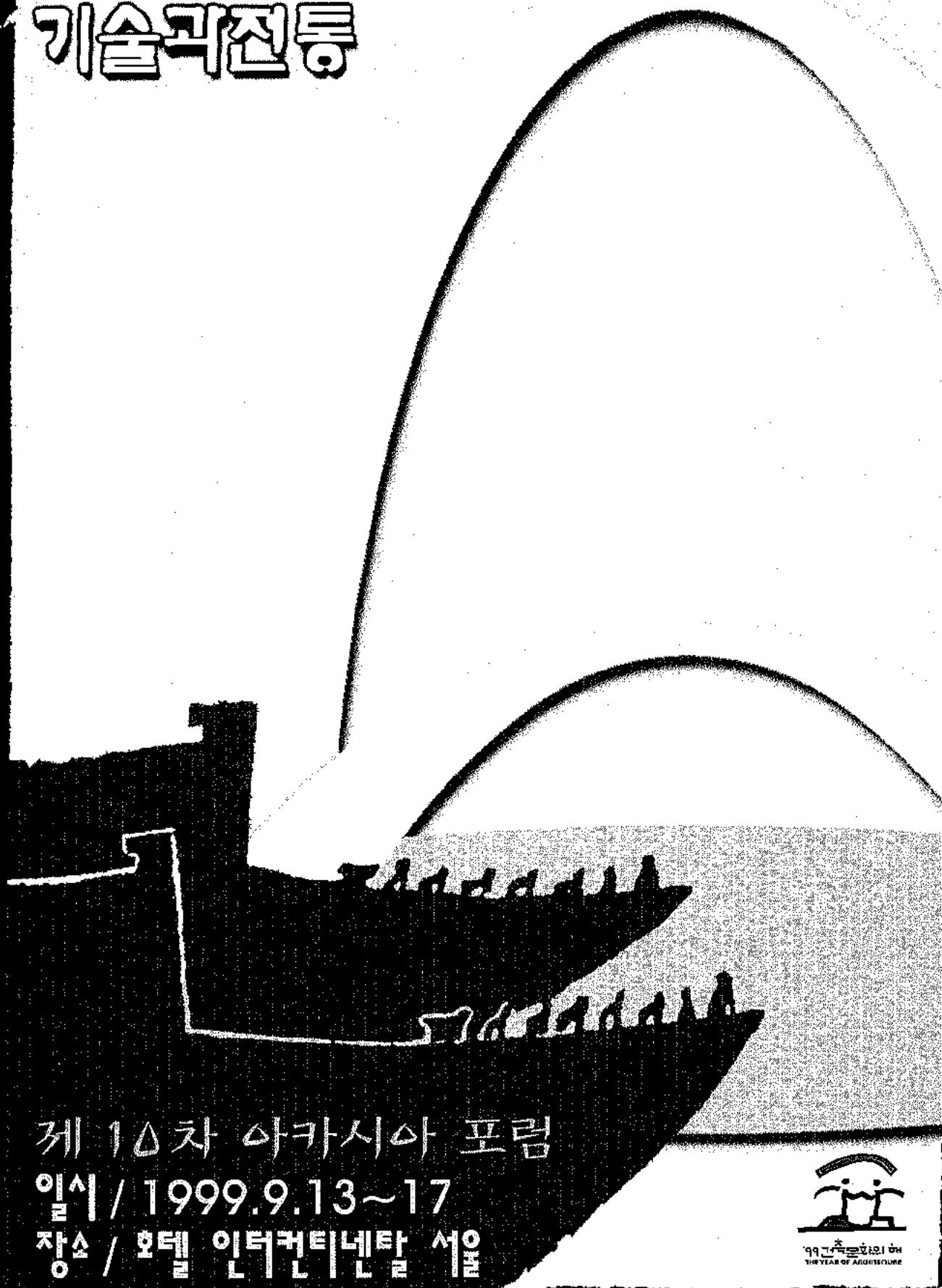
좌담리뷰 계명문화대라 미술관 하성복지관

건축비평 형식과 시락을 넘어서 - 송호상의 수백당#이종권의 비평에 관한 소견

레미기리 지역건축발상단 - 광주, 나주, 목포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제 1△차 아카시아 포럼

일시 / 1999.9.13~17

장소 / 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



플러스빅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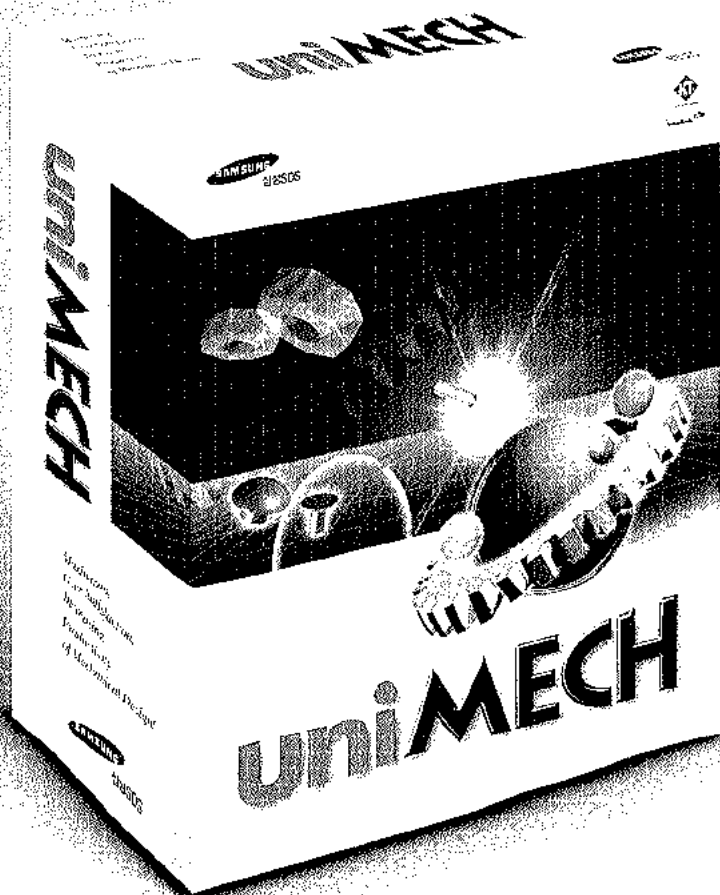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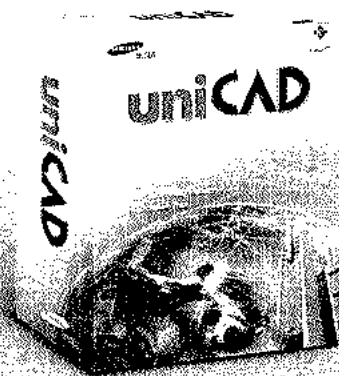
UniCAD 2.0 출시 기념

•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한
범용 CAD - UniCAD

• 100여 종 이상의 문서, 드면, 이미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출력 가능한 통합 뷰어 - UniVIEW

• 건축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건축설계 전용 CAD - UniARCH

• 기계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기계설계 전용 CAD - UniMECH



uniCAD 시스템을

구입하시면 매직[△]스테이션을 드립니다

UniCAD 2.0 출시 및 20,000사용자 확보 기념 사은 행사로서,

UniMECH 번들 또는 UniARCH 번들을 구입하시면

CAD전문가용 삼성매직스테이션을, 패키지를 5 세트 이상 구입하시면

실리콘그래픽사의 NT Workstation을 드립니다

새도약, 새출발 — 삼성SDS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한스1 UniMECH Bundle ₩ 2,585,000 (VAT 포함)

· UniMECH + UniVIEW 2D & 3D + 훈민정음 2000

UniARCH Bundle ₩ 2,585,000 (VAT 포함)

· UniARCH + UniVIEW 2D & 3D + 훈민정음 2000

· 한정 2,000 Copy에 한하여 사은품으로 매직스테이션과 함께 UNITEL 3개월 무료이용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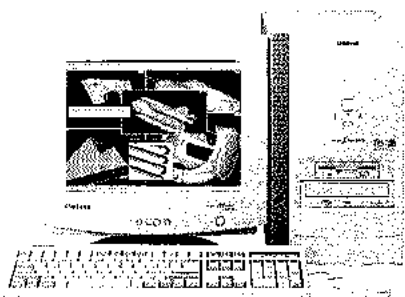
한스2 UniMECH 5 Copy 또는 UniARCH 5 Copy ₩ 9,950,000 (VAT 포함)

· 한정 500 Copy (100 Set)에 한하여 사은품으로 5Copy당 SGI NT Workstation 1대를 드립니다.

한스3 CAD Idea 공모전 ('99. 4. 15까지)

· 접수 : E-mail ID : unicad@samsung.co.kr · 유니텔 : uni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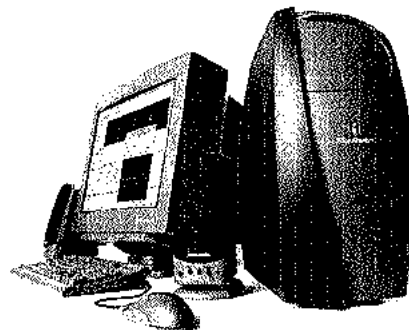
· UniCAD사용의 개선점, 불법 SW 근절 아이디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응모자 중 100명에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M2350-CAD

M2350-CAD 주요사양 (17" 모니터 포함)

- 350MHz 펜티엄 II 프로세서
- 512KB 캐쉬메모리(CPU내장형)
- 32배속 CD-ROM드라이브
- ISA 3D사운드
- 64MB SDRAM 메모리
- 3.2GB UltraDMA HDD
- PCI 그래픽카드(4MB)
- 56Kbps초고속 팩스모뎀
- S/W : Windows98, Norton Anti-Virus



NT Workstation

Silicon Graphics 320 비주얼 워크스테이션 주요사양 (17" 모니터 포함)

- Cobalt 그래픽 칩셋을 사용한 통합 비주얼 컴퓨팅(IVC) 아키텍처
- 최대 2개의 인텔 펜티엄 II 프로세서(350MHz)
- 10/100 이더넷, IEEE-1394, **USB, 전문가용 비디오 I/O기본 장착
-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NT 워크스테이션 4.0 운영체제
- 128MB SDRAM메모리 · 6.4GB HDD · Graphic Development Tool Kit

대리점 및 교육 전문점 모집

· 문의처 : (02)3429-2214 / 2817 · URL : <http://www.unicad.co.kr>

후원 : 한국기계설계제도협회, 한국CAD/CAM학회

협찬 : SAMSUNG 삼성전자, SiliconGraphics, UNITEL

서울/캐디우스/(02)961-7805
서울/강건메카/(02)508-0894
서울/SOS Eng./((02)2638-0685

서울/인티브레인/(02)548-4721
서울/디지털파워/(02)3775-0614
성남/서원컴네트/(0342)715-4366

수원/인용COM/(0331)221-7755
대전/해성/(042)533-5171
대구/월드카드컴/(053)566-0160

창원/경진정보/(0551)267-5558
창원/케이엔아이/(0551)260-5341
부산/포원정보/(051)301-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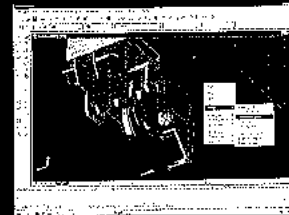
광주/강동시스템/(062)228-5900
광주/우진정보/(062)265-4300
전주/전주컴퓨터랜드/(065)271-5010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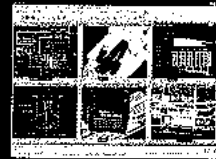
삼성SDS



AutoCAD 2000



▶ **Heads-up-Design** : 다중 설계 환경에서는 단일 세션에서 다중 도면을 열고 객체 및 연관 데이터를 다중 도면간으로 복사, 이동하고 속성 복제 기능, AutoCAD DesignCenter를 사용하여, 열린 도면이든 닫힌 도면이든 또는 지역 도면이든 원거리 도면이든 상관없이 어떤 도면에서도 구성요소를 현재 AutoCAD 도면으로 끌어놓을 수 있음. 신속 수치기입(QDIM)을 사용하여, 간단히 형상을 선택하여 원하는 수 만큼 자동으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음. 획득점, 임시 구성선 및 연장과 평행 객체스냅 모드가 포함되어 있는 AutoSnap과 PolarSnap의 객체 스냅 추적을 하나의 지능적 도구로 결합시킨 AutoTrack을 사용하여 객체를 기하적으로 작성하고 위치시킬 수 있음.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열고 편집 가능. 부분적 열기를 사용하여 도면과 외부참조에서 필요한 구간만을 동적으로 열람할 수 있음. 내부 편집을 사용하여, 마스터 도면 파일에서 블록이나 외부참조 파일 직접 편집 가능. 3D Orbit을 사용하여 렌더된 모형과 와이어프레임 모형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회전하고 Zoom할 수 있음. 가려진 와이어프레임과 Gouraud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영처리 모드에서 형상 편집 가능. 각 뷰포트마다 사용자 좌표계(UCS) 정의 가능. 새로운 뷰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정의 뷰를 복원하고 저장 가능. 향상된 접근성과 유용성, 객체 특성 윈도우 대화상자에서 모든 객체 특성을 수정하거나 볼 수 있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선 가중치, 플롯 유형 및 도면층 플롯/플롯 안함 특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화면 표시 영역을 2배 이상 확보하여 도면층 이름 표시 가능. 어디서나 오른쪽 클릭을 하여, 문맥 감지 단축 메뉴 표시 가능. 신속 선택 대화상자에서 지정된 특성들 가진 모든 객체를 검색하고 선택 가능. 도면층 특성을 사용하여 도면 파일에 설명적 정보를 포함시키고 검색 가능. dbConnect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리 가능. 분수 편집, 대문자화 및 행 간격을 포함하는 개선된 문자 지원을 통한 명료한 도면 작성. 최대 255문자까지 기호 이름 사용 가능. 재 설계된 치수 유형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치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화면에는 변경된 설정값이 자동으로 반영. 새로운 경계 헤치 대화상자에서 헤치를 미리 볼 수 있음. ▶ **확장된 도달 범위** : 열기, 저장 및 Applied 대화상자에 들어있는 간편한 탐색기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 새로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AutoCAD 객체에 하이퍼링크 부착 가능. 플롯할 수 있는 상태이며 안전한 DWF(drawing web format)도면을 인터넷으로 전송 가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출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DXF 파일 형식이 통합되었으며, AutoCAD 파일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교환이 지원됨으로써 DXF 파일을 읽을 경우, 올리는 시간이 짧아져, 효율적으로 작업 가능. ▶ **효율적인 출력** : 임의의 닫힌 객체로부터 시작형이 아닌 뷰포트를 정의하거나 잘라낼 수 있음. 여러 대화상자를 통해 객체나 도면층에 선 가중치 지정 가능. 단일 도면 내에 다중 도면공간 배치 가능. WYSIWYG인쇄 미리보기와 새로운 플로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음. 마법사와 템플릿을 사용하여 설계 플로팅/제치 시작 가능. AutoCAD 단위로 폭과 높이를 입력하여 OLE 객체의 축척 설정 가능. 사용자 정의 확장성 증대. ObjectDBX API를 사용하여 AutoCAD 형상과 모델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능적 설계 객체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ObjectARX API를 사용하여 모든 AutoCAD 2000 객체에 대해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작성 가능. Visual LISP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가능. AutoCAD 도면에서 다중 VBA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올리고 포함 가능. AutoCAD ActiveX Automation API의 완전하고 강력한 확장성을 통해 COM을 사용 사용자화 가능. ▶ **강력한 기술 구조** : 훨씬 빠르게 파일 열기와 저장, 블록 작성 및 객체 편집 작업 가능. ACIS 4.0 모델링 엔진으로 우수한 성능, 안정성, 정확성 모방기와 MDT 소프트웨어의 개선된 상호운용성 획득. AutoCAD 2000은 윈도우 98/95 및 윈도우 NT 4.0 로고와 호환되므로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배우는 시간을 줄여줌. 실시간 초점이동과 줌을 포함하여 인텔리아우스 좌표 입력 장치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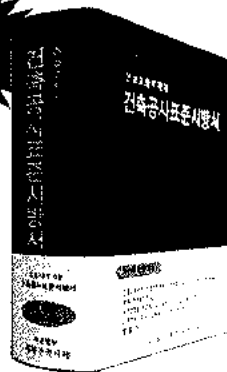
국내의 기술 진보,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정된 시방서와
최근 개정법령에 의해 개정된 건축제법규 마침내 출간!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학회는 건축분야의 발전에 맞춰 시방내용을 현실성 있게 전면개정판 발간!
- ◎ 구성방법을 표준화·코드화하여 보다 보기 편리하게 편성!
- ◎ 건축시공·감리·설계회사·건축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서!

전면개정
신판발행



대한건축학회 편
B5 양장본/1,674쪽/값 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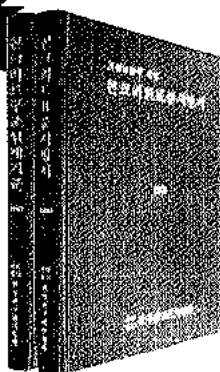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관련 시방서와 설계기준이 건축과 토목분야가 각각 상이하여 현장의 설계나 시공에 상충과 혼란문제가 초래되어 구조설계기준의 통일안 제정이 요구되어 온 바, 이를 위해 금번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은 한국콘크리트학회 주관하에 대한토목학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많은 저문 및 심의과정에서 토론과 검증을 거쳐 최종개정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면개정
신판발행



한국콘크리트학회 편
B5 양장본/각권 280쪽, 310쪽/
값 12,000원, 15,000원

要約
解説

建築諸法規

- ◎ 최근 건축관계 법규들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최신 개정판 발간!
- ◎ 최근 법개정에 따른 정부의 개정취지 수록 및 신법과 구법을 나란히 대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
- ◎ 건축법 외 126개의 각종 건축 관계법규 대폭 증보 수록!
- ◎ 건축법 및 주차장법·도시계획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을 상세하게 해설, 질의회신을 대폭 수록!

'99. 5.
개정판
발간에정



將東燦 編著
B5 양장본/2,020쪽/값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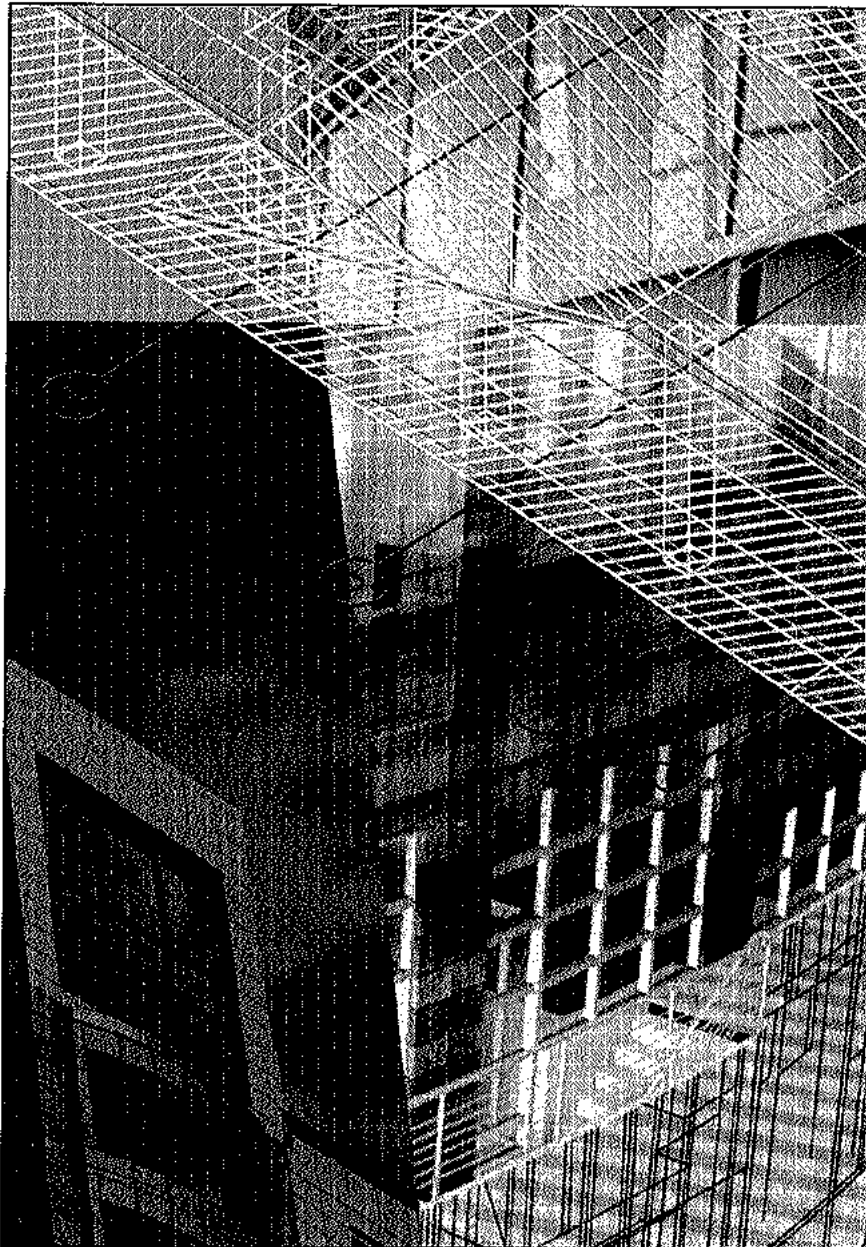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성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www.autodesk.co.kr

DESIGN
YOUR
WORLD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기본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AEC 산업을 위한 ObjectARX™ 기술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에 따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과 모델의 비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용통성 있는 뷰 시스템
-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설계 도면편집 S/W-

Autodesk CAD Overlay

종이도면의 수정에서 CAD 도면과의 병합까지 하나로 해결

비주얼라이제이션 S/W-

3D Studio VIZ R2

AutoCAD 도면과의 동적 연결 및 실시간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도구

AEC Professional Seminar

- 주제 : Architectural Desktop R2 발표
- 일시 : 1999. 5. 20(목) 오후 1시 ~ 5시 40분
- 장소 : COEX 4F 국제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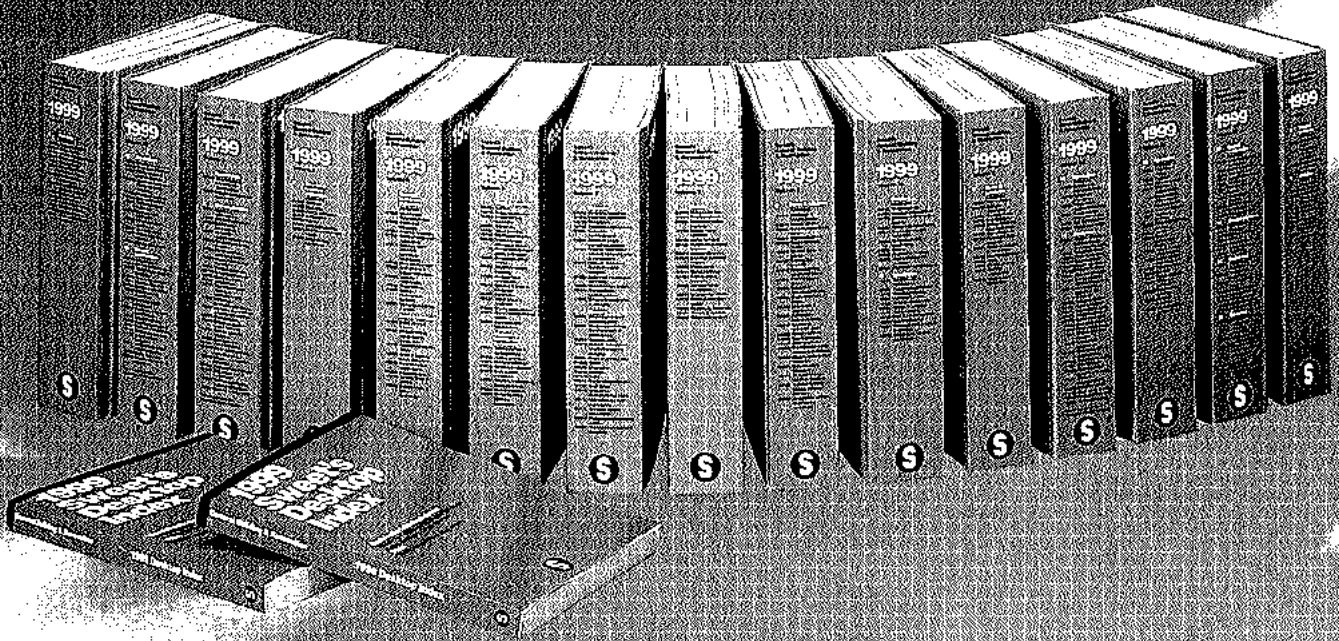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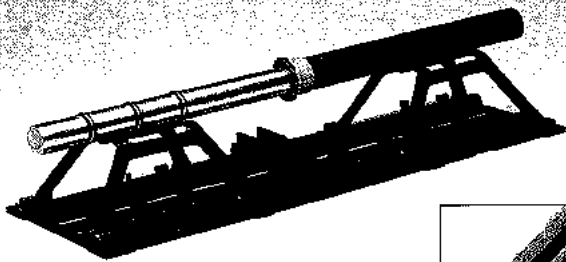
(주)간케드 584-6480, (주)리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엘(주) 515-3167

Architectural Desk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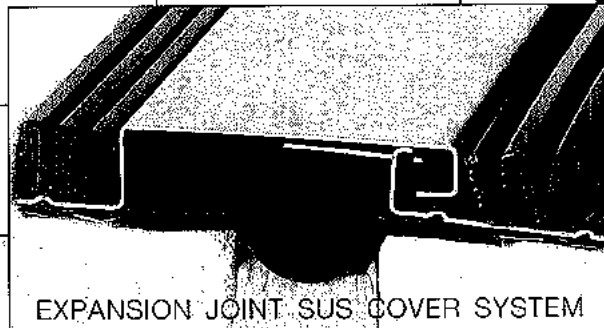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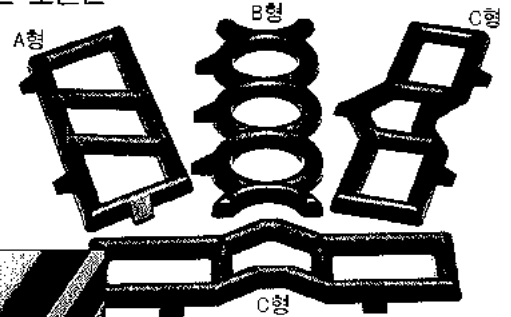
A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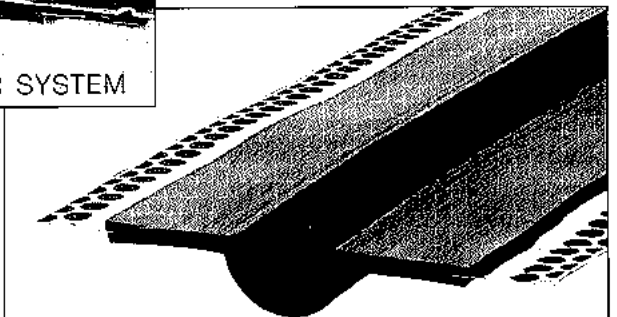
DOWEL BAR
CAPC · HAIR



램프 조면판



EXPANSION JOINT SUS COVER SYSTEM



EPDM 지수판

Sweet's Catalog File 한국대리점

타우상사 02-3272-2318, 2319

신축줄눈, EPDM지수판, DOWEL BAR · CAP · CHAIR, 램프 조면판, EXPANSION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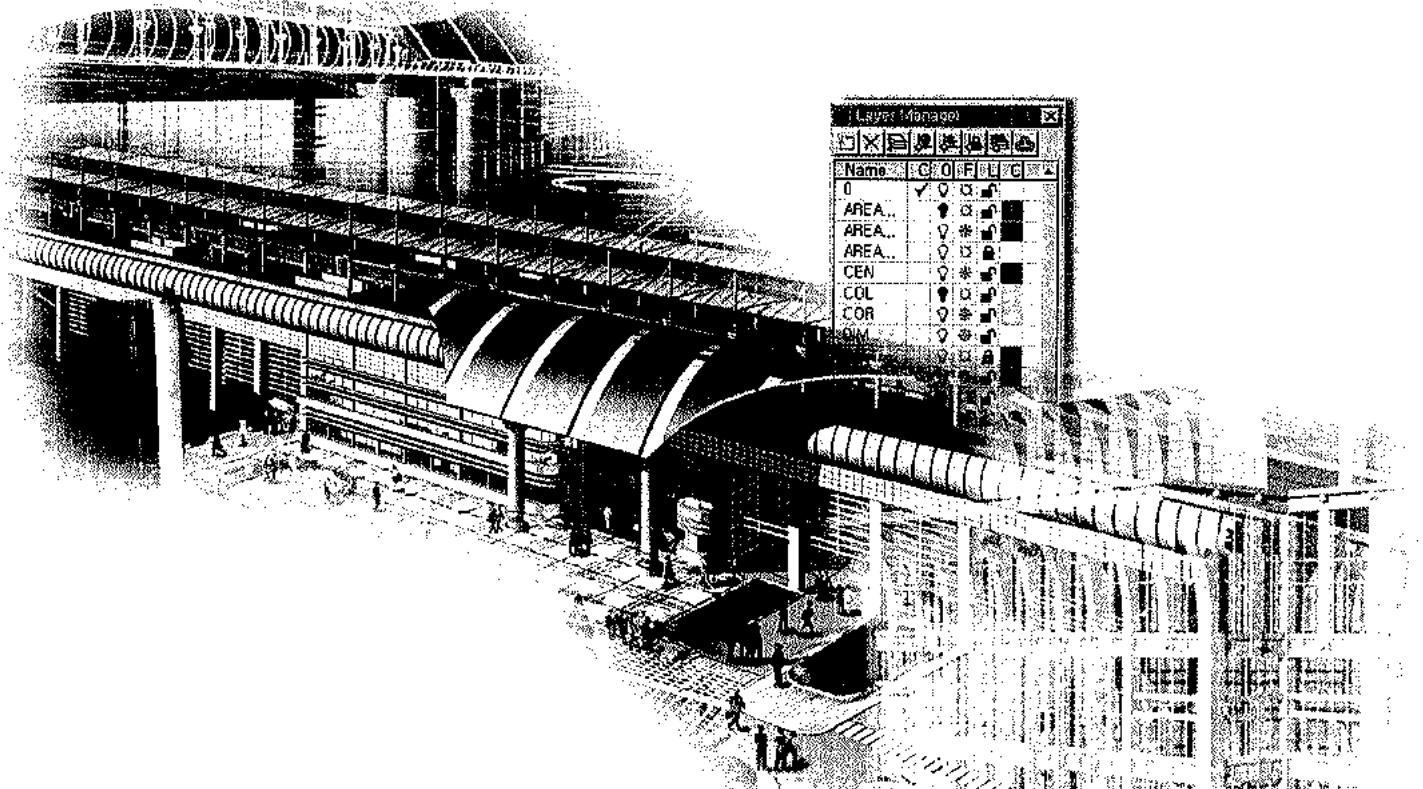
(주)타우 · 대일산업

TEL:02-3272-2311(代) ~ 3

DETAIL 디스켓 무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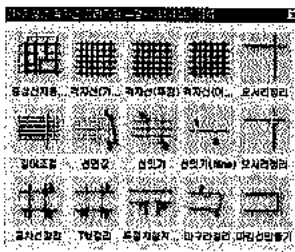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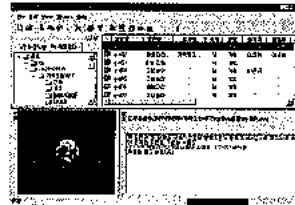
CADPOWER 21

RELEASE 9.0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과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새로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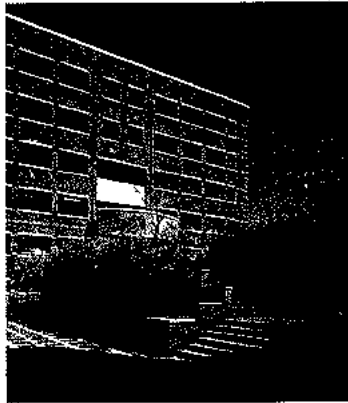
- 객체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지 작성
마감지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의 폰트도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갑곡빌딩 4F

Tel:584-6480 Fax:587-1803

http://www.ait.co.kr e-mail:info@gauncad.ait.co.kr



계명문화대학 예술관, 학생복지관(김무권 작)

49

47

53

113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준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진한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young@kira.or.kr
hkjin@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은 수요자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관영	14
작품리뷰 / 계명문화대학 예술관, 학생복지관		김무권	18
	대답: 도면보다 좋은 건축	현택수	26
	비평: 역사 인식에 근거한 주제 해석	정의용	33
건축비평	형식과 시학을 넘어서(II) - 승효상의 '수백당'	주대관	38
회원작품	성신여자대학교 2부관	오성훈	46
	고운 첨단과학 기술연구원	이영희	48
	토산재	박종석	50
	건설경영 연수원	최광수 · 강근웅	52
	범양상선 한바다 연수원	이충언 · 김광섭	54
	담양죽세공예단지	민형식 + 남상금	56
	강원도립대학 본관, 강의동, 기숙사	이각표 + 한광호	58
작품노트	자연을 닮은 또 하나의 자연	서용식	60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① 광주 · 나주 · 목포		편집대행/천득염	63
	광주, 전남의 전설을 통해 본 남도인의 인성과 지향	나경수	64
	광주건축의 이해와 오늘	천득염	68
	나주, 천년의 역사, 그리고 가능성	이효원	73
	목포 1세기의 역사와 근대건축	김지민	76
	목포의 도시, 건축 들여다 보기	유우상	82
	좌담: 호남 건축의 지역성		86
연구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의 변천에 관한 고찰	김기철	93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5)	김미상	98
기고	정직한 건축제도를 만들자	박순중	104
	시방서의 역할	김종복	106
건축마당	협회소식		107
	건축계소식		108
	현상설계		113
	해외잡지동향		118
	전시리뷰		124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3월분)		128
	회원현황		130

Column

The Regulation on Service and Maintenance for Architects is a Necessity for the Consumers	Lee Kwan-Young	14
---	----------------	----

Review / Art Center, Students's Hall of Keimyung College	Kim Mu-Kwon	18
Interview The Architecture: Outdo It's Drawing	Hyun Taek-Soo	26
Critique Interpretation Themes in Historical Cognition	Jeong Eui-Yong	33

Critique

Beyond Form and Poetics	Joo De-Kehn	38
-------------------------	-------------	----

Works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 Hall	Oh Seom-Hoon	46
KITI	Lee Young-Hee	48
Rosanjae	Park Jong-Suk	50
Construction Management Training Center	Choi Kwang-Soo & Kang Geun-Woong	52
Hanbada Training Center of Bumyang Co.	Lee Chung-Eon & Kim Kwang-Sub	54
District of Bamboo Craftworks in Damyang	Min Hyeon-Shik & Nam Sang-Geum	56
The Main Hall, Lecture and Dormitory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ege	Lee Gak-Pyo & Han Kwang-Ho	58

Design Note

A Second Nature	Seo Yong-Sik	60
-----------------	--------------	----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II: Kwangju - Naju - Mokpo	Cheon Deuk-Yeom	63
Personality and Aspiration of Kwangju, Cheonnam		
People in View of Legend	Na Kyung-Soo	64
The Past and Present of Architecture in Kwangju	Cheon Deuk-Yeom	68
Naju, the First Millennium, and Potentials	Lee Hyo-Won	73
History and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Last Century of Mokpo	Kim Ji-Min	76
A Glance into City and Architecture of Mokpo	Yoo Uoo-Sang	82
Conversati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Honam Architecture		86

Study

The History Regulation on Service and Maintenance of Architects	Kim Ki-Churl	93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5)	Kim Mi-Sang	98
--	-------------	----

Feature

For a Sincere System of Architecture	Park Soon-Jong	104
The Role of Specification Drawings	Kim Jong-Bok	106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7
Archi-net		108
Competition		113
Overseas Journal		118
Exhibition		124
Statistics		128
Members		13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7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가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8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3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9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송암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6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9)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6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6902 · 광명지역건축사회/(02)684-53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6)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994-4121 · 안산지역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지역건축사회/(0338)375-88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3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37)374-25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5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6)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55)681-47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2)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시지역건축사회/(068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82)852-7023 · 나주시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주시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5)451-1537~8
- 김천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31)56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0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3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8)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시지역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69)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883-48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2-2233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은 수요자를 위하여 필요하다

The Regulation on Service and Maintenance for Architects is a Necessity for the Consumers

이관영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이사

by Lee Kwan-Young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이제까지 사용하여오던 업무보수기준, 정확히 말해서 실비보수가산방식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결정하였다.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2년에, 일본에서는 1975년에 기존의 보수기준이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다. 당시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받은 보수기준은 공사비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소위 공사비요율방식(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이었고, 게다가 관련단체가 임의로 제정하여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다. 그 결과 후속조치로서 새롭게 제정된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중인 것과 비슷한 실비보수가산방식인 것이다. 우리도 1994년 현재의 실비보수가산방식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보수기준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사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응성·융통성이 부족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한 동기유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단점이 많아 이제는 사업자측의 업무보수 예측수단으로만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전말을 모른 채, 현재의 보수기준이 예전의 요율방식인줄로 알고 이의 폐기를 결정키로 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의 기준이 실비보수가산방식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폐기하는 것이라면 지체없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업무보수기준은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보수는 당연히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시장원리에 맡기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소위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게다가 불특정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와 같이 특정의 업무에 대한 개인의 기술력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그 보수액을 일반상품의 경우에서처럼 시장원리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건축주와 설계자 쌍방이 납득하기 쉬운 공통의 기준이 없다면 설계업무의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설계의 질을 확보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업무보수는 해당업무에 기대하였던 성

과에의 만족도와 업무진행상의 제조건에 따라 건축주의 협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된 설계업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과거의 요율방식에서는 설계자가 기술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공사비를 절감하였을 경우 오히려 업무보수가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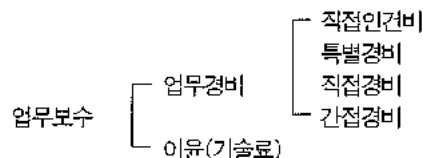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업무보수는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뢰자에게 업무의 내용과 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무소의 건전한 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액의 산정방식에 대응성,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수행도중 업무내용의 변경, 확대, 분할 등의 사태가 발생하 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산정방식의 근거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보수액에 관하여 건축주와 협의할 때 보수액의 산출근거가 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실제로 업무에 투입된 비용에다 적절한 이윤(또는 기술료)을 포함한 금액을 업무보수로서 청구하는, 소위 실비보수가산방식이 제일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 실제로도 많은 설계사무소가 이러한 방법으로 사무실마다의 독특한 실비보수방식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비보수가산방식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업무경비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2 또는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지 업무보수는 업무경비와 이윤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는데 전자는 대략 **실비(Cost)**에 해당하고, 후자는 순수한 보수(Fee)에 해당되어 이러한 산출방식을 **실비보수가산방식(Cost+Fee방식)**이라 부르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정액보수가산방식, 요율보수가산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원리는 대개 비슷하다. 여기에 의하여 산출된 업무보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자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비보수가산방식에 의한 산출액은 개개의 사무소마다 산출방식이 다양하고, 적용되는 급여와 노무인력, 간접비의 비율 등이 서로 다르므로 다양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사용하기 쉬운 평균치로 만든 것이 소위 업무보수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보수기준을 놔둔다고 해서, 그 보수금액이 곧바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없어진다고 해서 건축사가 설계비를 청구할 근거를 잃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불편한 것은 의뢰자 쪽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계비를 사전 예측할 수가 없게 되어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청구된 업무보수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할 기준을 잃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결정이후 대두된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의뢰자쪽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발주자가 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상설계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딱한 것은 기존의 보수기준이 독점금지법에

저축되어 폐지된 사실을, 마치 지금까지의 설계비가 건축사들의 담합에 의하여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독점이나 담합이니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비보수가산방식은 독점이나 담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가구성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과다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현재의 업무보수기준이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잠시 설명하고자 한다.

실비보수가산방식은 원칙적으로 사후정산방식이다. 즉 실제 업무가 완료된 후, 해당업무에 투입된 경비를 정산하고, 소정의 이윤을 가산하여 업무보수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계약시에 보수가액을 확정하고 싶은 것이 당사자인 쌍방 모두가 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요경비를 적절하게 예측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생겼다. 또 계약이 아니더라도 예산수립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상설계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표본조사와 합리적인 환산방법을 거쳐 마련된 것이 지금의 업무보수기준이다. 지면관계상 현재의 보수기준이 나오기까지의 복잡한 환산절차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나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비추어 업무소요인원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의 적용에 있어 기준제정 당시년도의 물가와 대비하여 정부고시 물가상승률에 의한 차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윤을 25%로 고정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방식자체를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객관적인 기준일 뿐 실제 계약금액의 결정은 의뢰자와의 조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구제도를 폐기함과 동시에 건설성에서 우리와 매우 흡사한 보수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실비보수가산방식(Cost+Fee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사무소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유의 간접비용률(G&A Rate: General and Administration Rate)을 적용함으로써 타사무소와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보수기준을 적용하든간에 업무보수는 설계자와 의뢰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즉 업무보수기준은 글자 그대로 기준일 뿐 그것이 바로 「요금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회원에게도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공사비율방식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바로 「요금표」로 삼아 설계계약을 해왔고, 하물며 이를 이기면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취급하는 등 독과점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1994년에 실비보수가산방식에 의한 새로운 보수기준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규정들은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수기준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요금표」로 생각하는 회원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자와 의뢰자 사이에 납득하기 쉬운 「업무보수산출의 기준」일 뿐 실제 계약금액은 당사자 쌍방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한 보수액에 의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업무내용외에도 특약사항 등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의뢰자로부터 확인받도록 하여 보수금액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보수기준은 설계자를 위하여 필요하기 보다 의뢰자(소비자)를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왕에 폐지결정을 내렸다면 이 기회에 기존 보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가 적절한 설계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새롭게 보완된 보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의 보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마련해서, 민·관의 업무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너무 성급하다.

김무권 / (주)현대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Mu-Kw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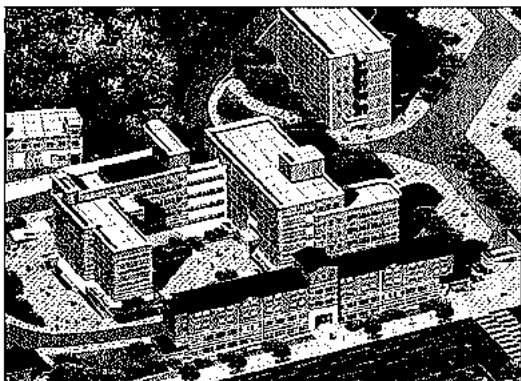
위치	대구시 달구시 선당동 700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용지
대지면적	196,654㎡

예술관

건축면적	2,455.68㎡
연면적	12,565.27㎡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용도	강의실, 실습실, 전시실
외부 마감	붉은벽돌, 드라이비트
설계담당	김수복, 박대규, 정준우
전기설계	우보전기
설비설계	동남설비

학생복지관

건축면적	969.48㎡
연면적	5,737.68㎡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용도	세탁룸, 식당, 민원실
외부 마감	붉은벽돌, 화강석, 유리블럭
설계담당	임정인, 박정배, 이승준
전기설계	우보전기
설비설계	동남설비



조감도

계명문화대학의 기본구상 원칙은 종합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기존대학의 조직개념에 의해서 독립된 기능만을 수용하는 단위들이 나열되는 것을 지양하여 전 캠퍼스를 일원화된 유기체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특히 성서캠퍼스의 기능들이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직업인 양성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건축 가용지는 충분한 절·성토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특히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는 4~5미터정도의 성토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캠퍼스의 경계를 따라 충분한 완충녹지를 형성하여 캠퍼스를 외부와 분리시키며, 복서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복서측 구릉의 기존 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되었다. 지형, 일조, 통풍 및 조망 등을 고려하여 남북측 및 그것과 직교하는 동서측이 캠퍼스의 주된 축이 되고, 교통수단 및 신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캠퍼스의 진입은 동측도로와 연결되는 성서택지개발 지구내의 도로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건물의 매스는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는 매스를 분리, 절단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되도록 하였고 내부 기능뿐만 아니라 독립된 외부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매스를 기본으로 하였다.

내부공간의 구성은 건물내부의 각 동선이 중첩되지 않게 설계되었고 각 건물의 평면형식은 중복도를 원칙으로 하고 실습실 등 소음의 발생우려가 높은 곳은 편복도를 원칙으로 했다.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위해 선근가든과 드라이에리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하공간의 분리성을 최소화하였다.

외장재는 대명동캠퍼스의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붉은 벽돌로 치장하였으며, 획일적인 형태조성을 피하기 위해 석재 등을 부수적인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구체적으로 수용하려는 학문들을 계열별로 분석하여 상호 복합되고 공유하는 성서캠퍼스의 공간조직 체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교육적인 환경으로 조성된 캠퍼스 공간들로서 교육,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정규과정 이외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공간조직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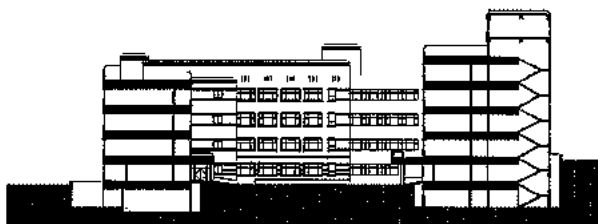
복지관 동측입면도

복지관 전경





예술관 북서측전경



예술관 횡단면도

북지관 중앙홀



The main principle of this project at Keimyung College initiates from the concept of synthesis. Instead of merely juxtaposing new facilities, performing independent functions, to the existing ones, we comprehended the overall Campus as an organic entity. The functions of the Campus should reflect its specialization in technical education.

Necessary civil engineering was applied to obtain the useful site condition, and the boundary of the Campus was supplied with sufficient buffer area to separate the School from its neighboring areas. The woods at the northwest hill was preserved to form a windscreen against the northwest wind. Taking into account the geography, lighting, ventilation and view, the main axes were set along the north-south and east-west. Main entry to the Campus, corresponding to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raffic signal systems, was made connecting the northern road which is linked to the circulation in Sungseo development area.

The volume of each buildings were not to exceed a certain scale, and when such size was required they were articulated into smaller pieces, which had, along with separate innerfunctions, their respective outdoor spaces.

The indoor spaces were arranged to secure a clear circulation system, and adopted the middle corridor system except the research laboratory areas where sound insulation was problematic. The underground spaces were improved and well-connected with the upper floors by the use of such architectural devices as sunken garden and dry area.

Exterior finishing was done by red bricks, matching the atmosphere of other existing buildings of the Campus. On the other hand, stones were also partially used to prevent formal monotony.

These intentions were ultimately aiming for the creation of a spatial structure that can simultaneously secure autonomy of and form mutual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divisions of the Campus. It should provide a vigorous ground not only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 but also other informal, everyday activities.

Location 700, Shindang-dong, Dalseo-gu, Taegu

Area Classification Green Preservation Area, Education Facility District

Site Area 196,654m²

Electrical Installations Woobo Electronics

Installations Design Dongnam Installations

Art Center

Building Area 2,445.68m²

Total Floor Area 12,565.27m²

Stories 5 Stories, 1 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Function Lecture Rooms, Laboratories, Exhibition Halls

Exterior Finishings Red Brick, Drivit

Design Kim Soo-bok, Park Dae-kyu, Chung Joon-woo

Students' Hall

Building Area 969.48m²

Total Floor Area 5,737.68m²

Stories 3 Stories, 2 Basement Flo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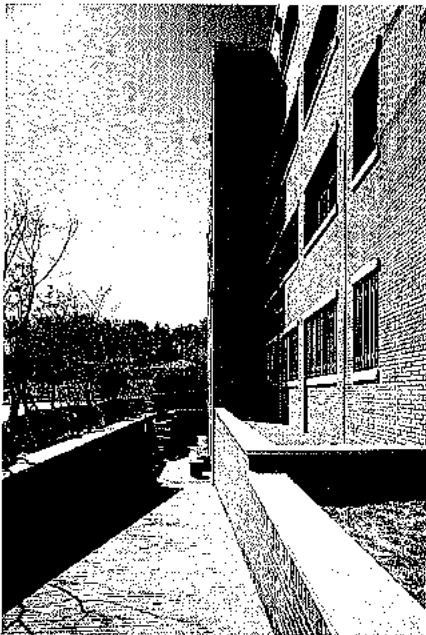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Function Circle Rooms, Cafeteria, Civil Affairs Office

Exterior Finishings Red Brick, Granite, Glass Block

Design Yim Jung-in, Park Jung-bae, Lee Sung-j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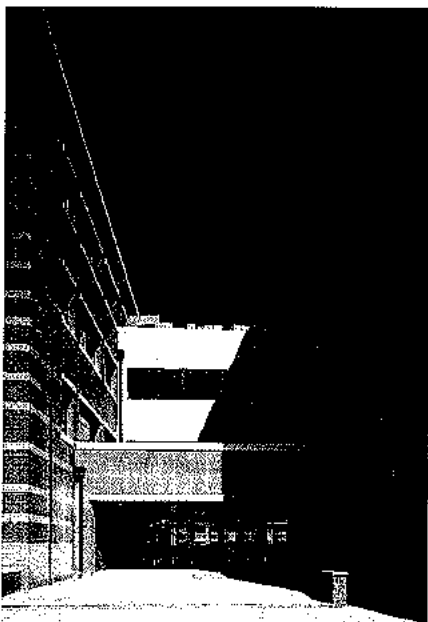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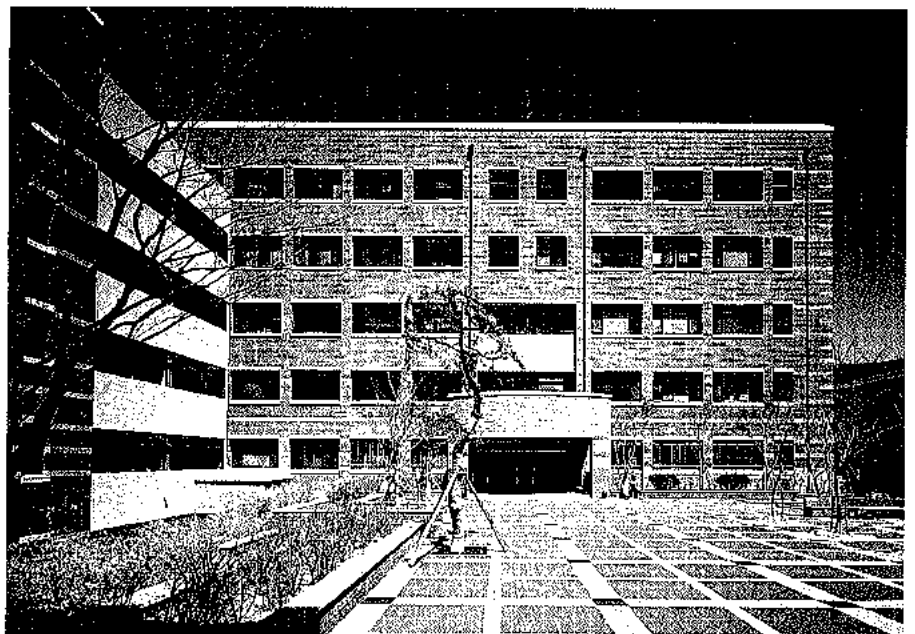
동측에서 본 예술관 남측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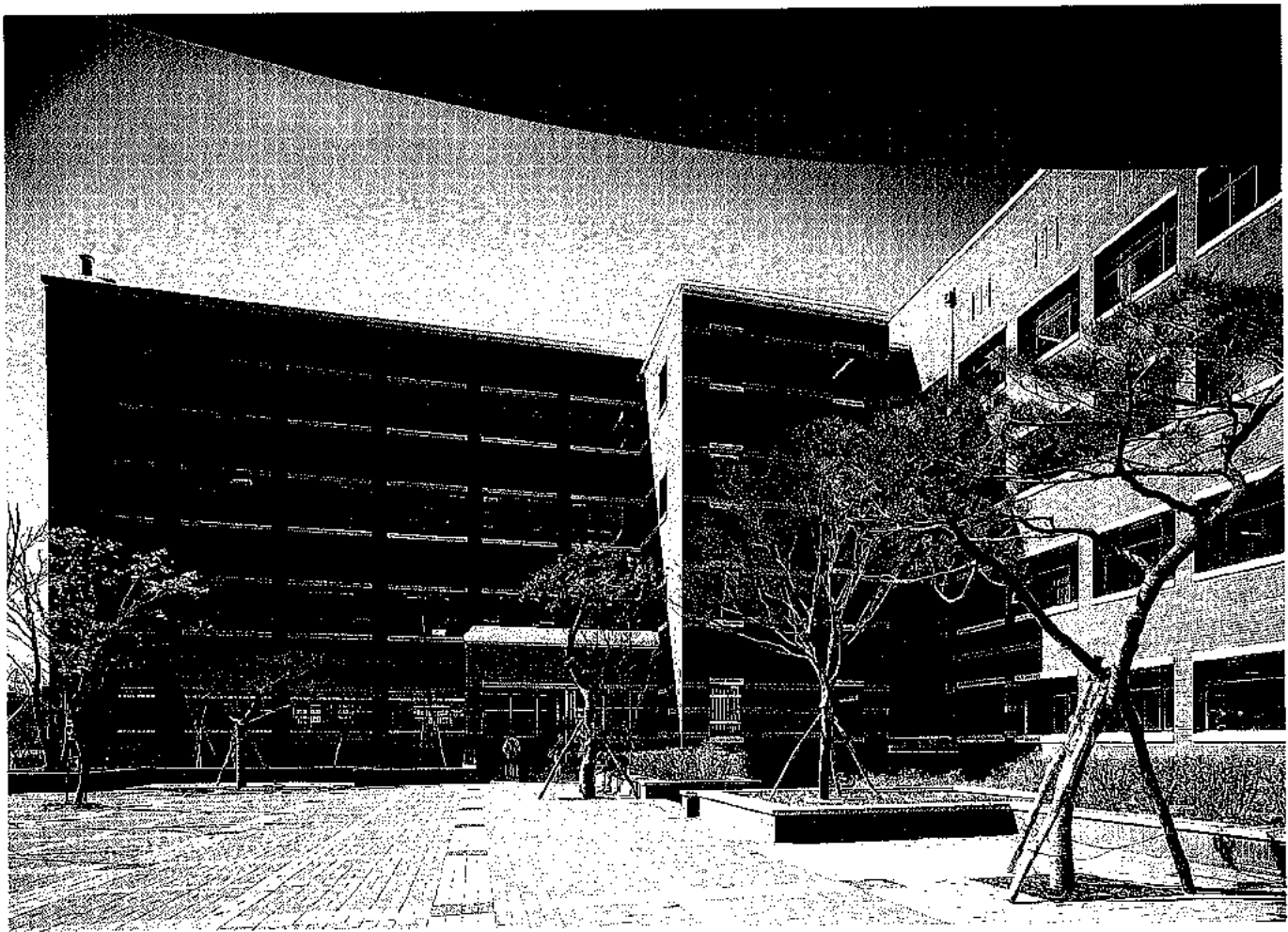
예술관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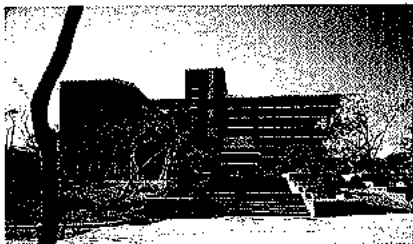
예술관 서측 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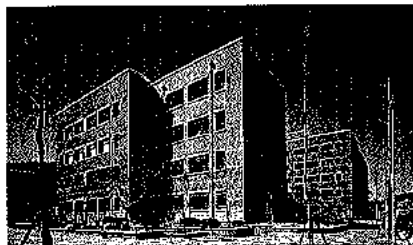
중경, 남측에서 본 예술관 입면



중정, 북쪽에서 본 예술관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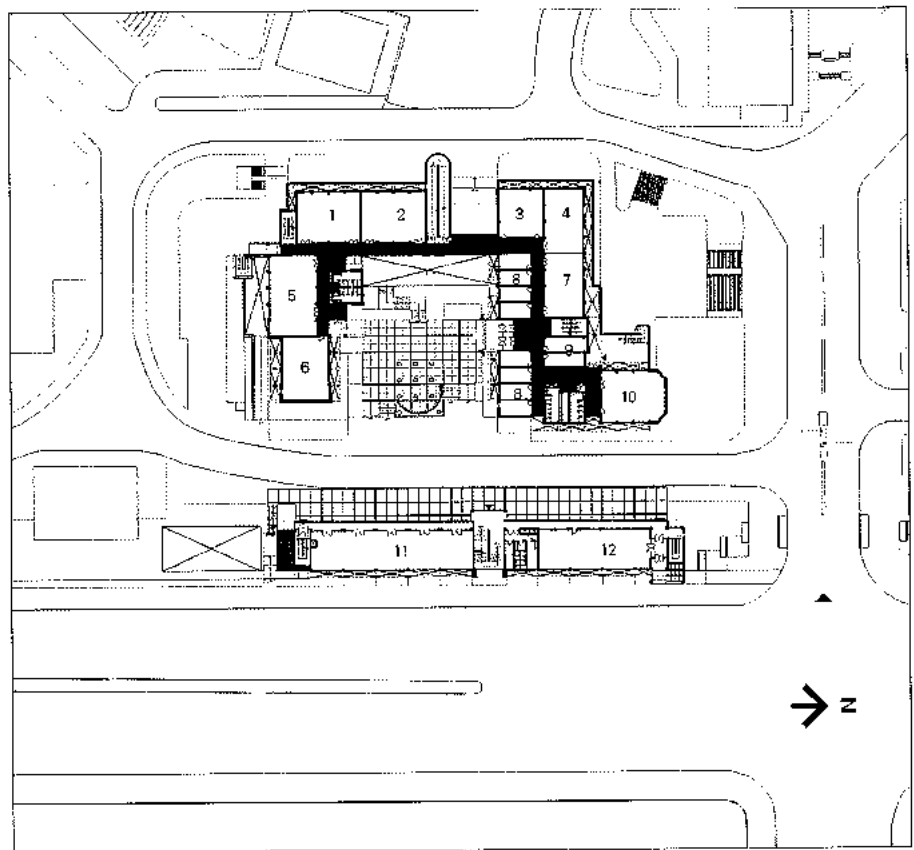
예술관 남서쪽 입면



예술관 남서쪽 입면



예술관 중정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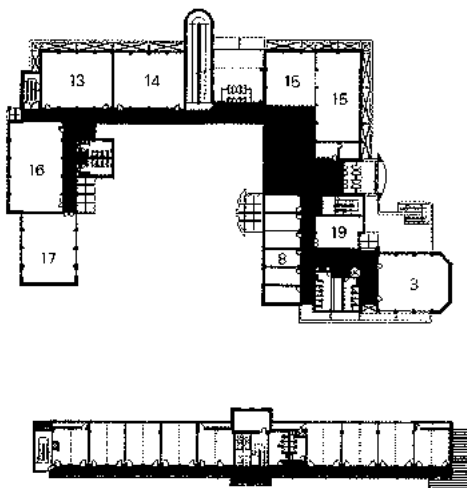


예술관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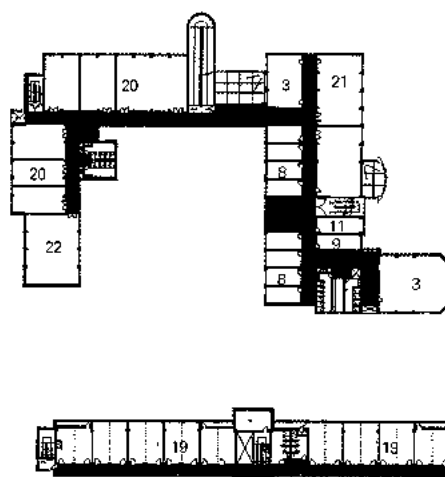


예술관 서독제단실

1. 금속공예실습실
2. 금속공예실
3. 강의실
4. 섬유제도실
5. 귀공금예실
6. 공업디자인실
7. 직조공예실
8. 교수연구실
9. 학파사무실
10. 일반 열람실
11. 휴게실
12. 인형실
13. 염색실기실
14. 직조디자인실
15. 전시실
16. 나염실습실
17. 실크 스크린실
18. 교수 휴게실
19. 씨름실
20. 암실
21. 일러스트레이션을실
22. C.G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중정 선르가든



도면보다 좋은 건축

The Architecture : Outdo It's Drawing

건축사 / 김무권(현대건축)

대담자 / 현택수(경일대 건축공학과 교수)

Kim Moo-Kwon & Hyun Taek-Soo

일시 / 99. 4. 13.(화) 18:00

장소 / 현대건축



대담장경(왼쪽: 김무권, 오른쪽: 현택수)

현택수 _____ 1999년 연초까지 건축가협회 대구지회장을 역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작품활동으로 건축적 업적을 더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계명문화대학 복지관 및 예술관 설계에 참여하신 배경과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무권 _____ 계명문화대학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전문대학으로서 30년이상 교육전통과 학사행정, 시설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명동 캠퍼스의 시설 용량이 한계에 달해 성서로 캠퍼스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명대학 캠퍼스 설계에 관여하다보니 같은 학교법인인 계명대학부지에서 일부 할애를 받아 조성하게 된 계명문화대학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20여년전 이 학교 초기에 건축과 학생들에게 강의한 인연이 있습니다.

현택수 _____ 대학시설이 상아탑적 견고성으로부터 이탈하여 사회로의 확대 의지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동안 건축설계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교육적 경륜에서 비롯한 남다른 의욕과 설계의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

김무권 _____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체가 자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현실생활의 피로함과 나태함에서 그래도 책을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젊음을 통한 의욕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해서는 아카데미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로 열려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울타리진 폐쇄성보다는 도시와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시설의 일원이 되어야겠지요. 마침 계명문화대학은 현실적 적응성을 높이는 학문성과 기술성을 추구하고 있고, 입지성도 주거지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점을 설계이념으로 적극화하려 했습니다.

현택수 _____ 새 캠퍼스의 초기 마스터 플랜과 현재의 조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개념의 전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는지요?

김무권 _____ 초기 마스터플랜은 5년전인 1994년에 작성되어 1차로 예술관부터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시 일부 교수님들의 캠퍼스 이전 반대의견 때문에 할 수 없이 건물의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은 연구강의동을 먼저 착공하게 되었고, 연구동이 우선으로 들어서면서 도



계명문화대학 마스터플랜 초기안



계명문화대학 마스터플랜 최종안

서관 건물위치를 차지하다보니 도서관이 본관을 밀어내게 되고, 본관은 학생회관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존 R.O.T.C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학생회관은 이번에 준공된 학생복지관과 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과의 학교부지 조정에서 초기 계획안의 운동장 부지 중 절반 가까이가 잘리게 되어 운동장 자리에 3호관이 계획되고, 운동장은 캠퍼스 북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황에 따른 변화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짢기도 했습니다만 건축은 제한과 규제의 상황을, 혹은 변화된 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냐의 문제이므로 새로이 발생한 요구조건이라 생각하고 피드백한 셈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름의 장점을 살리려 했고요.

현택수 _____ 복지관을 대로변에 면하게 배치시킨 점에서는 말씀하신 지역사회로의 개방성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적 배려가 있었겠습니다.

김무권 _____ 부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캠퍼스 대지면적이 5만 9천평 정도로 넓지 않은 처지에 그나마 절반 가량이 건물을 배치할 수 없는 급경사로 보존해야 할 수목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습지인 깊은 구릉지와 저수지로 되어 있고 대지의 동측은 대구의 4차 순화선인 50m 도로와 길게 접하여 있으며, 그 도로 동측은 성서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명대학의 폐수처리장과 학군단 건물이 캠퍼스 계획에 상당한 장애가 되어 건물을 도로에서 좀 더 이격하여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소음을 차단하면서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복지관을 가로변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수 _____ 복지관 주계단실 쪽이 건물규모에 비하여 넓은 것은 복지관 자체의 동선 처리뿐만 아니라 예술관의 통로 역할을 겸하는 까닭이겠지요. 이 경우 계명대학 복지관설계보다도 넓어졌는데 사후 검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무권 _____ 맞습니다. 계명대학 복지관을 하면서는 그냥 막연히 뒤쪽으로의 통행을 감안하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통행량이 의외로 많아서, 이번 계명문화대학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넓게 해서 완전히 한스판(7.2m)의 모듈로 처리하면서 마감자재도 외부공간의 마감재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택수 _____ 복지관 엔트런스로서의 출입성과 예술관 게이트로서의 전이성 때문에 공간을 외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공간의 외부화 기법으로 엔트런스 출에 바로 출입문을 두지 않고 건축물 내부통로에다 출입문을 두고, 외부마감재료를 그대로 내부로 끌어들여 연계시키는 방법을 취했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한가지 특이한 점은 가로쪽으로 출입회랑을 내지 않고, 1층에서는 뒷부분(예술동)에 빈 아케이드로 열주랑을 내고 2층에 와서야 실내부분 편복도를 가로쪽으로 두었는데, 어떤 계획에서 인지요?

김무권 _____ 이 건물은 보기에는 일자형 평면의 단순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오면 공간자체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술관의 중정을 바라본다든지, 아케이드형, 피로티형으로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형성하면서 후면에서 편의 공간으로 출입하는 차양역할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는 도로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로 쪽으로 편복도를 내고 각실은 오히려 캠퍼스쪽으로 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단순한 평면내에서 정반대의 동선이 복합되도록 고려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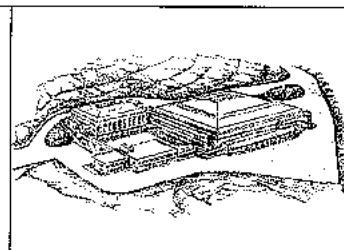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전체부지 형편상 폭이 얇은 데지라서 건물이 가로변으로 길게 면하게 되는 성격과 소음차단이라는 환경적인 측면, 이 두가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복도측 면에서 유리블록도 사용하였는데 유리블록이 처음성뿐만 아니라 길게 나타난 입면에서 개구부형태의 변화성을 가해주는 요소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경일대학교 도서관



경일대학교 본관



계명대학교 체육관 조감도

김무권 _____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소음은 차단되고 일부 환기구멍만 두어 광선은 들어오도록 하는 한편 특히 도로쪽에서 보이는 파사드의 변화효과를 생각했습니다.

현택수 _____ 복지관 1층의 기능은 학생복지관이지만 지역공공시설로서의 임대성격도 보입니다.

김무권 _____ 원래는 가운데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쪽은 금융기관, 한쪽은 판매장,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m의 넓은 도로이면서 도로의 반대편에도 상권이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특히 예술관쪽의 학생들을 위한 매장을 외부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매장은 뉴트, 즉 단위별로 나누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모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비체계를 할당서비스 시스템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현택수 _____ 예술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이 앉은 부지는 원래 상당한 경사지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법으로 구상하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무권 _____ 예술관 부지의 레벨차가 6.3m에 달하고, 요구되는 공간규모는 3천 8백평으로 할애된 부지에 비하여 큰 용적이므로 L자형으로 건물을 꺾다 보니 경사를 극복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정지하여 외내부공간에 1층씩 레벨차를 두고, 지하층화 되는 공간의 전면쪽은 선근가튼을 적극 활용하고 후면쪽은 트라이에리아와 화단으로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예술관 전후면에서 2개 층의 레벨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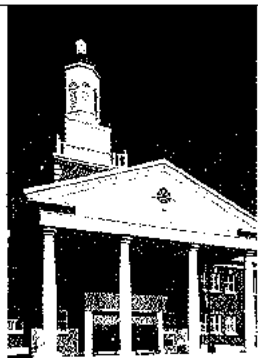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복지관과 예술관의 상호관계성이 블록플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번 작품의 경우 외부공간계획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계획기법과 내부공간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무권 _____ 도로변에 일자로 복지관을 배치함으로써 L자형의 예술관 가운데 부분이 자연적으로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중정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이 공간에 학생들의 휴식과 실습작품들의 옥외 전시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건축설계에서 건물만 설계하고 외부공간은 예산문제로 적당히 식재계획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번 경우 경사지에 배치하다 보니 건축계획과 외부공간계획이 개별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층의 주출입구 쪽에는 캠퍼스 중심과 접근이 용이하게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예술동으로 에워싸인 공간은 동측의 복지관과 더불어 L자형의 정적공간으로 연출하였고, 남측 부분의 선근과 연계된 외부공간은 실습시 물품반입과 옥외작업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각각의 외부공간에 특성을 부여하고 내부공간의 기능에 순응토록 하였습니다.

현택수 _____ 예술관에서 평면적 해결은 주로 공간성격으로 분할한 경우가 됩니까?

김무권 _____ 그렇습니다. 북쪽이 연구강의동으로 정적이면서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남쪽 공간은 실험실습동으로 소음도 나고 물도 사용하며 냄새도 나는 공간이어서 학교측에서는 원래 두 개 동으로 건축하여 브리지로 연결할 것을 원했지만 대지도 협소하고 해서 한 건물에서 두 공간을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기능의 중간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물품, 실험기기, 재료반입 등의 동선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강의동으로의 소음은 복지관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택수 _____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실험실습과 연구강의동 부분을 자연스럽게 매개역역설정을 통해서 구분한 해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내부의 성격들을 형태 표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기능적으로 명쾌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성이 신중성과 맞물릴 때 재미나 맛을 엮어내는 데는 제약의 틀이 될 수



계명대학교 본관



계명대학교 학생회관



계명문화대학 강의동

도 있겠는데, 표현성의 절제는 선생님의 성향입니까? 아니면
우스개소리로 길가집을 짓지말라는 이야기처럼, 학교도 공공
건물이니까, 여기 저기서의 강한 참섭성 때문입니까?

김무권_____저의 작품이 기능적인 면에 너
무 치우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능적으로 딱딱한 평
면보다 어리숙한 공간, 두리번거리다가 쉴 수 있는 곳, 전혀 허
실이 없는 구형체보다 조금은 낭비가 있는 듯 뻗어온 공간,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형태를 구성하고도 싶습니
다. 또 초기에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공공의 건물은 설계과정에서 저도 모르
게 공간이나 형태의 표현을 자제하게 되지요. 원래는 형태의
변화도 있고, 천숙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6개의 학과가
들어옴으로써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에서 공간형태가 결정되어갔으며, 지붕도 바꾸어보았으
는데 그려질 못했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벡타
이를 맨 모습이고, 현 교수님은 계절에 맞는 개나리색의 셔츠
에 머플러를 받쳐입으니 정말 멋있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정장차림보다는 이따금 케주얼 복장의 편안함과 수수함,
수도자와 같이 지나치게 금욕적인 생활보다는 술 한잔에 실수
도 가끔하고 흥도 낼 수 있는 인간적인 정감을 자아내는 건축
을 하고 싶지요.

현택수_____제가 드린 말씀은 선생님의 경
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에 충실한 면은 좋다고 생각합
니다. 단지 우리가 허허실실 가운데 노니는 맛이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게 하고, 그 자체가 수용의 쪽으로 작용하여 퍼지시스템
같이 범위를 가짐으로써 적용성을 크게 갖는 여유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실제로 건축주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댈
수가 있는 경우에, 이습우화의 '팔러기는 당나귀' 처럼 이도저
도 아닌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선생님은 건축주나 사용자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김무권_____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
기하는 프라이드라든지 건축외적인 핑계보다는 저 자신도 문제
가 있는게,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인
데, 시간과 노력에서 쉬운 쪽을 택하고, 한단계 더 발전시키면
될 텐데, 좋을 텐데 하면서도 아쉬움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택수_____방금 솔직하게 토로해주셔서
감사하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면이 부럽습니다. 경륜 가
운에서도 일일이 반성하고 새로우려는 정신이 오히려 저보다
젊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 질문하면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형
태표현이 그를 따르는 소위 근대 건축의 기능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까?

김무권_____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술관
건물은 계명문화대학 소속인데, 그래도 옆의 계명대학캠퍼스
건물보다는 형태표현이 자유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계명대학의
일을 하면서 프로토타입 성향의 강요도 많이 받았지만 조금은
그런 원형에서 탈피를 하였고, 한편으로는 기능에 형태가 따라
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마감이 붉은 벽돌로 한정되어 하이테크
같은 표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택수_____형태표현과 관련하여는 유행
성에 민감하지 않고 오랜 생명력을 지니는 조형성을 지속적으
로 추구해 오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면의 이미지네이션은 어
떤 점에 유의하셨는지요?

김무권_____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
레 형태도 절제 표현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건물은 패션이 아니
며 지나치게 뷔페식 건축언어를 찍어붙인 혼란스러운 형태도
곤란하겠습다. 보면 볼수록 은은한 감동을 주는 좋은 건축물
이 되어야지 알맞은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현택수_____답변 중에서 은은한 감동을 주



낙동강 송전기념관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대명빌라

는 좋은 건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표피적이고 장식적인 표현성에 치중하는 경우에는 유행에 찢기 마련이어서 이 결과 식상하게 되고 생명력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 시대성을 지녀야겠지만 시대성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오히려 건축의 장수성에는 역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에서 형태표현의 점잖음이라든가 실증나지않는 텍스처의 채택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권 _____ 금씨요, 그런 면으로 주위의 말을 많이 들곤 하면서도 제자신은 불만도 있는 편입니다. 근원은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같이 고전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접하면 언제나 좋은 것처럼 형태도 이런 고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택수 _____ 어떤 가치의 근원성에 대한 추구와 그런 본분에서부터 나오면 생명이 갈어진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표현에서 작품의 가치성은 우리 건축계 전체도 새겨야 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25년 상가이 사후에 상을 주는, 오랜 경과 후 인정을 받는다면 참작품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를 느낍니다. 표현 재료로는 붉은 벽돌을 즐겨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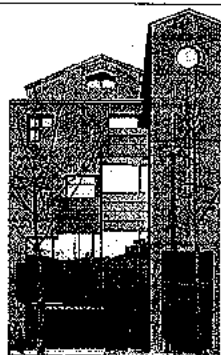
김무권 _____ 종교건축과 학교건축을 비교적 많이 다루다보니 붉은 벽돌을 주로 쓰는 경향입니다. 저는 건축자체가 가능하면 자연적인 재료이기를 원합니다. 구조적, 경제적인 면에서 자연 재료들은 그대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흙을 불로 구워 자연적인 질감과 색상을 낸 벽돌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건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고, 요사이 고령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저의 작업실 실내에도 붉은 벽돌로 마감하니 겨울에 건조한 날씨에도 가습기가 필요없고 여름 장마날씨에도 종이가 녹지않을 정도로 습도가 자동조절되는 기능을 하지요.

현택수 _____ 붉은 벽돌사용 경험을 축적한 가운데도 시저펠리나 랍프존슨의 작품 등을 연구하시는데, 펠리 보다는 훨씬 한국적으로 단아한 선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김무권 _____ 시저펠리의 작품자체보다는 붉은 벽돌로 표현된 건축, 재료의 사용기법 등에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붉은 벽돌의 디테일이라든지 형태에 대한 것은 책자라든지 여행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건축을 자연 속에서 메마르다고 하는데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메마름을 극복하고 따뜻한 건물로 만드는 그런 개념도 포함됩니다. 다행스럽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붉은 벽돌에 그냥 돌돌돌 돌린 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색상의 벽돌이 나오다보니까 다양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택수 _____ 이제 심문같은 질문에서 제 본심을 토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면보다 좋은 실물이 있기 어려운데 선생님의 경우는 실제 작품이 도면보다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비법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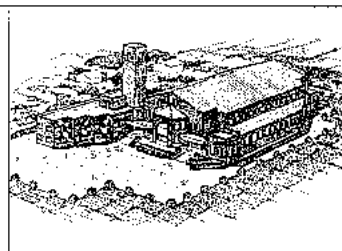
김무권 _____ 좋은 설계는 도면보다는 실제 건물이 더 좋아야지요. 부실공사를 이유로 대형건물은 설계자와 감리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한 일입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지방서를 중심으로 도면을 그리고 샵드로잉을 하면서 감리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샵드로잉의 능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계된 작품을 자식 키우듯, 농작물 돌보듯 정성과 애착으로 감리과정을 꾸러가야 하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저와 같이 일을 해본 현장소장들은 준공후에도 안부를 묻고 항상 저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군림하기보다는 내작품을 표현해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함으로써 의기투합하여 제작품의 구현을 위해 힘써주는 결과가 되지요.



현대건축 사옥



신원성당



신원성당 조감도

현택수 _____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축가 스스로 알뜰살뜰 살피는 정신이 필요하겠지만, 시공기술자들을 그냥 기술자로 대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주는 나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시는 군요.

김무권 _____ 그렇습니다. 아마 현장소장 대부분이 건설회사에서 10년이상 된 사람들일 터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작품을 잘 만들어달라는 욕심에서 인데 그렇게까지 호감을 가지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현택수 _____ 진정한 비결인데 오늘 밝히신 것 같습니다. 설계와 감리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실현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도면보다 실물이 좋은 건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걸로 이해됩니다. 한편 페이빙, 저도 평소에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장 미흡하고 아쉬운 점 하나로 외부공간 페이빙의 단조로움을 드는데, 복지관과 예술관이 에워싼 중정부분과 건물들 주변에서 바닥 포장의 세심한 배려와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이 시도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 경우입니까?

김무권 _____ 사실은 이 작업을 제가 계명대 학교의 중앙도서관, 본관, 학생회관 앞의 넓은 외부 코어플라자에다 5년전에 시도했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바닥에 무슨 벽돌을 까느냐고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로킹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하고 싶어서 설계당시에 허락을 받았으며, 레벨 차이가 심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이음하여 전체 공사비에 일괄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페이빙의 패턴은 설계과정에서 가미했고, 처음엔 간결하게 바닥에 보도벽돌을 깔려고 마음먹었지만, 작년부터 보도벽돌이 다양하게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저로서도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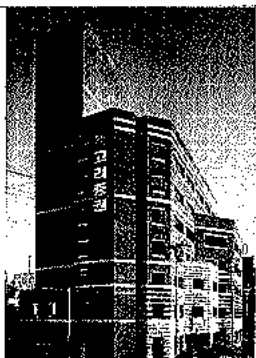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일부러 호주도 다녀오시고 일본의 경우도 많이 관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페이빙의 문제가 포장 자체로 끝나지 않고 외부공간의 분위기나 성격을 규명해 줌으로써, 건축의 외부와 내부가 이원화의 성격이 아니고 상호 교통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지 않았나 합니다.

김무권 _____ 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신사가지는 대부분 보도벽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페이빙 끝 화단 쪽의 턱은 돌을 두껍고 넓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친하게 식물과 풀과 접할 수 있는 의자역할로 처리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신사가지 경우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현택수 _____ 방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읽히는데, 화단 테두리의 낮은 경계벽, 폭넓은 두껍돌 등은 편안한 인체치수로 계획된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 드라이에리어 위에 철물망덮개를 꼭 달곤 하시는데, 그런 면들이 세밀한 배려의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선홍통을 벽속에 감추어 벽면과 일체화 시킨다든가...

김무권 _____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형태, 구상 등도 중요하지만 저는 디테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홍통같은 경우 노출시키면 동판이 약하므로 학생들이 벽에 기대어서 다치고 꾸그려뜨리게 됩니다. 또 환기를 위해서, 채광을 위해서 만든 드라이에리어는 깊기 마련입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아찔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는 저의 설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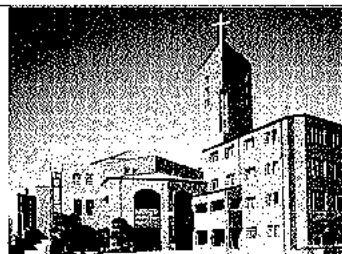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그러니까 대강 지나침없는, 끝까지 면밀한 계획성이 내포되었다는 반증이겠지요. 방금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건축을 평할 때 작품성 쪽에서는 배제되는



아주빌딩



영남대학교 제2도서관



월성성당

경우가 많은데, 건축작품성은 다른 장르 예술과는 달리 퍼스날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실제사용의 부분들이 작품성의 평가요소로 크게 인정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무권 _____ 얼마전에 수녀원엘 갔었습다. 일반적으로 수도원 계통 건축에서는 냉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주 쥔고 긴창문을 보고서, "이 창문이 잘못되었다" 하니 수녀님이 놀라면서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인 지라 여름철 덥고 냄새가 나지만 그런가 보다했습니다."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뉴트론 존 아래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실링의 80센티정도에서 공기가 나가는 환기의 원리를 무시하고, 위로 모든 창을 고정시키고 아래쪽에만 작은 프로젝트 창을 내어 놓아 바람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다. 벽돌의 백화현상의 경우도 제 설계에서는 벽돌자체의 습기 호흡차원에서 끝내도록 합니다. 즉 골조나 콘크리트 벽체에는 철저하게 방수처리하여 그 영향성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현택수 _____ 어떤 분들은 과연 기본성 자체가 무엇이나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자연현상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혹은 인간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걸 기본으로 보아야겠지요. 우리 건축가들의 책무의 하나로 항상 부르짖는 것이 인간환경의 고양이라는 측면인데, 인간환경을 오히려 인내하도록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물음 중에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무권 _____ 기능적인 문제는 김연호 선생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 2학년때부터 그 분하고 생활하면서 자영하기전까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능적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초기에는 반대급부로 자유스러운 작품도 많이 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기능적으로 좋으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좋은, 편리하면서 감동을 주는 공간을 연출하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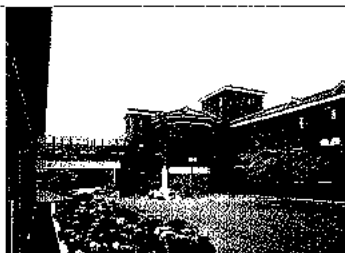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이번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감사할 일이나 아쉬운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김무권 _____ 신뢰를 갖고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겨주신 학교당국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조언해 주신 건축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측 감독관으로서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하신 유종호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학교설계보다 비교적 저의 안이 잘 반영된 일이 다행스러우나, 처음의 시공회사가 I.M.F로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마감공사시 여유없이 마무리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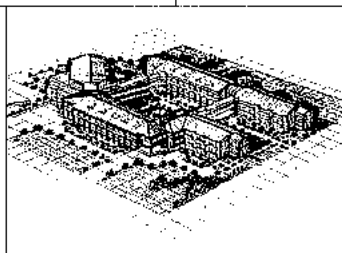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앞으로의 포부와 건축계를 위한 말씀으로 맺어주시지요.

김무권 _____ I.M.F로 특히 건축계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업기술의 일부인 건설적 측면이 부각되고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편승하여 도시와 건축이 비인간화되어 왔습다. 이제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이 시대문화의 총체로서 본연의 위상정립을 해야겠고, 우리 자신도 자긍심을 가지고 적은 일 하나하나에도 애착을 가지고 임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겠습다. 앞으로 포부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사랑으로 건축하는 일이며, 또 젊은 건축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다.

현택수 _____ 장시간 귀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성심시녀회 본원 수녀원



예수 성심시녀회 본원 수녀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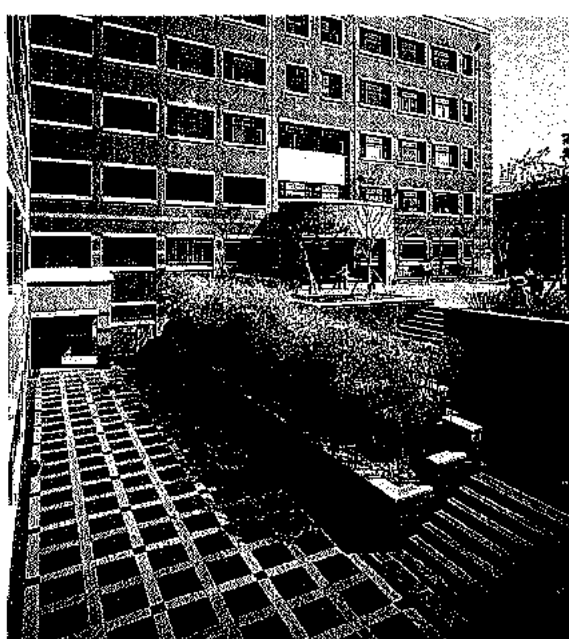
월급예입

역사 인식에 근거한 주제 해석

Interpretation of Themes in Historical Cognition

정의용/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Jeong Eui-Yong



3월 언젠가 「건축사」지 편집팀으로부터 건축가 김무권의 계명문화대학 예술관 및 복지관에 대한 평론을 요청받았다. 그 순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직 스스로의 건축 관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감히 타인의 작품을 논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년 이상의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입장에서...

한순간 망설여졌지만 나는 “그의 건축 삶을 가
끼에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추천하였다는 생각
이 들어” 우선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요청을 받아들인 후
3주 동안 한 문장도 작성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전
문지에서 평론의 체계와 경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평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평
론”과 평론가 본인의 주관적 입장을 내세운 또는 위대한 건축
가 입장을 대변하는 “선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평론
은 체계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으로써 사실을 찾기 위한
한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일 때 평론은 폭 넓
고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또한 독자를
위해 교육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평론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평론이 다른 작가를 공격하고, 어떤
관점이나 관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평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측면의 평론은 수사학적인 궤변, 비본
질적 또는 상대주의적인 기준의 사용 그리고 권위주의 등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대중성, 아방가르드(Avantgarde) 국가주
의 혹은 국제주의 양식과 같은 기준이 비본질적이라 할 수 있다.

비본질적 비평의 위험들은 공공연한 권위주의
와 규범적일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진보라는 기치아래
활동하고, 의심스러운 현대적 관점에 종속되어진 것으로 나타
날 때 그 사실을 알아내고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
나 실제로 있어 그것은 옛 것을 대체한 새로운 법칙의 경향을

납득시키려 할 뿐이다. 놀랍게도 마스(Marx)는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과거로부터 유래된 법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
므로 근원을 배제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의식적이거나 무
의식적인 궤변을 통한 평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진다.

본 평론의 성격은 원칙적이고 조사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근거로 작
품의 특징들과 구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작품의 사회/문화적, 경제/기술적, 환경/형식적
주제들과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에 보완·전개되고, 또는 선택적
으로 모순·약화되는 상호작용과 방법들에 대해 밝힐 것이다.

사회 / 문화적 주제의 해석

작품의 주제가 설정된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학의 성장과정에 내재된 지역성과 역사성
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과 캠퍼스를 관리하는 운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대학의 정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대구는 지리적 여건의 차이, 경제·정치적 측
면의 열세, 그리고 시민의 보수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타 도시
에 비해 늦은 1900년경이 되어서야 서구의 건축양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선교단체(천주교,
기독교)에 의한 종교시설과 선교시설(주거, 병원, 학교) 등이
건립되어졌다. 이전에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공공상업건축물
과 더불어 서구의 근대건축물은 대구지역 건축양식의 원형
(Prototype)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무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경북을 선교지역으
로 설정하고 1893년 베르드(W. M. Baird) 선교사가 대구를 방
문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1897년 아담스(J. E. Adams) 선교
사가 부임하여 최초의 기독교회인 제일교회를 건립하였다.

1898년 대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현 동산병원)을 세워 의료사업에 착수하였고, 1899년 동산동의 아산을 구입 선교사 주택을 세워 이를 중심으로 종교, 의료,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1955년에 이르러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창학이념아래 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현 계명대학교)이 대명동의 나즈막한 산아에 교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 등 북부의 전형적인 캠퍼스 계획을 참조하여 자연 친화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체계 그리고 건물과 외부공간이 적절하게 배분된 조화롭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립된 건축양식은 18세기에 미국에 전래된 영국의 조지안 양식(Georgian Style; 붉은 벽돌과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 파사드의 대칭적 구성, 주출입구 상부의 페디먼트 장식, 이오닉 기둥과 코니스 장식 등) 특징을 바탕으로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과 잉그로 요네스(Ingro Johnes)의 작품에서 유래되었다.

1962년 2월에 여자 초급대학(가정과, 보육과)이 대명동 캠퍼스 내에 병설되었다. 이후 대학은 고도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중 특히 디자인 계열을 중점 육성한 대학의 특성화를 시도하여 현재의 “계명문화대학”(캠퍼스 인구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면 교수 1백50명, 5계열 20개학과와 주간 3천5백명, 야간 2천명의 학생과 교육연구지원에 필요한 직원 80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성장은 교육제도의 개편,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교지와 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명동 캠퍼스는 대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 교지의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대학의 성장을 위해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지만 학내의 반대가 심각했다. 반대이유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디자인 계열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 대학의 특성상 캠퍼스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과 교류가 용이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전통이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 영향을 끼쳐 현실감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게 된 요인이라는 주장이었다.

건축가의 역할은 운영자와 사용자간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순과 대립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끊임없는 토의를 통해 유도해내는 것이다. 작가는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건축양식에 있어 역사인식을 통한 재해석과 인간 척도(Human Scale)가 적용된 캠퍼스 이미지 구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캠퍼스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 등의 설계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

경제 / 기술적 주제의 해석

기술적 측면의 주된 요소는 재료, 건물 시스템(기계, 전기, 전자), 구법(토목, 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은 재정, 유지관리, 에너지 등을 고려한다.

현대건축을 대변하는 슬로건으로 “형태는 재정으로 결정된다(Form Follows Finance)”를 들 수 있다. 이 사항은 건축가에게는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계명문화대학의 복지관, 예술관, 강의동의 평균 공사비는 교지 토목비와 조경비 기타 부대공사를 포함해서 건물평당 2백20만원(순수건축비 1백70만원)으로 시공되었다고 한다. 제한된 공사비내에 요구되어진 설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공사별 재정을 분배하고, 그 한계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재정의 분배를 살펴보면 대지의 평균 높이차 20m를 극복하고 캠퍼스 인프라(Infra-structure)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로체계의 수렴 그리고 건축면적과 주변의 외부공간 확보를 위한 대지의 정리작업에 있어 최소의 공사비를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대학이 요구하는 양식의 현대적 구현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내·외장 마감재로 대구 주변의 양질의 흙으로 생산된 다양한 색의 벽돌을 선택하고 있다.

빌딩시스템에 있어 건물별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복지관의 경우 실별 팩키지(냉/난방)형을 도입하고 각 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기용 샤프트를 지붕으로 돌출시키고 있다. 차후 공사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지하에 축열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예술관은 교수연구실에만 중앙집중에 의한 라디에타 방식을 도입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은 제외되어 있다. 교수연구실과 실험실에는 랜(Lan) 설치가 되어있는 정도다.

건축구조는 복지관의 경우 8mx7.2m R.C의 경제적 모듈을 채택하였으며, 예술관에서는 용도별(교수연구실 7.2mx3.6m, 강의실 9mx3.6m, 실험실 11.4~10.8mx3.6m)로 대학 시설에 전형적으로 사용되어온 모듈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대지의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지하의 채광과 환기의 목적으로 적재적소에 선큰 가든의 확보와 창과 패턴의 경우 환기가 원활한 양측 슬라이딩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 조사한 바와 같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도입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건축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 / 형식적 주제의 해석

환경적 관점에서는 지역 배경과 성향에 따른 맥락(Context)과 대지 성격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의 설정과 구성원리, 캠퍼스 이미지를 표현한 물리적 시설(건축물, 조경, 사인파 심볼) 등의 양식구현에 사용된 형태구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서 캠퍼스는 대구를 동서로 횡단하는 중심도로인 대서로를 통해 도심에서 10km떨어져 달성군 다사면

과 접하는 외곽지역으로 1991년 대구시는 서쪽의 관문인 이 지역을 생산 및 연구를 위한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지구로 설정하였다.

배후 시설의 확보를 위해 캠퍼스 동편에 성서에서 서재로 연결되는 50m폭의 4차 순환선을 개통하고, 도로 동측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인구 12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퍼스는 연구·과학 단지와 배후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산학 협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을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캠퍼스 지형은 동측의 주 접근로 50m에 접해 600m(남·북간)에 접해 있고, 도로에서 건축가능 지역까지 200m의 장방향이며, 평균 높이 차는 남북간 20m, 동서간 10m이다.

캠퍼스 조성에 있어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남북간으로 대학지원시설을 중심에 두고 양편에 교육시설을 둔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그리고 동서간에는 도로의 소음, 지역 사회와 연계성을 고려한 차폐지역의 설정과 레벨의 극복을 위해 두 영역으로 구분한 토지이용을 하고 있다. 캠퍼스 교문은 도로의 접근축과 산세의 지형축, 경사도 감안,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남측 1/3지점에 배치되어 있다.

1994년 7월에 작가가 제출한 캠퍼스 공간구성에서는 교문과 대학의 상징인 도서관을 동서간 중심축으로 하여 진입공간에서 목적공간 간에 다양한 공간을 설정하여 캠퍼스의 독특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사정으로 교문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1차로 강의동을 우선 시공하게 되어 전체적 이미지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2차 공사로 주 진입로의 남측 지역에 복지관과 예술관 블록(Block)을 조성하면서 작가가 초기에 설정한 공간개념을 도입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맥락(Context)에 따른 캠퍼스 가로공간의 구성과 도로로부터의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 진입도로의 가로변에 배치한 복지관은 주 계단실과 출입구를 중심 매스(Mass)로 하여 좌우 대칭으로 주 매스를 펼치고, 양 모서리 부분에 강조되는 부 출입구와 출입구를 보조 매스로 분절한 것은 접근 시각을 고려한 인간 척도(Human Scale)의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교문의 중앙 기둥의 매스는 비대해 보이지만 보조기둥과 복지관의 보조매스와 조화되어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리된 것 같다.

복지관 파사드(Facade)는 수평띠의 반복 패턴(Pattern), 개구부 크기와 인방 색의 변화로 상·하단 벽을 분리하고, 변형된 페디먼트(Pediment) 장식을 지붕에 도입한 전형적인 삼부론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은 가로공간에서 캠퍼스로 관통하는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용도에 따라 지하는 휴형, 1층은 회랑복

도, 2~3층은 편복도형을 채택하여 공적공간(Public Space)의 최소화를 유도한 실용적 구성이 되어 있다.

캠퍼스 주 진입도로는 동서간의 대지 협소로 80m 거리를 확보했으며, 진입부 남북간 도로와 교차하는 교동의 결절점(Node)과 강의동에서 45°로 꺾여 차후 개발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교차되는 결절점 사이의 남측에 예술관이 배치되어 있다.

캠퍼스 중심축의 열악한 상황과 동서 그리고 남북간의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관의 외부공간은 2층 진입의 주 출입구에 전정(Front Court), 1층 진입 출입구에 지하공간의 채광을 위한 선근 가든(Sunken Garden)의 설치, 학생들의 휴식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중정(Inner Court)과 후정(Rear Court)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문 진입시 솔리드(Solid)한 강의동 측면의 압박감은 복지관에서 받았던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있다. 교동의 결절점에서 바라본 예술관 매스는 거리에 비례한 폭과 높이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조금 높은 느낌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돌출된 중형 강의실 매스, 교수연구실 매스, 그리고 주 계단실 매스가 중첩되어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예술관 파사드의 전반적인 구성원리는 복지관과 유사하지만 건물 모서리 처리에 있어 화강석을 대치한 수평띠의 반복사용, 지붕 이미지를 간략화한 파라페트의 돌림띠, 2톤(Tone) 색으로 처리한 바닥의 격자형 패턴(Pattern), 독특한 포치(Porch)의 조형, 자연물 도입한 조경 등의 설계 어휘(Design Vocabulary)를 사용하여 표현된 중정에서 그 동안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은 용도에 따라 동 단위로 기능을 배분하고 있고, 이들간의 연결에서 중복도, 홀, 편복도의 평면 유형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작가는 각 영역별 주제에 대해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주제간에 대립과 모순이 발생될 때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 건축계 일각에서는 작가에 대해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지 않는 매너리즘(Mannerism)에 젖어 있다고 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추구는 새로운 형태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새로운 형태의 추구는 양식이 아닌 유행(Fashion)을 낳게 되는 것이다.

서구의 현대건축이 유입된 지 100년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피상적이며 단명한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열악한 건축환경에서 건축가 김두권은 25년의 건축 삶에서 붉은 벽돌과 철근콘크리트를 동반자로 하여 구법, 패턴, 질감, 빛과 색의 구성원리와 표현방법을 구축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완성된 건축양식을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The role of architectural criticism is double-faced: it can either be an attempt to comprehend a work of architecture through a systematic approach, in search of truth, and when successful, provide a broader view on the subject and have an educational function; it can also be rhetorical sophistry, applying relative or superfluous criteria, ultimately an unpleasant exercise of authoritarianism. The latter is sometimes hidden behind the mask of the avant-garde, seeking extreme advancement but whose agenda is yet to be proved, and this is when a counterattack becomes difficult.

Here, I propose a criticism based on a standard and analytic stance, taking in the themes of socio-cultural, economic/technical and environmental/formal aspects, and investigating their interrelations, conflicts and solutions.

The Interpretation of Socio - Cultural Theme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n which the subject of this work was based, we must look into its cultural and social aspects: the former concern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mman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ampus and historical value, and the latter related to the atmosphere formed under the mutual correspondence among the faculty, students and the administratorship.

Taegu, with its isolated geographical condition, underdeveloped politics and economics, and conservativeness of the citizens, was rather late in its acceptance of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which only occurred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when religious buildings were built for missionary end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se western influence, along with the public commercial buildings built by the Japanese, played a major role in establishing an architectural prototype of Taegu.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 was engaged in missionary work in the Kyungbuk province, and after W.M. Baird's initial arrival in 1893, the construction of Jaeil Church(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1897 and the ensuing year's Jaejungwon(the first westernized medical facility) followed. The purchase of Dongsan-dong's hills enabled them to establish a mission center, from which various religious, med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were executed.

In 1956, with the principle of "towards a country of truth, justice and love," Keimyung Christian School(now Keimyung College) was founded in the low hills of Daemyung-dong. The masterplan of the campus was designed with the environment friendly examples of North America as its model, creating a fair balance between nature and the buildings. The buildings of the Campus, on the other hand, was heavily inspired by the works of Christopher Wren and Inigo Jones, the 18th century American adaptation of English Georgian styles, which used red bricks and stone as major materials and featured such characteristics as symmetrical facade, pedimental ornaments above the main entrance, and the use of ionic columns or cornice decorations.

Following the addition of Women's University in 1962, the School ultimately developed into present day's Keimyung College of Cultures, specializing in design fields with 150 faculty members, 5500 students in 5

divisions and 20 department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College, however, was bound to meet the problems of limited area and facilities.

As it is placed in the center region of Taegu, expansion of area was out of the question. An alternative plan to move the College was proposed by the administrators, but faced heavy oppositions - the location at the city's center was the very reason the College could hold so much professors with actual field experiences, promote active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inspire realistic sense and creativity into the students.

The role of the architect, then, would be to mediate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users, and instigate productive discussions to yield effective solut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ubjects, a revaluation of architectural styles based on historical cognition, he set to design a campus with an image incorporating human scales and space anticipating future activities.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Technical Themes

The elements of technical aspects would be material, system(mechanical, electrical, electronic), and constructive methods(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while that of economics are finance, management and energy.

One of the slogan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form follows finance," meaning that economic consideration plays an important, if not absolute, part in the architect's decision-making. It is said that the average construction budget per square meter of Keimyung College's student's center, art center and lecture hall was limited to \$850, and it was left to the architect to distribute the means to each process to achieve his intended architectural goals. In the schemes of land use - solving the problem of the site's height difference which, at its maximum, reaches 20 meters, and optimizing the use of available infrastructure - circulation, and civil engineering, we can notice the architect's efforts to minimize the cost.

The finishing material of the buildings is brick of various colors, manufactured by the region's fine soil, which not only fulfills requirements of maintenance but succeeds in a modernized adaptation of the College's choice of style.

As for the building systems, seeking energy saving management, the student's center adopts package heating/cooling system, and the exhausting shafts of each room are exposed to the roof. The basement has a heat-reservation facility, which could function, after additional construction, as a storage of low-cost nighttime electricity.

The structure of reinforced concrete in the student's center used the economical module of 8.0m x 7.2m, whereas that of the art center comprises several modules according to the space's function - office for professors follow 7.2m x 3.6m, lecture rooms 9.0m x 3.6m, and research laboratories 11.4-10.8m x 3.6m. These use of typical modules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sts.

The underground spaces, a natural result of the site's mounding geography, are supplied with sunken gardens that promotes effective lighting and ventilation, which is also a deciding factor for the choice of

sliding windows. It can be concluded that,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numbers of needful technologies could not be applied, and hence the architect could not perform his full potentials.

The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 Formal Themes

Th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requires comprehension on the background of the region and its context, and the type of the site's conditions. Formal aspects, on the other hand, concerns the principles of formal constructions, the meanings implied on the spaces, and the styles of facilities (buildings, landscape, sign and symbols), collectively expressing the image of the Campus.

The Campus is located some 10km outside of the city's center, where this west region, in 1991, was selected as an exemplary productions and research district of frontier science and industry. With the given condition of the site, education supporting facility was placed on the north-south axis, surrounded by education facilities on its sides. This division in three parts was then added by buffering zones on the east and west, responding to the traffic noise of the passing road and the need for correspondence with neighboring communities. Differences in level has also affected this partitioning.

The entrance to the Campus, considering the axis of the approaching road and the geography of the site, the slope, and the adjacent districts, was placed on the southern one-third point.

In the proposed masterplan of the architect, dating back to July 1997, the main axis follows the east-west connecting the main gate and the library, creating various spaces between the entrance and the destination along its way, and delivers a unique image of the overall Campus. But in its realization, actual necessity prevailed against the architect's plan - primary construction of the lecture hall was conducted near the main gate, therefore changing the original scheme. It seems that the architect, in order to reconstruct his primary plans, rearranged the locations of the student's center and art center, placing them to the south of the approaching road in the second phase of the redevelopment.

The streets within the Campus wer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its context, and the student's center, sited right next to the approaching road, was placed parallel to the road to solve noise problems. The determinant mass of this building consists of the main staircase and the entrance, and has a symmetrical distribution. The articulation of the sub entrances' volumes at each edge is a good sign for considerations on human scale, comprising the approaching vision. The center column of the main gate seems to be a bit overscaled at first sight, but along with the supplementary pillars and attached volume of the welfare center, creates a natural atmosphere of an entering space.

The facade of the welfare center displays a typical trisection - the separation of upper and lower walls by repetitive pattern of horizontal strips, color, and openings of different sizes, and the ornament of transformed pediments on the roof. The composition of interior spaces follow a pragmatic principle, maximizing the area space with the proper choice on the

type of hallways.

The art center has an outdoor space compromising the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site's north and south, and complements the poor condition of the main axis - the front court is located at the main entrance of the second floor; a sunken garden to ameliorate the conditions of the basement is at the first floor's entrance; and inner and rear courts are reserved as rest area for the students.

The compressed tension at the main entry, created by the solid mass of the lecture hall, operates to diminish the image of the student's hall. When we view the latter building from the nodes of transportation, the aspect ratio makes it look a bit high, but the overall image, including the projected volumes of the lecture rooms, offices and the main stairway, seems to be harmonious.

The regulations on the facade of the art center is similar to that of the student's hall, save for the atrium space with repetitive horizontal lines replacing granites at the angles, the circulating band of the parapet simplifying the image of the roof, the latticed pattern of the floor, and design vocabulary incorporating landscape elements.

The indoor spaces are divided into sectors by each functions, and their connection is made through the skillful application of various types of hallways.

The architect exercises his own interpretations on the subjects of each area - conflicts or contradictions among these subjects are dealt with by hi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whole project.

Some critics of Taegu view his works as a form of mannerism, passive in seeking new styles. But a new style does not mean a new form - new forms only create fashion, not style. After 100 years of western influence, it is unfortunate that a portion of our architecture still goes after a passing fad. It is a relief, however, the Taegu has architect Kim Mu-kwon, who, through the 25 years in this harsh field, has achieved his own autonomous style, that of red bricks and concrete, forming a creative and expressionistic play between structure, pattern, texture, light and color.



형식과 시학을 넘어서(Ⅱ)*

Beyond Form and Poetics

송효상의 '수백당', 그 또다른 평가+이종건의 비평에 관한 소견

주대관 / ECTO건축사사무소

by Joo De-Kehn

이 집은 멀리 저수지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3개의 덩어리가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나열되어 있고 이 나누어진 개체들을 앞쪽에서는 철골 프레임과 목재 테라스가, 뒤쪽에서는 복도가 다시 묶어 주는 모양을 하고 있다. 철골프레임은 집 오른쪽의 거실의 창문 그리고 문방 쪽 담장으로 이어져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15m 깊이의 뒷산에는 경사지를 절개하면서 세워진 옹벽의 높아차이를 담장처럼 바꾸면서 뒷마당을 만들었다.

왼쪽(진입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개의 덩어리는 차례로 식당-침실-거실(작업실)-문방의 기능이고, 맨 끝의 문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덩어리는 2층 높이로 되어 있으나, 식당 상부는 비워져 있고 침실 2층의 작은 침실이 뒤로 물러서 자리한다. 또한 세 개의 덩어리에는 앞쪽으로 거의 같은 크기의 창이 나 있다. 이런 집이 원래 출입구의 개념이 없긴 하지만 복도가 시작되는 식당입구에 현관이 있고, 긴 복도의 끝을 나가면 문방이라는 게 있다. 별채형식의 이 방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은밀한 곳으로 방 앞에는 툇마루가 놓여 있고 오붓한 마당이 딸려 있다.

침실의 맞은편 뒷쪽에는 욕실이 두어져 뒷마당을 양분하고 있으며 거실과 복도사이에는 원기둥형의 화장실이 두어져서 자분을 뚫고 하늘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 원기둥과 거실 한쪽켠 사이에 벽을 따라 벽에서 내밀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목제계단이 놓여져 있어 단을 오를 때마다 잘마른 나무의 공명거림이 직육면체의 허공을 울린다. 이층에 올라 작은 방으로 가는 통로는 한 데어서 문을 열자마자 바람이 스쳐간다. 작은 방은 이 집의 또 하나의 끝이다. U자로 열린 벽 사이로 원경이 아름답다. 모든 벽은 흰색으로 뽀얗게 칠해져 있고 내부도 목재를 쓰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흰색으로 되어있다.



(그림 1)

* Plus 9610 민현석의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 관한 필자의 비평 '형식과 시학을 넘어서(Ⅰ)'에 이은 두번째 건축비평이다.

15x30m 윤곽

언뜻 보기에 과장되어 보이는 덩어리들은 평면적으로는 15mx30m의 엄격한 윤곽 속에 갇혀 있다. 집 앞에 널찍한 마당을 두었으나 진입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통 말하는 담장이란 게 이 집에는 없다. 집은, 그리고 집의 거주자는 바로 이 윤곽에서 외부와 만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인공적인 장치들을 배제하고 있다. 즉 집 앞마당조차도 외부인 것이다. 설계자는 이 15mx30m 안에서만 건축 행위를 하였다.

“설계할 때, 15mx30m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안으로 꼭 끼지는 제2의 대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사 9903 인터뷰 중에서—

설계자는 이 윤곽을 제2의 대지(경계선)로 생각했던 듯 싶다. 설계의 진화과정으로 설계자가 제시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다이어그램에서 이 윤곽은 가로로 7분할 세로로 3분할되어 있다(〈그림1〉 참조). 그리고 이 3분할된 가운데 부분이 실내이며 그 위와 아랫부분은 외부이어서 마치 마당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윤곽은 철골 프레임과 웅벽으로 강조되어 있지만 대지범위는 전혀 표시조차 없다. 더구나 철골 프레임의 안쪽에 수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거주자가 밤에도 그 윤곽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윤곽은 이 집이 자연과 만나는 형식, 이 집의 건축가가 세계와 만나는 형식, 건축가가 거주자에게 요구하는 거주하기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건축가는 건축가가 상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하고, 거주자로 하여금 그 경계의 언저리에서 자연과 만나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가는 왜 그러한 형식을 선택했으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단서는 철골 격자틀에 있다.

“그게(철골프레임) 이 집에선 중요한데, 15mx 30m 의 프레임을 확실히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외부경관에 틀을 부여하는 것이면서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경관하고 외부에 있는 경관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확연히 나타내 주는 아주 유효한 도구입니다. 그럼으로써 마루가 달려 있는 스페이스의 경계가 설정됩니다.” —건축사 9903 인터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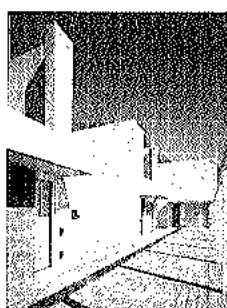
철골프레임이 윤곽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목제 테라스 위를 들여다보면(〈사진2〉 참조) 의외로 이 철골프레임이 담장으로 막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설계자는 “수출당이 도시주택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면 이 집은 시골주택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 집은 설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담을 둘러치고 그 내부에 숨구멍을 마련하는 도시주택의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그런 의미에서 이 집은 수출당의 연장선에 있다) 역설적으로 철골프레임의 역할이 입증된다.

그러나 방법론이 유사하다고 해서 세부가 다를 필요는 없다. 전망 좋은 자연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담장이 철골프레임이 된 것일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15mx30m의 윤곽에서 전면을 향하여 자유롭게 열린 유일한 부분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그곳을 담으면 전체가 닫히기 때문에 테라스의 경계가 되는 철골프레임이 집 전체의 경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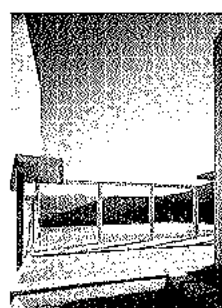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철골프레임은 자연으로부터 이 집의 윤곽을 확실히 끊어서 보여주기 위한 보충적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경관에 틀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실제로 내부 쪽에서 보면 이 프레임은 외부경관을 투시도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적극적인 잣대임이 확인된다.(〈사진3〉 참조) 그리고 이 틀은 두께가 없는 막과도 같으며 이 막은



〈사진 1〉



〈사진 2〉



〈사진 3〉

땅속 깊은 곳에서 하늘 높은 곳까지 쳐져 있고 그 힘은 의외로 강력하다. 내부는 내부대로 외부는 외부대로 이 막을 지나 연장 되지 못한다. 이 막을 통과하면서 외부경관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된다. 외부에 있는 경관이 자연이라면 내부로 끌어들이는 경관은 액자 속에 갇힌 그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의도한 효과는 훌륭히 달성된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면의 좌우가 뒤집혀져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일반적인 주거에서는 손님의 영역일수록 바깥쪽에 위치하고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침실 등은 안쪽에 위치하는 법인데, 이 집에서는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구 쪽에서부터 손님영역-거실/식당-침실 순으로 될 것이 식당-침실-거실-문방 순으로 배열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설계자는 손님에게 이 집을 천천히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손님을 문방까지 안내하는 일은 비교적 개방적인 집의 전면을 다 보여주고 집의 안쪽까지 끌어들이는 일이 되며, 손님은 집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철골프레임은 집 전체의 윤곽을 ‘한눈에’ 알려 주면서 이 집의 가장 깊은 그곳까지 손님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됨과 동시에 가로방향의 반목과 거실당어리와 문방 앞 담장에서의 막힘의 변화로 묘한 시각적 유도를 일으키고 있다(aaaaaaaababb).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그 허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윤곽의 전면을 매우 강하게 묶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방쪽 개구부 향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사진4 참조).

또한 철골프레임은 그 밑의 목재 데크와 힘을 합해서 식당과 침실이라고 하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내는 포토라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주의 깊게 살펴보면 철골프레임 하부의 목재 데크는 바닥에서 충분히 들어올려져서 늘 그림자가 지게 되고 그러한 금지를 더욱 강조해줌으로써 ‘열린’ 프라이버시를 보상해주는 장치가 되고 있다(사진5 참조). 이 때 목재

데크는 철골프레임이라는 경계와 건물 사이를 벌려주는 공간적 깊이를 실행하는 장치로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는 관찰자와 대상간의 주관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단면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필자가 이 철골프레임과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윤곽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본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들이 설계자가 설정한 집과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윤곽과 프레임의 건축적 기능을 보지 못하면 건물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이종건씨가 이 집에 대한 비평에서 논리전개의 중요한 전제로 삼고 있는 ‘탐욕’의 문제, 단순히 이 건물의 벌어진 모양만을 가지고 이 집을 “자연에 대한 그 끌어오르는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자.

“길다란 복도에 방들이 주머니처럼 달아 붙어 있다. 나 아닌 세계의 신체를 한껏 껴안아 그 부딪힘의 감각에 전신을 온통 노출하고 싶은 듯, 덩어리를 꼬치에 끼인 채 산등성이에 산적처럼 놓여 있다... 사자를 있는 데까지 벌려 드디어 해갈하고 있는 듯도 하다.” -건축사 9903 비평 중에서-

이 말은 설계자가 이 작은 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부지전체, 나아가서 자연전체를 장악하고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양귀를 늘어놓고 적절하게 서로를 이어주는 기법 - 부가적 설계기법을 썼다는 말이다. 그러한 비판의 어느 정도까지는 설계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탐욕”으로까지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그 기법의 부가적임이나 분할적임에 관계없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양식만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형식주의적



(사진 4)



(사진 5)



(사진 6)

인 오해의 바탕에서 윤곽과 프레임의 건축적 기능을 간과하는 오류가 발견된다. 그러한 기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탐욕스러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벌어져 있음' 자체가 아니라 '왜 벌렸는가'이고 '왜 분할하였는가'라는 점이다.

순백의 벽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윤곽이 곧 말 그대로의 담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식당등과 침실등의 이층부분 전면의 벽을 개방한 방식과 그것이 주는 효과는 설계자가 네 개의 기능적인 덩어리를 매스적인 덩어리가 아닌 네 개의 벽으로 구축된 공간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집이 이층으로 바뀌면서 건물이 높아져서 수직방향의 문제가 시각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자, 헛벽을 뚫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설계자는 뚫어내기의 방법과 그 효과를 고민하고, 벽의 위쪽 끝을 남겨 두지 않고 잘라내어 벽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네 개의 덩어리는 각각 독립된 완성이 되길 원했겠지만 윤곽으로부터의 사고가 우선인 설계자는 이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허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초기에는 "땀에 완전히 밀착되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즉 땀의 힘을 빌어 이 덩어리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층이 되면서 덩어리들의 형태적 힘이 커지자 "애초 집을 지표에 달라붙게 만든다"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벽들이 매우 솔직하다. 포털킨 시티의 그것과는 반대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헛벽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적 덩어리를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덩어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노력은 어찌되었던지 성공적이다. 앞마당에서의 시각적인 감상이 중요한 이 집에서 헛벽을 심플리 매스적으로 처리했다면 시각적으로도 매우 상투적인 느낌이 들었겠지만, 벽 너머 공간이 건물 쪽으로만 귀속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덩어리가 뚫뚫 뭉쳐 있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어색하게 보였을 것이다. 매스적 이념에서 자유로운 벽은 이제, 직교체계로 꺾여있는 수로에 색깔 있는 물을 보낼 때처럼 이어지는 자신의 두껍선을 따라 관찰자의 시선을 끌고 간다. 그리고 설계자가 그어놓은 윤곽의 분할선들을 모두 채운다.

단위 공간을 구축하는 한정된 역할을 넘어서 전체적인 성격과 관계 맺도록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벽들은 설계자가 스스로 정한 한계 내에서 위치적인 위계와 관계없

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마치 르 꼬르뷔제의 원기둥이나 미스 반 데 로에의 십자가등과도 같이, 그들은 단순히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목소리를 빼앗긴 인어공주처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속으로만 말한다. 이 벽들이 목소리를 내게되면 윤곽은 담장이 되어야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윤곽이라는 것이 사실 가상의 선이 아닌가. 그리고 그 윤곽의 밖에는 그토록 그리던 바로 그 자연이 있지 아니한가.

집의 윤곽이 문자 그대로의 담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건물이 공공 뭉쳐서 자연과 대적하기 보다는 느슨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자연과의 경계가 되는 윤곽에서 자연을 만나는 것이다(벽의 느슨함은 덩어리간의 연결에서도 확인된다. 복도의 창 상단을 보면 두껍선 바로 한 뼘 아래 높이까지 애써 창을 올려서 연결부분을 가늘게 처리하고자 했음이 확인된다. 결과는 너무 가늘어서 의도한 바와는 달리 오히려 벽의 매스 감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 천장선까지는 고사하고 슬래브 밑선까지 내리는 것도 너무 두터울 것이지만 40cm 정도는 했어야 적정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6〉 참조). 액션영화에서 화면을 가득 메우고 격투를 벌이고 있는 엑스트라들처럼 벽들이 그곳에 서있는 것은 격투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사건의 전개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글쓰기 소설의 문장들처럼 그냥 그곳에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글의 문맥은 지리하게 반복된 글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집에서 벽들은 특별한 표정이나 성격연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이 집에는 이렇듯 요소들이 단독으로 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도 스토리에 익숙한 독자가 원하는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아무런 장식도 없다.

그래서 이 집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개가 줄눈 하나 없는 흰 벽을 낯설어 한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어떤 질감조차도 느끼기 어려운 이 흰색의 벽들에 압도당한다. 진부한 질감에 익숙한 이들에게 그것은 충격이 되기에 충분하다. 깨끗한 흰색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것은 너무 화려하기도 할 것이다. 드라이버트로 처리되었으나 시공품질이 매우 높아서 두드러 보기 전에는 마감을 의심하게 되는 이 흰색의 벽들은 최종마감재를 흠손으로 시공하는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뿔칠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흠손 마감시의 손의 차이에 의한 면고르기의 오차도 거의 없다. 그 결과 벽들은 일반적인 드라이버트 마감의 벽들과는 전혀 다른 균질함과 그에 따르는 무표정함이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집" 일건 없다.

"참 이상한 집이다... 도무지 집 같지가 않다.
... 지붕뿐만 아니라 집에 관한 상식적 기호들을 온통 소거해버려 마치 어느 사설 미술관인 듯하다. 고고한 순백이 그렇고, 철저한 직각체계가 그렇고, 몸체와 어울리지 않는 도열해 있는 철골 격자틀이 그렇고, 기차같이 반복된 덩어리 몸짓이 그렇다."

-건축사 9903 이종건의 비평 중에서-

그러나 반대로 이상할 것도 없다. 바깥은 갠 옹기팍과 흙으로 싸바리고 내부는 유럽풍 장식과 기구로 채워놓은 집 같지 않은 '좋은 집'이 수없이 많은 현실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깨끗하고 담백하게 집 같지 않게 지어주고 또 그 집에 사는 일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살림집이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고, 살림집에 흰색을 칠하고 철골격자틀을 쓴다고 해서 살림집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살림집의 문제는 거주하기(Dwelling)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집의 흰색이 던지는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에 있다. 더구나 이 깔끔하게 마감된, 균질한 백색의 표피, 아무런 장식이 없는 벽이라고 해서 기호나 메시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백색을 침묵에 비유한다면 침묵도 훌륭한 웅변이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말하기. 자연에 대한 말하기. 이 벽들은 '이것이 집이다'라고 말하고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관찰자에게, 방문객에게 말하고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말하고자 서있는 것이며 그곳에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15mx30m의 윤곽의 문제가 자연과 만나는 형식의 문제라면 순백의 벽은 그 시학이다.

침묵의 시학은 단순하다. 그래서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에도 아무런 장식이 없다. 그곳에서도 벽들은 순백색

이다. 심지어 걸레받이조차 없다. 원형의 욕실에는 타일이 없으며 천창에는 바가 보이지 않는다. 거실의 한쪽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어디하나 더하거나 덜한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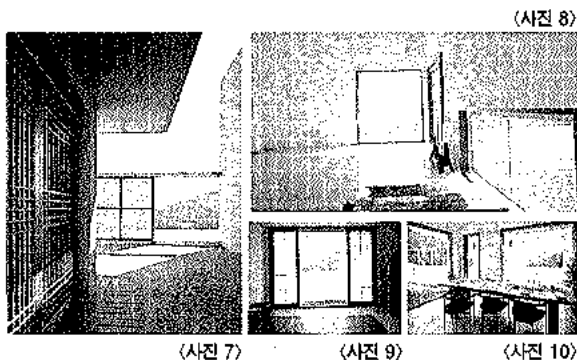
그러나 침묵에도 기교는 필요하다. 내면의 파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몰딩 없이 단순한 창틀과 문틀은 정확히 벽면과 일치하고, 하얗고 가는 코킹만 보인다. 목제계단은 벽에 매입되어 그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벽은 완전평면이며 어디하나 오차란 없다(문틀의 두께는 습식 구조에서는 거의 시공불가능 20mm정도이다. 우리나라 주택이 대부분 습식공법을 택하기 때문에 문틀이 공간에 비해 과대한 느낌을 주는 데에 반해, 20mm 정도면 공간스케일에 잘 맞는 치수이고 이 집의 설계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디테일이다.

그렇다면 가감 불가한 단순함과 완벽한 디테일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채움과 과시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맛있게 넓지만 한 아파트의 거실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과시하고 있는 세계각국에서 모은 진귀한 명품들을 소거함으로써 물질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빈한함의 미학, 빈자의 시학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 건축가들이 유행처럼 목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망과 일상, 그리고 거주하기

우리는 이 집의 도처에서 근사한 풍경화를 만난다. 또한 아직 미완인 세밀한 터치의 정물화도 만난다. 자연은 아주 정교한 계산으로 집안에 들어온다 거실과 침실과 식당으로. 그러나 그 풍경은 하나같이 똑같다. 심지어 복도에서의 풍경조차도.

15mx30m의 윤곽을 분할해 들어갈 때부터 우려되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황방향으로 일곱 개로 나뉘어진 덩어리는 개념적으로 동등하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먼 한 곳을 향해 도열했다. 실제로 윤곽과 자연의 경계는 전면의 한 면에만 있다. 모두 일 방향 공간들인 것이다. 매스가 반복되고 사이공간이 반복되고 같은 크기의 창이 반복되는 사이에 전망도 반복되고 있다(〈사진 7, 8, 9, 10〉참조). 어디가나 똑같은 그림이 걸려 있는 반복된 공간이다. 그런 이유에서 "수출당은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집은 여러 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수출당은 중심형 평면이고 가까운 거리에 오브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 스테이지의 형식이라면 이 집은 일 방향 평면이고 오브제는 무한



대의 거리에 있으며, 시야는 산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수족당은 여러 개의 시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집은 (반복된) 하나의 시점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창들의 크기 또한 매우 크다. 거주자가 창 쪽에 서면 실루엣이 될 만큼 크다. 그러나 동행했던 어떤 이의 말처럼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향해 큰 창을 내지 않는다.”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닷가에 가면 살림집의 창은 매우 작다. 상업적인 건물에만 창이 크다. 눈을 감아도 자연이 그곳에 있다면 그 창은 작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이 창들은 거주자의 창이 아니다. 외지인들을 위한 창이다. 방문자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창이다. 거주자들은 항상 창을, 창밖의 풍경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풍경들은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하물며 어디에서나 각도의 차이도 없이 동일한 퍼스펙티브를 감상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설계자가 “어느 부분을 가도 그 나름대로 하나의 완성된 공간을 갖기”를 바란 집은 어디를 가도 지루한 반복이 있는 집이 되어 버렸다. 또한 “거주하는 것”으로서의 집은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과 같은 낭만적인 성격”의 “세컨드하우스”가 되어 버렸다.

물질의 빈자리에 채워진 풍경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풍경이 바로 ‘자연’ 이고 ‘세계’ 이기 때문이다. 일상을 억압하면서까지 설정한 자연과의 관계가 단지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집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집밖의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이 단지 구경거리일 뿐이라면 사건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사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걸프전처럼 신나는 일도 없다.

혹자는 병산서원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병산서원은 다르다. 이 집에서의 자연이 보기 위한 것이라면 병산에서의 자연은 함께 숨쉬는 것이다. 이 집에서의 자연이 액자 속의 것이라면 병산에서의 자연은 살아 움직

직이는 것이다. 이 집에서의 자연은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병산에서의 자연은 발길에 걸려 있다. 이 집에서의 햇빛이 직사광선이라면 병산에서 햇빛과 바람은 산과 강에 굴절되어 온다. 이 집에서의 자연이 시각적이라면 병산에서의 자연은 촉각적이다.

방문자의 집에서 촉각은 금지된다. 따라서 구경꾼은 실천자가 아니다. 아무리 정의감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하여도, 아무리 자연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열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눈과 머리만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빈자의 미학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건축이란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한눈에 감상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수많은 작은 건축적 체험의 집합에 의해 건축이 존재하며, 이 체험은 시각상만의 것이 아니라 시각을 포함한 모든 촉각상의 문제인 것이다. 시각이 촉각을 대신할 수 없다면 조망이 일상을 대신할 수도 없다. 하물며 살림집에서의 일상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 집에는 이렇듯 두 개의 시선이 있다. 집밖에서 건축물을 감상하는 사선과 집안에서 창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시선이 그것이다. 이 양자의 시선에 흰벽이 동시에 매개한다. 전자에서의 흰벽은 자연/세계 앞에서 자신의 허됨을 드러내는 솔직함, 그것과 별거벗고 만나고자하는 용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연에 대하여 지켜야 할 한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건축하면서, 개별적인 건축요소나 공간의 우열보다는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더 값있음을 말하고 있다. 후자에서의 흰벽은 물질을 비우는 그릇이 된다. 자신의 존재를 물질로서 과시하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비트루비우스가 미/용/강을 말한 이래로 우리가 그 개별적 실천에 골몰하여 왔고, 분리된 삼권(三權) 각각의 상대적인 우월함을 주장하며 서로 다투어 왔던 건축, 그러한 건축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자본이 건축을 완전 지배하게 된 세기말의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미/용/강의 개별적인 실천이 담고 있는 건축지상주의의 무의미함을 반성하고, 새로운 윤리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을 소거하고 해체함으로써 침묵으로 말하는 윤리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밀하고도 원숙한 실행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 결과 이 건물은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비우는 행위가 일상을 비우고 삶의 공간에 널브러진 거주자의 흔적을 비우는 행위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각적 즐거움을 우선한 회생적 결과라면 곤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물질이 비워지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 구질구질한 일상도 비워졌다. 그리고 이 비워진 물질과 일상의 자리를 공백공포증



(사진 11)

(Vacuum Horror)처럼 자연을 담은 액자가 차지하고 있다. 공백을 목표로 하면서도 공백을 두려워한 것이 된다. 그 결과 건축가가 두 개의 시선을 '거주하기' 자체보다는 밖으로는 건축형태라는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건축'에, 안으로는 비워진 물질을 대체하는 '조망이라는 시각상에만 의존한 건축'에 두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이 집은 '그림처럼' 아름답거나 '그림이 있어'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지금 시각상에만 의존하는 촉각상이 배제된 건축의 위험함, 건축을 조소나 회화와 동일시하여 시각적 대상으로서만 보는 건축 작업의 위험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소거의 윤리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지향이 바로 백색의 옷(Dadding)을 통해 재료의 물성과 정신분산적 건축체임이라고 하는 건축의 또다른 영역을 소거함으로써 일상과 거주하기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시대 많은 건축가들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plus 9610 민현식의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 관한 필자의 비평 '형식과 시학을 넘어서' 참조).

디테일은 있으나 크래프트(Craft)가 없다면, 건축은 있으나 구축이 없다면, 그래서 풍경이 있되 일상이 없다면, 방문자의 시선만이 있고 거주자의 시선이 없다면, 구경꾼의 시선만이 있고 참여자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맑은 머리와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가의 이상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다.

건축물과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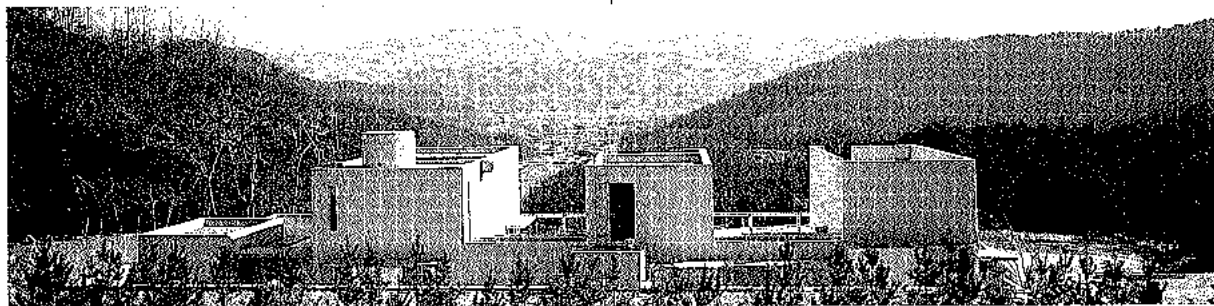
나는 사실 본의 아니게 수백당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 두 번씩이나 다녀왔는데도 나는 이 글을 쓰기로 작심하기 전까지 수백당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었다면 '참 꼼꼼하고 이쁘게 잘 지었구나' 하는 정도였고 그것도

같은 설계쟁이로서의 느낌이었다.

첫 번째 수백당을 다녀오고 난 뒤 얼마지 않아 건축사지 3월호가 도착하였다. 수백당과 설계자 승효상씨의 정인하씨의 대담, 그리고 이종건씨의 비평이 실려있었다. 나는 책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과 대담과 비평을 건성으로 읽었고, 기억에 남겨둔 것은 "참 이상한 집이다"라는 문장 하나였다. 두 번째 다녀오고 나서 이종건 씨의 글(건축사 9903, '이상한 집에 스며든 자의식적 검박성')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별로 이상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와는 보는 방식들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생각을 지면을 통해 나누는 것도 매우 생산적인 일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쓰기로 했다.

열 개의 문단으로 된 글에서, 앞에 있는 다섯 개의 문단은 "참 이상한 집이다"로 시작하여 수백당과 그 건축가에 대한 자신의 감상소감을 적고 있고, 뒤의 다섯 문단은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에 대해 '집이란 이래야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건축비평' 속에는 이러한 비평자의 소신외에 건축가의 사고과정의 추적이나 건축 행위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추론이나 분석이 보이지 않았다. '집에 관한 상식적 기초들을 온통 소거해버려, 마치 어느 사설 미술관인 듯 하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과관계의 증명이나 추론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주는 감동이나 담아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글의 많은 부분의 내용은 사진과 도면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양새'에 관한 것들이며, 더구나 비평자의 논리전개에 필수적인 내용들로 보기도 어려운 형용사를 예컨대 "근거의 모호함... 온통 작위적이며 거부감이 배어 있다... 어색하다... 수상하고... 귀하지 아니하다"와 같은 말들이 많았다.

나는 그가 "비평의 참 의미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새롭게 보는 데 있다. 우리가 비평을



(사진 12)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건축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며, 동의한다. 그리고 그의 이 번 글쓰기가 그 점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가 말한 다음의 말에 주목한다.

"건축가가 어슴푸레하게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무엇을 찾아,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양태할 수 있는 씨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가 작업한 궤적을 쫓아 그가 보지 못한 무엇을 들추어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빈자의 미학'의 모든 실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승효상의 건축 화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푸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지 집요하게 추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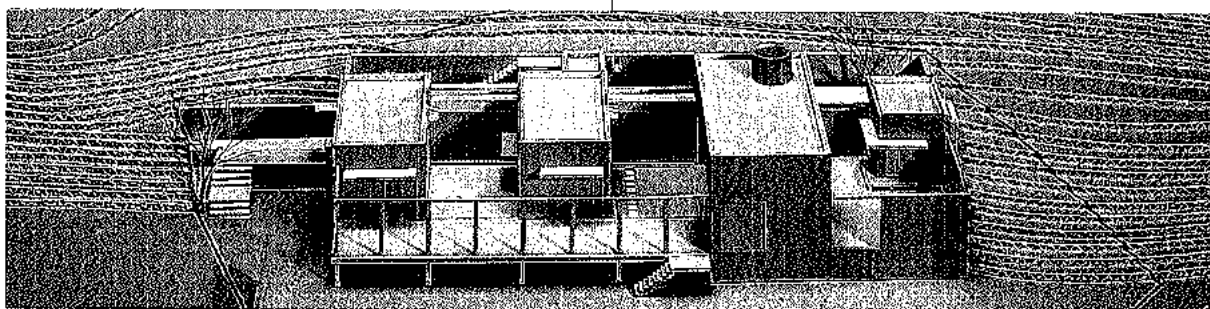
나는 그가 이러한 자신의 언명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굳이 막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구체에서 추상으로 이행되는 비평의 글쓰기를 실천했어야 했다고 보며, 적어도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비평은 그래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대상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론을 강론한다면 누구라도 또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그의 글을 비판하고 그에게 글쓰기론을 강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설계자가 설계의 수많은 절차적 상황 속에서 행했던 사고의 흐름을 추적해 보지 아니하고, <벌어져 있음=의인화

된 사지의 벌립=옥망>이라는 자의적인 도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는가. 그것은 마치 <원숭이 똥구멍=빨강다=사과>의 논리구조와 같다. 원숭이 똥구멍이 사과가 아니라면 벌어져 있는 것이 모두 옥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평은 작품행위와 마찬가지로 개념화가 되어야 한다. 이론체계를 통해 일반화를 달성해야 한다. 단편적인 사실을 전체화해서도 아니 되며, 단순화해서도 아니 된다.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비평이라는 생산적 작업이 사적인 관계나 집단의 압력에 무력하거나 또는 몇만 있는 낭만주의적 경향만을 담기 일쑤인 우리 현실에서 모양만 다르지 결과가 같은 암울한 비평, 지시가 없는 키프랜의 도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끝으로 나는 앞선 수백당에 관한 논의와 여기서의 비평에 관한 소견을 쓰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동기임을 굳이 밝히고 싶다. 전자가 모처럼 생산적인 담론이 가능한 건축작품을 접한 즐거움 때문이었다면, 후자는 모처럼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가중의 한사람인 설계자와 예리한 시각과 풍부한 언어의 비평자가 만난 지평이 달혀버리는 데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 설계쟁이가 아닌 비평자가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하고 싶은 욕심과 비평자의 '주거론'이 외롭지 않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사진 13〉

성신여자대학교 2부관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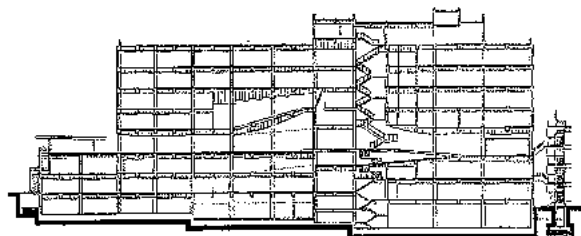
오세훈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h Seom-Hoon

매초에 이 건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양한 행위의 띠(Nomadic Event Bane)'와 '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강의실, 식당, 사무실 등)'와의 병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의외의 행위들, 재미있는 공간들, 또 이상하게 생긴 장소, 일어나는 행위의 밀도나 속도에 있어서 느낌과 빠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나는 장소로 기억되기를 바랬다. 위치해 있는 장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주변(미아리 고개, 동소문동 아파트 등)에서 이 학교를 볼 때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학교 건물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른 행위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처음 계획에서는 지상층 외벽이 모두 유리로 제안되었다. 서쪽면에서 루버를 두고 복도를 두어서 강의실과의 완충을 시도했지만, 서향빛에 의한 열손실에 대한 방법을 극복치 못하고 현재와 같이 유리부분을 조절했다. 전술했듯이 캠퍼스 물 주변에 여러 다른 레벨에 위치해 있는 건물들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들과 일반 강의실들을 연결하는 지점들은 가능한 유리를 크게해서 원래의 의도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강의실들만 주로 있는 부분들은 창을 작게 해서 서향 빛에 의한 열손실을 막고자 했다. 창 의 패턴들이 넓은 것에서부터 좁은 것에 이르기까지 리드미컬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은 창 의 넓고 좁음에 의한 입면효과 보다는 지상층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 또 표피 바로 뒤에 있는 행위의 커(Layer)를 방해하지 않을 자연스러움의 제공, 이 두가지의 이유에서였다. 모두 유리로 되어 있을 때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덜 외할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의도를 반영했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캠퍼스물 레벨(피로티로 된 부분)에서의 여러 장치들이다. 바로 아래층의 식당과 캠퍼스물의 레벨차이에 따라 같이 놓여진 매점이나 행정실, 입구홀, 5층, 6층의 대형강의실과의 연결 장치들로서 계단, 완만한 램프, 보이드(Void), 선크가든(Sunken Garden), 브릿지, 계단홀의 다이내믹한 구성 등 이 주변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이런 장치들이 50%이상 날아가버렸다. 그 흔적과 큰 틀만 남아있다. 많은 애정을 쏟았던 부분이었다. 시각적인 연결뿐 아니라 행위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외부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내외부경계를 설정할 뿐이다. 중요한 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의 연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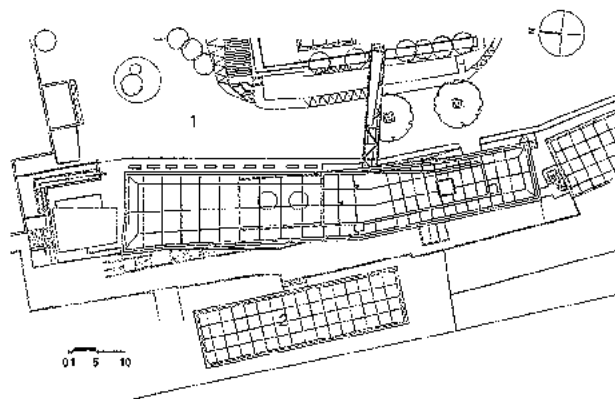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학교시설지역
대지면적	70,511㎡
건축면적	20,461.85㎡(2부관 - 1,020.17㎡)
연면적	92,661.85㎡(2부관 - 6,190.91㎡)
건폐율	29.02%
용적률	131.41%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콘크리트 노출위 불소페인트, 드라이버트, THK18 복층유리
내부 마감	바닥 - 테라조타일, 석재타일 벽 - 수성페인트, 탄성계페인트 천장 -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규산질계천정판
설계담당	강희성실장, 금창준차장, 이세우, 성은정, 강주형, 이윤아, 홍상범



01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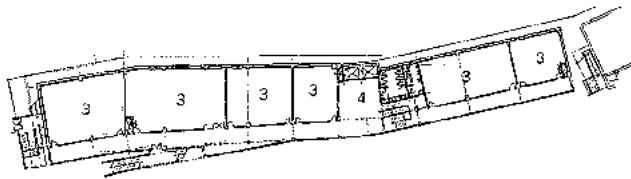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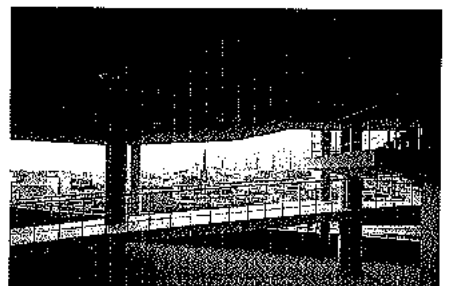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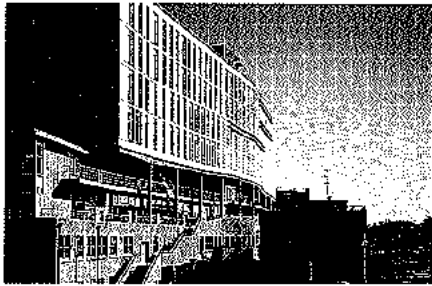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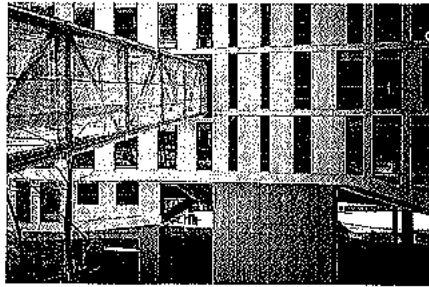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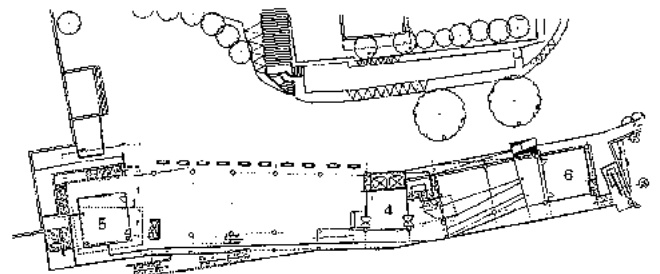
01 5 10

배치도

1. 광장
2. 학생회관
3. 강의실
4. 복
5. 매점
6. 학생편의시설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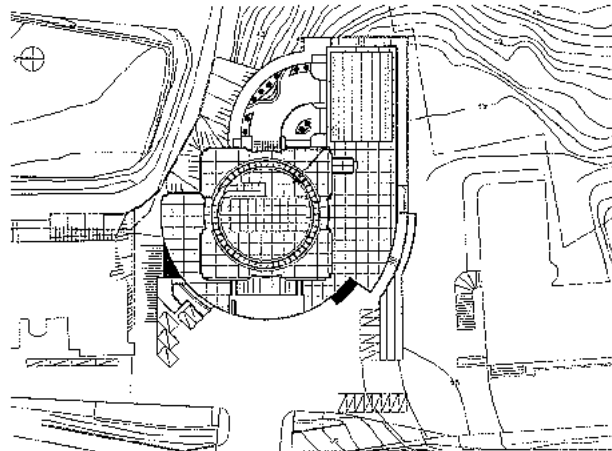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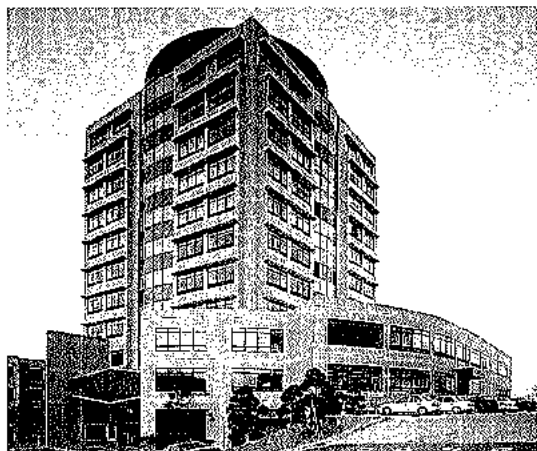


고운 첨단과학 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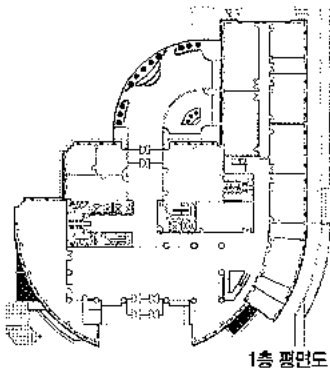
KITI

이영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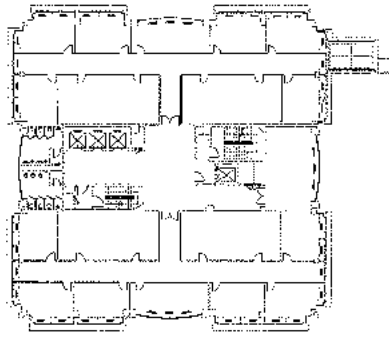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You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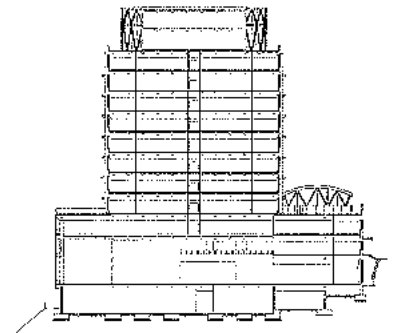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형단면도

이 작품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과학화 사회를 대비한 산학협동체제의 새로운 교육연구센터의 건립을 배경으로 하며, 주된 목표는 연구와 실험을 위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작품의 본 계획안의 개념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첨단과학센터로서의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형성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체 캠퍼스내에서의 조화 및 위치를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첨단과학센터로서의 이미지는 기하학적인 매스의 구성과 유리·금속의 구조체의 대비로 형성화되었으며, 캠퍼스내의 상이한 재료 및 형태를 가진 기존 건물군 사이에서 본관과 직교하는 도로축의 정점에 타워형으로 계획하여 단지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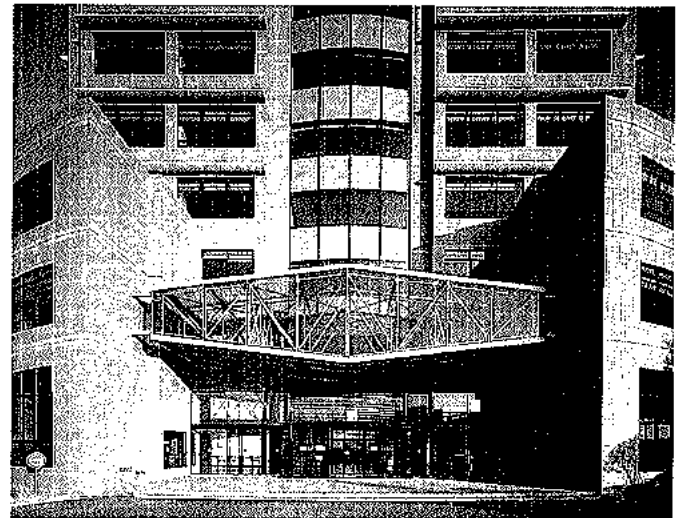
협소한 대지여건과 전면의 도로를 고려하여 본 매스는 최대한 대지후면에 배치하여 전면도로에서의 소음으로부터의 차단과 전면에 최대한의 공지를 확보하였으며, 주차는 전면공지의 양 측면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주차를 배치하였다.

동선계획

대지여건상 주 동선은 전면도로에서 이루어지며 저층부에 고층부의 코아와 분리된 전용계단을 두어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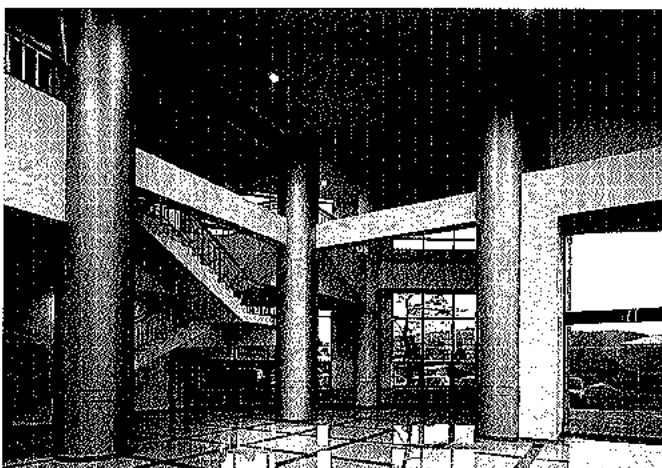
평면계획

저층부에 행정실 및 전시장, 강당 등이 전면의 개방된 오픈공간을 배치되며 기준층은 중앙의 코아를 중심으로 양측면에 별도의 복도를 가진 기획된 연구 및 실험실을 배치하여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충분한 수직 덕트를 두어 향후 연구시설의 확충에 대비하였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산2-2외 14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70,885.00㎡
건축면적	2,759.10㎡
연면적	18,133.82㎡
건폐율	8.85%
용적률	34.51%
용도	교육연구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11층
외부마감	외장타일+T24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서대덕, 정웅선, 서호식, 정재우, 김진수, 최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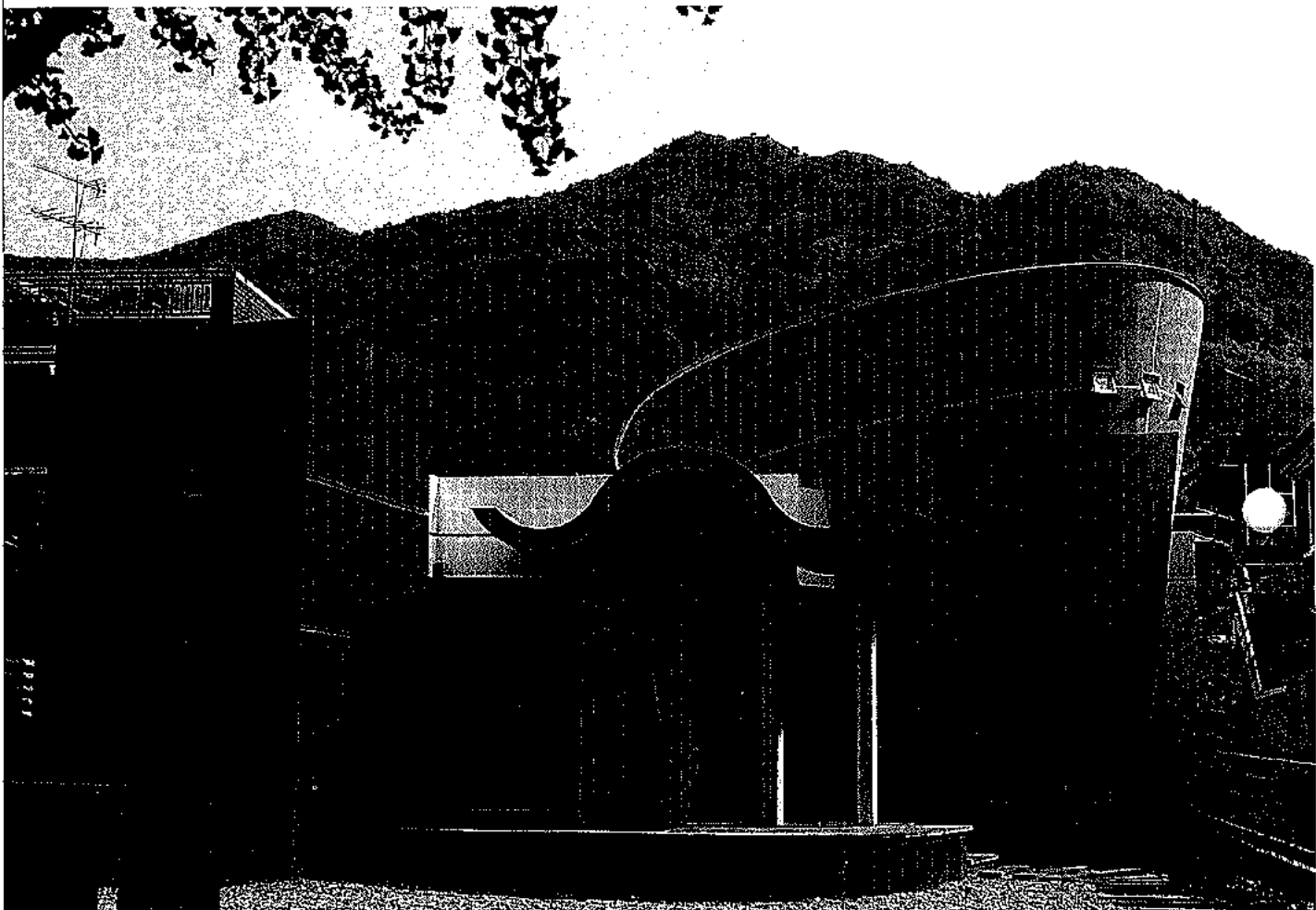


로산재(露山齋)

Rosan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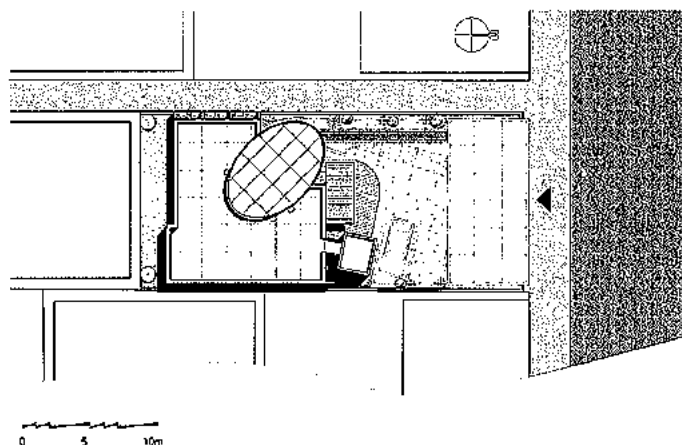
박종석 / 대상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Jong-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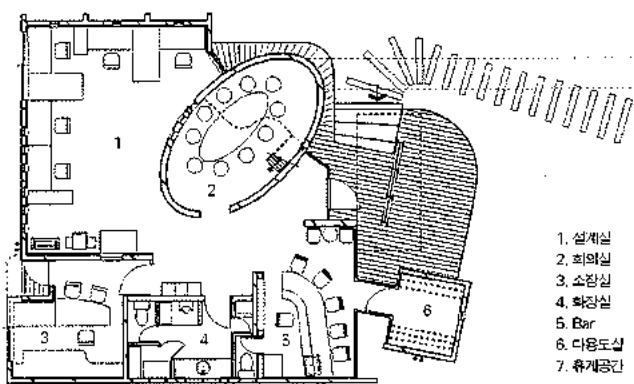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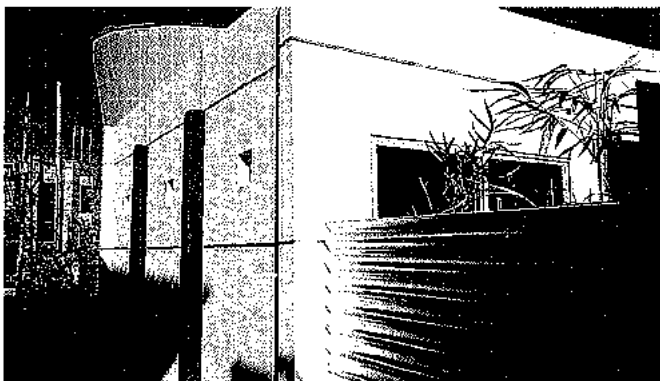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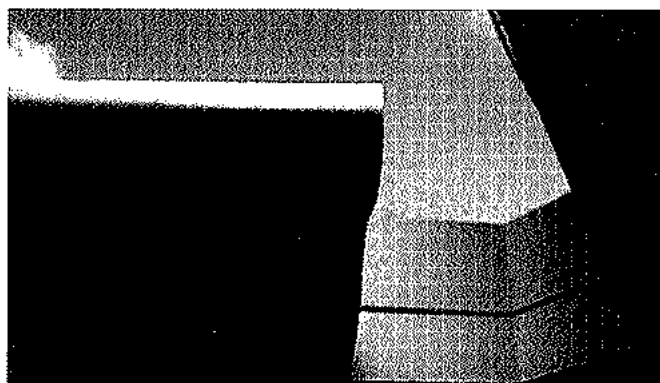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609-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9.9m)		
대지면적	374.60㎡	건축면적	132.81㎡
연면적	134.84㎡(40.79평)	건폐율	35.88%
용적률	35.98%		
규모	지상1층+중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6.4m		
주요용도	사무실		
외부미감	외벽단열재페니쉬, 수성페인트		
내부미감	수성페인트, 벽지		
설계담당	김상돈, 김진석, 최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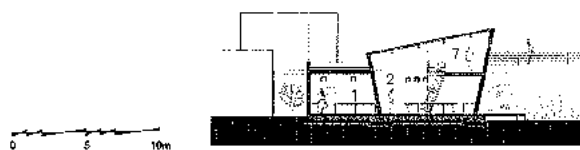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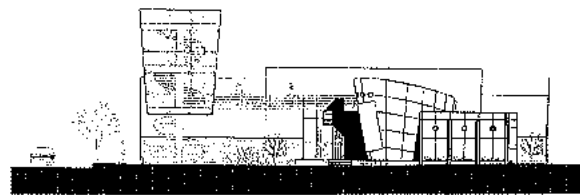
1. 설계실
2. 회의실
3. 소장실
4. 화장실
5. Bar
6. 다용도실
7. 휴게공간



1층평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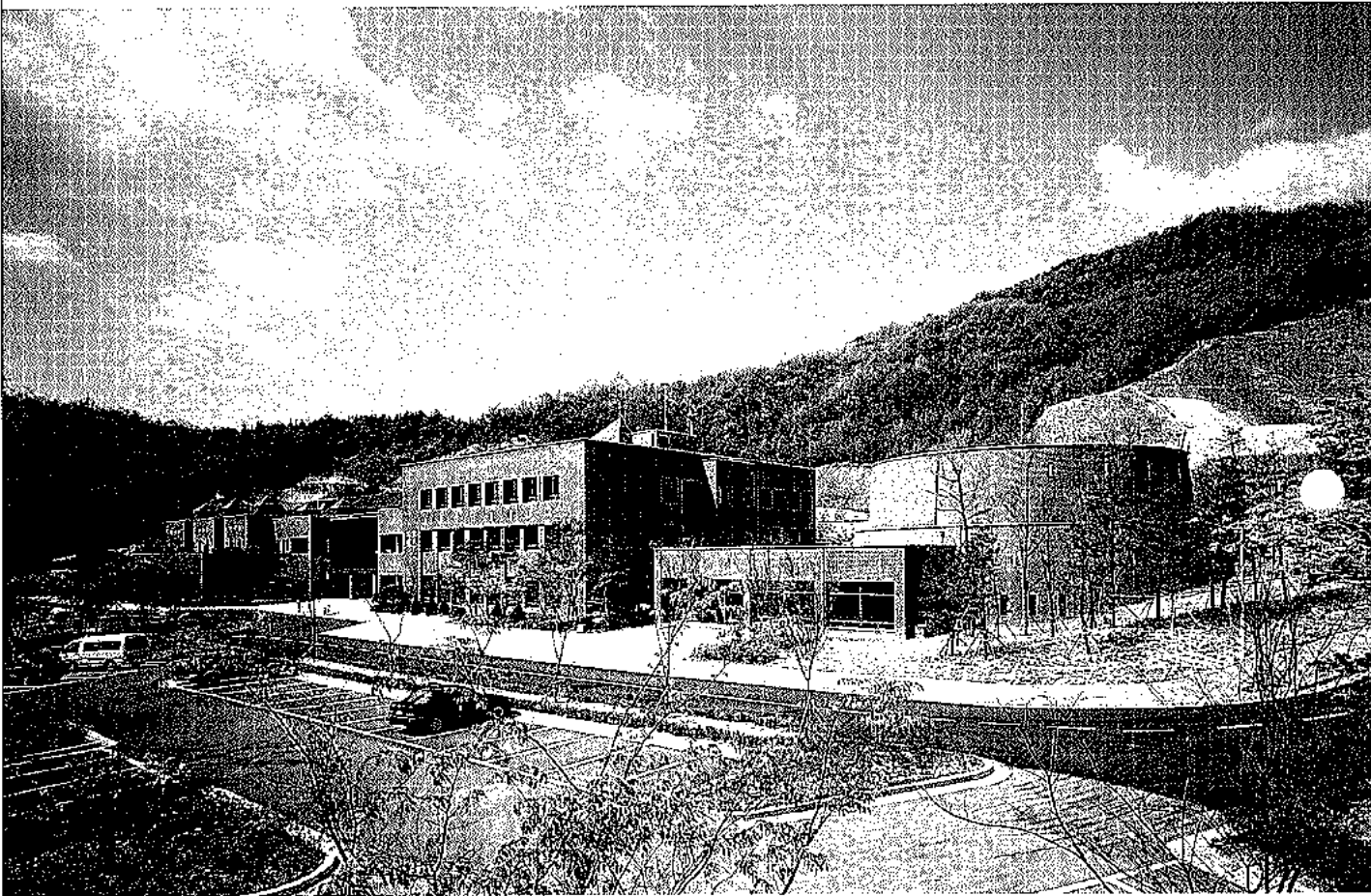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건설경영 연수원

Construction Management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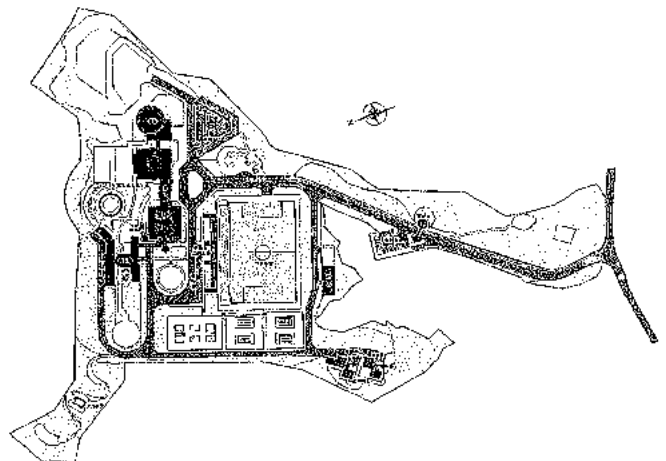
최광수 · 강근웅 / (주)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g-Soo & Kang Geun-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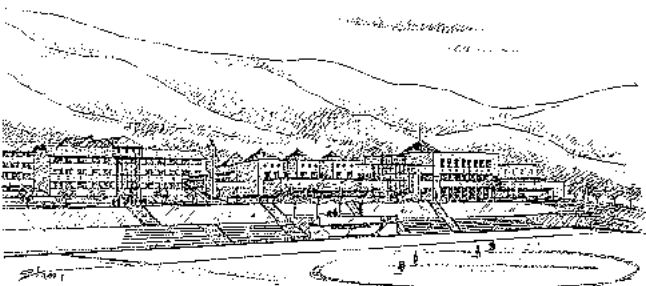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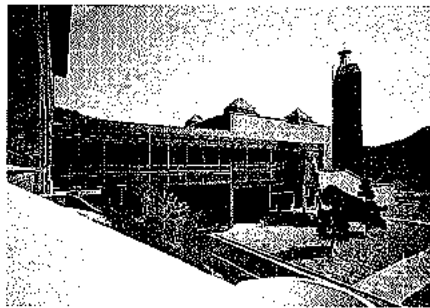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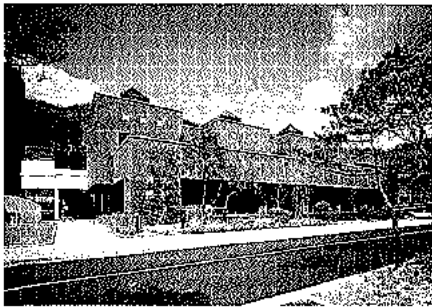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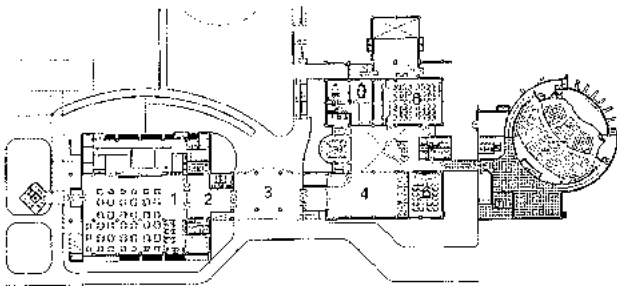
위치	충청북도 중원군 노온면 수룡리 622번지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대지면적	108,993㎡
건축면적	5,267.53㎡
연면적	12,764.97㎡
건폐율	4.83%
용적률	10.30%
규모	강의동 - 지하1층, 지상3층, 강당동 - 지상2층, 숙소동 - 지하2층, 지상4층, 직원숙소동 - 지상2 층, 경비동 - 지상1층, 운동장스텐드 -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영굴, 벽 - 변색벽돌치장쌓기
설계담당	이규복, 정찬영, 정재권, 박권술, 김진락, 이민경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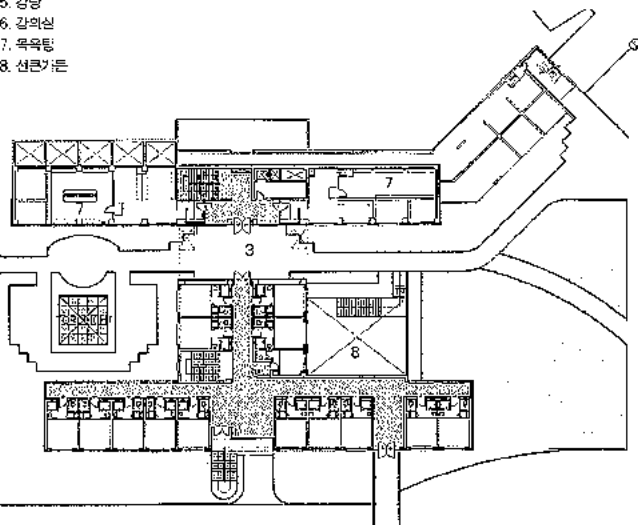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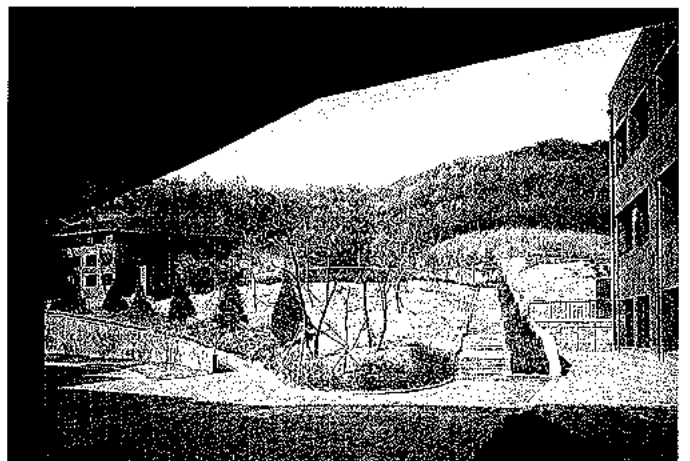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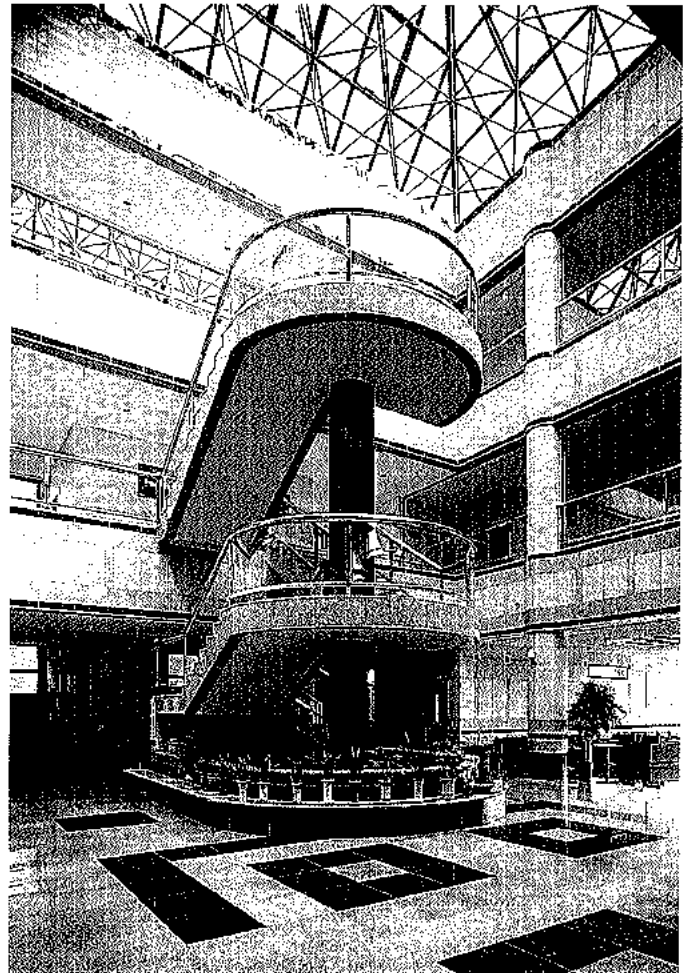


강의동 1층 평면도

1. 식당
2. 강
3. 피복지
4. 로비
5. 강당
6. 강의실
7. 복도
8. 선문



숙방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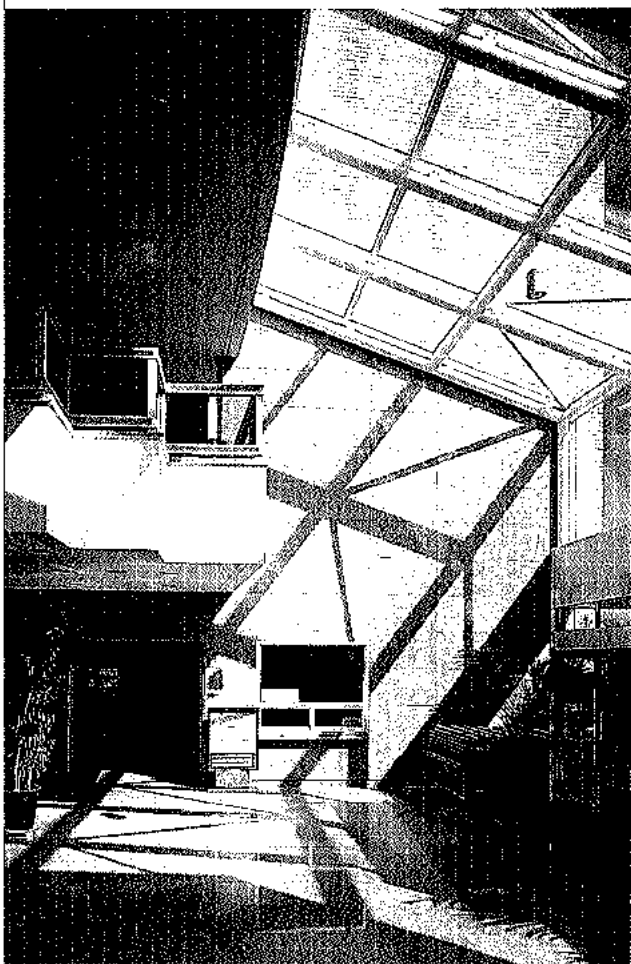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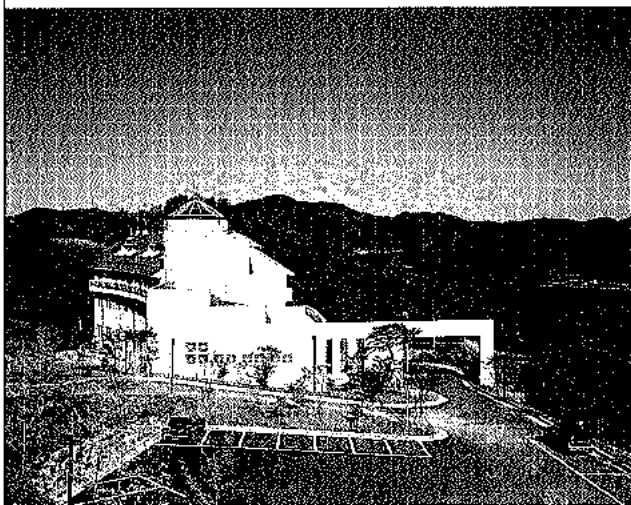


범양상선 한바다 연수원

Hanbada Training Center of Bumyang Co.

이충언+김광섭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풍광이 수려한 청평호의 언덕에 위치한 연수원이다. 급경사로 인해 불가능했던 진입로부터 건물의 위치, 부대시설 등 세심한 부지의 단면 Study가 요구되는 Project였다.

전체 Level을 4단계로 나누어 각자 제기능을 배치하니 자연의 지형과 순응하는 흐트러짐의 질서속에 전체의 틀이 맞아 들어간다.

건물의 형태는 주변의 환경과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호수와 함께 자연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지형의 특성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기존 Contour를 적용하면서 곡선형으로 잡아본다. 곡면의 외곽 부분은 주 기능의 실들이 배치되니 남동쪽의 아득히 보이는 먼 산과 청평호 및 주변의 자연경관까지 모두 수용하겠다는 욕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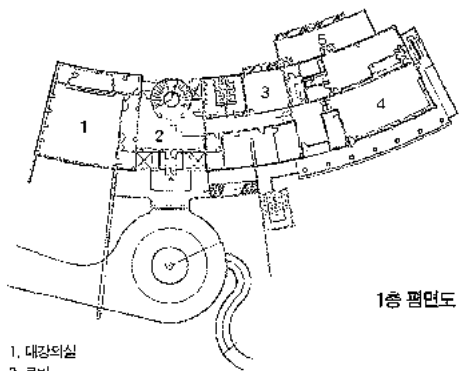
또한 전면 진입시 인위적인 4각후레임 구조물은 연수원 진입시 대문과 같은 공간구획을 주면서 주경관을 가위로 오려낸 듯이 하나의 액자속에 담아 채워보려는 강한 이미지 작업의 Vista 기법이다.

이렇게 펼쳐진 긴 곡선의 형태는 실마다 햇벌이 들고, 실마다 다르게 보이는 각도에 풍경이 다르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해 한다. 또한 쾌적성의 장점과 함께 일조, 통풍 환기에 있어서는 두말이 필요없다. 내외부로 관통되는 조망과 통풍은 외부공간의 높낮이에 의해 단계별로 펼쳐지는 조경과 연못 다목적 운동장과 연계되어 전체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니 편안함을 더해준다. 내부공간에 있어서 로비상부의 유리지붕이 경사진 이유는 전면의 좋은 경관을 건물내부로 끌어들이므로써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자연속에 이루어지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연출의도이며, 지형상 서쪽의 해가 일찍 지려는 가로막힘에 햇벌을 더 받으며 푸른 하늘을 지붕삼고 빗줄기 떨어지는 소리와 흐름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다. Open된 2개층의 공간이 풍만함을 더해주고 톱라이트를 갖춘 원통형 계단실이 지하층까지 깊게 연결되니 건물안의 밝은 기(氣)가 건물전체를 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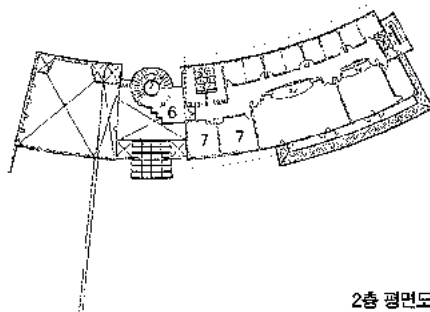
층별, 기능별로 각실 용도가 절제 함축되니 기능상, 관리상 손실이 없는 건물로 만족해한다.

중공후 해양회사의 연수원인지라 건물전체의 외관흐름이 큰 기선을 상징하는 배 같다고 하니, 무심히 지어놓은 단순한 구조물은 아닌 것 같아 안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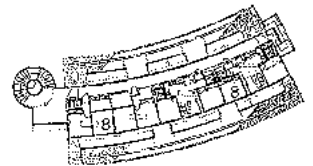
새벽에는 상쾌한 자연의 향기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밤중에는 풀벌레소리와 달빛이 온 건물에 스미니, 풀향기와 달빛 좋은 것이야 조물주의 능력이고, 우리가 낮밤 설치며 건물 앉히고 벌려놓은 것 밖에 없으니 기분은 좋았다. 앞으로 많은 연수생을 여기에 담으니, 눈비 맞으며 맑은 공기와 함께 청평호의 대자연과 호흡을 하면서 인간 본연의 심상이 흐르니, 그건 좋은 건축주의 덕목이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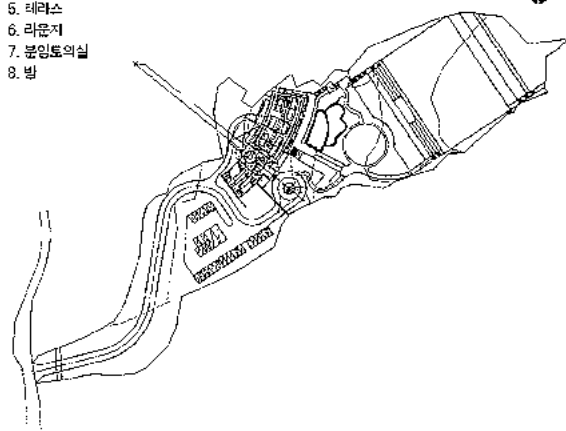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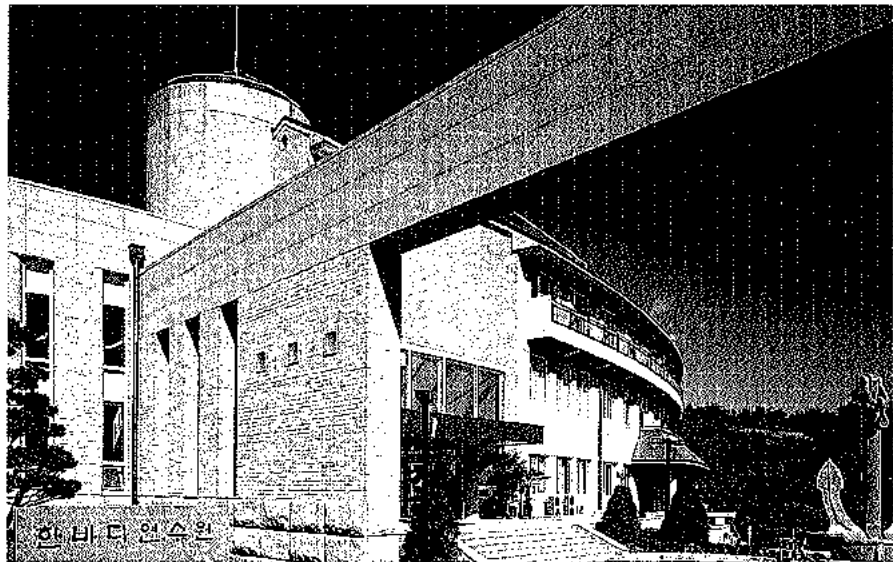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 대강의실
2. 로비
3. 전시실
4. 식당
5. 테라스
6. 라운지
7. 불임토의실
8.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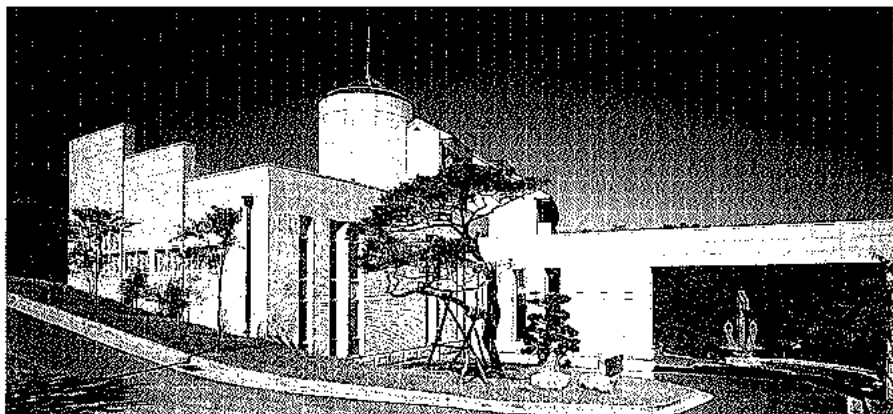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410-1와 8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교육원)		
대지면적	16,578.0㎡	건축면적	919.73㎡
연면적	2,982.09㎡	건폐율	5.547%
용적률	14.485%		
조경면적	14,711㎡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자붕-아스팔트 싱글, 벽-치장 벽돌 쌓기		



담양죽세공예단지

District of Bamboo Craftworks in Damyang

민형식 / (주)반종합건축 의전동연+남상금 / 남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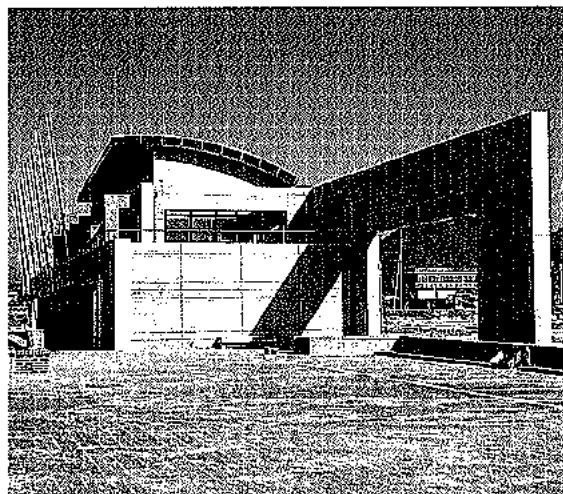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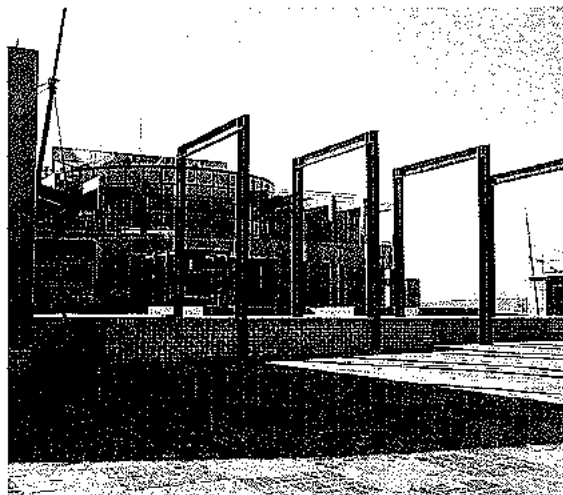
Designed by Min Hyeong-Shik & Nam Sang-Geum

우리의 시골장터는 이젠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겨움과 인간적인 삶의 참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상인들은 자리를 잡고 대나무 기둥을 세우고 줄을 이리저리 당겨 천막을 치느라 분주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폐쇄공간을 만든다.

인위적인 공간분할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강가 등에 펼쳐져 서로가 어우러지는 축제 비슷한 장소가 만들어진다. 이 날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얘기를 주고 받고 모처럼의 도시적인 흥미를 한껏 맛보고 지친 일손을 가누고 휴식을 즐기다 돌아가는 날이기도 하다. 어느덧 '민속'이란 이름을 덧붙여 과거의 추억거리로만 삼으려 하건만 그 흥미진진한 장터 모습은 현대적인 장소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판자지붕, 대나무 기둥, 천막, 줄 등은 현대건축의 형태요소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 프로젝트에 반영해 보고자 했다. 사실 건축의 전통문제에 관한 한 우린 지나치게 외향적인 형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건축물 안에서만 해결코자 하는데서 오는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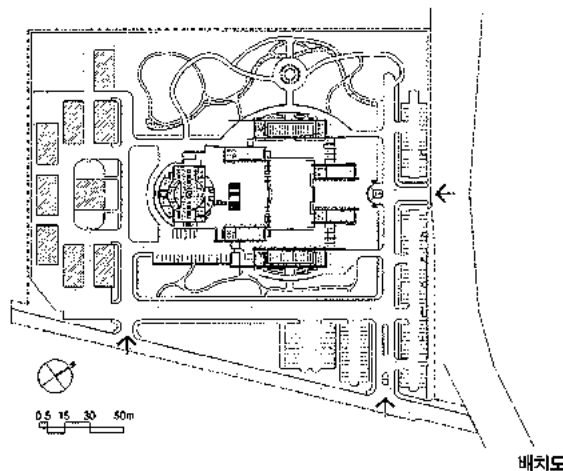
판매장의 개방적인 모습과 중심광장으로 압축되는 외부공간을 시골장터와 같은 접촉의 기회와 전통가람배치에서 볼 수 있는 아담한 스케일감을 중시하여 광장의 폭과 고저차, 판매장 건물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중첩효과 등에서 전통적인 것들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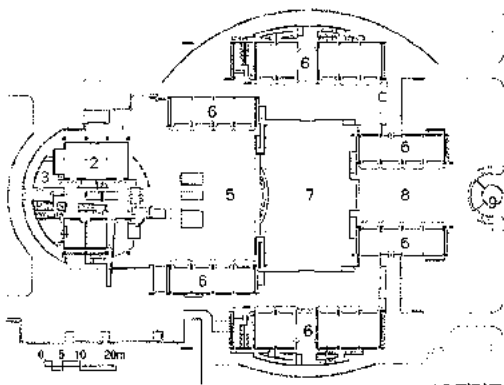
그 웅장한 벌판에 모뉴멘탈한 특성보다는 벽체와 건물로 인하여 폐쇄된 광장, 다시 주변 조경으로 에워싸인 단지의 인상이 도시의 윤곽을 드러내고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감리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 점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글 / 남상금>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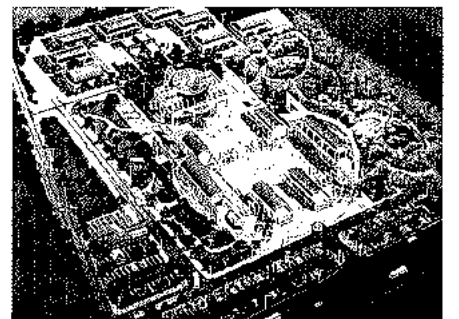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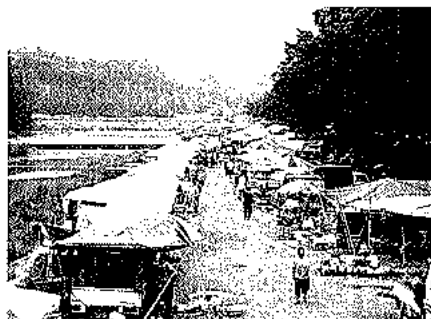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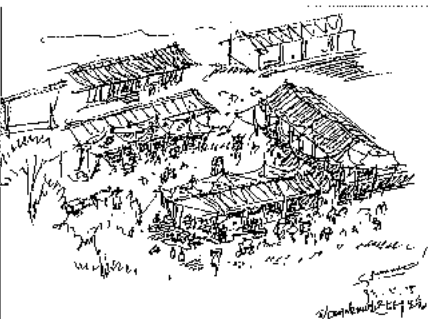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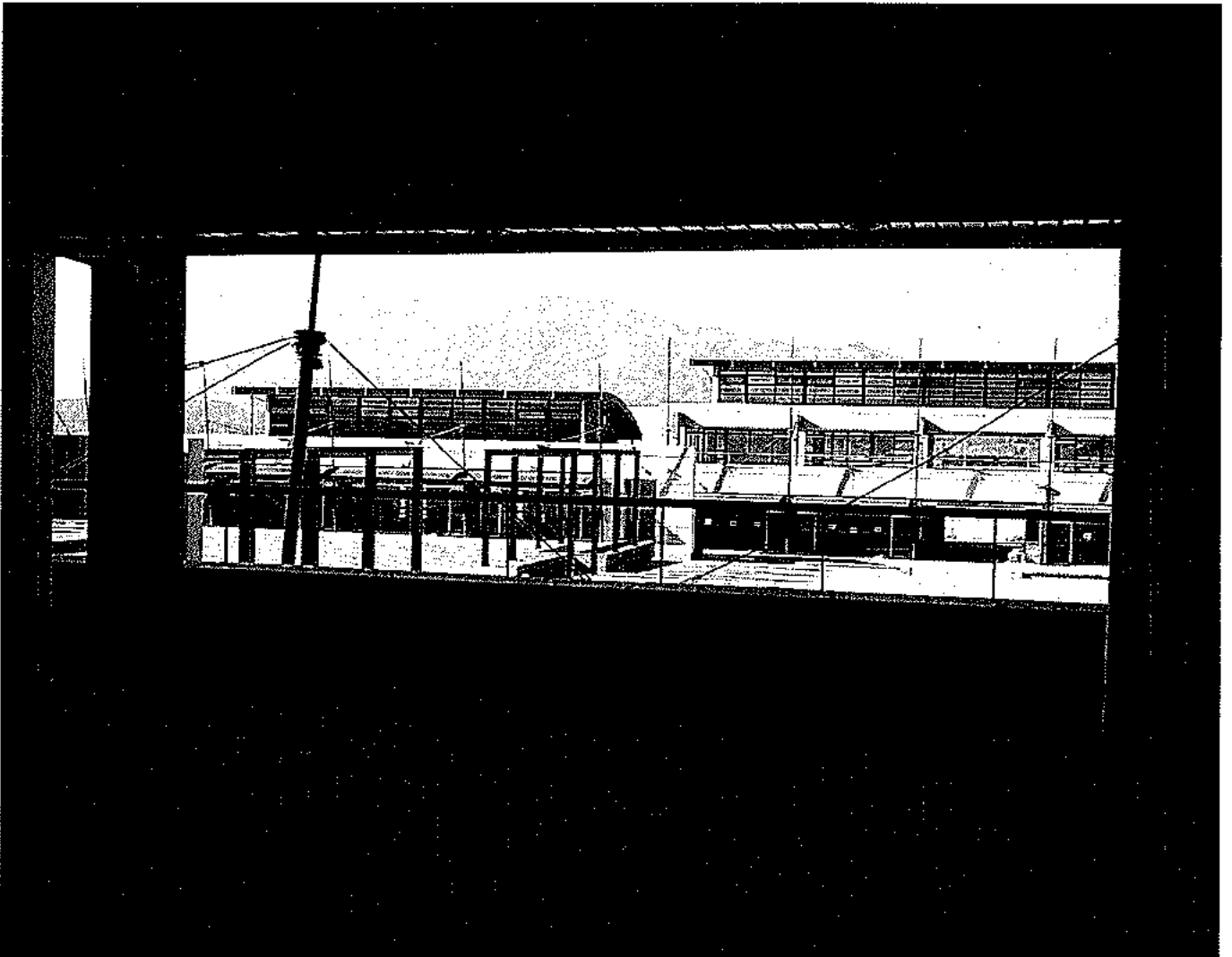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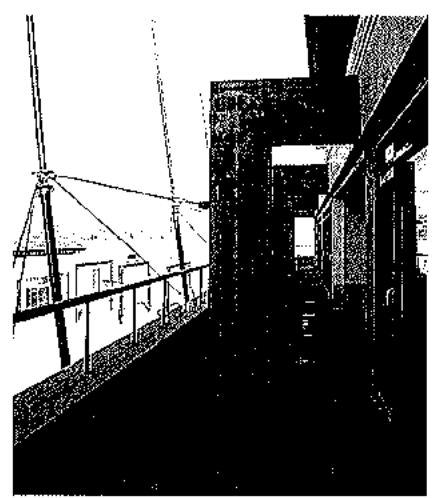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외 49필지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대지면적	50,363.0㎡
건축면적	2,748.724㎡
연면적	3,266.28㎡
건폐율	5.457% 용적률 6.128%
용도	전시시설, 무속판매시설
규모	전시동-2층/ 판매동(1,2,5,6)-1층/판매동(3,4)-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판매동지붕 일부 철골조)
설계담당	조윤숙, 정방현, 조고웅, 이승상





1층평면도

1. 전시동
2. 일반전시실
3. 수장고
4. 자료실
5. 전시광장
6. 관매장
7. 중심광장
8. 도입광장
9.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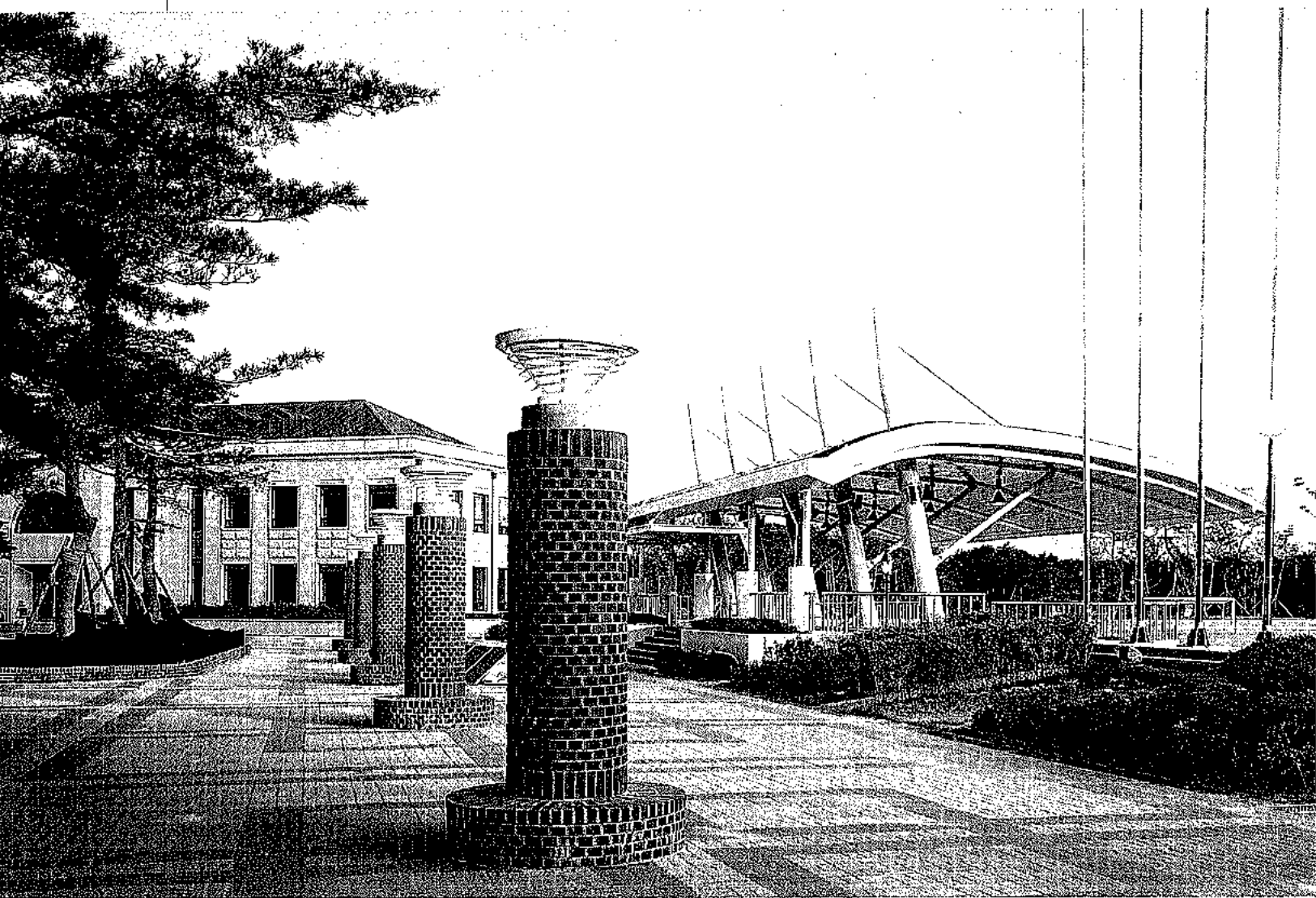


강원도립대학 본관, 강의동, 기숙사

The Main Hall, Lecture and Dormitory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ege

이각표/ (주) 엄 & 이 건축+한광호/ (주) 종합건축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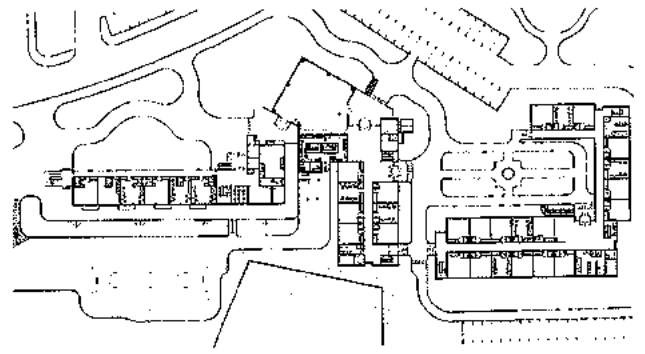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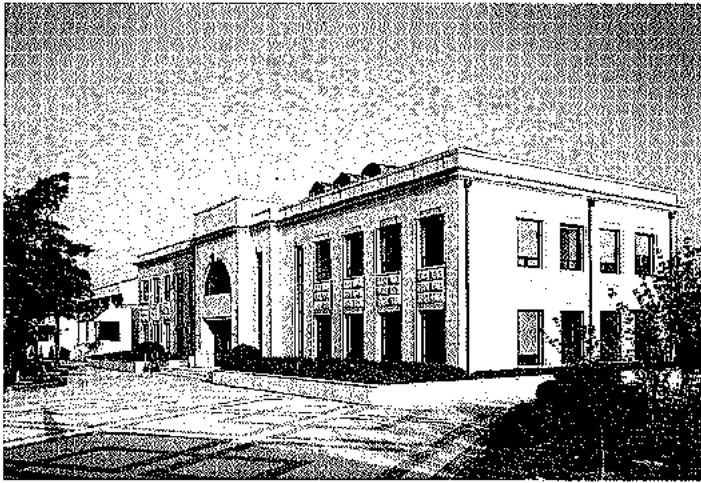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Gak-Pyo & Han Kwangy-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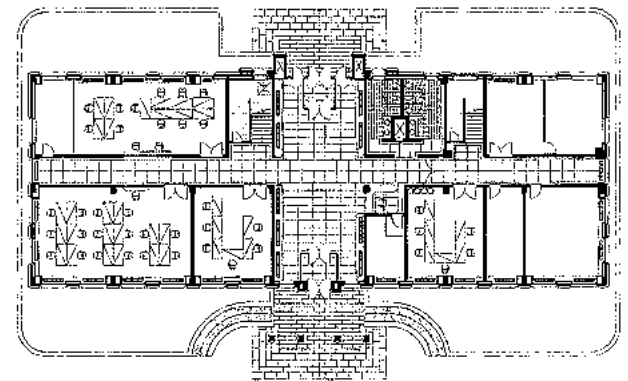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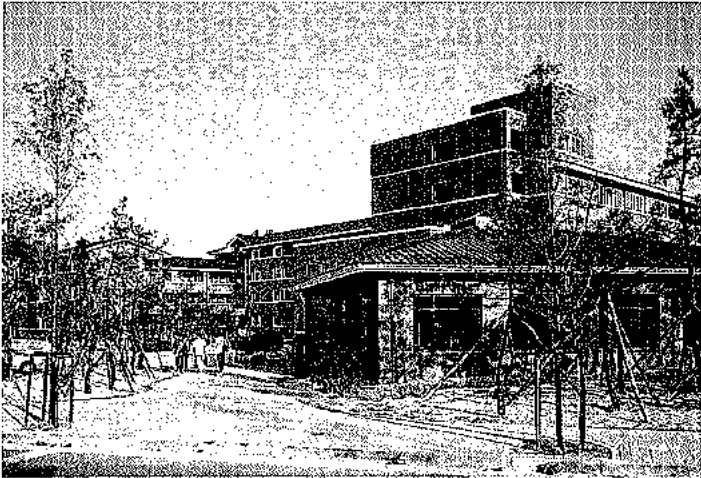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2외 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 보호지구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본관
건축면적 715.93㎡
연면적 1,600.65㎡
규모 지상 3층
외부마감 T30 회강석버너구이, T16 컬러 북송유리

강의동
건축면적 1,261.05㎡
연면적 3,602.97㎡
규모 지상 3층, 옥탑층
기숙사
건축면적 2,324.34㎡
연면적 7,153.71㎡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기숙사 1층평면도



본관 1층평면도



자연을 닮은 또 하나의 자연

A Second Nature

서용식 / (주)수목건축사사무소
by Seo Yong-Sik



자연을 닮은 집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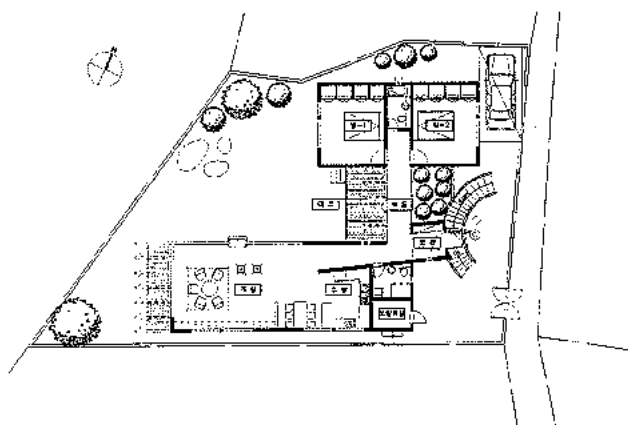
전원 속에 지은 그림 같은 집에서 남은 여생을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기억 속에 새겨진 고향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전원생활을 갈망하게 되는 건 어쩌면 인간의 회귀본능이 작용하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주택이란 삶을 담아내는 그릇임과 동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작업을 끝낸 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드물다. 건축주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설계의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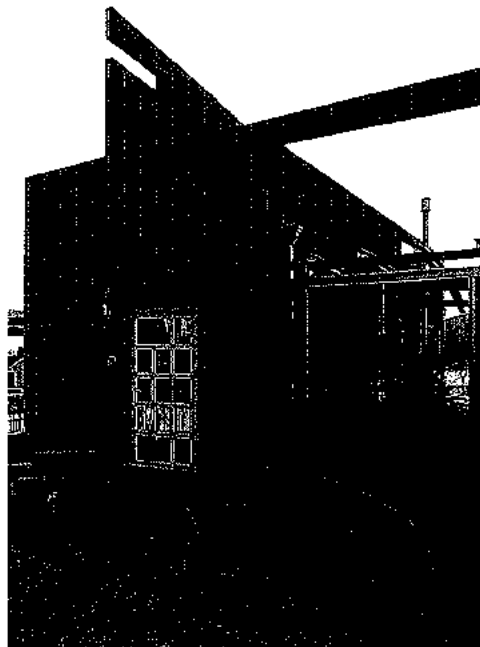
원주택을 설계할 때 외형을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자연을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 즉 삶을 풍요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정성을 쏟아 붓는다. 왜냐하면 자연을 삶의 공간인 주택 내부로 얼마나 잘 끌어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전원주택 설계의 기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용의 마를 입히는 작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여름.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을 정리한 건축주에게 뒤로는 화야산을 업고, 앞으로는 북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가평군 외서면 삼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회리의 110여 평 규모의 주유소 옆에 위치한 자투리땅에 전원 주택을 지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전원주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의 틀에서 끌어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단어로 꾸미는 작업이었다.

의뢰를 받은 후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새색시가 친정 나들이 나온 것 마냥 마음이 들떠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위를 둘러 보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땅을 볼 수 있었다. 대지가 도로와 접해 있지만,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 물줄기와 조용하고, 정겨운 풍경은 전원 주택이 들어 서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건축주가 주변에 있는 다른 지번의 땅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지전용 대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인 경우 1,000㎡(약 303평) 이하로 허가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필지만 활용하기로 했다. 건폐율 25% 이상(가평군청 기준 - 준농림지일 경우 연면적 60평 이하로 집을 지으면 신고만 하면 된다)이 되어야 전용허가가 나는 점을 고려해 건축면적 40평에 1층으로 된 집을 짓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고민은 시작되었다.

첫째,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강을 바라보고 싶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건물 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대지가 승이바섯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강으로 향하는 시선이 비닐하우스 상단부에 걸려 방해받고 있었다. 가장 좋은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거실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 주변환경을 꼼꼼히 살피면서 배치도를 구상했다.

둘째, 외장을 소박하게 처리해 절약된 비용을 가지고 내부를 꾸미는데 투자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집을 지어야 했다. 경제적인 주택을 짓기 위해 골조는 철골을 이용하고, 외부 마감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 그런데 철골조일 경우 규모가 작은 주택일수록 평당 단가가 올라갈 뿐더러 작업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건축비 절감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무난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결

론하에 콘크리트 구조에 드라이비트로 외부 마감재를 결정했는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동안 심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외부 마감에 드라이비트와 아연도강판을 함께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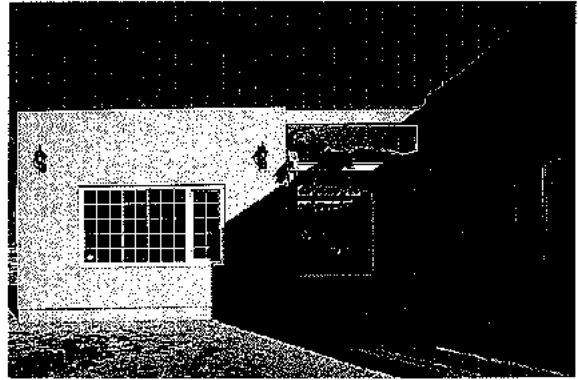
셋째, 주택 내부구조와 인테리어에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미미해진 외관에 변화를 주어야 했다. 황색과 회색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외관에 가벽을 세워 단조로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옥상에 프레임을 걸어 포인트를 줌으로써 생동감있는 외관을 만들었다.

넷째, 기능을 단순하게 하면서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 군더더기를 없애야 했다. 거실과 주방을 열린 공간으로 처리한 후 거실과 주방 사이에 칸이벽을 두고, 함께 하는 공간과 침실이 자리한 사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각 공간에 독립성을 부여했다. 특히 열린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브리지)를 투명유리로 처리해 북한강을 바라보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름다운 풍경과 접하면서 정서의 순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의 결정체인 것이다. 12m 도로와 접한 부분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 시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해 나무를 심었다.

물아일체(物我一體)

건축주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면서, 파티나 모임의 장소로 쓰이는 거실에 중점을 두어 설계한 결과 거실 중심의 평면을 가진 전원주택이 되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렵고, 난해한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집과 사람이 융화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로 꾸며진 집이길 원했다. 그래서 개방감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실의 층고를 다소 높이고, 복도와 방은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층고를 낮게 처리했다. 각각의 공간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들로 도배된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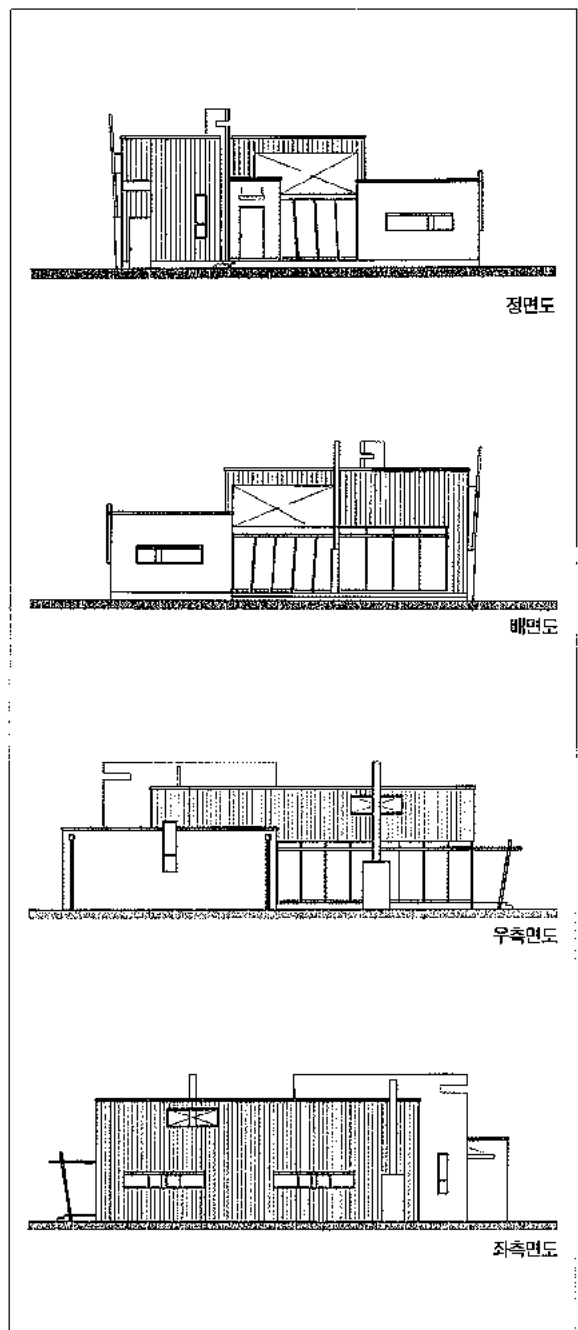
필자는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내·외부 마감



을 간결하게 처리하면서도 이 집만의 독특한 맛을 표현하기 위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공간에도 눈을 돌렸다. 외관에 전원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회색과 황토색 드라이비트를 이용하고, 내부는 밝은 주황색조를 주로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만 매입을 사용해 모던하고 심플하게 처리한 조명기구와 방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시스템 창호가 조화를 이루어 모던한 느낌에 세련미를 덧붙였다. 특히 복도 부분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서 포인트를 주고, 벽난로 앞이나 싱크대 앞에 몇 개의 무늬타일을 붙여 미적감각과 아이디어를 살려 보았다.

이 집은 그다지 주목받을 만한 설계수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인 전원에 집짓기처럼 목조로 할 것인지, 황토를 쓸 것인지 하는 등의 재료선택에 골몰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 설계습관처럼 경제성이나 땅이 지나는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이 집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건축 프로그램을 부여할 것인가가 주관심사일 뿐이었다. 세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같은 집을 설계하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집짓기를 시도하는 필자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하다. 설령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 언정 아직은 그 생각을 접고 싶지는 않다.

위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474-15
대지위치	381.00㎡(115.00평)
건축면적	130.99㎡(39.62평)
연면적	129.37㎡(39.13평)
건폐율	34.38%
용적율	33.96%
규모	지상1층
주차대수	1대
구조	철골조/콘크리트 블록조



광주·전남의 전설을 통해 본 남도인의 인성과 지향

Personality and Aspiration of Kwangju, Cheonnam People in View of Legend

나경수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by Na Kyung-Soo

설화는 대표적인 구비문학(口傳文學)의 하나다. 구비(口碑)는 구(口)와 비(碑)의 합성어다. 구(口)란 입을 뜻하지만, 기관으로서의 입이 아니라 말을 뜻한다. 또 비(碑)란 비석이다. 돌을 합해 놓고 보면, 구비란 언뜻 말로 새겨진 비석이라는 뜻으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비석의 뜻은 의미상 전의(轉意)를 거쳐 내구성, 즉 기억(記憶)을 의미한다. 모든 구비문학은 말과 기억에 의존한다. 표현되지 않고 있을 때는 기억으로 남고, 표현될 때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구비문학이다. 말은 일회적이며 현상적이지만, 그것을 보완해 주는 기재로서 기억이 있다. 기록문학은 한번 쓰여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은 말과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구비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요소중 하나는 공동작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창작하고 전승시키는 집단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는 것이다.

설화는 이러한 구비문학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는 한편 이야기 형식을 취한다. 구비문학 중 이야기 형식을 가진 것이 설화다. 설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의존해서 말로 전해져 왔다는 속성까지를 더해 놓고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옛날 이야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 대개 옛날 이야기와 설화가 상통하는 말이지만 설화는 다시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신화(神話), 전설(傳說), 민담(民譚)이 그것이다.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로서 신이 등장하고, 또 태초에 우주나 인류, 또는 국가 등의 기원적 사실을 설명한다. 전설

은 기억되는 역사라고도 하는데,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 또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또 민담은 언제 어디에서나 이야기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옛날 이야기로 흥미나 교훈 위주의 내용을 가진다. 신화, 전설, 민담 중 특히 지역성이 강한 설화는 전설이다.

광주·전남지역, 또는 문화권적 범위로 확대한 호남지역에는 지역성을 대표할 만한 신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전형적으로 이런 광역의 지역적 특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꼽아지는 작품이 건국신화인데 호남지역은 주지하다시피 건국신화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마한이 백제에 의해서,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후백제가 고려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왕족말살정책(王族抹殺政策) 및 신민화정책(臣民化政策)과 함께 그들이 가졌던 신화까지 없애 버렸던 것이다. 대신에 호남 또는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전설이 전한다. 전설은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전해오는 많은 전설 중에는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인성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 많아 관심을 모은다. 오랜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스란히 한 몸에 담아 지금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는 전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간 필자의 현장조사 경험과 여러 형태로 채록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함의(含意)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로 일관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전설군을 먼저 선별해 본다. 즉 내륙지역과 해안도서지역에 각각 밀도 높게 전승되고 있는 일군의 전설을 대상으로 한다.

내륙지역에는 산과 관련된 전설, 예를 들면 지리산, 무등산, 천관산 등 이 지역에 소재한 산과 그 산을 지키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산신, 그리고 그들과 태조 이성계와의 관계가 내용을 이루는 일군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해



광주시 전경



나주시 전경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시 전경

안 도서지역에는 대도형전설(大盜型傳説), 예를 들면 전우치(田禹治)나 송징장군(宋徵將軍), 또는 무명의 해적으로 말해지는 큰 도둑들이 바닷가나 섬에 본거지를 두고서 나라에 올리는 진상품이나 세금을 강탈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다.

내륙지역에 전하는 산신과 관련된 전설의 내용은 대개 이렇다. 옛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전국의 산천신(山川神)들에게 허락을 받고 다녔다. 어느 날 지리산에 올라가 지리산신에게 조선을 건국할테니 도와주십시오고 빌었다. 그러나 지리산신은 역성혁명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며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다. 또 무등산에 올라가 역시 산신의 도움을 청했지만 무등산신도 거절했다. 사정은 장흥의 천관산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런 산신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역성혁명에 성공하여 조선을 세웠다. 그가 임금에 되자 자신을 도와준 전국의 산천신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다. 그러나 지리산신, 무등산신, 천관산신 등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상 대신 벌을 주거나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산신전설에 의하면 본래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과 천관산을 이성계가 전라도로 귀양보냈다 하고, 또 무등산신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무등산의 본래 명칭은 불교용어에서 따온 것이지만 전설과 관련지어 민간어원적으로 그 이름을 해석하기도 한다. 즉 없을 무(無)와 등급 등(等)을 합해 등급이 없는, 다시 말해 이성계가 벼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이 없는 산이라는 뜻으로 무등산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다.

광양에 전하는 전우치전설이나 완도에 전하는 송징전설에서는 하나같이 그들을 나라에 대항한 큰 도둑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바닷길을 통해 올리는 진상품이나 세금으로 거둬가는 쌀을 실은 세미선(稅米船)을 털어 지역민을 구휼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외에도 도서지역에는 옛날 큰 도둑이 살았다고 전하고, 또 그들 민중영웅들이 국가의 학정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여천 돌산면 안도지역에 전해오는 해적전설이 전형적인 예며 그러한 유형의 전설은 인근 도서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다.

앞에서 말한 산신전설(山神傳説)과 대도전설

(大盜傳説)은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특성 또는 지역민의 인성과 결부시켜 놓고 보면 이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게 된다. 산신전설이 이성계라는 특정인과 결부되어 있지만 일반화시키고 보면 불의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정신을 표상하고 있다. 또 대도전설에는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적대적 관계가 표출되어 있다. 나라의 세금을 빼앗는 일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가렴주구와 수탈의 제일번지였던 광주·전남 지역이고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짐작하게 된다. 이들 전설에서 말하는 적대적인 대상은 무조건적인 중앙정부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정권 또는 위정자였던 것이다.

광주·전남이 민주화와 관련된 절의(節義)의 성지(聖地)처럼 말해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의를 추종하고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은 이들 전설이 웅변적으로 지시하듯 이렇듯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설 속에 이미 투사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백제 유민들이 신라에 저항했고, 또 장보고가 경주의 중앙정부에 대해 외로써 대항을 했으며, 후백제가 고려와 겨루었다.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구한말 때 의병 전체의 약 60%가 전라도 사람이었다고 하고, 구한말 동학혁명이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는 이 지역이 당시 마지막 본거지며 접전지이기도 했다. 일제시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나 암태도의 소작쟁의 등 민족운동으로까지 승화했던 저항의 역사를 합하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통해서 불의에 항거했던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의 의기는 자못 숭고하기조차 했던 것이다.

아직도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는 곳이 있다. 화순의 운주사(雲住寺)가 그곳이다. 현장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곳에서 있는 탑상(塔像)은 모두 정통 불교미술의 상식을 훨씬 벗어나 있는 것들이다. 역사적으로 아직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



광주 중앙초등학교 정문쪽에서 본 제봉로



광주 황금동 거리



광주 전남도청 뒷담길

지 않는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곳 운주사에 있는 와불(臥佛)에 관련해서 전해오는 전설 한 토막 속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을 통해 배태되고 점층되어 왔던 지역민의 기대가 집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를 든 두 유형의 전설과도 일맥상통한다.

일설에 의하면 옛날 운주도사라는 분이 그 주변을 살펴보니 이곳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세우면 수도가 옮겨 실 형국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도술을 부려 하늘에서 석공들을 불러내려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만들게 했다. 일이 거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큰 돌부처 두 분만 모시면 되었다. 그런데 어린 한 일꾼이 일에 지친 나머지 그만 닭울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닭울음 소리를 들은 하늘의 석공들은 곧 날이 밝을 것으로 알고 돌부처를 세우려다 말고 서둘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지금도 운주산에는 그때 석공들이 세우려다 만 돌부처가 나란히 바위인 채로 누워 있으며, 그래서 수도가 이곳에 옮겨오지 못했다고 지역민들은 안타까움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원격지에 놓였던 관계로 줄곧 역사를 통해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보지 못했으며, 잠재력은 뛰어나면서도 한번도 화려한 문화를 꽃피워 보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의 이런 한서린 정한이 전설을 통해 말해지고 있는 예다.

그러나 많은 운주사의 전설 중에는 지역적, 사회적 대립만을 갈등소(葛藤素)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국적 지향이 설화되고 있는 예도 보인다. 운주사가 있는 곳은 인체에 비유하면 배꼽에 해당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또 배에 비유되어 태백산맥이 무거워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곳에 무게를 실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전설도 전한다. 그래서 이곳에 천불천탑을 세우면 나라가 기울지 않으며, 또 왜구의 침략도 막을 수 있다는 민족의식이 두텁게 전설에 채색되어 있다. 앞의 와불전설이 민중의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뒤의 형국전설은 민족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독일의 민족학사를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그림형제로부터 시작된 독일민족의 민족에 대한 관심은 결국 튜튼족에 대한 애정과 애착으로 귀결되었다. 민중(民衆)을 통해서 민족을 찾고, 민족(民族)을 근거로 하여 민중을 일깨우려 했던 시대적 경향성이 독일의 민족학사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역사는 누구의 소유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結晶)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무정형의 문화사적 현상일 뿐이다. 기억된 역사로서, 민중의 공동심의(共同心意)를 반영하고 있는 지역 전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층적이며 또한 가장 적극적인 역사에 대한 해석의 한 양식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예거했던 광주·전남권에 전승되어 온 전설들 속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적인 지향이 스며 있다. 수탈을 일삼는 지배층에 대한 저항과 국가의 인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의식이 전설이라는 서사문화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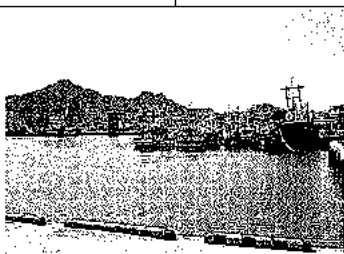
광주·전남권을 중핵으로 하는 호남은 몇 가지 이호(雅號)를 가졌다. 예향(藝鄕)이란 가장 흔하게 듣는 호남의 이칭이며, 또 의향(義鄕)이라는 말 역시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예향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안다. 다만 의향이라는 별칭에 대해 이해가 촉구된다. 의(義)에 대한 본질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보면, 광주·전남이 의향으로 불려온 것이 한갓 미사여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맹자(孟子)는 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풀이하였다. 수는 부끄러움이고, 오는 미움이다. 맹자가 말한 인이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서 주체와 객체가 일체화되는 심성을 뜻하는 것에 반해서 의는 부끄러움과 미움이라는 정서로서 주체와 객체를 준별하는 심성을 뜻한다.

수(羞, 부끄러움): 객체 주체 주체 자아의 긍정
오(惡, 미움): 객체 주체 객체 자아의 긍정



광주 구 시청부근에서 전남문화회관이 있던 쪽을 본 모습



목포항 전경. 항구 뒤로 보이는 유달산은 목포의 자연적 랜드마크가 된다.



목포항 주변의 가로 모습. 일제 시대 석조 건물이 낯설지 않다.

수(羞)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또는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형식이다. 책망과 뉘우침은 부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오(惡)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재나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면 객체에 대해 부정으로 맞서는 형식이다. 부정에 따른 부정의 연속이 부호로 표기된다. 부정에 대한 부정은 결국 긍정을 낳는다.”

광주 · 전남 또는 호남을 주체로 보면, 불의의 수탈을 거듭해온 지배층이나 불의의 침략을 일삼은 외적은 객체가 될 것이다. 외란 한 개인에게서만 아니라 집단적 심성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객체인 지배층 또는 외적이 민중이나 민족을 위협할 때 이에 맞서 싸우는 부정의 연속이 의로 표상될 수 있다.

무등산, 지리산, 천관산 등의 산신(山神)이 역성혁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전설은 그 산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인성을 형상화한 설화요, 또한 해안도서지역에 전승되어 온 역적장수형전설 역시 불의의 지배층에 대해 저항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심성을 그린 것이다. 불의와 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객체와 주체로 추상화되면서 하나의 전형을 이루게 된다.

한편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적대적 관계를 이룰 때 마천 가지로 객체와 주체라는 추상화를 통해서 대립갈등이 공식화된다. 해안도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설화로서 전우치전설에서는 그가 도술을 부려 중국 황실의 황금 들보를 뺏아 왔다 하고, 또 송장전설에서는 송장장군이 왜구를 물리쳐 줄 영웅으로 평가되면서 한편으로는 호국신(護國神)으로 신격화되어 모셔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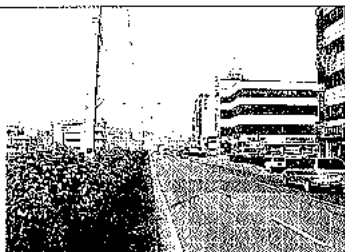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했던 의(義)의 한 형태인 “객체 주체 객체 자아의 긍정”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지역 사람들은 굳건한 자아 긍정의 의식을 지향해 왔던 것이다. 앞에서 민중적 지향과 민족적 지향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호남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체적 자아를 실현해야 할 경우가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위 공식에 그 상황을 대입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객체가 지배층이면 지배층에 대해서, 외적이면 외적에 대해서, 독재자면 독재

자에 대해서, 그리고 신군부(新軍部)면 신군부에 대해서 이들과 맞서는 주체로서의 호남인은 자아의 긍정이나 생존의 보장을 위해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 지향은 하나의 집단적 심의요, 기층적인 인성이며, 문법과 같이 견고한 무의식적 지식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언중(言衆)은 나고 자라면서 저절로 언어의 문법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화중(話衆)은 자라면서 이야기를 듣고 즐기면서 그 속에 깊숙히 감춰진 의식을 배운다. 전설은 단지 역사요, 문학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있어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을 전수하는 하나의 교과서인 셈이다.

광주 · 전남을 포함한 호남이 의향으로 꼽혀온 이유는 그간의 사실(史實)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기저의 원형질적인 심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전설과 같이 집단적 무의식을 담고 있는 민속에 대해 앞으로 크게 관심이 모아져야 할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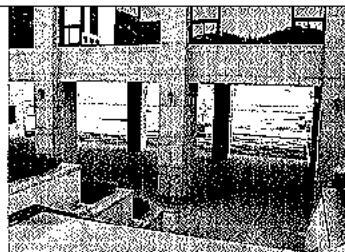
1) 지민관계상 이 문제를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종의 연구에 따른다. 출처, [전남의 민속연구] (서울: 집문당, 1994), pp.25~47.



목포 하강의 중앙로



건물 사이로 보이는 유달산, 도시에서의 자기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과 공연장 사이의 필로티, 유일하게 바다로 열려 있다.

광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The Past and Present of Architecture in Kwa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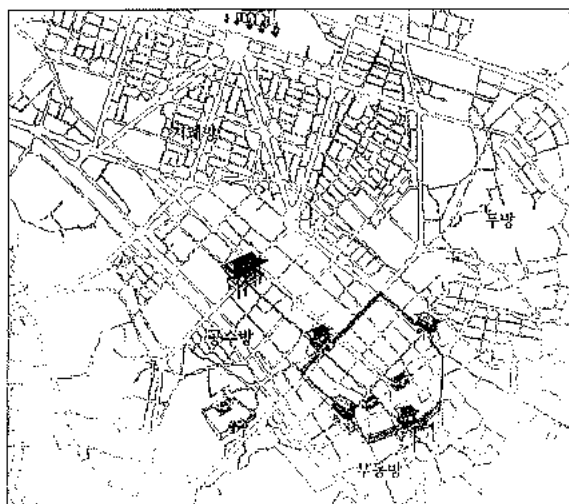
전득엽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Cheon Deuk-Yeom

광주의 도시계획

광주가 관할청 소재지가 된 것은 1896년의 일이다. 이때 광주의 시가지는 광주읍성(光州邑城)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지금 추정되는 성지(城址)는 대의동(구) 광주문화방송이 있었던 곳과 제봉로~중앙초등학교 정문을 돌아 중앙로 네거리 총장로 파출소~광주 세무서 못 미처 황금동 네거리(현 리버사이드 호텔로 가는 길)~(구)광주 미국문화원~(구)광주 시청~전남대 의대로 가는 삼거리~전남도청 뒷담~(구)광주 세무서 앞~광주 지방노동청~(구)광주 문화방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성의 흔적은 1907년의 일본인 지적 측량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광주읍성의 철거는 일본에 의해 1908년에 시작되어 1914년 읍성 밖 누운의 철거를 마지막으로 완료되었다. 읍성철거 이후의 일련의 도시계획은 1925년에 수립된 하수도설치, 하천 개수, 시장정비 등의 시가 미화정화사업계획을 시작으로 1930년경에는 오늘날의 광주도심을 형성하는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전후로 1923년과 1935년의 2회에 걸친 광주면(읍)의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졌다. 1939년에 이르러 조선총독부 고시 901호로 광주의 도시계획은 처음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대상구역 면적은 34.905km²로 인구는 15만명으로 계획되었다.



옛 광주 읍성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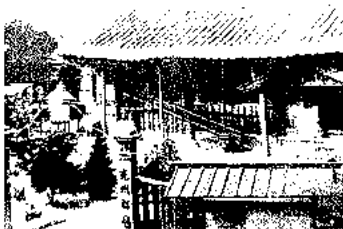
해방이후의 광주는 일제치하에서 수립된 도시계획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채 발전해왔다. 1967년에는 건설부고시에 의해 재정비시 계획구역을 광주시 행정구역과 일치되는 214.92km²로 확장하여 용도지역의 지정 및 가로망 등의 제반시설을 계획하였고, 1973년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광주시와 장성·화순·나주군 일부 등 527.73km²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광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재배치, 교통체계정비 등의 필요성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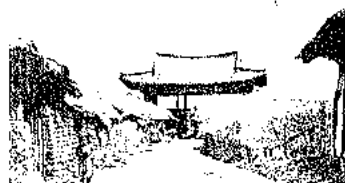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과 균형적인 국토공간의 형성을 위하여 광주에 서남권의 중추관리기능을 부여하고 기반 확충과 기본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도시 기본계획이 1984년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지향한 장기적인 기본틀의 필요성에 의하여 1986년에 도시 기본계획의 지침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부여된 광주시의 도시기능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도시정주체계의 확립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옛 전남도청



광주군청청사



전남이고 부근 서원문

광주 건축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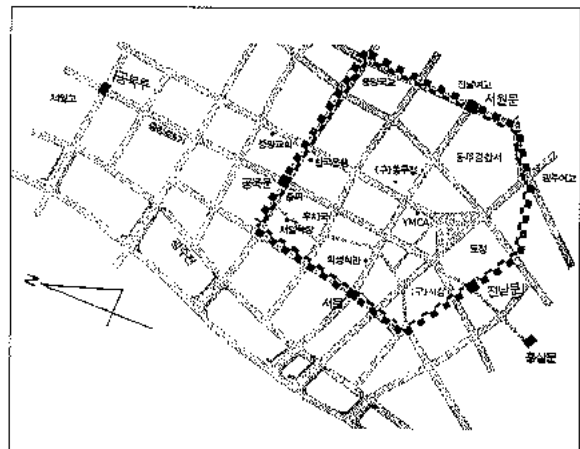
1) 1945~1950년: 건축계의 혼돈과 여명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은 한국에 해방을 가져다 주고 건축계를 비롯한 문화면에서 새로운 의욕이 넘치게 되었다.

광주의 경우는 지역적인 낙후성으로 건축계의 활동이 다소 부진하였다. 미군의 군정 우익과 좌익 정권다툼 등 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광주의 건축계는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되는 무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어쩌다 세워진 건축물들은 일제시대의 건축양식을 답습한 상황이 많았고 건축자재의 부족은 서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광주에 세워진 건축물은 김한섭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합동강의실이 기록상으로 유일한 것이다. 이밖에도 원로 건축가들과의 대담으로 밝혀진 것은 조선대학교 본관,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이 있다. 1930년대~1950년대 금남로와 충장로 주변에는 한식기와의 단층 목조가구와 조적식 2층의 일식건물이 섞여 있었고 금남로는 15m, 충장로는 현재와 같은 7m정도의 노폭이었다. 개구부는 거의 목조창틀에 유리를 박아 놓은 형태였으며, 상층부는 주택, 하층부는 점포로 이용하거나 단층일 경우에는 전면부를 점포로 안쪽을 주택으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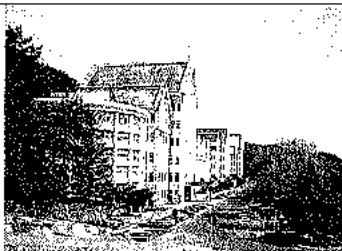
입면의 형태는 하층부를 전면 창으로 하고 상층부가 상하로 길쭉한 장방형창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전면부에만 타일 붙임을 하거나 격자형의 장식을 넣은 것이 많았다. 일층과 이층의 사이에는 1m 정도의 캔틸레바 슬레이트 지붕천막 등을 돌출시켜 비를 막고 차광을 시켰다. 이후 기존의 1~2층짜리 조적식과 목조주택들이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식을 혼합한 3~4층짜리 점포로 교체되는 작업이 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말까지 계속되며, 충장로의 경우 상당수의 조적식과 목조주택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3~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몇몇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점포들이 파사드만을 그때그때 변형시키는 실정이다.



현재 도로 구조위의 읍성

2) 1950년~1959년: 전쟁에 의한 파괴와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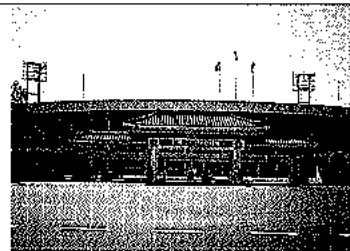
해방이후 광주의 건축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후 복구에서 출발이 되었다. 도처에서 복구 공사가 진행되어 침체된 업계도 숨을 돌리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업가들이 공사 수주에 덩핑현상으로 도산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전남대학교 문리대 강당, 전남대학교 법대 본관(현 박물관),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전남대학교 본부, 광주사범대학과 광주사범부속초등학교, 교육대학 3호관 등이 지어졌으며 건축가 김한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김한섭의 작품으로는 1951년 광주제사공장 복구설계와 중앙극장, 사범대학과 사범부속초등학교, 광주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인 용아빌딩, YMCA회관 등이 있다. 1957년 충장로 47에 있는 김한섭씨의 용아빌딩이 이 지역에서 최초로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5층)의 고층건물을 시도함으로써 본격적인 근대주의 양식이 도입된다. 용아빌딩은 작가 김한섭씨가 일본에서 근대주의 건축양식을 수학하고 귀국한후 르 꼬르뷔제의 도미노 이론에 충실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때부터 철근콘크리트조의 바닥과 뼈대, 전면 커튼월(유리), 측면 벽돌쌓기 형태의 4~5층 사무실 건물들이 20여년 동안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1958년에 설계된 김한섭씨의 또다른 작품 YMCA는 철근콘크리트에 의해 추구할 수 있었던 기하학적 아



조선대학교 본관



구 전남대학교 법대(현 박물관)



무동경시장

름다움과 조형주의를 표현한 작품으로 웅아빌딩과 함께 이후 사무소 건물의 외관을 지배하는 지침서가 되다시피한다. YWCA는 원통형 매스와 장방형 매스가 결합하고 원원형의 지붕이 씌워지는 등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들이 있었고 근대주의 조형언어의 대표적인 수직 캔틸레버와 수평띠 개구부의 필로티 처리 등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지질 않았지만 봉남빌딩, 양림교회, 산업은행, 전신전화국 등이 주목할 만한 건물로 전해진다.

3) 1960~1969년: 행정기관에 의한 실험과 논쟁의 10년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시작된 1960년대는 정치적 혁신기운, 민족주체의식, 경제 개발계획 등으로 건설수요가 다시 늘게 되고 건축가에게 부과되는 요구는 다양하였다. 갑작스러운 건축수요가 이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관계로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다소 혼란한 점도 있었으나 60년대 한국의 건축이 적어도 형태상(콘크리트 구조술의 발전과 국산 금속판 커튼월의 개발)에서는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1960년말부터 1970년대초 광주의 사무소 건축은 같은 시기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나타났던 국제주의 양식의 도입에 의한 도구주의적 입장이나 조형주의를 감성적으로 수용하여 추종하는 양상을 찾기 어렵다. 단지 사무소 건물들은 기능과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건축을 이해하면서 형태미에 대한 집착을 고집하지는 않은 경향을 나타낸다.

60년대 광주의 건축은 주로 50년대에 활약했던 건축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대표적인 건축물은 김한섭의 전남의대 간호원 기숙사,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서광주 세무소, 전남직업자병원, 전남의대부속병원 전염병동, 태평극장,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광주여대 문리대도서관, 무등경기장, 동아백화점, 대한결핵협회 전남지부, 권소아과의원, 광주은행 남부지점 외에 계획안으로 무등산관광시설 종합계획, 전남의대부속병원 증축설계가 있으며 다른 건축가의 작품으로 학교건축에 전남대학교 공대1호관,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 사레지오 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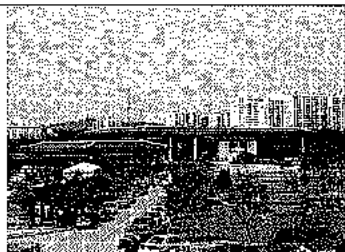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육대학부속초등학교, 관림집회시설에 현대극장, 시립박물관(광주공원내), YMCA회관 등이 있다. 또한 근년에 작고한 김태만은 제일극장, 제일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전남방직공장, 목포교육대학미술관 등의 작품을 남겼고, 현재의 생존하고 있는 정옥진은 호남전기((구)로켓트 건전기), 아세아극장, 중앙과자점, 광주극장, 한미제과 같은 작품을, 채규당은 광주세무서, 한미빌딩, 광천동 시민아파트, 상업은행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이 당시에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은행(60년대로 추정), 제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농협광주지소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광주역(신역)이 들어서면서 구역은 소방서로 사용하게 되었고, 기타의 건물로 전남의대부속병원, 제일교회, (구)원호청 등이 있다. 하지만 광주의 건축은 여전히 지역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에서 보였던 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도 건설되지 않았다. 1960년대초 광주지방의 건물들은 토지 사용의 최대효율이라는 건축주의 요구와 조형성을 고수하려는 건축사의 작가적 의지 사이의 갈등이 건축물의 외관에 가장 많이 보였던 시기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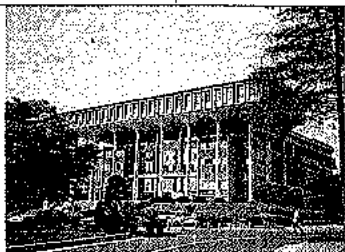
60년대 광주 건축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주거 건축에 있어 일어난 아파트 붐이다. 최초의 관영아파트라 할 수 있는 광천동 시민 아파트와 농성동 시민 아파트가 건설되고, 60년대 후반부터는 민영아파트가 대자본으로 태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미도아파트, 공무원 아파트가 이 시기 아파트 건축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간의 손에 의해 처음 지어진 미도아파트는 가히 호남지방에서 민영아파트로 최초라 할 수 있다.

전남의 중심도시인 광주의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자연스럽게 건축물이 늘어나게 된 요인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관영, 민영 할 것 없이 일어난 각양각태의 들쭉 건축붐은 73년의 오일 쇼크 때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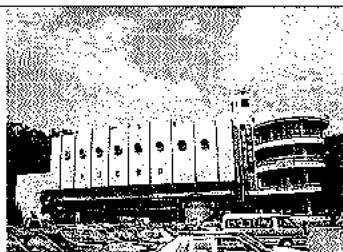
4) 1970~1979년: 성장속의 변화와 가능성



광주민속박물관



전남대학교 대강당



광주시민회관

70년대는 60년대에서 가졌던 건축의 의의가 정립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시기이다. 70년대에 보인 괄목할 만한 변화는 기념적 공공건축의 속출, 업무용 건축의 대형화, 주거건축 형식의 변모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70년대에는 광주에도 10층이상의 빌딩이 들어서게 되었다. 전일빌딩(현 광주일보 사옥), 중앙교회, 그리고 이광로 설계의 전남의대부속병원 등이 대표적 예이다. 종교건축으로 카톨릭센터와 원불교가 지어졌고, 학교건축으로는 김한섭의 상경 이후 임영배가 전남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강당,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등을 설계하였다. 또한 임영배는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인 광주공원에 시민을 위한 개방된 집회장인 시민회관을 설계하기도 하였는데 이 작품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여하는 공공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우수한 작품이다. 그 밖에 70년대의 주요 건축물로서 국립광주박물관, 상공회의소, (구)전남매일신문빌딩, KBS방송국, 무등극장, 직업훈련원, 광주학생회관, 광주우체국 등이 있고, 농협전남도지부, 광주은행 구 본점 등의 금융기관이 준공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5층이상의 고층화 승강기의 사용, PC커튼월식 외벽구조 등 새로운 구조기술상의 가능성으로부터 설계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의 기술의 표현과 기계미학적인 외관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말까지 계속된다. 외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1960년말~1970년초 사이의 건물들과 유사하나 장식적요소는 거의 퇴화되어 그 흔적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이다.

이 시대 등장하기 시작한 화니백화점, 제일백화점, 무등백화점은 본격적인 백화점 시대를 알리고 있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전면 커튼월 창을 두는 등 일반 점포나 사무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거 건축에서는 아파트 붐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아파트에 생소한 시민들은 처음엔 아파트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꺼려했으나 차츰 도처에 아파트가 생기는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 하였는데 금남로의 카톨릭센터 뒤쪽에 위치한 금남맨션과 무등빌딩 뒤쪽의 무등아파트가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또한, 79년에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일반화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고, 쌍촌동 주

공아파트가 광주 주공아파트의 최초이며 뒤로 운암동 주공아파트가 얼마 안 있어 세웠졌다.

5) 1980년대 이후: 지속적 발전과 개성건축의 실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건축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건축인들은 김종업, 김수근 등 저명한 건축가를 중심으로 개성과 자신의 건축철학에 바탕을 둔 건축활동을 펼쳐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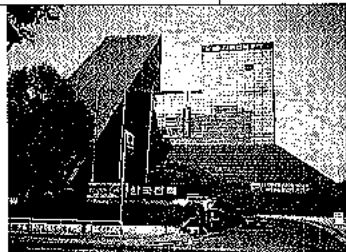
광주의 건축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래된 건물은 철거하고 참신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다양하게 들어 섰으며 전반적인 고층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들어선 15층 이상의 빌딩은 광주백화점이고, 지금은 옛 관광호텔자리에 지어진 무등빌딩 등의 많은 고층건물이 금남로 변에 가득 서있다. 이 시기에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은 부지기수이나 잘 알려진 대표적 건축물을 살펴보면 은행건물로서 동화은행 광주지점, 국민은행 본점과 서방지점, 한일은행, 서울은행 대부분이 고층빌딩을 본점으로 이용하고 있고, 보험회사 건물로서 교보빌딩, 삼성생명, 대한생명, 자동차보험 등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시설로서는 호남대학본관 및 호남대학 제2 캠퍼스,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광주대학교 본관 등을 들 수 있다. 형태적으로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작품으로는 한국전력전남지사건물이 있는데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파사드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또한 김종업의 MBC방송국과 유연창의 영광실산부인과, 박희수의 광주건축사회관도 수작으로 손꼽힌다.

한편 현대건축의 이슈로 등장한 전통건축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측면에 있어 전통사찰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송양석의 관음사도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거에서도 많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아파트 생활의 정착화가 이루어 졌으며 단독 주택도 건축가의 열의로 개성이 듬뿍 담긴 좋은 작품이 많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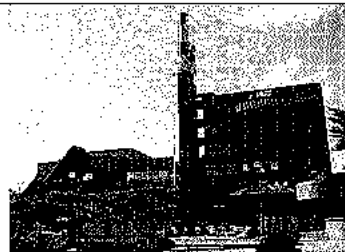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건물 이외에도 많은 상업적이고 감각주의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다



원불교 광주교구



한국전력 전남지사



광주문화방송

소 안일한 작품경향의 건물들이 들어섰다. 반면 필터를 사용하여 대지의 해석을 새롭게 시도한 성산타워나 매스를 강력하게 분절하여 뿔뿔이 들어가는 듯한 문의 이미지를 형태화시킨 광주건축사회관 등은 이 지역 건축가들의 자생적 의지가 돋보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들은 미약하나마 건축을 경제의 논리로 이해하려는 형태를 극복하려는 건축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6) 1990년대 이후: 새로운 100년의 준비

80년대의 작가정신에 바탕을 둔 활발한 활동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그와 더불어 지역에 대한 보다 확대된 관심은 광주라는 도시의 지역성과 풍토에 알맞은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작품을 살펴보면 한진수의 소태동 K씨 주택과 신안동 Y씨 주택, 한종언의 시립광주박물관, 고속터미널, 남상금의 문주회관, 양동현의 오차동 성당, 강영호의 동강빌딩, 류연창의 광주시 교원연수원, 김성현의 전남대학교 동창회관, 강남구의 신용협동조합 광주연합회관, 박화수의 CBS광주방송국, 최영집의 마니빌딩, 문성식의 월산동 K-빌딩, 김상식의 광주문예회관, 주석중의 부국빌딩, 공간사에 의한 광주은행 본점과 학동지점 등이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광주지방의 건축문화 진작을 위하여 광주 건축상이 시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작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남도전에서 분리된 광주 시전의 건축분야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겨루고 있다. 또한 대학 교수와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인 건축사가 주축이 되어 광주·전남 대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캠프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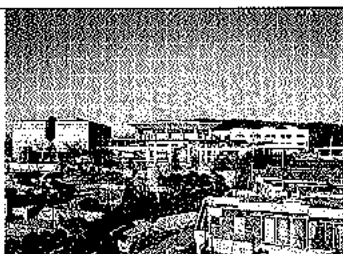
광주건축의 과제

광주의 건축은 당시 서울지역의 건축에 비해 그 기술수준이나 조형의지 등이 10~15년정도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 된다. 특히 동시대의 타 지역과 견주어 볼때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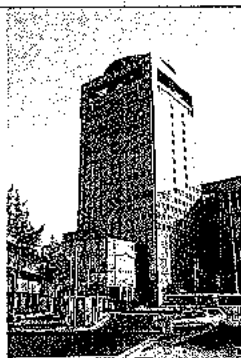
식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하려는 형식주의와 표현적 경향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건축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과 그 대안으로서 비판적 지역주의 등과 같은 노력이 부족함은 근대적 건축기술의 발전속도가 급격했던 것이 그 일차적 원인이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 60년대 후반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에 비해 몇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 지역건축가들의 자생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건축주의 경제성에 쉽게 아합해 왔다는 것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70년대 대부분의 대규모 사무소 건물들이 서울 지역의 설계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점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구 근대주의 건축가들과 다른 점은 사회의 필요에 대한 판단에서 엘리트적 입장을 결코 취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오직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수단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강구해내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현상은 기능주의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회적 순응주의가 기능주의 자체를 고수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역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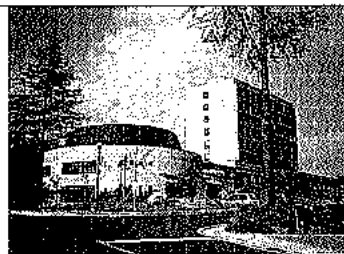
그러나 해방이후 줄곧 보여왔던 이 지역 건축의 낙후성이 아직까지 느껴지는 건 부인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건축가들의 의욕적이고 과감한 창작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천박한 상업주의 건축문화에 빠져있지 않은지, 나와 우리와 주변 문화를 생각하는 모태적 의미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되돌아 볼 때이다. 지역의 경제력이 뒤떨어진다거나 건축환경이 미진하다는 자위는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예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단순히 남도의 그림이나 글씨, 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왜 건축에서는 이러한 맛과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지역의 풍토성에 맞는 우리다운 건축을 추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건축적 심미성에 감흥을 느끼는 작품들이 창출되기를 바란다.



광주문예회관



광주은행 본점



전남대학교 본부

나주, 천년의 역사, 그리고 가능성 Naju, the First Millennium, and Potentials

이효원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by Lee Hyo-Won

나주의 지역적 배경

나주는 노령산맥의 말단부이며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에서 보면 전남의 한 가운데에 있다. 금성산 일대는 산지이며 주위에 남산을 비롯한 나지막한 구릉들이 존재한다. 이 일대를 제외하고 동쪽과 남쪽은 대체로 평탄하다. 금성산에서 흘러내린 나주천이 나주를 관통하여 영산강과 합류하며, 도시의 남동부를 타고 흘러간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나주지방을 청동기시대를 포함한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서남해 지방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하였다. 마한시대에는 현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마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고려시대에는 전국 12목의 하나인 나주목, 이어 조선시대에까지도 행정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 호수가 22,330호로서 조선 말기 20개의 목중에서 5번째로 큰 곳이었던 나주목은 전결수가 28,000결 이상으로서 전국 최고였다고 정약옹의 경세유표가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는 오래 전부터 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곳으로 읍성이 있었으며, 읍성의 윤곽은 현재에도 남아있다.

1895년 근대 행정개편이후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영산포읍, 나주군과 통합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주는 영산포와 길게 연결된 선형의 시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의 구조는 여전히 읍성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제 강점 하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가치의 교묘한 파괴와 함께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의 소외는 과거와는 다르게 금세기의 나주를 전남에서도 5, 6번째의 도시로 전락하게 하였다.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만나고, 호남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느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나주의 과거와 현재

지역의 특색을 건축이라는 문화영역에서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모습이 부정적이라는 공통의 시각에

서 출발한다. 특히 이 유형의 지역적인 특성을 유형화된 상태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는 경제활동의 진작, 외부 인구의 흡인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나라와 구별지으려는 것에서 시작하며 암맞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뒤를 받친다.

그런데 이 지역성을 시간의 누적이 공간속에 실체화하는 과정과 그 흔적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에서 찾으려다 보니 그 지역의 과거와 관련짓게 되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보존과 재현이 과제로 떠오른다. 이런 이유로 각 도시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모아진다. 전주와 익산처럼 과거의 전통문화가 남아있는 도시는 전통적인 형태에 집착한다. 남원처럼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현실화되거나 홍길동을 두고 다른 지역들이 연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 고장의 특산품이나 자연경관을 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건축적 형태의 근원은 전통에서 찾고 있다.

나주는 전통의, 즉 과거의 흔적이 축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읍성의 윤곽이 파괴로 대변되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도 아쉬우나마 견재하고, 그 읍성영역의 안에는 문화재라 불리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보물394호인 나주향교 대성전을 비롯하여, 객사인 금성관, 나주향교, 정수루, 나주목사내아, 사마교비 등이 있으며, 과거 읍성의 남문이 복원되어 있다.

이러한 실체적인 근거는 나주의 공공건물이 취하고 있는 유형에 대하여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나주와 영산포 사이의 신도심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시청사와 문예회관, 도서관의 형태는 80년대 이후 양식화되다시피 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향토예술회관은 좀 더 과거의 형태이면서도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건물들이 취한 형태가 전국 통일의, 거의 표준화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위 뼈대가 있으니 덜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의 건물, 특히 관이 주도하는 건물이 아닌 일반의 상업건축과 주거건축으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읍성공간의 틀에서 파생된 나주의 가로망은 좁은 도로폭으로 말미암아 3, 4층이 넘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 건물들에서 나주만의 특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읍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가로망을 개선할 경제적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것은 읍성의 성벽이 일부 남아 있음에도 그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 공공의 개발행정에 의해서도 훌륭한 역사문화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타도시에 비해 도시화의 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겪게 되어 역사문화환경이 덜 파손되고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현재의 긍정적인 측면이 보존과 활용의 대책이 없이



나주 고지도

무분별하게 방입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나주의 위상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보이지 않고, 나주와 상관없는 아침저녁의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체증에서나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광주의 30분 거리라는 조건은 도시의 역량을 감소시키고, 퇴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규모의 경제나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예측화의 문제 등은 나주에 지어진 대부분의 소규모 건물들에서 서울의, 혹은 광주의 아류일 뿐이며,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저급한 평균만을 유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영산포의 거리는 몇 해전인가 60년대의 영화세트로 사용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는 객사, 정수루, 목사내아 등이 일정 거리를 두고 원형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변의 신축건물에 의해 포위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장점마저도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의 가능성

현재의 지역성, 혹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근대건축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 사조의 입장이 아닌 정체성 확보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욱이 현재의 상황은 그저 다른 도시와 구분되는 차별성의 획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떠한 취지로 시작되었던 언젠가는 얻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성이 우리를 채곤한다.

나주라는 도시의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다만 그

지역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현재에 진행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나주는 유서 깊고, 전통적인 면이 살아있다고 강변할 수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전통이란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원형이되, 현재에서의 의미와 결부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주의 현재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특히 나주와 같은 도시들이 범하기 쉬운 과거의 집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양의 가사문학관처럼 전통건축을 콘크리트로 변인하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전통이 유형론에 빠지게 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으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속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전통의 계승이겠으나 밖에서 본다면 아마 지역주의가 아닌 풍토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의 모습일 것이며, 본질이나 정신이 아닌 외면된 흥밋거리의 혹은 색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것이다.

공간과 형태, 장소라고 하는 건축의 본질 측면에서 나주는 앞에서 지적된 한계속에서 융성의 흔적과 과거의 도시구조, 별로 개발되지 않은 낮은 건물은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이 근대화 때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에 비해 나주는 별로 저질러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여 앞으로 발전적 모습을 만들어가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름 없이 그저 구 군청(현 나주시 2청사) 앞 도로라 불리는 2차선 도로와 남문 앞의 중앙로는 나주의 대표적인 도로이다. 전자는 과거의 중심도로였고, 후자는 근래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다. 구 군청앞 도로가 좁고 불편해 보일 망정 다른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중앙로보다는 나주만의 개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골목 한 칸의 작은 전각사이에 돌담이 지나가고 멀리 보이는 산 위에 현대의 건물이 공존하는,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은 나주가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의 하나이다. 물론 현재의 건물이 건축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건립될 때라는 전제가 붙는다.

과거 근대건축과 같이 절대적인 전범(典範)이 없이, 각자의 차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건축적 양상이다. 포스트모던도 해체주의도 모두 이런 맥락으로만 치부되는 요즘의 상황은 우리에게 긴 세월동안 외부의 것을 받아만 왔던 한계를 극복할 처음의 기회로 보여진다.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양식화된 형식이 아닌, 공간과 장소에서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통감각에 조응하는 건축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현재의 나주에서 그 단초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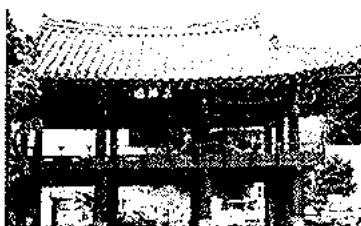
나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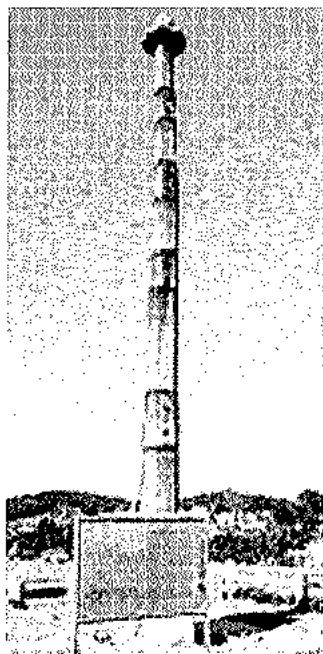
나주향교 대성전



나주 금성관(객사)



정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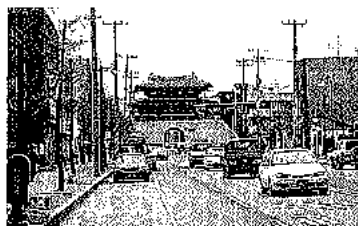
동문밖 석당간



나주시 전경



나씨 삼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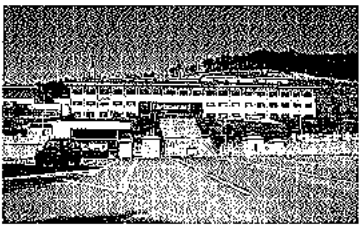
중앙로의 남문



나주목사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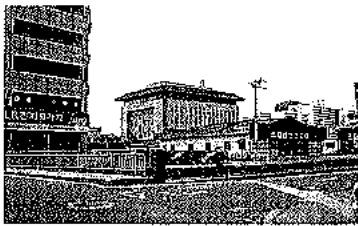
영산강과 영산포



나주시청



나주시 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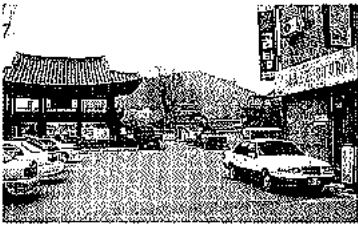
도서관



향토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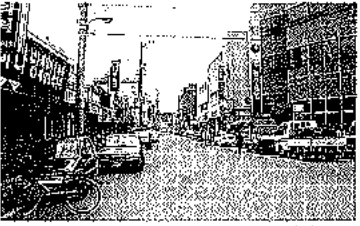
탐양 기사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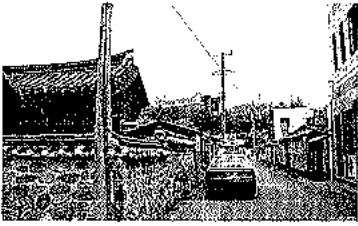
정수루 옆 가로



군청앞 도로



구 군청앞 도로



중앙로 옆 골목

목포 1세기의 역사와 근대건축 History and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Last Century of Mokpo

김지민/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Ji-Min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엮어 나가고 있는 '지역 건축탐방'이란 테마기행의 글을 통해 그간 여러 차례 각 지역의 건축을 접할 수 있었다. 춘천은 춘천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그들의 역사와 특이성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과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성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80년대부터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해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이 점차 반감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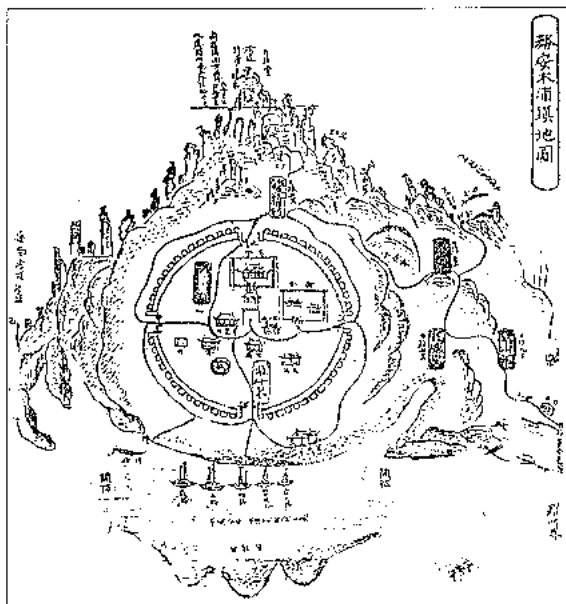
한반도 서남쪽 끝에 자리한 목포도 언제부터인가 신도시, 신외항, 산업도로 등의 단어가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재보선창', '뒷개' 등 이 도시 고유의 언어가 어색해져 가고 있다. 과연 21세기에도 한국의 지역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인가.

근대화 이전의 목포

흔히 목포의 역사를 개항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목포가 될 수 있었던 제일 빠른 시작이 바로 그때였고 또한 아직까지도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개항전의 목포는 한국의 어느 해변가처럼 반은 농사짓고 반은 고기잡는 그런 조그마한 촌락이었다.

개항이전의 목포 역사는 크게 ① 선사 이래 고려 말기까지의 시기와, ② 목포 만호진(萬戶鎭) 설치 이후부터 개항 직전까지의 시기로 대별할 수 있는데 ①의 시기는 고대문화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목포라는 지역의 역사적 실체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다. 그렇지만 양호한 해로를 사이에 둔 도서(島嶼)와 해안지역, 그리고 내륙으로 길게 만입되는 영산강 유역에 위치했던 관계로 물자는 물론 제반 문화의 이동 루트로서 이 지역의 위치는 크게 중요시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목포 일대는 조선초기의 수군 만호진(水軍 萬戶鎭)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헌기록에 오른다. 세종실록 권 58, 14년(1432) 10월 을사조(乙巳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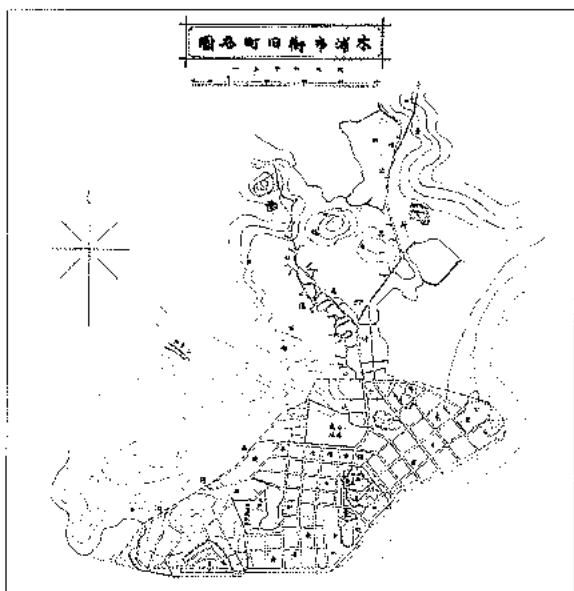
(그림1) 목포진(木浦鎭)지도(19C중~말).
우측의 아사(衙舍)에서 개항초 일본이 영사업무를 보았다.

"본도의 수영(水營)을 목포에 옮겨 배치하고 목포의 병선을 황원남면(黃原南面)의 주양(周梁)으로 옮겼다"고 되어있다. 그후 세종 21년(1439) 4월 임진(음력 4월 15일)에는 무안현(務安縣)의 목포가 왜적침입의 요해처이므로 만호를 파견하고 병선을 주둔해야 한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역사적인 목포 만호진이 설치된다. 따라서 목포의 역사는 개항(1897년) 100년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만호진이 설치됐던 15세기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도 좋을 것이다. 만호진이 설치됐던 위치는 현재의 목포시 만호동 일대의 높은 구릉지이다. (그림1)은 일제에 의한 개항을 불과 얼마 앞둔 19세기중~말기 사이에 제작된 목포진(木浦鎭) 만호진(萬戶鎭) 지도이다. 성곽안에는 객사(客舍)를 비롯하여 아사(衙舍), 군관청(軍官廳), 사부청(射夫廳), 작창(作廳) 등의 건물이 보이고 성의 북쪽으로는 유달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삼학도가 그려져 있다. 아사는 개항 당시에 몹시 허물어져 있었으나 일본인들이 이곳에 일장기를 달고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임시 영사관 건물로 사용하였다.

목포 만호진은 고종 32년(1896년) 7월 15일 칙령 제141조 의해 폐지되면서 영원히 목포땅에서 전통적 조선식 관청은 사라진다.

개항: 1897년

한국은 19세기 후반 타율적으로 개항(부산: 1876년, 원산: 1880년, 인천: 1898년)이 되면서 서구건축의 유입이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목포 역시 189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시형성과 함께 서구건축을 접하게 됐다. 개항 당시 목포 모습은 만호진이 유일한 관청이자 제일 큰 건물이었



〈그림2〉 개항초기 목포지도

고 한국인들은 주로 현재의 북교·죽교동(당시 쌍교리: 雙橋里) 일대에만 모여 살았다(약 90여호).

청일전쟁으로 사기가 충만한 일본은 고종 31년(1894) 12월에 전라, 경상 양도의 서남부를 순항하며 새로운 개항장을 물색하였다. 2주간의 조사 끝에 목포항이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까닭은 ① 영산강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 소비시장까지 기선으로 화물의 운반이 가능하며, ② 나주, 광주 등의 큰 시장을 배후에 끼고 있어 화물의 집산장으로 하기에 적합하고, ③ 전라도의 쌀을 운반해 들어오기에 가장 편리한 창구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목포 개항의 목적은 처음부터 순전히 일본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1853년 일본은 미국의 대포소리에 놀라 개항의 문을 열었고 메이지정부는 재빠르게 사회를 봉건사회에서 근대산업사회로 전환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후에 초기 자본국가가 한 듯이 조선에 1876년 2월에 군함 7척을 이끌고 남양만에 나타나 위협포격을 가한 뒤 인천항과 원산항을 개항시켜 재미를 보고 있던 중 1894년 청일전쟁으로 사기가 충만한 일본은 다시

목포를 개항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반농반어(半農半漁)의 100여 호 가구가 모여 살았던 조그마한 포구가 크게 슬럼하기 시작했다.

주인 잃은 목포, 그 반세기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1930년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은 당시 주인 잃은 이 나라의 설움을 목포라는 무대를 통해 토해낸 한 맺힌 가요이다. 당시 목포는 전국 10위내에 드는 화려한 근대도시로 탈바꿈하였지만 주인 잃은 도시는 결국 '목포의 눈물'을 쏟아냈던 것이다.

1) 개항 ~ 1910년

개항이 일본에 의해 주도 되었기에 1897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목포 개발이 일본인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영향으로 개항당시 2,806명(한국인: 2,600명, 일본인: 206명)이었던 인구가 1910년에는 10,655명(한국인: 7,076명, 일본인: 3,494명, 기타외국인: 8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목포의 주요 거주지는 각국 조계지구(租界地 區: 대부분은 일본인 거주지, 매립지, 면적 1km)내의 계획 시가지와 쌍교동방면(한국인 거주지, 산기슭, 면적 11.44km)의 비계획 시가지이었다. 이 두 거주지는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로에 의해 상호 연결되었고 한국인의 주 취업 장소(조계지장 정에 동 지구내에는 한국인 거주 불허)가 조계지구 이어서 조계지구 주변이 새로운 집적지로 형성되어갔다.

당시의 대표적인 시가지인 각국 조계지구는 그 시가지 형태에 있어 인천조계지(仁川租界地)의 영향을 받았으며, 항구개발위주의 시가지, 신도시로서의 근대적 기술(격자형 도로망, 사회기반시설인 상수도, 공원설치)을 적용한 시가지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인의 쌍교동지구(지금의 북교동 부근)는 자연 지형을 따라 자연 형성됨으로써 그 형태가 불규칙하였으며 사회 기반시설도 거의 전무하였다. 가구 및 획지분할은 조계지구의 경우 60~80×60~80m의 사방형 필지로



유달산에서 바라본 시가지(1930년 경). 중앙의 높은 구릉이 만호진 자리.



일제시대 남해안 모습. 뒤편의 3개 섬이 삼학도이다.



유달산 남쪽기슭아래 시가지 모습. 좌측 2층건물이 목포영사관.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은 조계지장정(租界地章程)에서의 경매 및 분할 금지 규모로서 필지당 500~1000㎡ 이상일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인 지구는 불규칙 조밀(필지당 100~200㎡)하였다.

이상과 같은 당시 목포의 시가지 확장은 방조제 축조와 함께 간척지 매립공사에 의한 것이었다. 즉 목포의 도시구축은 특수한 자연지세로 인해 간척과 매립의 반복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침수 등이 잦다. 특히 시가지 대부분이 뿔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등 단순구조물 공사여까지도 강제말뚝을 박아야 하며 특히 지하층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1910 ~ 해방

한일 합방이후 일본의 세력(일본인 인구: 개항전 206명, 1910년 3,494명, 1923년 7,021명)이 급격히 신장하면서 목포의 시가지 확대는 급속히 늘어난다. 1910년대의 온금동, 북교동 일대의 개발, 1924년의 양동, 남교동 일대의 매립, 이어서 역전앞 호수매립(1923~1923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국도 1호선 개통(1911년), 호남선 철도 개통(1913년)등도 도시개발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공공건물, 상업건축, 학교, 주택 등이 서구 또는 일본 양식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이후 목포의 권역은 연안항로가 그 전보다 더욱 발달하여, 제주도는 물론 영암, 무안, 나주, 장흥, 원도, 진도, 영광군 등까지 그 권역이 확대되었다. 육로의 경우도 버스노선의 확충으로 영산포, 무안, 함평, 영광군까지 확대되었다.

목포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1934년 당시 8,771명으로 전체 55,667명의 15.7%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사회기반시설이 완비된 구조계지구와 역전의 신개발지이었고 주거·상업·공업 등의 용도 혼재는 있었지만 평균거주밀도 120인/ha로 저밀(한국인 거주지역의 평균 거주밀도는 214인/ha)하였다.

1937년은 장래 시가지 발전에 영향을 미친

법정계획으로서 「목포시가지계획(木浦市街地計劃)」이 수립된 해였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1965년을 목표로 한 목포 인구는 14만명으로 잡은 향후 30년의 장기계획이었다. 현재까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는 가로망계획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중앙로, 1호광장 - 죽산주택단지, 2호광장 - 동국교 - 원산정, 3호광장 - 경찰서 - 백련동 - 북항을 잇는 간선노선은 당시의 계획 그대로를 개설했던 것이다.

3) 해방이후 ~ 1970년

해방이후 다시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 목포 역시 도시발전이 없었다. 한편 전쟁이후 두드러진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학도(三鶴島) 항만개발 사업(1955~1969)이었다. 1940년경 일본인이 세운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추진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업은 결국은 목포의 상징이요 전설적인 3개의 섬들이 내륙과 연결되면서 삼학도의 아름다운 풍광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에 들어 뜻있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삼학도를 복원하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자는 매우 뜻있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전국적으로 1960년대는 '개발'과 '도시화'가 시작한 시기이다.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산업구조가 바뀌고 그 영향으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를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 하지만 목포는 상가 경제개발에서 제외되어 인구의 전국 순위는 1966년에 16만2천명으로 8위, 1970년에는 17만8천명으로 전국 9위, 1977년도 항구물동량은 전국 7위로 목포의 상대적 지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한편 인구 증가 규모는 적었지만 세대수 증가, 가치관 변동, 기존시가지내의 과밀화, 행정구역확대(1962), 중앙로 개설(폭 25~30m, 1961~1972), 목포시가지계획 및 목포도시계획의 수립(1937, 1967) 등으로 시가지는 외곽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특히 중앙로의 연변을 따라 매립(1925~1932)한 웅해·웅당지구의 개발이 본격화(1968~1975)



일제시대 동해안 전경



옛 목포역



목포 일본 영상관

되었다. 이 지구는 현재 목포 MBC 방송국이 위치한 지역(3호 광장 주변)으로 목포역 앞이 구 사가지 계획에 위한 목포 제일의 도심(C.B.D.)이라면 이곳은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목포 제2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붉은 시멘트 기와가 올려진 ‘ㄱ자형’ 목조주택들이 이 무렵에 많이 건립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거단지이다.

4) 1970 ~ 현재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화학 공업 정책이 수립되어 신충 공업도시(포항, 울산, 구미)가 생겨나고 농촌에 까지도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구조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목포는 중화학 공업은 물론 도시간 교통망 계획에서조차도 제외됨으로써 1960년대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인구는 인근 도서(특히 신안군 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아 1975년에는 193,000명으로 전국 12위, 1980년에는 222,000명으로 14위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주거지를 필요로 하게 되어 삼학도 IBRD 주택단지(1976~1978, 14ha, 721호)개발, 용당 APT 단지(1976~1978),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목포 최초의 신원해 APT 단지(1978~1980)가 개발되었다. 이중 삼학도 주택단지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설계된 단지로서 평가되었다. 가구 분할은 그 크기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25~30m×80~110m이며, 전 지구 모두 2열식 필지배열이 특징이다. 한편 필지 분할은 보통 A Type(12~13×13~14m, 단독주택), B Type(7.5~8×13~14m, 연립주택), C Type(13~14×16~17m, 자유입지)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다양한 사가지 형상을 유도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제5차~제7차 경제개발 계획(1982~1992)을 비롯하여 제2차~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1981~1991)이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하지만 목포는 그러한 계획에 의한 도시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 역시 1993년도 227,000명으로 1980년도와 달라진게 없으며 현재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 시기는 목포의 큰 상거래 대상이었던 신안 도서지역민이 목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광주나 서울로 거래 내지는 이주를 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광주가 커지면서 더욱 목포가 위축되게 되었다.

한편 목포의 쇠퇴 내지는 목포권의 축소에 대한 지역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었다. 대불공단과 산정 농공단지 유치(1989), 국제 자유도시건설 구상과 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자매항체결(1992, 국제화), 목포가 “L”자 국토축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토축의 수정요구(1989), 목포인근의 무안군 삼향면으로 도청이전계획(1994~1995) 등이 추진되었고, 아울러 그 터전이 되는 시행정구역의 확장 움직임이 몇 차례 행하여졌다. 즉 영암군 삼호면의 목포시 편입, 무안군과의 시군통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다. 이 외에도 무안국제공항, 산회항, 호남선 복선화 등의 초기 건설(착공)을 요구하였지만,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인 1998년도부터 그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시기 목포에서 큰 도시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당 신사가지(279ha, 1989~1995) 개발이다. 목포시가 공영개발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을 통해 대불국가공단의 배후 사가지 조성 및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지구는 어느 도시의 신도시처럼 중심부는 상업지역, 그리고 주변은 APT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변의 APT지구만 건설이 되어 있을 뿐 중앙부는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시청을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던 것이 백지화되면서 그 개발 속도가 더욱 느려지고 있다.

근대 건축

현존하는 목포의 근대건축 등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옛 목포영사관(현 목포 문화원)이다. 이외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도시계획사업, 건물의 효용성, 그리고 심각한 거부감 등 때문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헐리고 이제는 10여 곳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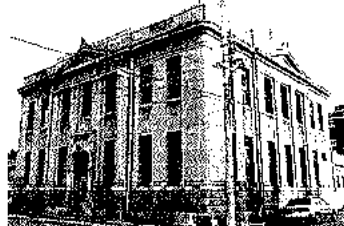
〈표1〉은 그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이 또한 언제 헐리게 될지 모른다. 〈표2〉는 현재는 훼손되고 없는 일제시대 건립된 주요 건축물이다.



조선신원은행 목포지점



호남신원은행 목포지점



동양신원은행 목포지점

〈표1〉 근대건축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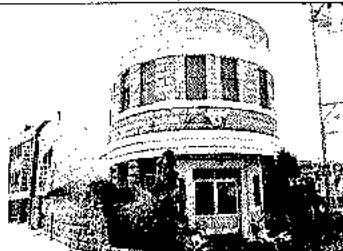
건 물 명	건 립 년 도	소 재 지	비 고
목포일본영사관	1900년	목포시 대의동2가 1-5	사적제 289호, 2층 벽돌조, 현 목포문화원
호남은행 목포지점	1925년	목포시 상림동1가 10-2	2층 벽돌조, 현 조흥은행목포지점
동양척식(東洋拓殖) 목포지점	1920년	목포시 중앙동2가 6	2층 석조, 사용안함
청년회관	1930년경	목포시 남교동 80-1	단층 석조, 현 임마뉴엘제일교회
등본원사(東本願寺) 목포별관	1920년	목포시 무안동 2가 4	단층 석조, 현 목포중앙교회
목포양동교회	1910년	목포시 양동 127	단층 석조, 현 목포양동교회
목포정명여자학교	1910년경	목포시 양동 86	단층 석조, 현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
목포공립심상소학교	1910년	목포시 유달동 8	현 유달초등학교 강당(1929년)

〈표2〉 훼손된 주요 근대건축물 목록

구 분	건 물 명	건 립 년 도	훼손년도	소 재 지	비 고
공 공	목포경찰서	1900년	1983년	목포시 대의동	현 초원호텔 터
	목포우체국	1900년	1950년대초	목포시 대의동 2가 1	6·25때 소실
	부산세관 목포지점	1908년	1968년	목포시 산정동 1500	현 목포세관 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점	1912년	1973년경	목포시	
	목포역	1910년	1979년	목포시 호남동 1-1	현 목포역 터
	전남 수산시험장	1926년	1991년	목포시 향동 6-12	
	곡물 검사소	1929년		목포시	
	전매국 목포출장소	1931년		목포시	
	부림 목포병원	1919년		목포시	
	파출소 3곳	1930년대	1992~4년	목포시 남교동, 대성동, 산정동	남교·대성·산정파출소
교 육	목포공립보통학교	1928년	1970년대초	목포시 복교동 1	목교국민학교
	목포공립상업학교	1922년	1987년	목포시 대성동 40-1	목포여고
	목포공립고등학교			목포시	
상 업	十八은행 목포지점	1916년		목포시	
	조선은행 목포지점	1924년	1988년	목포시 수강동	현 한국은행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1910년	1997년	목포시 행복동2가 2	현 제일은행 목포지점 터
	목포 금융조합	1929년		목포시	현 중소기업 은행 터
	목포 무진주식회사			목포시	
	목포 곡물상조합			목포시	
	목포전등주식회사			목포시	
	목포극장	1926년	1995년경	목포시 무안동	
	평화극장	1927년		목포시	



등본원사 목포별관



남교 파출소



문익수 가족 안채

〈표 3〉 주거건축 목록

구 분	가 옥 명	건 립 년 도	소 재 지	비 고
한국인가옥	문익수 가옥	1908년	목포시 북교동 137	안채, 행랑채
	심복주 가옥	1913년	목포시 북교동 131	안채, 아래채
	이돈채 가옥	1935년	목포시 북교동 71-1	안채
	김상배 가옥	1935년	목포시 북교동 155	안채, 아래채
	김상규 가옥	1940년대	목포시 북교동 102	안채, 아래채
	홍순정 가옥	1940년	목포시 북교동 96	안채
	이선만 가옥	1935년	목포시 북교동 36	안채
	박성준 가옥	1934년	목포시 북교동 103-2	안채
	김○○ 가옥	1941년	목포시 북교동 224	안채
	박희성 가옥	1930년	목포시 동달동 986	박희성 작품활동
일본인가옥	이춘진 가옥	1910년경	목포시 중앙동3가 1-3	2층 목조
	이삼훈 가옥	1920년대	목포시 중앙동3가 5	2층 목조
	김성대 가옥	1910년대	목포시 중앙동3가 6	단층 목조
	쑤소기업은행 관사	1920년대	목포시 온금동	단층 목조
	시장관사	1935년	목포시 온금동4-1	단층 목조
	김태정 가옥	1910년대	목포시 경동2가 6	우편국 관사, 단층 목조
	사슴슈퍼 가옥	1935년	목포시 중앙동2가 8-4	2층, 상가+주거
	동아약국 가옥	1920~30년	목포시 행복동2가 1-8	2층, 상가+주거

〈표3〉은 일제시대에 건립된 현존하는 주요주거건축 현황이다. 아쉽게도 당시에 지어진 많은 가옥들이 1970년대 이후 훼손되어 원형을 간직한 가옥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서민 주택은 더욱 그렇다. 당시 일본인은 자기를 거류지(居留地)인 현재의 중앙·유달동 부근에, 그리고 한국인은 외국 거류지에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개항전에 마을을 이루었던 북교동과 이외 남교동, 죽동, 온금동, 서산동 등에 주로 모여 살았다. 이들 마을은 중앙·유달동과 달리 계획된 도로 체계에 기반을 둔 주거지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굴목길 마을”로 확장되어졌다. 따라서 현재 개항이후 일제시대의 주거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개 지역에 불과하다.



이춘진 가옥



이삼훈 가옥

목포의 도시, 건축 들여다보기

A Glance into City and Architecture of Mokpo

유우상/초당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oo Uoo-Sang

들어가는 말 - 정체와 낙후로부터의 해탈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와 유달산으로 잘 알려진 목포는 1897년 개항한 이후 호남 제1의 항구이다. 조선 정부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개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지배하의 목포는 호남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특히 영산강 유역을 따라 전개되는 나주평야의 쌀과 면화를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의 공업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점 항구도시였다. 1930년대 중반 목포는 전국 6대 도시에 들만큼 성장하였지만 1945년의 해방은 이러한 식민지적 지역체제의 붕괴가 시작되는 계기였으며 목포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는 농업중심의 호남지역을 상대적 저발전 지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사회발전이 지극히 중앙 중심적이었고, 산업화 또한 동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목포권도 이런 구조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인구 규모, 산업시설, 도시주민의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각종 교통망 등에 반영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30년간 계속된 호남선 복선화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목포는 철도망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교통망이었던 고속도로 또한 목포에 연결되지 않았다. 대규모 항만시설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여의치 못하였다.

개항 100년을 넘어선 현재 목포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구 25만 정도의 중소도시일 뿐이다. 60년대 이후 급속히 산업화의 길로 나선 여타 도시들은 맹렬한 속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개발이라는 경제논리에 팔아 넘겼으며 그 결과 획일적인 도시구조와 경관에 포위되어 버렸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진행되었고 속도도 느렸던 목포는 여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혜택은 적었을지라도 도시의 구조와 경관은 비교적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할 수 있었다.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이 강조되고 그것이 곧 자원이 되어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시대인 오늘 목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정체와 낙후로부터 미래의 발전에 큰 보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목포의 도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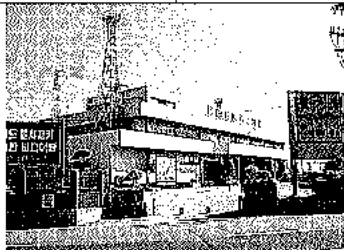
목포라는 도시의 특색(지역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목포가 갖고 있는 정체성(Identity)과 구조(Structure)를 파악하여 그 의미(Meaning)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정체성과 구조는 강한 환경이미지(Environmental Image)로부터 얻어지며 이것은 관찰자와 환경과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즉 그것은 개개의 인간이 물리적인 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심상이다.

목포의 환경이미지는 먼저 유달산의 독특한 프로필과 바다와 만나는 수변지역으로부터 형성되어진다. 이미 육지화되어 그 힘이 약화되긴 했지만 세 마리 학의 전설을 담고 있는 삼학도와 갯바위, 대반동의 낙조는 목포의 환경이미지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준다.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개항 당시 조성된 각국 조계 지역은 개발의 광복성을 패해 여전히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목포의 2차적인 환경이미지를 이룬다. 1, 2, 3호 광장이라 불리는 도로의 질점과 이를 관통하여 목포를 타 지역과 연결하는 1번 국도, 그리고 목포역으로부터 뱀처럼 구불거리며 달아나는 철길은 목포의 또 다른 이미지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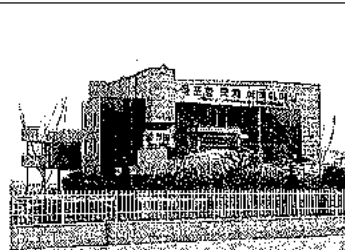
목포는 이와 같이 유달산과 그 기슭에 펼쳐진 해안선으로 특징 지워지는 자연 환경과 근 100년의 역사를 지



조계 구역 내에 있는 목포문화원
(구 일본 영사관)



목포 여객터미널 형사



최근 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

난 각국 조계 지역의 근대식 가로체계, 강력한 힘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도로와 철길의 인공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져 목포의 정체성과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목포의 발전과정과 환경이 미지로부터 목포는 크게 다음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조계지역과 유달산과 그 기슭의 구 조선인촌지역 등을 포함하는 구 목포지역.

둘째, 간척과 매립으로 확장된 도시영역으로 현 목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시가 지역.

셋째, 1980년대 완공된 영산강 하구언 댐과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하당지구와 갯바위 문화권.

이들 세 지역은 각각 자연적, 역사적 맥락과 도시구조가 다르며 현재의 발전상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앞으로 이들 세 지역의 도시 구조적 특성과 그 지역의 환경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건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 목포지역

개항 당시 서구의 도시 계획적 기법이 적용되어 조성된 각국 조계 지역을 바탕으로 아직도 초기의 가로체계와 일제시대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곳이다. 특히 현 목포문화원(구 일본영사관) 일대의 거리는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목포의 일제시대 건물 중 수작 가운데 하나인 목포문화원은 도로의 끝에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여 이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로 조계 지역 내 일본구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일본지역의 건물들은 원형이 헐리고 개축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의 체계나 건물의 규모는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좋은 교사가 되고 있다.

반면에 목포문화원으로부터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부교회는 건물의 규모가 주변 건물보다 지나치게 크며 벽돌, 화강석, 유리 등으로 구성된 마감재료의 혼란과 더불어 지나치게 많은 조형언어로 인해 인접한 목포문화원의 고전적 언어의 단아한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일본구역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아동하면 목포

항과 주변의 시장통이 나타난다. 목포항은 주로 고깃배와 연안 여객선의 입출항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고 항구 주변에는 역시 오래된 가로가 보존되어 있다. 좁은 가로 곳곳에는 일제시대의 2층 석조건물이 심심지 않게 눈에 띄며 아직도 주변 상점과 함께 선구점, 횡집 등으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지역 여러 곳에서 주변의 척도를 무시한 현대건축들이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가로망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포항에서 가장 큰 건물은 여객터미널이다. 콘크리트로 된 2층 백색 건물은 수평성을 강조하듯 길게 누워 있다. 근대건축의 무장식 선호를 충실히 지킨 이 건물은 그러나 바다로 향하는 여객들의 마음에 무엇을 남겨 줄 수 있을까. 수백미터 남쪽에 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은 아직 문은 열지 않았지만 육중한 매스의 중압감을 줄이려는 듯 몸통을 유리벽으로 덮고 몇 개의 덩어리로 분절하고 있다. 바다 쪽으로 면한 외부 계단의 조각적인 처리와 입구를 강조하는 붉은 처마띠가 자칫 지루해 보이는 넓은 유리면에 생기를 준다.

국제여객터미널 앞의 해안도로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는 박제처럼 남아 있는 짚보선장을 지나 대반동 해안에 이르게 되는데 유달산 뒤돌승을 바라보는 자리에 신안비치호텔이 서 있다. 거대한 벽과 같이 바다와 유달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목포에서 가장 큰 이 호텔은 사각창의 입면과 바다로부터 단절된 조경계획 등 주변의 경관에는 관심 없는 듯 무심한 큰 등쪽을 서해바다로 돌려놓고 있다.

신시가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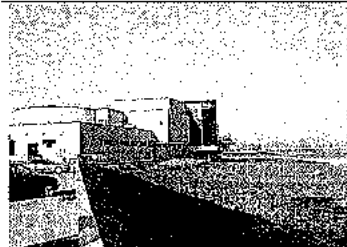
목포역으로 향하는 철길을 보면 구불구불 휘어져 가는데 이는 원래 목포의 해안선을 따라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비교적 반듯한 목포의 해안선은 대부분 간척과 매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달산과 그 기슭을 중심으로 한 구 목포 권으로부터 도시가 성장해 감에 따라 간척과 매립으로 생겨난 새로운 땅으로 목포시가 확장되어 갔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삼학도와 갯바위로 이어진 현재의 웅당동, 동명동 지역이다. 그



목포 MBC



그린 산부인과 병원(포스트 모던 계열)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바다로 향한 유리 상자가 돋보인다)

외 북향 쪽의 죽교동과 최근에 조성된 하당지구 등이 있다.

하당을 제외하고도 간척, 매립으로 이루어진 소위 신시가지역은 점점이 솟아 있는 수많은 언덕들과 어우러져 오늘날 목포의 가장 보편적인 도시형태를 구성한다. 조계지역이나 목포항 주변의 근대식 직교좌표계 가로체계와는 달리 매립지로 생겨난 많은 지역의 도로는 체계적인 도로계획의 미비와 지형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도로구조를 갖고 있다. 구 목포와 타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1번 국도가 남북 축을 형성한다면 새로 생겨난 신시가지 사이를 연결하는 대로들은 여러 겹의 동서축 도로를 형성하여 오늘날의 목포의 간선도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동서도로들과 1번 국도가 만나는 절점이 1, 2, 3호 광장으로 대표되는 삼, 사 또는 오거리 교차로이며 타지방에서 목포로 향하는 차량들을 마치 카운트 다운하듯이 도시의 심장부로 유도한다.

이 광장들은 목포 길찾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점으로 광장 주변은 다른 곳에 비해 개발이 밀도 높게 이루어져 왔다. 도시 외곽에서 3호 광장으로 접근하다보면 왼쪽에 보랏빛 띠를 누른 목포 MBC건물이 보인다. 목포의 현대건축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이 건물은 방송국의 컨테이너와 같은 매스를 몇 개로 쪼개고 안테나와 연계된 중앙의 원통형 매스로 무거운 박스 형태에 중심을 잡아준다.

2호 광장 근처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3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군은 1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일찍이 건축된 듯하다. 전면 유리 원도우의 1층 상점과 넓은 사각장을 갖고 있는 2층 주거부, 그리고 2중 수평띠로 강조된 파라펫 위로 아마도 추후에 덧붙여진 듯한 정리가 안된 3층 주거부로 구성된 이상가 건물들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건축이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호 광장 주변에서 여간 낯설지 않은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전국의 체인화를 선언한 교보생명이다. 갈색 기둥과 비대칭으로 놓인 저층부의 입구 처리는 서울 아버지의 판박이이며 한 세대 위의 동경 미국대사관의 사생아임을 광고한다. 목포도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리는 간판과도 같다.

광장 건너편에 조금은 대담하게 자신을 드러

내고 있는 그린 산부인과 병원은 우선 색채가 대담하다. 정면과 측면의 형태와 재질의 대비, 입구와 정상부의 디자인 대비 등 포스트 모던 계열의 건물이다. 주변 건물과의 조화보다는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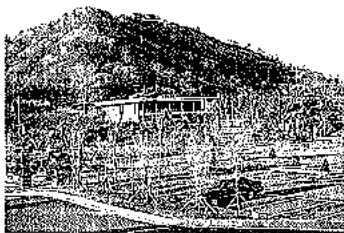
1호 광장에서 목포역 사이의 금융가에 새로 들어선 LG증권은 목포의 중심부에서 가장 덩치 큰 건물이다. 신고전주의적 기단부와 정상부의 관 모양 장식은 어느 대도시의 금융증권가를 수놓고 있는 금융신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당지구와 갯바위 문화권

하당신도시는 미래의 목포를 담보로 계획된 목포의 분당이다. 단지 중앙에 상업지역을, 외곽에 아파트 단지를 배치한 대청형 마스터 플랜은 매립선을 따라 바다로 열린다. 하당의 상업지역은 아직 공지가 많아 건축의 흐름을 살펴보기 힘들다. 중심상업지구는 당분간 허용된 용적률 1,500%를 채우는 건물을 보기 힘들 것 같다. 격자형 가로체계로 구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전국표준형인 직사각형 상자들이 평행으로 배치된 물개성의 베드타운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아직 바다 쪽의 지반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임해 신도시의 정체성을 갖게 될지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하당에선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구 목포지역을 뺀 나머지 도시권역에서 갯바위 문화권만큼 흥미롭고 논쟁이 되는 지역은 없다. 삼학도와 하당지구 사이의 바위산(임암산)과 바다 사이를 이용한 문화예술시설의 집중적인 배치는 그 발상 자체로도 신선하며 지역 개발의 한 예로서 회자될 것임에 틀림없다.

갯바위권은 도시의 중심부와 신시가지, 그리고 하당신도심으로부터 모두 인접해 있으며, 임암산의 병풍 같은 바위와 영암만에 면해 있어 문화시설로 최적의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갖춘 곳이다. 현재 이 곳에는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목포 문화예술회관, 남농전시관, 그리고 목포 향토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해양유물 전시관과 문화예술회관은 바다 쪽에, 남농기념관과 향토전시관은 임암산 쪽에 위치하는데 이 지



뒷산에 안겨 있듯 자리한 남농기념관



목포시청(비록 기단위에 있으나 단순한 매스가 조화롭고 정면의 열주가 인상적)



대성실험회관(정면의 처리가 신선하나 측면과의 조화가 문제)

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가 그 사이로 달린다. 아마도 갯바위 문화권 계획에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 도로의 위치로 전체 문화시설을 하나로 어우르지 못하고 두 개씩 갈라 버리고 말았다. 통과교통을 위한 우회도로나 또는 일정 부분은 지하로 넣어 네 개의 문화시설이 통합되는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바다에 면한 두 시설 모두 기능적으로 상자형의 큰 공간이 필요하지만 바다에 대한 배려가 배치와 입면 모두에서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갯벌에 입지한 두 건물이 모두 높은 기단 위에 앉혀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바다를 보행자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한다. 해양유물 전시관의 내부 전망 공간이 바다로 돌출하여 영암만을 건물의 외부공간으로 차입하고 지상부의 필로티를 통하여 외부에서도 바다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놓은 반면, 문화예술회관은 높은 진입 계단과 불투명한 사각형 매스가 천혜의 입지 조건을 무색하게 한다. 길 건너편의 남농기념관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의 전통 건축의 형태 차용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남농기념관은 전통 건축의 모임 지붕을 콘크리트로 재현했으나 배경이 되는 임암산 줄기에 안기는 듯한 알맞은 규모와 유연한 처마선은 보는 이의 눈맛에 든다.

나가는 글

지금까지 목포의 도시 이미지와 지역에 따른 상이한 구조를 살펴보고 각 지역 별로 중요한 환경이미지가 되는 현대건축들을 몇 개씩 소개하였다. 이 글은 각 건물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지 않았으며 다만 도시 경관에 관계되는 몇 가지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목포는 빼어난 자연 조건(유달산과 바다)을 갖고 비교적 풍부하고 손상되지 않은 건축과 도시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침체와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반대급부인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목포가 정체성과 구조를 잃지 않으면서 그 의미를 지키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붙이면서 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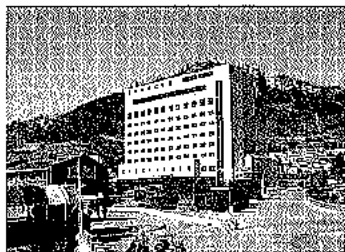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시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즉 조계지역이나 목포항 주변의 격자형 근대도시 지구는 가로체계와 남아있는 근대건축을 최대한 유지하고 가구 단위의 건물규모를 지정하면서 보행자전용 관광 지구로 특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당지구와 같은 신계획도심은 자동차와 고층건물에 맞는 가구단위와 도로체계를 구성하여 각 지구간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시의 각 지역은 경관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달산과 바다로 향한 조망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유달산 등을 도시의 자연적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개의 건축물은 주변의 건물이나 가로 체계, 자연환경 등에 관심과 배려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형태적 유사성이던지 또는 사회, 역사적 맥락의 조화이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은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궁극적인 지역적 정체성, 즉 지역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을 해안에 있는 신안바치호텔 마치 병풍처럼 유달산을 가린다.



목포에도 예의 없이 보이는 교보생명 빌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획개성만 하당의 아파트군

좌담: 호남 건축의 지역성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Honam Architecture

일 시 / 1999. 4. 13(화). 15:00~
장 소 / 전남대학교 본부 9층 세미나실
참석자 / 천득염(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사회)
김지민(목포대 건축공학과 교수)
손승광(동신대 건축공학부 교수)
송 건(건축사사무소 대호 소장)
안태경(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용준(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조희철(광주대 건축공학부 교수)
최명규(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호원(동신대 건축공학부 교수, 정리)



좌담장경

천득염___근래에 우리 건축에 있어서 화두가 전통 혹은 지역성, 풍토성과 같은 단어로 집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건축문화의 해와 관련된 이벤트가 요즘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의 이 좌담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건축 시험회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벌써 20여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그에 따른 회의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의 것을

찾아내고, 유형화시켜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몫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풍토, 사회 문화적 인자로서 전통문화의 이해, 그리고 실제의 건축가의 작품을 통해 이 지역의 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건축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지역성이라는 개념 정의에 대하여 최교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최명규___근래에 지역성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들과 서로 대등한 관계, 즉 지방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중앙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서 벗어나려는 의미로 지역이란 용어를 씁니다. 건축에서 지역성을 논한다는 것은 건축이 사회, 문화 등을 비추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봤을 때 지역이 갖고 있는 무형의 것들을 건축에서 무엇인가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각은 서구화에 가치를 맞추다 보니 서구의 모더니즘과 묶여 있었습니다. 세계화의 슬로건 아래 정보의 교류 속도가 빨라지고, 교통이 발달하는 등 지역이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성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성이란 것은 결국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세계화 건축에 대한 반발로서 전통의 계승 면에서 찾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성을 보는 관점은 어느 곳이나, 어느 땅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과거 역사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고 그 의미가 건축에 담겨지고 표출된 것들이 지역성이 있는 건축이 아닌가 합니다.

천득염___조교수께서는 그 동안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토의를 다루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희철___지역건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하여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역주의, 지역이란 말들이 정치적 뉘앙스를 갖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축 쪽으

로 보면 어떤 지역의 건축을 다루어 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한발 자국만 더 나가면 지역주의에 대한 말을 지역성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에 '성'이란 글자가 붙으면 규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역성이라 하면 근본적으로 어떠한 지역의 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되어서, 어떤 지역의 건축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모종의 기준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를 떠올리는 것이 한옥이고 그래서 전주시청사에 기와를 얹는 발상을 하는 것과 같은 양식론 내지는 유형론에 빠져들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나 혹은 본질이 뭐냐 하는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건축을 양식이나 유형의 측면에서 지역성, 지역주의로 가 버리다 보면 광주건축의 특성이 무엇이나고 하면 얘기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따지는 그런 얘기보다는 소박하게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기억, 땅,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역성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얘기보다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특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이라는 말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지역주의의 짝이라고 하면 지방의 경우는 지방색과 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다른 지방하고는 뭔가 다른 광주만의 분위기에 젖을 수 있는 지방색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득염 이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지역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건축적인 배경과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용준 지역성을 만드는 것은 각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은 결국 장소성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장소성이란 여러 사람들의 세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조교수께서 말한 땅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과 정보가 발달하지 못했을 과거에는 지역성이라란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든지, 형태적으로 유별성이 있어야 지역성이 존재 가치를 갖게 되는데, 지금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지역성이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능주의 건축이라는 획일화된 상황에서 지역성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광주의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이 다른 도시와 다른 것이 무엇이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광주만이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라 한다면 무등산, 충장로, 금남로, 객사

공원, 없어진 경양방죽, 태봉산, 광주읍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쉽게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합의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광주의 지역성을 찾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키워드들이 쉽게 복원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이후로 우리 도시는 자연환경, 역사환경을 철두철미하게 파괴시켰기 때문에 결국 광주 나름대로의 지역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좀 더 가시적인 5·18, 비엔날레와 같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파괴해 버린 과정에 너무 얽매인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적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태경 우선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 광주에서 장소성을 들어낼 만한 대표적인 근대건축을 들자면 전남도청 민원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빠르게 파괴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거나 파괴하는 속도의 문제보다는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이태리식이나, 불란서식이나 하며 생

는 것들은 우리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부라고 하는 것이 외국만이 아닌 서울로부터의 유입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광주의 규모에 적합한 것이라 는 조건을 냉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 건 전체적으로 지역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주거형 건물, 도시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맥락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의 활동 이렇게 3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야 조금씩 자기 의도라든가 또는 이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의 여지가 생겨나고 따라서 인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건축에서도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좋아지고 있고, 건축환경 전체에 있어서도 이제서야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승광 나주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지역성을 논할 때 좋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주는 도시로 성숙해 가면서 7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의 파급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지역으로 거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어쨌든 유리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주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금성산이 뒤에 있고 앞에 남산이 있고 금계천이 흘러서 서울의 소경이라고 하는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과거 성곽

도시안이 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 없이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해체된 것은 일제가 들어오면서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도로망 같은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축적되어 온 결과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주가 가진 많은 자원들도 불구하고 나주사람 자신들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근대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사가지를 돌아보면 골목이 좁고, 집들은 오래되었습니다. 개선하여야 할 점은 많지만 도시 한가운데 10층 정도 아파트를 세워 놓고 이를 근대화라, 잘 사는 도시라하는 전시행정 위주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성곽 바깥쪽의 논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도시 밖으로 나갈 때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서울, 광주 등 잘못된 것을 지방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15층 아파트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어 가는 지역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저는 우리 나주를 가꾸어 나갈 때 우선 나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지켜야 할 것인지 홍보해야 하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지민___목포라는 도시는 목포만이 지니는 특이성이 있는 반면에 전국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갖는 보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역성이라고 하면 이 특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정체성이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이성은 과거 전통의 이미지, 즉 어떤 전통의 개념이 도시 내에 존재하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지역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고도의 경제발전기인 1970년대 이전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 이런 특이성은 정보화 발달 이전에 제일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성은 아마 고도 경제 발전 이후 아마 대략 1980년대 이후가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특히 정보화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목포의 특이성을 말씀 드리면 사실 역사적으로 목포가 부각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15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세종 21년 1439년에 목포진이 설치된 이후 목포가 역사적으로 부각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특히 고대 해로상의 지점에 있다는 것은 신안해저유물선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대사의 완도 청해진 설치로 인해서 해로 상에서의 요충지였



다는 사실, 또 하나는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입구에 목포가 위치했던 사실, 아마 이런 것들이 과거에 조선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 볼 것 같으면 아마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목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비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개항으로 인해서 목포가 발달이 됐는데 그런 어떤 도시의 발전의 방향이, 일본인들의 이점을 위한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간척지 위주로 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의 어떤 건축공사나 도시 확산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큰 예로 첫째 모든 지역이 큰 침수지역이 됐고, 간척지에 공사를 하다 보니 기초 공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령 2층짜리 건물만 짓다가 강제 말뚝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전국 최초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를 내놓는 것이 바로 목포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도시가 확산된 현재 목포가 안고 있는 어려움으로 아마 상당히 그릇된 도시 개발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70년대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전국적으로 도시화라든가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이 아주 벅찬 시기에 오히려 이 지역은 침체가 반복되었습니다. 가령 한 예로 75년도에 목포 인구가 20만이었었는데 현재도 거의 22, 23만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로 도시의 개발을 평가할 순 없겠지만 어떤 좌표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포는 전설적인 도시라고 할까, 애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도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이성의 반면에 보편성은 우리나라의 다른 중소 도시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되겠죠. 가령 목포의 경우도 70년대 후반에 삼학도 부근에 IBRD 차관에 의한 도시가 개발됩니다. 이런 것들이 목포의 근대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80년대 후반기에 가서 획일화에 대한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아울러 신사가지라고 할 수 있는 하당지구가 목포의 초입에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당지구가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보편성은 나중에 위치성과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목포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맹점과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도시들이 주변 대도시에 종속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상대적으로 도시나 건축에 발전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성을 얘기할 때 단순히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의 지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득염___지적하신 것처럼 산업화 과정이 워낙 급히 이루어졌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며 또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이 말살되고, 외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필터링하는 과정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였던 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절충주의 양식이 생겨나든지, 과거와 현대 것을 그리고 우리 것과 외국 것을 조정하는 실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희철 __제가 외국의 도시를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고, 특히 유럽을 다니질 못해서 궁금한데 사실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에서는 중심부를 놔두고 외곽으로 나가 신도시를 조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도시는 가운데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중심부를 차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를 예로 들면 도청앞 근처 중심, 즉 총장로부터 경제적인 성장이 시작되었고, 일제시대까지는 그 정도에서 성장이 멈췄지만 나중에 70~80년대를 들어오면서 광주의 도심부가 양적인 팽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지는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도심부는 금융이라든지 상권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일제시대때 지어졌던 시설들이 다시금 하나씩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이 광주에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아이덴티티(identity)를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 찾기 어려운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전남여고 현상설계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프로그램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창고만을 놔두고 일제시대의 건물인 본관 건물을 철거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에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리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득염 __어차피 우리가 맘에 들든 안 들든 유별화할 필요가 있고 차별화해서 지역성을 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맛이 풍기는 지붕과 기둥을 시도해 보려 하지만 힘이 듭니다.

송 건 __형태적인 면에서 전통 양식의 특성을 낼 수 있는 예를 찾으려면 70년대 중반의 충의교육원이 이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도 후반에 곡성미술관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가 불러서 언제까지 기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경궁 우함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지방에서 이 취지를 가지고 세우려면 팔작지붕의 창경궁이 아닌 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무위사의 맞배인 국락보전을 재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사리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엉뚱한 시도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과감하게 해 본 것 또한 처음이었거든요. 다만 그렇게 외형적으로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준 것

이 관의 주도 아래였다는 한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공간 개념적으로 보면 강강쇠씨의 광주문화회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쪽 오르막길로 올라가다 보면 작은 마당이 있고, 가서 옆으로 또 들어가면 주랑이 있고, 다시 솟아올라 가는 우리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현대적인 골격을 가진 데다가 우리 평면 공간을 소화시켜서 넣는 방법,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똑같이 지금처럼 수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로 짓더라도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대한 공간 감각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경 __전남 도에서 해남 대흥사 쪽에 전통 한옥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 건축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해서 책을 보고 어떻게든지 그려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승광 __전통요소들을 가지고 지역성, 독창적인 건축을 추구하는데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복제하는 것이 아니면서 중전 송



소장님께서 스케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프로포션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지 요소하고 별도로 현대적인 사회변화를 수용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를 지속 가능하게 친근한 대상으로 소화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붕이나 기둥과 같은 요소들을 모티브로 사용합니다. 결국 내용이 없던 어떤 이미지 요소를 받아들여 하다 보니 완성된 건물들이 조화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하는 데서 성패가 갈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 복제로는 너무 한계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득염 __지역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인 광주, 나주, 목포는 호남이라는 틀로 묶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호남을 바라보면 북위 몇도, 위도가 몇도 등이 있을 것이고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고 자연환경으로 보면 영산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섬진강과 동서간의 경계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을 잉태시키는 공간으로서 호남성, 전라도성이 있는데,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의항이라든지 예항이라고 합니다. 민속학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구별을 지을 때 무

옛인가를 포용하고, 보듬고, 껴안은 것을 전라도 사람의 특징이라 말하고, 두 번째는 웅글지고, 당찬 맛이 있으며 세 번째는 그러면서 어떤 멋과 맛을 아는 예스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막연하게 표현한 이야기인 것 같고 건축에 나타난 것들이 유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남선형, 중선형, 북선형의 구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지역이 따뜻하고 놀이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누정문화가 생기됩니다. 전라도는 남방쪽이기 때문에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개방적인 것과 다소 폐쇄적인 것의 차이,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간 사이가 조금 높고 넓다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한이 많고 유배지의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강치고 영산강처럼 살찐 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여유롭고 풍요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은 결국 생활을 담는 건축에 공간을 크게 하고 더 좋게 했을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분명히 반영되어 전통건축에서 특징들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나타난 근대건축도 무언가 의의가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대건축이나 현대건축에서 과연 그런 멋이나 맛이 나타나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준 지역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의 건축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확실히 이 지역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은 건축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발전하는 역할은 서울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교육은 더욱 그러합니다. 건축가도 건축주나 시민이나 행정모두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는 문화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땅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이라는 논리 아래 각 도시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파괴되고 따라서 장소성이 매몰되었습니다. 전남여고의 예도 그런 맥락입니다. 셋째는 학교교육을 포함한 건축가 스스로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건축을 포함한 이 지역만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광주라는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왔는지에 관한 것 말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양이나 질이 아닌 쾌적성이나 심미성을 따지면서 이 지역의 독자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성은 다른 도시와는 구분되는 패턴언어가 무엇인지라는 조금은 실체적인 이야기로 진행되고 합의형성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김지민 이런 지역성을 찾는 일이 10년이나

20년 후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가령 건축이란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당장에 건축전공의 학생들에게 지역건축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 이 지역에 어린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예술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이든 자치단체든 관계 없습니다. 그런 지역의 예술과 문화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건축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여기서 우리가 지역성을 찾자는 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길게 보고 지역과 관련된 건축문화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축과 지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최명규 시대적 상황이 이제는 지역성을 논하고 찾고자 하는 논의와 공감대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를



나가보면 전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건축에도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호남지역내의 광주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인문사회라든

지, 산, 물, 건축물이니 하는 물리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찾아내는 것은 학교에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찾아내서 던져줘야 실제로 설계하는 건축사 분들이 그걸 적용하는 것이 편한데, 설계하는 분들 혼자서 그것을 찾아내고 설계를 하려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건축의 주체들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사용자 모두의 건축에 대한 문화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에 천득영 교수가 말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역성을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광주라는 자연적인 조건은 무등산이니 조망권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도 적극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 광주천 중심에서 앞으로 영산강 중심으로 변천해 나가는 것을 보면 광주, 나주, 목포와 연계하여 수변지역이 중요한 이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승광 이미지 요소를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요소, 산이나 하천이 가장 강한 요소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어떤 큰 길, 광장과 같은 이미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형



성됐을 때 어떤 깊이나 폭도 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성을 전통이란 문제와 바로 직결시키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공유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 과거하고 미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는 건축가들이 개별 건물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집합되면 나름대로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시라는 큰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요소가 강한 길이라든지, 건물의 용적률, 광장 등과 같은 체계를 잡아주는, 그리고 선행되지 않으면 건물이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이 똑같다 하더라도 자연지형이나, 도로체계, 도로 곡선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조그만 차이지만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독창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조적인 요소로는 건물들이 동시에 공존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성이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지역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좋은 건물을 시행하기보다는 도시조직을 지키면서 지역성을 살리는 방법이 쉽게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도시설계제도라는 것들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외국의 경우처럼 도시계획만이 있는 것이 아닌 Local Plan으로 지역의 기준들이 정해지는 예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행위를 하게 될 때 전체 체계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계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공유할 수 있는 목표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지민 __목포의 경우에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물이 보존의 측면에서 소외된 것은 정신적인 거부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부감은 중국이나 대만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970년도에 대만의 한 지방도시의 법원건물이 일본인이 설계한 신고전주의양식의 건물이었는 데 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에서 보존하지는 말이나와 결국은 새로운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마저도 설계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접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목포에 보시면 일본 영사관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것 외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등의 대부분 건물이 헐리고 있습니다. 반감의식이 앞서기 때문에 어떤 예술성이라든가 저와 같은 건축가의 논리만 가지고는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른 의식

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득염 __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한편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열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철 __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들이 주로 도서관, 전시시설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광주를 자세히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방향으로 바꾸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방향이 이번 주제와 일치하는 것 같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도시라고 해서 5·18을 주제로 했는데 기념관이 없었습니다. 상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위한 설치 디자인, 음성자를 바닥에 패턴으로 마감한다든지, 전남여고 담장을 꾸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가의 입장으로 광주의 5·18묘역과 같은 디자인은 피했으면 합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5·18 묘역을 다시 배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주의 다리들의 디자인이 너무 재미가 없으므로 재미있는 다리들을 만든단가 하는 것들을 시도하게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광주의 중요성과 보존할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거리, 충장로 파출소 등에 상징성이나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건축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나주의 경우에는 나주의 고가나 음성 등에 주거지를 계획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고 떠나는 학생들이 내가 교육을 받은 이 지역에는 어떤 중요한 건물이 있고, 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태경 __금남로와 충장로의 가로망 내에 있는 건축물이 현대건축이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숲처럼 밀집화되어 있는데 한 블록만 뒷골목으로 가더라도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한옥들이 전부 포장으로 씌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로잉하면서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켜 살릴 부분을 살려주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최명규 __건축물의 형태는 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들 중에 법이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어느 지역이나 조례로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구와 동구가 지리적인 위치가 틀리고 자연환경이 다른데 조례 규정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건물들이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 건 광주시를 봤을 때 조선대학건물이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뒤에 무등산 자락에 다소 날카로운 박공 지붕과 무등산이라는 배경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양질 여부를 떠나서 무등산 앞의 조선대학 건물이 광주의 강력한 요소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 전체 맥락으로 보면 송정리에서부터 신도리가 둘러 신세계 백화점, 공동터 미널을 연결해서 유동을 거쳐 금남로와 연결됩니다. 강한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광주천을 건너 유동에서 금남로를 들어섰을 때는 우리의 광주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이전될 도청 자리에 큰 결절점 내지는 랜드마크가 다이내믹하게 생길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이 개발된다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할 수 있는 건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입니다.



조희철 저는 송소장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심 축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길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금남로의 천변로라 생각합니다. 두 길 모두 사람이 걷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일 보고 잠시 떠나 버리는 것이지 금남로를 내가 한번 걸어 봐야지 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어서 저는 금남로1가에서 3가까지 만이라도 주차장을 없애고 통과 교통만 하게 하는 식으로라도 유도를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금남로의 흉악한 그러한 상황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축이 이어져 오더라도 그 마지막 정점에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손승광 건축가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도심지역에서는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부터 형성된 중심지역에는 도로가 좁고 토지 용도나 공간 체계들이 현대 생활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에다 집만 짓는다고 해서 쾌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주의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시차원에서 도시를 정비해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체계 안에서 건축가들이 자기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가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 의미, 의미있는 장소와 같은 것들은 지키면서 어떻게 현대적인 사회변화를 수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도시 밖으로 이어나간다는 체계 안에서 건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데 있습니다. 나주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선 건축주나 아니면 도시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건축적 도시적에 있는 사람들의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은 시범 단지를 만들어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들을 만나보면은 좋은 건축은 아주 비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비싸지 않고 싸게 짓더라도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을 키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희철 제가 광주 중심권이 자꾸 깨져 나간다고 한 것도 남길 것은 남기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건물을 지어낼 수 있을 것이라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 통제, 능률,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다양성, 차별화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해서 소쇄원에 기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무심코 평면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곡 물이 흐르고 거기에 네모난 사각형 담장을 두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오픈되어 있고 꺾어져서 다리하나 위로 올라가면 제철당 올라가는 길 등 어떻게 보면 소쇄원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연에 대해서 건축의 개입이 최소한의 개입, 건축적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풍부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다양화,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득엽 광주, 나주, 목포를 중심으로 이 지역 건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한계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의 방법도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논의가 일회적인 아닌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 또한 모색될 것입니다. 좌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변천에 관한 고찰

The History of Regulation on Service and Maintenance for Architects

김기철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by Kim Ki-Churl

1999년부터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사를 뿐만아니라 건축설계를 발주하는 관공서의 실무자들과 민간 건축주들까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에서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했던 기준의 폐지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제화에 따른 자율 경쟁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모두에게 당황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제정에서 그간의 변화된 상황을 고찰하여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참고하고자 한다.

건축물에 관한 실체법이 독립된 것은 5.16군사혁명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공포된 건축법(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이었다. 8.15광복후 미군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6.25사변 등의 사회적 혼란 등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건축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일본점령하에서 시행되던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6.20.제령 제18호)을 적용하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에는 사가지건축규칙(1913. 2- 과거일본인들의 영사관령또는 이사령으로 그들 거류민단이 시행하여오던 준칙과 구한국 경무청령으로 실시했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및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한것)이 있었고, 이조의 고가건축금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6일 법률 제1536호로, 동시행령은 1964년 5월12일 대통령령 제1810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로 구분하여 면허하였는데 이 건축사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건축에 관한 인허가 등의 업무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은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건축대서사라 칭함)가 수행하였다. 건축대서사는 1930년대말경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건축대서사제도가 도입되고, 1941년전후 처음 건축대서사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15광복후에서 6.25사변까지는 건축설계에 대한 실무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관공용 및 군용, 미군용시설의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가능하였으나 관청허가민원서류의 작성은 건축대서사 자격자만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건축대서사의 주업무는 건축인허가에 관한 것으로 그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문들의 기억에 의하면 건축인허가 신청서류를 대한건축사협회(현 대한건축사협회와 구분하여 구 대한건축사협회라 부르며,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한 건축대서사들은 처음 조선건축사회를 조직하였고 6.25사변후 대한건축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에서 200, 300원정도에 구입하여 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인허가 신청서류의 판매대금으로 협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건축설계도면은 소판규격(35cm x 55cm)1매에 배치도, 안내도, 구적도와 평면도를 작성하는 정도였고, 설계비는 공사비나 면적 등에 의한 방식이 아닌 1건당 약 3,000원에서 5,000원정도(1958년경)받았다고 한다. 처음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 부칙에 의하면 설계비 보수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는데 지방장관이 보수를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당시 업무가 주택 등의 중·개축과 소규모주택의 신축 정도였던 것으로 설계비라기 보다는 건축 인허가신청 등 대행업무에 관한 수수료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러한 업무는 건축대서사 사무소 별로 하루에 6~7건에서 30건정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1955년경 건축행정 담당은 서울특별시 경우 도시계획과 건축계에 서 담당하였고 소방관계 협의기구로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방과 건축계에서 맡았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은 건축사법이 제정된후 법제26조에 근거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건설부장관이 인가하는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관보나 일간신문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수규정의 초안을 만들 때 외국의 예와 대한건축사협회 업무규정과 한국건축가협회의 설계감리 및 보수규정을 참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바 건축인허가 등의 업무가 대부분 소형주택 정도의 수준이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규모가 큰 건축물들의 설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설계업무 등에 대한 기준과 이에 따른 설계비 보수를 정하는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 같다.

건축인허가 업무보다는 건축설계 업무의 비중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이는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며 건축 작품 활동을 하던 건축가들이 모여 1957년 2월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의 전 명칭)를 창립하고 1958년 3월 건축 설계감리 및 보수규정을 제정 1961. 9와 1962. 2의 2회개정을 거쳐 1964년도에 시행하던 본규정의 제4조에는 회원이 행하는 설계업무 및 보수내용과 순서에서

1. 기본설계: 건축계획에 관한 설계자료의 작성(실시설계의 기본이 되는 배치, 평면, 입면, 재료, 구조, 부대 설비개요 및 공사비 개산서) 2. 본설계(실시설계): 기본설계에 의거하여 공사실시에 필요한 상세한 설계도와 시공자가 공사비 내역명세서를 작성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도를 작성,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상세도, 부대설비도,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에산서(단 구조, 설비 등의 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 설계도작성(배치, 평면, 입면, 재료, 구조, 설비개요 및 공사비 개산서) 3. 보수: 설계에 대한 보수는 회원이 작성한 일동 공사비 예정가격에 기준하여 발표에 적용함. 설계에 대한 보수는 삼분하여 이를 영수함. 설계의뢰시 설계도중 설계완료시 제5조 회원이 행하는 감리업무보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감리: 공사가 소정 공정 기일내에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여히 완성되게끔 시공자 또는 도급자를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공사진척에 관한 의견서 및 공사비지불에 관한 조서 등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계보수 비율표는 최저 기본요율로서 건축가가 산출한 공사비 예산액을 기준하여 설계보수비율을 정하고 기본설계는 설계보수비율의 30%, 본설계는 70%정도의 비율로 정하고 있다. 그 비율표를 보면 (제1종) 측사, 가설건물, 간단한창고, 차고는 공사비를 5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까지 8단계로 설계보수비율 3.5%에서 2.0%로 공사비가 올라감에 따라 설계보수비율은 낮아지나 그 산출방법은 누진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들면 공사비가 350만원일 때 200만원까지는 200만원해당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하여는 그 상위요율인 500만원의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

다. (제2종) 주택, 별장, 공관은 공사비 5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까지 10단계 로 7.0%에서 4.0% (제3종)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중층창고, 정치장, 기숙사, 경기장, 중층창고, 시장은 공사비 200만원이하에서 10,000만원까지 9단계로 4.2%에서 1.9% (제4종) 교회, 사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은행, 극장, 연구소, 공회당, 호텔, 병원, 구락부, 방송국, 공동주택은 공사비 200만원이하에서 10,000만원까지 11단계로 4.5%에서 2.0% (제5종) 발전소, 특수공장, 특수연구소, 종합병원은 공사비 500만원이하에서 50,000만원까지 13단계로 4.4%에서 2.3% (제6종) 반기념건물, 기념탑, 실내외장식, 가구, 정원은 공사비 500만원이하에서 10,000만원까지 8.4%에서 5.0%로 되어있으며, 감리료는 별도로 전체 설계료의 60%를 최저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기타업무로 규정한 대지의 측량, 지질조사, 감독관청에 대한 수속,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상당 등에 대한 보수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별도의 도면 및 시방서 기타서류의 저작권은 건축가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음 제정일자는 확실치 않으나 1963년 4월의 구 대한건축사협회 업무규정에서 설계보수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주문자(건축주)에 대하여 다음에 적은 것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약설계: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의 간단한 설계작성을 말한다. 2. 설계도면(본설계의): 하고저 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부분만의 전체를 배치도, 평면도, 여러중요한 부분의 구조표시도, 단면상세도등 공사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말한다. 3. 시방서(본설계의): 하고저 하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서, 절차, 방법, 정도 범위 등을 자세히 적은 시방서 작성을 말한다. 4. 적산서: 하고저 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그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재료대, 품삯, 운반비 및 잡비 등을 산출하여 소요수량과 공사비 등의 계산서 작성을 말한다. 5. 허가서류 작성: 하고저하는 공사의 건축허가를 맡고저 할 때 이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적요서, 부속 서류)를 갖추어 여러 가지 기록할 곳을 알맞게 적어서 원래 만든 도면 및 시방서에 덧붙여 놓는 것을 말한다. 6. 공사감독: 하고저하는 공사를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설계대로 완성시키는 일의 기술적 감독을 말하며 때때로 공사진척 상태에 따른 공정진행의 정도를 측정, 계산하여 공사의 기업주와 시공자간의 공사비 지불관계 서류를 작성함을 말한다. 7. 기타: 위의 여러 항목밖에 집터의 측량, 지질조사, 감독관청에 대한 수속,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 건축에 관계되는 상의에 응하는 것 등의 일을 한다.

〈표 1〉 공사비 기준액

구 분	옥조(㎡)	벽돌, 블록 및 석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참 고
(가)의 건축물	5,000원	6,000원	8,000원	—	대변경, 대수선 공사는 이 기준액의 50%를 공사비로 한다.
(나)의 건축물	4,000원	4,200원	7,000원	—	
(다)의 건축물	3,500원	4,500원	6,000원	5,500원	

※ 공사비는 이 기준액에다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곱하여 나타낸다.

이상의 업무에 대한 설계보수는 설계도면비용 80%(약설계 20%, 본설계 60%), 시방서 5%, 적산서 15%로 구분하고, 공사감독비는 설계비의 80%, 설계도면의 감정 및 허가서류 갖추기는 설계비의 30%를 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비는 건축물을 4종류로 분류하여 비율을 정하고 (공사비 30만원 미만) 간단한 주택의 설계도서 및 신청서 작성요금은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보수비용은 공사비 40만원까지부터 100,000만원까지와 100,000만원이상의 19단계로 (가) 주택, 상점, 호텔, 요리점, 극장, 오락장, 개인병원, 집간, 교회, 박물관, 도서관, 식물관, 수족관, 목욕장, 은행, 클럽, 특수한 규모의 병원, 특수한 공장은 3.7%에서 1.9%까지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을 택하며, (나) 학교, 기숙사, 단일규모의 공공병원, 공동주택은 3.5%에서 1.7%, (다) 간편한 공장, 창고, 가건물 등의 건물은 3.3%에서 1.5%, (라) 기념건축물, 분수탑, 기타 공장시설물, 실내장치, 가구, 정원시설, 초현대과 학실험소, (가)(나)(다)밖의 특수건축물은 5.9%에서 4.1%까지 정하고 있다. 당시 공사비 기준액은 표1과 같다. 이 규정에서도 저작권은 제4조제7항에서 건축사에게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건축사법이 제정공포된 후 새법에 의한 최초 건축사전형 및 자격시험이 1965년 4월 25일에 시행되고, 현재

의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10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후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을 작성하여 최초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은 1966년 7월 5일 건국시 지령 444.1-59호였다. 제정된 기준은 전18조로 구성되고 건축사법 제19조의 업무내용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조사감정 및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에 관한 업무 등 4종류의 보수요율을 정하여 사용하였으며 1차개정(1968. 11. 27.)과 2차개정(1971. 1. 16.)을 거치면서 요율의 개정없이 부분적인 개정으로 3차개정시까지 10년간 시행되었다. 이후 이 기준은 1975년 12월 15일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3차 개정을 하게 되었다. 보수의 요율과 업무내용이 전폭적으로 개정되고, 종전기준에서 설계와 공사감리가 분리되었던 것이 설계감리 보수요율로 단일화 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조사 감정업무 보수요율과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에 관한 업무보수가 폐지되었다. 이 기준은 전3장, 전24조로 구성되고 4차개정(1984. 12. 31.)은 이 기준에 외거 부분 개정되었다. 3차개정에서는 과거 건축물을 7종류로 구분하던 것을 5종류로 조정하고, 각 종별 최소공사비를 500만원까지로 한 요율과 최대공사비를 35억원이 상으로 요율을 정하였고, 4차개정에서는 최소공사비 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대공사비 적용금액을 2000억원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조정한 것이었다. 그 후 1986년 1월 7

〈표 2〉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보수요율표(%)

(1986.1.7 개정)

종별	건축물의 종류	총공사비(단위 : 원)										
		100만 이하	200만	300만	500만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1종	단독주택(연면적 85㎡ 미만), 가설건축물(신고사항의 경우), 작업장(공장지역의 작업장), 창고시설(연면적 100㎡ 이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으로 기계시설을 요하지 않은 것), 동물관련시설(설비를 요하지 않는 간이한 축사)	5.9%	5.14	4.88	4.38	3.63	2.96	2.60	2.25	1.84	1.59	1.49
2종	단독주택(연면적 85㎡ ~ 165㎡ 미만), 다세대주택(세대당 165㎡ 미만), 공동주택(세대당 85㎡ 미만),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 사설 경승소),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업무시설(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공장(일반공장으로서 연면적 1,000㎡ 미만), 창고시설(화약장, 일반창고), 자동차관련시설(제1종 제외), 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공작물(연돌, 용벽, 고가구조 등), 근린공공시설	7.84	7.06	6.89	6.29	5.26	4.49	4.24	3.85	3.20	2.88	2.62
	• 제2종시설로서 공기조화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2.40	2.23	2.03	2.00	1.97	1.93	1.90	1.81	1.66	1.63	
3종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상), 다세대주택(세대당 165㎡ 이상), 공동주택(세대당 85㎡ ~ 165㎡ 미만), 창고시설(연면적 1,000㎡ 미만, 사철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제2종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시설(관광숙박 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광진흥시설, 전시시설, 공장(공해방지, 일반공장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창고시설(냉동, 저온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동물원시설(제2종 제외), 쓰레기 오물처리장, 교정시설, 군사시설, 통신·활영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유게시설(관광탑 제외)	8.61	7.83	7.57	7.07	6.03	5.27	5.10	4.62	3.97	3.66	3.39
		3.25	3.09	2.88	2.79	2.76	2.72	2.67	2.63	2.58	2.54	
4종	공동주택(세대당 165㎡ 이상), 태양열주택, 창고시설(연면적 1,000㎡ 이상, 사철포함), 방장, 광관	9.38	8.61	8.35	7.83	6.81	6.03	5.78	5.39	4.75	4.43	4.15
		4.00	3.83	3.53	3.57	3.54	3.48	3.41	3.35	3.28	3.25	
5종	실내외장식, 가구조각, 정원설계, 탑·동대, 원망탑, 분수탑, 정교탑 등), 기념건조물, 조경설계, 국보, 보물, 사적, 민속자료, 문화재 또는 가치정문화재의 실측, 보수, 복원, 관공의 전통적 고전양식에 의한 건물 및 동서양의 전통적 고전양식에 의한 건물	11.05	10.15	9.89	9.38	8.35	7.58	7.32	7.06	6.29	5.87	5.70
		5.50	5.36	5.18	5.15	5.12	5.05	4.94	4.87	4.84	4.80	

〈표 3〉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표

(단위 : 인·월)

종별	건축물의 종류	공사비(단위 : 원)									
		1,000 만 이하	2,000 만	3,000 만	5,000 만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1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일반창고), 자동차관련시설(중기관련시설 포함), 동물관련시설(7종이상), 식물관련시설(바섯제배치), 기타 제1종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시설로서 공기조화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0.40	0.68	0.95	1.43	2.60	4.28	5.87	9.16	15.70	28.88
		41.79	68.36								
2종 (보통)	공작물(안동, 용벽, 고가구조물), 창고시설(냉동, 저온창고), 동물관련시설(제1종 제외), 식물관련시설(제1종 제외), 단독주택(연면적 331㎡ 이하), 공동주택(세대당 연면적 298㎡ 이하),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운송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업무시설(6층이만 또는 연면적 5,000㎡ 미만),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상점), 오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분조,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모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관광호텔제외), 장례식장,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제2종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0.45	0.76	1.06	1.59	2.99	4.77	6.53	10.18	17.44	32.09
		46.73	75.95	147.94	286.80	426.79	697.12	1371.53	2703.30	3392.76	6573.67
3종 (복잡)	단독주택(연면적 331㎡ 초과), 공동주택(세대당 연면적 298㎡ 초과),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송시설, 업무시설(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 관광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분조,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모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관광호텔제외), 장례식장,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제3종용도와 유사한 것 ※ 제3종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0.50	0.84	1.17	1.75	3.29	5.25	7.18	11.20	19.18	35.30
		51.07	83.56	162.73	315.48	468.47	766.83	1508.68	2973.63	4392.84	7231.07

주: 1.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直線補間)하여 직선보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건축물 종별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설계·공사감리요원의 기준자급은 건축사법(중급)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한다.

※ 기본업무 보수 산출 방식

기본업무 보수 =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 × 기준자급 × 승수 (1.038 × 2.63)

◇ 인·월: 건축사1인(1인) 건축사보 3인(고급, 중급, 초급 각1인) 및 보조원 1인(계5인)이 1개 구성원으로서 기본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연소요인수

◇ 기준자급: 건축사보(중급) 1일 직점인건비 × 25일

◇ 승수: 1.038: 중급 건축사보의 직점인건비 기준에 따른 환산비 평균치

2.63: 직점인건비에 대한 1.1배의 간접비와 직점인건비 및 간접비 합계의 0.25배의 보상비를 적용한 수치

〈표 4〉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1994년 1월 1일 시행 / '93 정부예산편성 기준적용표 / 단위 : 원/㎡)

구조별	목 조	붉은별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석 조	일 반	고층철골조	특 수
종별	블록조	PIPE 구조	PC조	철골조	철골조	(10층 이상)	구 조
제 1 종	201,600	236,500	—	—	—	—	—
제 2 종	271,600	371,000	435,200	482,000	517,200	522,900	분공사비
제 3 종	324,300	420,700	482,200	531,700	543,400	555,100	—
제 4 종	365,100	424,600	478,400	631,100	—	—	—
제 5 종	—	—	—	—	—	—	—

일에 건설부공고 제129호로 5차개정이 있었는데 건축물의 분류 등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고, 6차개정이 있기 전까지의 설계비보수는 건축공사비에 따라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 범위는 1. 건축물(이에 수반되는 조경을 포함한다.)의 설계 2. 건축물의 공사감리 3. 건축물의 조사감정 4. 건축물에 관한 법령, 조례에 의하여 건축사가 이행하여야 할 절차의 대리행위 5. 제1호내지 제4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 하고, 설계는 1. 계획설계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공사감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2호내지 제4호 등의 업무는 동일인의 건축사가 일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수기준은 설계비를 계획설계 10%, 기본설계 20%, 실시설계 50%, 공사감리 30%의 비율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 참조)

5차 개정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기술의 발전에 건축사의 업무와 보수기준이 공조되지 못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남에 따라 업무 및 보수기준을 개선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우리의 건축설계보수와 외국6개국의 기술용역보수를 비교연구한 "건축사업무의 보수기준 개정보고서(건

설기술연구소 1987. 11.)", 국내기술사와의 비교, 일본건축사와의 비교, 설문조사, 통계분석, 물가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비교 등을 통한 진단을 한 "건축사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대영신한회계법인 1989. 9.)"와 공사감리를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분리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과 부합하도록 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대한건축사협회 1989.)" 등으로 개정 제안을 하였으나 정책반영은 이루지 못했다. 1992년말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건축사업무의 범위 및 공사감리방법 등의 재정립과 업무에 합당한 보수의 유도, 건축사업무의 건설한 발전과 건축물의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작성토록 한 것이었다. 이를 근거하여 199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227호로 6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안은 1998년말까지 시행되었는데 이전 보수기준과 다른 것은 건축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 적용방식에서 건축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수에 기준을 두어 전체 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건축물의 종류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으로 구분하고,

기본업무의 보수는 2종 건축물의 기준보수액에 1종은 10%하향, 3종은 10%상향시켜 정하고 공사비에 따라 전체 투입되는 인월수(人月數)를 산정하여 인건비를 곱하므로써 전체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외국에서는 일본의 경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의 시행과정에서 물가변동이 심하여 공사비의 변동이 크게됨에도 변동된 공사비를 이전의 보수요율 산정 방식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같은종의 동일규모 건축물의 설계비 산정에서 물가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비례하여 높아질 경우 전년도와 설계 인월수보다 당해연도의 설계 인월수가 많아지는 결과가 되고, 설계종사자의 인건비도 상향 조정될 경우 물가 상승 효과는 삼중으로 설계비를 상향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제정 당시의 보수기준과 공사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현재의 공사비와 비교하면 위 사항을 알 수 있다. (표 3, 4 참조)

이러한 이유로 관공사에서 예산수립이나 설계비 책정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보수요율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자체 예산 지침이나 비례방식을 쓰고있는 기술용역보수 기준 등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점에 대하여 시정코저하는 노력들은 있었으나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건축부분의 설계업무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설계업무의 감소는 과당경쟁의 결과로서 보수기준에 턱없이 낮은 설계비의 덩핑 등이 나타났다.

1998년 7월 공정거래법적용제외 카르텔의 일괄정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는 10개 전문가자격자들의 보수기준과 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 등 총 32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공청회에서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르텔은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을 억압하고 독점력을 창출, 행사하기 위해 자기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경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카르텔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쟁보호, 촉진이외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들을 수용하기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카르텔 제도는 55개에 이르는 바 이처럼 개별 법령에 의거한 카르텔 제도가 매우 많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특정산업의 보호, 육성, 수출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빈번히 카르텔을 묵인,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르텔의 광범위한 제도적 허용으로 시장경쟁이 억압, 제거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비효율화와 왜곡이 누적되어 온 것이 현 경제위기의 한 요인이라고 하겠으며 무역자유화, 기업활동의 세계화 등을 배경으로 카르텔이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 및 국제적 집행의 제1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르텔을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카르텔 적용제외나 승인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기적 검토를 통해 그 필요성 및 소기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시장경제의 힘에 의존하는 경제운영, 작동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카르텔제도를 대폭적으로 과감히 축소, 정비해야 한다.

시행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동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비법")을 제정하여 개별법 상의 적용제외 카르텔 근거규정을 일시에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이 1999년부터 폐지되었다.

1966년 7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8년까지 약 33년간 시행되어오던 공인된 건축사 보수기준의 폐지로 1999년초부터 당장 관공사의 건축설계 발주에서부터 설계비 산정에 애로를 겪었다. 그간의 타성에 젖어 자율경쟁에 대한 준비 소홀로 각 부분에서 모두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민간부분에서는 보수기준의 폐지를 설계비를 깎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흥정하고, 이러한 사태는 외주비 발주 비용에도 모자라는 덩핑한 설계비를 나타내게 되었다.

공인받기 전에도 협회나 단체에서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어떤기준을 만들 필요를 느껴 건축계에 필요한 기준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경쟁사회에 진입규제나 담합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도 AIA에서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공인받거나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 해도 AIA회원들은 사용하고 있다. 건축사의 업무도 단순히 건축설계만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타분야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설계비의 덩핑은 외주부분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 업무까지도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자율경쟁의 물이 확보될 때까지 만이라도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는 좀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업무의 범위와 보수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공인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규정이나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여 국제사회에 걸맞는 규정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업무를 충실히 하여 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5)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Claude-Nicolas Ledoux의 건축이론 ①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클로드 니콜라 르두(Claude-Nicolas Ledoux)는 1736년 3월 27일 도르망(Dormans)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상업에 종사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그리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르두에 대한 기대와 야망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르두는 부유치 못했던 경제여건 때문에 파리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었는데 특이한 운명이 그를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였다.

그의 고향 도르망에서 가장 명문인 보베 중학교(Collège de Beauvais: 콜레주 드 보베)는 도르망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학생들에게까지 널리 장학금을 주고 학업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도르망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원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르두가 그러한 호기를 잡게 된 것이다. 장 드 도르망(Jean de Dormans)이라고 하는 귀족이 1370년 이 학교를 설립하였고 그의 뜻에 따라 도르망출신의 학생들을 우대하는 전통의 덕을 르두는 단단히 보게 된 것이다. 르두는 도르망에서 학업

* 본명 김원식

을 마친 후 파리로 이주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그는 자신의 경력상 유익한 교육을 받은 듯 하다. 그러나 파리의 학교에는 개화된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들은 절대적인 미와 사상을 추구한 르두의 정신세계를 묶어놓기엔 그 구속력이 불충분하였다. 데생(dessin)을 좋아하고 그에 흠뻑 심취해 있던 그는 학업을 마치고 전인 15세에 아마도 부모 몰래 학교를 떠나 전쟁장면을 새기는 관화가 밑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 때까지 건축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질 못하였으나 차후 18세기의 예술가들에게 가장 깊고 견고한 자취를 남긴 장 프랑소아 블롱델(Jean-François Blondel)의 문을 두드리게 됨으로써 역사상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종종 사람들은 르두의 발전과정을 블롱델, Palladio, 그리고 화가이자 판화가인 Piranesi의 영향을 받은 3단계로 구분하곤 한다. 언급한 위의 두 인물로부터의 영향은 간단없이 이어졌음이 입증되고 있다. 블롱델로부터의 영향은 학문적 시각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빨리 블롱델적인 시각과 프랑스 고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방향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르두는 역설적으로 블롱델문하의 학생들 중 가장 영향을 덜 받은 사람으로 역사가 Emil Kaufmann은 기술하고 있다.¹⁾ 당시 건축 초년생으로서의 르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스승 블롱델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에 친숙해지는 것이었다. 블롱델은 루이 14세 양식의 예술이 쇠퇴의 길로 빠졌으며 이미 부자연스럽고 나약한 양식이 되어 당시의 요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르두는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여 루이 14세 양식을 멀리하게 되었으며, 건축을 해당 지역의 기후 및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한다고 블롱델이 주장하는 소위 전기 기능주의적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초기단계는 학업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더욱 경도됨으로써 웅동성과 폭넓은 시각으로 정신세계를 훨씬 더 유연하게 단련시킬 수 있었던 기간이 되었다. 이 초기단계를 거친 이후 건축을 정면으로 대하여 승부를 걸게 되는데 로마에서 돌아와 베르사유의 2가지 공사를 떠낸 건축가 트루아르(Trouard)가 르두를 고용함으로써 그의 지도하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계기가 된다. 1760년대부터는 건축설계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 그는 군인 카페(Café Militaire; 카페 밀리테르) 또는 고도 카페(Café Godeau)라고 불리우는 카페의 설계를 의뢰받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트루아르로 말하자면 고딕양식의 교회 및 대사원의 장식 전문가였는데 르두가 그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실행에 옮긴 것

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어서 1764년 옥세르(Auxerre)대사원의 주제단 및 제단의 공간, 그리고 오르간을 정리하고 장식하도록 주문을 받았다. 이 공사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품없이 초라하여 그의 관심이 멀어졌고 공사 중 7년 동안 파리를 떠나 공사장으로 2회의 방문을 했을 뿐이다. 1778년 성스(Sens)의 대사원 문을 개축하는 주문을 받았지만 복원에 대한 열정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스위스의 은행가 델뤼송(Thélusson)이 알월(Hallwyl)공작으로부터 건물을 대여하여 사무실을 설치함과 아울러 동업자 네게르(Necker)공의 아파트로 쓰던 건물의 재축으로 인하여 르두의 직업인으로서의 생의 방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1776년 알월공작은 자기 소유의 대저택(Hôtel; 오텔)으로 되돌아 오려고 하였으며 형태의 탐구와 그 매력에 광적으로 흠뻑 도취해 있던 무명의 르두에게 설계주문을 하였다. 델뤼송은 비록 스위스인이었지만 프랑스의 샹빠뉴(Champagne)에서 태어났으며 도르망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델뤼송이 르두를 자기의 친구 알월공작에게 소개하였으리라고 일군의 이론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설에 따른다면 르두는 다시 한번 출생지의 덕을 단단히 보게 되었으리라. 이 대저택은 외견상 고전주의적이며 전체적으로는 평범한 모양을 하고 있다. 단지 대문과 '회랑이 있는 정원(Cour à la Galerie; 쿠르 아 라 갈레리)'만이 르두의 개성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어찌되었든 이 저택은 작가 르두에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르두 및 Geneve의 옹호자들과의 관계를 신뢰에 입각하여 끈끈하고 항구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기폭점이 되었다.

1년 후인 1767년엔 뒤제스(D'Uzes)공으로부터 주문을 받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장식의 상세로 인해 파리의 장안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다. 이후 2년 동안 그는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대의 건축에 관한 지식은 타인들처럼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여행을 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을 통하여 습득한 것들이다. 여행기간 동안 베누빌(Bénouville)에 머물며 드 리브리(de Livry)후작을 위한 Château의 평면과 기초의 계획안을 만들었다. 당시 그는 자유분방하게 별 목적이 다른 지방들을 여행하곤 하였는데 그가 책의 첫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여행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여행의 일환으로 모이양빅(Möiennvic), 샤토 살랭(Chateau-Salín), 룽 르 솔니에

1) Kaufmann, Emil: De Ledoux à Le Corbusier, L'Equerre, Paris, 1981, 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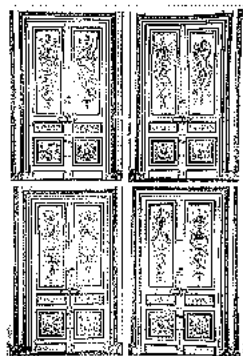
(Lons-le-Saulnier) 그리고 뒤죄즈(Dieuze)와 같은 곳의 염전을 방문하여 많은 건축적 영감을 얻었으며 수년동안 그의 머릿에서 그에 대한 인상과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1771년엔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실소유 염전의 감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그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아크 세낭(Arc-Senans)의 염전도시에 관한 계획이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도시계획에서 보이는 이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급자족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관심사가 잘 나타난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그는 궁정과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명성이 빛을 발함에 한층 더 도움을 주게 되었다.

무신경하고 환락에 들떠 있으며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궁정에서 당시 한창 세력의 전성기를 누리며 당당하던 뒤바리 백작부인(Mme. Du Barry; 루이 15세의 왕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 르두는 비교적 안정된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었는데 뒤바리 백작부인은 르두에게 루브시엔(Louveciennes; Luciennes(뤼시엔느)라고도 불리운다)에 다이아몬드 상자만큼 아름다운 정자를 만들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별채는 그 안에서 그녀가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변덕스럽고 환락적인 코메디를 공연할 수 있는 일종의 왕실의 장난감으로 소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호사와 정묘함으로 장식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예술품이다. 이 건물의 외부는 형식주의의 엄격한 대칭적 파사드를 지니고 있고 내부는 소위 Le Corbusier의 자유평면을 연상시키는 자유로운 공간배치가 발견된다. 여기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조각가 르코프(Lecomte), 빠쥬(Pajou), 화가 드루에(Drouais), 프라고나르(Fragonard), 비앙(Vien), 금은세공사 Gouthières 등으로 당대에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던 예술가들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르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장대한 규모의 건축을 향한 유혹을 억제하여야만 했으며 그의 독창성이 엿보이기는 하여도 섬세함을 구현하는 것에 능력을 한정시켜야 했다. 르두는 뒤바리 백작부인의 은총을 계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의 총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성공은 물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다.

1772년 르두는 드 몽모랑시(de Montmorency)왕자를 위한 대저택을 건설하였다. 이 건물은 르두의 경력상 조형의 발전이란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한 획을 긋게 하는 작품이 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조화로운 파사드는 후에 르두가 평면에서 바로크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텔 뒤죄즈(Hôtel Dieu)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배경으로 녹아들고 있는 조각물은 Palladio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몽모랑시(Montmorency)저택이 있던 구역은 루이 16세의 섭정기간에는 연극배우, 무용수, 고관 및 재산가들의 훌륭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던 곳이었다. 여기에 살던 인물 중 주목할 만한 인물로 기마르 양(Mlle. Guimard)이 있는데 오페라의 인기스타였으며 드 수비즈(de Soubise)왕자의 연인으로 더욱 유명하였다. 어느날 이 여인은 땡탱(Pantin)의 자기 집에 실증이 나서 새로이 등장한 청년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 저택을 설계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저택은 Gouthières, Fragonard와 David가 협력하여 작업하여 많은 돈이 들었으나 르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충분히 보수를 받은 드문 경우였다. 몽모랑시 저택은 훌륭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861년 Haussman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파괴되었다.

르두의 화려한 성공 및 고관대작 그리고 왕실주위에서의 활동은 그를 거의 계관건축가(桂冠建築家)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그는 1773년 왕립건축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의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명사, 권력자들로부터 중요한 건축설계의뢰가 있었다. 뒤바리 백작부인은 파리에 위치할 새로운 주거를 의뢰하였고 프랑스 국왕은 루브시엔으로부터 가까운 마을에 세워질 궁전을 의뢰하였다. 이 계획안은 구태의연한 화려함과 장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1년 후 왕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역시 1773년 르두는 Chauv(쇼)의 염전 건물들을 보수하고 증축하는 일에 임명을 받았다. Chauv의 염전은 그가 여행할 때 이미 여행한 곳이어서 낯설지 않았고 이 파제는



뒤죄즈 저택
(Hôtel Dieu)
내부문 상세



알월저택
(Hôtel Hallwy)
박공과 문수 상세

Hôtel Hallwy
파사드



르두로 하여금 새로운 미학적, 사회적인 시각들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선 그는 파리에서 작업에 착수하여 거대한 4변형의 산업도시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가 현장을 방문하지마지 자신의 계획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원형의 평면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안은 방사형의 도로가 평면을 구획하고 있으며 각종 홀, 대표공장, 시장, 작업장, 직공들의 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핵심공간, 즉 중앙의 핵을 중심으로 한 방사집중식으로 배치되었다. 각 건물은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계획안에서 가장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신체단련과 정신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들일 것이다. 이것은 Rousseau의 Emile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계급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조합원의 집, 오락공간, 환락의 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가쪽이 거주할 수 있으며 전원의 환경을 구비한 조화로운 Cénobie는 후대의 Phalanstery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남근의 형상을 한 오이케마(Oikema)는 부도덕한 형상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타락한 영혼을 선(善)으로 이끌겠다는 다분히 자기당작적인 의도의 박물관이다. 시장, 공중욕장, 교육의 집같은 것들이 놀랍게도 현대생활을 예지하는 시설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제건물들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자면 비현실적이고 실없는 18세기 지식인들이 지녔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너무도 많이 반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허구적이고 근거가 빈약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건축 내에 전개함에 있어서 형태적 접근, 즉 추상적 형태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관상학(Physiognomy)을 도입하고 있다. 그 상징적 의미들은 정의로움을 연상시키는 얼굴 그리고 소위 Pacifère와 같은 법원의 단위 평면 또는 남근형으로 계획된 오이케마와 같은 아차원의 평면으로 구현된다.

장식에 있어서 얼굴, 원주, 물이 얼어붙어 있는 듯한 형태를 채용하는 대담한 표현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종종 서로 잘 어울리지는 않아 불협화음을 일으키곤 한다. 반면 미학적인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의 병치, 고전주의적 측면과 바로크적 측면의 양식적 병치는 실랑에 있어서 정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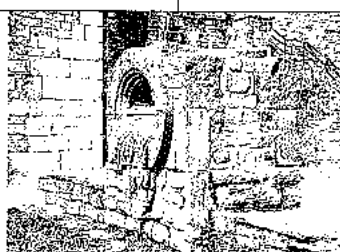
인 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벽에서 분출되는 물은 생기 없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것은 소금공장의 조해작용을 상징하고 있으며 제조과정 중 생산체제와 노동력이 대등함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시각적인 연출 가운데 순속임(Trompe l'oeil; 트롬뿔 퀴이)와 Arabesque장식 등을 사용하여 평탄한 표면 위에 다른 표면이나 Comice 등을 허구의 삼차원적 실체로 창조하는 것은 순수하게 바로크적인 방법이다. 위대한 고전주의를 대표했던 망사르(Mansart), 르보(Leveau), 가브리엘(Gabriel)과 같은 건축가들은 파리를 위대한 도시로 건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도시를 건축물으로써 3차원적인 연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방돔광장(Place Vendôme; 뿔라스 방돔), 승리의 광장(Place des Victoires; 뿔라스 데 빅트아르), 그리고 루브르의 열주랑에서처럼 단지 그 후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치 병풍처럼 가리는 연극무대와 같은 건축, 혹은 축제를 위한 건축밖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르두는 이들과 달리 각 건물을 3차원적 조각물처럼 다루고 있으며 각 건물이 효과적으로 관찰되도록 충분한 거리, 그리고 각 건물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각 건물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급된 당시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요소들을 따로 분리하였다.

Chaux의 계획에서 특기할 점은 그가 대규모 스케일 상에서 자기의 사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다. 그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의 개념을 버리고 도시를 하나의 상업로, 교통로가 만나고 이어지는 결절점으로 생각하였다. 교통로는 두 개의 커다란 축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귀착점은 시의 중앙부이다. 중앙의 핵은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도시를 구성하는 노동자의 집, 사무원의 집, 소금 저장소, 관리자의 집 등의 건물은 그 주변에 분산 배치되었다. 공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고립된 Pavilion을 떨어뜨려 배치함으로써 바로크건축 등에서 볼 수 있던 파시와 장식은 엄격히 억제되고 있다.

이 계획안은 르두 자신의 말을 빌면 25년 정도 시대를 앞선 작품이다. 그에 대한 시기 질투, 비판은 왕과의



기마르 저택
(Hôtel Guimard)



얼어붙은 모양의 물분출, Arc-et-Seans의 염전



Chaux의 염전
물분출 조각 상세

이간질로 이어졌으나 왕은 고문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소위 미치광이 같은 르두의 염전계획안에 도장을 찍었다. Chaux의 염전계획안은 공사가 시작되어 실현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고 부분적인 완성이라도 빛을 보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토록 일의 진척이 늦어짐에 따라 르두는 그 사이 다른 계획안 등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브장송 극장(Théâtre de Besançon: 테아트르 드 브장송)계획안이다. 실(室)은 반원형이고 좌석표는 무대와 관객석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값이 결정된다. 여기서 품위 있는 파사드 및 실과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함목적성의 추구는 높이 실만하다.

르두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인지도는 권세가 및 재산가들로부터 건축물을 설계해달라는 의뢰를 받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중 빼어놓을 수 없는 고객들은 바로 외국의 왕실 인물 또는 호사가들이었다. 프러시아의 Hesse-Cassel 백작은 당시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였다. 그는 파리에 체류 중 Guimard의 저택을 방문하였고 르두를 만나서 기마르 저택에서 그가 경험한 우아함과 호사로움을 능가하는 건물을 Cassel에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전하며 자기 도시에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75년 11월 말 르두는 궁전, 개선문, 도서관을 세우기 위하여 전속 제도사와 함께 Cassel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Cassel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험담, 그리고 백작이 그를 하인처럼 부리며 그의 아이디어를 빼내려고 하는 기도에 접하게 되었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르두는 굴하지 않았고 연속된 부당한 대우에 금기가 화가 폭발하자 백작은 그를 건물 총감독 및 지휘자로 임명함으로써 진정시키고 달래었다. 르두는 곧바로 일에 착수하여 백작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백작은 르두의 계획을 언제나 험담으로 즉시 모방하고 실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프랑스의 건축가 샤를르 뒤 리(Charles du Ry)를 동원하여 그에게 흥정을 시작하자 르두는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저는 제 계획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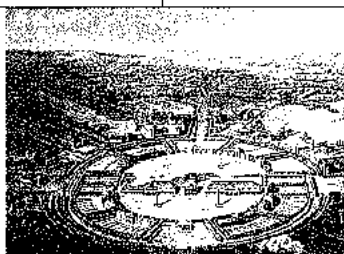
하나도 바꾸지 않으렵니다. 전하께서는 저와 같은 건축가를 두 실만큼 부유하지는 않으신 것 같군요'라는 말을 남기고 그를 떠났다.

르두가 건설한 건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델뤼송 저택(Hôtel Thelusson; 오텔 델뤼송)이다. 이 저택은 대지가 약하여 Pilotis 등을 채용한 견고한 허부구조를 건설하는 등 최초의 추산비용보다 5배 이상이 소요된 호화로운 주택이었다. 1780년에 지어진 이 저택은 델뤼송 부인의 두 아들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별채가 양측 만에 배치되었고 정자가 대정원을 지배함으로써 전체는 다양한 건물들의 앙상블로 이루어지고 있다. 별난 방의 배치, 장려한 장식과 가구, 그리고 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의 지하를 통해 대정원까지 미처를 인도하는 낮선 통로 등은 장안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이들의 화젯거리였다. 파리에서 개인의 주택이 이처럼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 기념비적인 홍예와 풍경화를 묘사하는 장식 등이 Piranesi를 연상시키고 파사드의 명확한 분절과 리듬은 Palladio의 건축적 수법과 동일하다. 건물의 육중한 양례와 그 형태에 있어서 엄정한 데카르트식의 명증성, 그리고 르두만이 가지고 있는 색다르고 비범한 기법 등이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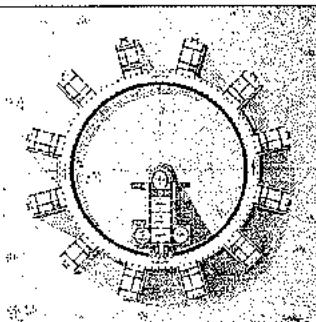
1782년 총괄 징세 청부인단(Le Fermiers Généraux; 레 페르미에 제네로)는 파리 주위의 성벽을 쌓을 허가를 받았다. 성벽은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관리하여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획에 르두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의 관심사는 이 성벽이 지나는 통제적 성격 및 입시세징수소(入市稅徵收所)의 재정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파리를 감싸는 석조의 건축적인 구조물, 그리고 입시세관의 조형적 연출에 있었다. 이 성벽 및 입시세관에 관한 건축제안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안이 경합을 벌였다. 하나는 현실주의적인 총괄 징세 청부인단 및 이 때가 르두를 깎아 내리기에 좋은 최적기라고 생각한 완고한 일군의



Chaux의 평면



Chaux의 도시 조감도



오이케마(Oikema) 평면

건축가들, 그리고 르두 및 그를 지지하는 칼론(Calonne) 등의 두 무리로 양분된다. 결과는 미적 감각이 무디고 관심이 없었던 왕이 르두와 칼론의 계획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분란은 일단락 되었다. 1785년 왕립이사회는 르두의 계획안을 승인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40개의 관리소가 동시에 착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미 당시 파리에서는 이 성벽과 입시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여러 가지의 노래로 표현되었다. 그 중 동일 발음의 이의어(異義語)와 단어간 색다른 운율을 가지고 엮은 다음의 노래가 대표적인 것이다.

Le mur murant Paris rend Paris murmurant
-빠리를 둘러싸는 성벽이 빠리로 하여금 투덜거리게 한다.

이처럼 불만이 고조되자 불과 몇 개월 전에 르두를 지지하고 격려하던 루이 16세는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정의 지출을 하도록 만든 인물이라는 루머를 믿게 되었고 공공연히 그의 성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르두는 그 계획안의 규모를 별로 손상하지 않고 장식 등을 단순화함으로써 견적서의 대금을 줄여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괄 정세 청부인단은 이러한 흥정을 사기로 고발하였다. 르두는 세간에서 가장 흉악한 악인으로 불리웠고 1789년의 프랑스혁명으로 모든 계획을 단념하여야만 하였다.

이 성벽들은 파리의 어느 곳에서든 눈에 들어오도록 계획되었는데 각 입시세 관리소는 교외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대로들의 교차로에 위치되었다. 르두에게 있어서 이 관리소들은 척척와 통제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환영의 제스처와 같은 의미, 외부인들에게는 파리사내의 아름다움을 예견케 하는 장중한 인사와 기대감 등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증폭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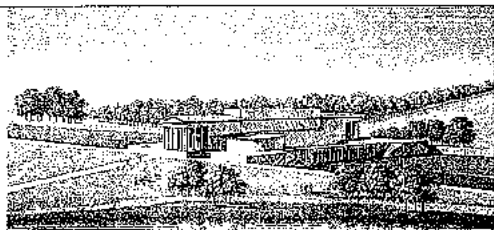
입시세 징수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원주가 채워지고 창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징수소는 각기 다른 기하학적 형태, 즉 원천적 기하학 형태

를 채용하고 대칭적 엄격성을 외부에 실현하였다. 반면에 내부는 자유로운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르두의 입시세징수소만큼 외부형태와 기능, 건물의 실루엣과 평면 사이의 이만큼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또한 형태의 호탕함, 작가의 왕성한 상상력을 이만큼 잘 보여주는 것 역시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대조적 수법을 지향한 그의 의지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진다. 유클리드 혹은 데카르트적인 단순한 단일 입체 형태와 원주의 나열, 열주와 평벽(平壁), 장방형과 구, 수직선과 수평선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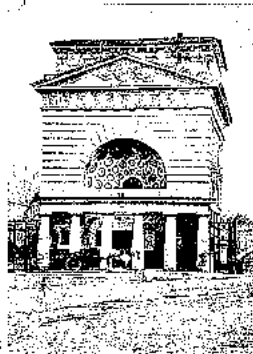
르두를 건축적으로는 성공한 건축가로서 고려할 수 있다면 그의 정치적인 생활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르두는 특권세력에 의하여 지위와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그의 말년에 밀어닥친 정치적 소용돌이의 희생이 되어 수감이 된다. 수감에서 풀려난 후 그는 건축인으로서의 생명이 끊겨 좌절 속에서 지냈다. 그는 생의 마지막 10년간 동안 그 동안 계획하였던 작품들을 모아 당대의 소용돌이로 인한 한을 후학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론적인 연구물을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 1804년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술, 도덕 그리고 법률의 관점에서 고찰된 건축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œurs et de la législation)이 출간되었다.²⁾

르두는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두 시대의 경계선에서 살다 간 인물이다. 그의 작품들은 새로운 예술적 건축을 겨냥한 최초의 것으로 신세계의 도래를 증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건축 그리고 당대의 건축사상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연결되는지를 밝히고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2) Claude-Nicolas Ledoux의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œurs et de la législation은 1997년 재출판되었다.
Claude Nicolas Ledoux: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œurs et de la législation, Hermann, Editeur des Sciences et des arts, Paris, 1997 참조.



오이케마(Oikema) 투시도



Psassy의 입시 징세소



Architecture Condiderée...의 속표지

정직한 건축제도를 만들자

For a Sincere System of Architecture

박순종 / 건축사사무소 예지

by Park Soon-Jong

8년이 지난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청문에 나오라는 공문서가 왔다.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가 상이하다는 민원사항이 있다.

- 건축주에게 의견조회 결과 1990년 분할측량서 경계측량기점에 의거 건물을 배치하였다.

- 감리건축사에게 의견조회 결과 1990년 측량과 1999년 측량간에 오차로 인한 것이다.

지적공사 의견 조회결과 토지분할성과와 토지경계복원측량성과 차이없다.

감리건축사는 건축법 제75조(청문) 규정에 의거 건축과로 출석 의견 진술하기 바란다. 출석치 아니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 포기간주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문제의 다세대주택은 8년전, 3인의 건축사가 감리점검해 합격되어 감리배정을 받은 건물이다. 이격거리 등 설계도서와 합치되기에 착공계에 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겉부터 났다. 3인의 건축사들이 점검한 건물인데... 헌법에 “자유계약의 권리”가 있는데 강제감리배정을 받아 동태가 났나?

8년전 측량으로는 이격거리가 맞고 지금 측량으로는 틀리다. 그렇다면 8년전 측량기사와 지금 측량기사를 청문할 일이지 측량면허 없는 건축사를 청문할 일은 아니다. 건물면적이 늘지도 않았고. 한쪽 이격거리는 모자라고 반대쪽은 남고, 건축주에게도 아무 이득이 없으니 위법할 이유가 없다. 이격거리 조금 틀렸어도 법태두리 내에 있다. 회생양이 필요한가? 한번 감리자는 영원한 감리자인가? 건축사는 공소시효도 없는 동네북인가?

구청장은 청문에 나오기전 현황측량을 해오라고 한다. 건축사 스스로 위법을 입증하라는 것인가? 네죄는 네가 알렸다. 흉악한 살인용의자라도 용의자의 비용으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사법권도 없고 법원의 수색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측량기사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하는 것은 아닌가? 한달전 TV에서 미래에 일어날 위법을 예단 건축불허가 처리를 한 사건 보도가 있었는데... 그후 관계공무원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황측량을 거부하니 구청장은 지적공사에 의견 조회, 8년전 측량말뚝과 지금 측량말뚝이 같다고 한다. 구청장이 제시한 지적공사 측량도를 보니 평판측량기점을 옮겨가며 측량했다는 기록과 주위 대다수건물들의 동측 이격거리가 모자라며 “측량 기점이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위 “오류정정자구”라든지 “측량이 밀렸다”든지 이일대의 측량에서 흔한 현상이다. 8년 시차에 평판측량은 오차가 많다. 모두 아는 사실을 구청장만 모르는 것 같다. 건축실무를 안해봤기 때문일 것이다. 측량을 한 지적도는 1/1200축척으로 80여년전 일제강점시대 왜인들의 일천한 측량기술로 짠 종이 나뭇잎에 작성한 지적도로 지금 구청장 관리하에 있다. 일제가 물러간 지 55년, 이제 1/500축척에 전자기계측량으로 전환할 때가 지나지 않았는가?

5년전에도 3인의 건축사가 감리점검 한 다세대 주택을 감리배정 받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벽체중심선에서 담장중심선까지 2.4m로 표기 그안에 폭 2.3m의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의 두께, 담장의 두께, 시공오차 지적도확대 오차등으로 법정주차폭 2.3m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설계건축사에게 건축허가현장조사검사를 시키기에 일어나는 부조리다. 그런데도 시장은 감리건축사가 법정 주차장폭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들여 승소하였으나 상처뿐인 영광. 두번다시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헌법에 "타인의 행위로 불이익을 아니 받을 권리"가 있다.

타건축사의 설계를 감리배정 안받으려 해도 내설계가 타건축사에게 감리배정되면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만큼 치열하다. 지금은 없어진 나쁜 제도다.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는 구청장이 강제감리배정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타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 의약품검사, 자동차검사 등 모든 공산품의 안전을 검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건축현장조사검사로도 구청장이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해당사자 설계·감리건축사에게 건축현장조사검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건축주는 보수를 주고 감리건축사를 고용하였으니 감리보고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감리보고서는 개인간의 사문서다. 사용검사 신청때 감리보고서를 구청장이 요구한다. 과연 구청장은 감리보고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구청장이 건축주인가? 위법부실건축행위자는 처벌 안하고 허위공문서 기재자라고 처벌한다. 사문서가 공문서로 둔갑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감리보고서를 쓰는 건축사가 어디 있겠는가? 헌법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감리! 무엇인가? 건축주가 건축기술지도해 달라고 건축사 고용하지 자기 감시하라고 고용하는가?

고객은 왕이라는데 건축주를 제재할 아무런 능력도 권한도 없는 감리자에게 건축주를 감시시키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감시시킬 수 있나? 공산당이 아들에게 아버지를 감시시키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건축주가 위법하면 건축사가 대신 처벌 받는다. 세상천자에 이런 법도 있나? 헌법에 "타인의 행위로 불이익을 아니받을 권리"가 있다. 구청장은 보수도 안주고 건축현장조사검사를 시킨다. 헌법에 "강제노역을 아니받을 권리"가 있다. 무보수로 시킨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그런데도 건축사들 왜 건축현장조사검사를 무보수로 처벌을 받아가며 할까?

국민이 자기땅에 자기집 짓고 사는 것은 원초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많은 건축법, 건축허가·사용검사 받는 것 만으로도 커다란 이권이 된다. 그렇기에 건축주들은 "어느 건축사가 허가 잘 받아주고 사용검사 잘 받아주냐"고 건축사들은 건축현장조사검사를 기화로 "허가비 안 들이고 허가 빨리내고, 사용검사비 안 들이고 사용검사 빨리내어 일 많이 딸 수 있다"고 한다. 혼자만 건축현장조사검사하나? 이러니 건축문화가 창달되겠는가?

구청장의 건축현장조사검사를 설계·감리 이해당사자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일어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안양 연립주택 붕괴사건, 인천 다가구주택 안방 정화조 설치 사건 등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악법을 운영하나? 왜 위법부실건축 조장 정책을 쓰나?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구청장은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도 구청장이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를 자율이라며 건축사에게 대행시키는 이유는

- 건축공무원이 모자란다
- 봉급체계상 고급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다
-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와 관련된 부정으로 부타 공무원을 격리시켜야 한다
- 예산을 절약하여야 한다

이제 설계·감리 이해당사자 건축사에게 건축현장조사검사를 시키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본래대로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건축현장지도반" 제도를 만들어 정당한 보수도 주고 불특정 순번제로 건축현장조사검사를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있다고 본다. 불특정 순번제로 돌아가는 "지도반" 건축사에게 어떠한 건축주도 압력과 로비를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해관계없이 건축주대신 처벌을 감수하며 사용검사해 줄 건축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법부실건축은 없어지고 국법준수의 기풍도 진작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1994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헌적인 건축법의 개정을 건의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건설교통부장관 보다는 건축사협회가 더 원망스럽다. 그 사이에도 여러 국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메이리 없는 소리만 돌아올 뿐이다. 지금의 들어주는 상대가 있는 청문이 오히려 고마운 아이러니다.

시방서의 역할

The Role of Specification Drawings

김종복 / (주)대영사그림건축사사무소
by Kim Jong-Bok

우리의 건설은 수천년간의 고유한 전통건축에서부터 시작하여, 1900년경을 기점으로 소위 근대건축 이후에 서양건축을 건설하기 시작, 1945년 해방이후 미국식 건설방법을 배웠다. 이 시점부터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시공해야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이후 월남전을 통하여 한국의 파병과 동시에 건설이 뒤따랐으며, 건설을 통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 오일파동(Oil Crisis)때는 중동산유국의 건설 호황으로 우리 건설회사가 진출했고 그 결과 많은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도 컸다.

1980년 이후 한국건설은 소위 아파트 건설시대를 맞아 세계지구촌 각지에서 건설자재와 기기를 품질에 상관없이 마구 사들여야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경제는 더없는 호황을 구가하면서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만연하던 차에 우리 건설분야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치르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것도 미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건설제도의 부실 즉 감리제도와 시방서의 부실이였다. 그렇게 많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와 건설인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고 지나갔다.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돈 벌기 쉬운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는 국민의 큰 희생이었다. 이에 따른 정부 처벌은 감리제도로 사고를 예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건축사들이 부정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우리의 처우가 땅에 떨어지고 설계비의 덩핑으로 영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 마음 아픈 사실은 건설회사에서 설계권까지 가져가게 된 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매우 걱정된다.

1997년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한국의 경제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외화 1천 500억달러(한화 약 160조원)를 상회하는 국가경제의 파국이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IMF관리체제하에 돌입하였고 온 국민은 고통과 시련으로 1년을 보내면서 실업자 2백만을 상회하는 1999년 5월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 건축사와 설계에 종사하는 설계인들은 어떤 업종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80%의 건축사가 휴업 중에 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빅딜(Big-dill), 작은 정부 실패, 무역수출액 감소,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어음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건축사의 체감에는 느낌이 오지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 어려운 시점을 이공하여 우리 건축사는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우리의 기초를 구축한다는 각오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영역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으며, 더욱이 부과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협회의 다원화까지 만들어 우리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협회는 몇 사람의 감투욕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금번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공제규정제정안의 결정은 우리 건축사를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시방서에 주요장비와 자재지정도 건축사의 생존권에 속하는 우리의 고유한 권한으로 우리의 입지를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정부의 건설정책도 국제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준비 중에 있으며 기 언급한 시방서 또한 새로운 내용의 시방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간 우리 건축 시방서는 유명 무실한 시방서였다. 정부에서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국제입찰을 위해서도 FIDIC라는 국제입찰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Claim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국제입찰에 부쳐지는 공사는 법의 심판까지도 받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국제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의 방어 대책이 요구되며, 시방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준비할 시점이다. 과거와 같은 불분명하고 무책임한 시방서가 아니라 주요장비와 주요자재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유럽국가나 미국은 자국의 장비와 주요자재의 판매전략을 위해서도 시방서에 주요장비와 주요자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우리가 해외공사에서 20~30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국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제품의 명시가 꼭 필요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건교부에서도 시방서를 정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시방서 작성 업무가 우리 건축사 업무 중 중요한 고유 업무로서 주요 장비와 자재를 우리가 지정해야 하며, 우리 디자인(Design)에 알맞은 자재와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어야 하고 건축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08

현상설계 / 113

해외잡지동향 / 118

전시리뷰 /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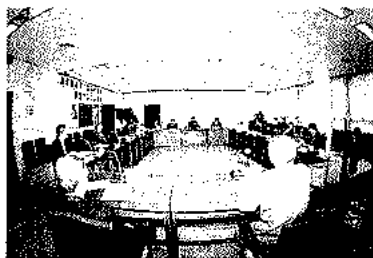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8

회원현황 / 130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개최

공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4월 9일(금) 14시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공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2호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되, 시간외수당은 제10차 아카시아포럼 행사추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키로 함.

〈기타사항〉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막행사(Opening Ceremony) (99. 9. 14.)때 임시총회 병행 개최 및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키로 함.

광주건축사회, 일본 후쿠오카건축가회와 교류협정

지난 4월 5일 후쿠오카 시오쿠 호텔에서



후쿠오카현립미술관(전시장) 기념촬영

광주건축사회(회장 안태경)는 일본 후쿠오카건축가회와 상호 기술교류 및 정보자료 교환 그리고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통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월) 일본 후쿠오카 시오쿠 호텔에서 교류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에는 안태경 광주건축사회장을 비롯한 25명이 참가해 조인식을 마치고 후쿠오카 시내 주요 건축물을 견학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조인식 다음날인 4월 6일에는 후쿠오카현립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대한민국 후쿠오카 영상관과 후쿠오카현 후원으로 18작품이 출품된 작품교류전을 열어 4월 11일까지 전시했다. 작품전시기간 동안 광주시를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작품전에 후쿠오카건축가회에서도 참가, 출품키로 했다.

서울건축사회, 제8기 시민건축대학

5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서울건축사회(회장 우남용)에서는 5월 3일부터 본협회 강당에서 제8기 시민건축대학을 개강한다.

학생과 주부를 포함해 일반시민을 대상

으로 하는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오는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5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입학식을 갖고 건축사의 역할, 풍수지리(양택론), 흙

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전원주택,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등의 내용으로 총 14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협찬한다.

일시	강좌	시간	강좌내용
5월3일	개강	13:30~14:00	입학식
	1강좌	14:15~15:30	건축사의 역할
	2강좌	15:45~17:00	풍수지리(양택론)
5월10일	3강좌	13:30~15:00	흙건축
	4강좌	15:15~16:45	건축행정의 이해
5월17일	5강좌	13:30~15:00	건축예술론
	6강좌	15:15~16:45	건축설계의 이해
5월24일	7강좌	13:30~15:00	주거론
	8강좌	15:15~16:45	건축물의 안전관리
5월31일	9강좌	13:30~16:45	한국의 전통가옥 답사
6월7일	10강좌	13:30~15:00	재개발 및 재건축
	11강좌	15:15~16:45	주택의 시공 및 재료
6월14일	12강좌	13:30~15:00	건축구조의 이해
	13강좌	15:15~16:45	전원주택
6월21일	14강좌	13:30~15:00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15:15	수료식

부산건축사회, 「건축사신문」 창간

5월부터 격주 발행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봉춘)에서는 그동안 소속회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관내 유관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발행하여 배부해 온 회보 「부산건축사」(타블로 이드판 4면)를 보다 유익하고 불거리 있는 건축전문지로 거듭나고자 인근 울산 및 경남건축사회와 연대하여 5월부터 발행부수 3천부로 가칭 「부산울산경남건축사신문」(타블로이드판 8면, 격주발행)을 발간한다. 앞으로 이 신문은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권의 건축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주간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건축계소식 archi-net

sa공개강좌 프로그램

98/99년도 제3쿼터

금요강좌 - 주제 4332/1999 현실과 관점: 전환 금요일 19:30

5월21일 김진송(미술평론가) 우리들에게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5월28일 김윤식(서울대 국문과) 한국근
대문학이란 무엇인가?

6월 4일 김화영(고려대 불문과) 문학과
공간

6월11일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감성이

지성을 재는 잣대이다.

6월18일 강준일(작곡가) 사물놀이의 미학
6월25일 이정우(철학자) 들뢰즈와 선

건축가세미나 화요일 19:30

5월25일 권문성(아트리에17) 세상 열
린 집

6월22일 김준성(법건축, 경기대 건축대
학원) 다이어트 중인 뱀파이어

영화세미나-빔 벤더스의 도시 / 진행 조성룡, 최 욱 토요일 14:00

5월29일 2개의 다큐멘터리(tokyo-ga
/ notebook on cities and
clothes)

6월12일 통일도시 베를린의 천사들(far
away, so close)

6월26일 정보도시 오딧세이(until the
end of the world)

여름워크숍

기간 / 99년 8월 7일(토)~8월 14일(토)

대상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일원

주제 / 한국성-무주에서의 실천

인원 / 100명 내외

스튜디오유터 / 운영위원+유터

모집 / 99년 6월 4일(금)~7월 10일(토)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서정양식), 재학증
명서(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생선발 / 99년 7월 20일(화)

여름워크숍교장 / 정기용(기용건축)

코디네이터 /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초청강사 / 조명래(단국대 지역개발과)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과)외

현지강사

초청평가 / 강 혁(경성대 건축과)

김병현(장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윤승중(원도시건축)

정진국(한양대 건축과)

으로 하는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오는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5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입학식을 갖고 건축사의 역할, 풍수지리(양택론), 흙

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전원주택,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등의 내용으로 총 14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협찬한다.

일시	강좌	시간	강좌내용
5월3일	개강	13:30~14:00	입학식
	1강좌	14:15~15:30	건축사의 역할
	2강좌	15:45~17:00	풍수지리(양택론)
5월10일	3강좌	13:30~15:00	흙건축
	4강좌	15:15~16:45	건축행정의 이해
5월17일	5강좌	13:30~15:00	건축예술론
	6강좌	15:15~16:45	건축설계의 이해
5월24일	7강좌	13:30~15:00	주거론
	8강좌	15:15~16:45	건축물의 안전관리
5월31일	9강좌	13:30~16:45	한국의 전통가옥 답사
6월7일	10강좌	13:30~15:00	재개발 및 재건축
	11강좌	15:15~16:45	주택의 시공 및 재료
6월14일	12강좌	13:30~15:00	건축구조의 이해
	13강좌	15:15~16:45	전원주택
6월21일	14강좌	13:30~15:00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15:15	수료식

부산건축사회, 「건축사신문」 창간

5월부터 격주 발행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봉춘)에서는 그동안 소속회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관내 유관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발행하여 배부해 온 회보 「부산건축사」(타블로 이드판 4면)를 보다 유익하고 불거리 있는 건축전문지로 거듭나고자 인근 울산 및 경남건축사회와 연대하여 5월부터 발행부수 3천부로 가칭 「부산울산경남건축사신문」(타블로이드판 8면, 격주발행)을 발간한다. 앞으로 이 신문은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권의 건축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주간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건축계소식 archi-net

sa공개강좌 프로그램

98/99년도 제3쿼터

금요강좌 - 주제 4332/1999 현실과 관점: 전환 금요일 19:30

5월21일 김진송(미술평론가) 우리들에게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5월28일 김윤식(서울대 국문과) 한국근
대문학이란 무엇인가?

6월 4일 김화영(고려대 불문과) 문학과
공간

6월11일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감성이

지성을 재는 잣대이다.

6월18일 강준일(작곡가) 사물놀이의 미학
6월25일 이정우(철학자) 들뢰즈와 선

건축가세미나 화요일 19:30

5월25일 권문성(아트리에17) 세상 열
린 집

6월22일 김준성(법건축, 경기대 건축대
학원) 다이어트 중인 뱀파이어

영화세미나-빔 벤더스의 도시 / 진행 조성룡, 최 욱 토요일 14:00

5월29일 2개의 다큐멘터리(tokyo-ga
/ notebook on cities and
clothes)

6월12일 통일도시 베를린의 천사들(far
away, so close)

6월26일 정보도시 오딧세이(until the
end of the world)

여름워크숍

기간 / 99년 8월 7일(토)~8월 14일(토)

대상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일원

주제 / 한국성-무주에서의 실천

인원 / 100명 내외

스튜디오유터 / 운영위원+유터

모집 / 99년 6월 4일(금)~7월 10일(토)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서정양식), 재학증
명서(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생선발 / 99년 7월 20일(화)

여름워크숍교장 / 정기용(기용건축)

코디네이터 /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초청강사 / 조명래(단국대 지역개발과)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과)외

현지강사

초청평가 / 강 혁(경성대 건축과)

김병현(장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윤승중(원도시건축)

정진국(한양대 건축과)

제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오는 6월 4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장영수)는 우수건설인 양성 및 건설기능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올해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오는 6월 4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에서 개최한다. 경기직종은 8개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으로 참가자격은 대회개최일 현재 만 14세이상이고, 현장 실무경력이 1년이상으로 참가직종의 기능사, 산업기사(중전 기능사1, 2급)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 중 신청일 현재 공사현장 종사하는 기능인으로서 소속 건설회사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자이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99. 4. 20. ~5. 8.

▶신청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일반건설업체 종사기능인: 대한건설협회 각시도회 사무처

- 전문건설업체 종사기능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각시도회 사무처

- 설비건설업체 종사기능인: 대한설비건설협회 각시도회 사무국

▶신청서류

-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

-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사진(3cm×4cm) 2매

▶특전: 1,2,3위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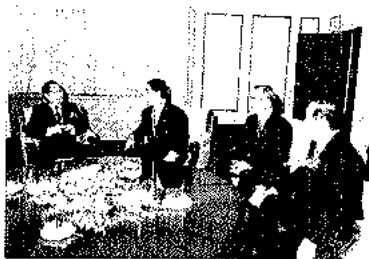
- 대한건설협회: 02-3485-8312

-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29

- 대한설비건설협회: 02-2243-8140

98년 건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수여

3월 25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사 자격 수여식전 단체장들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한담광경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황상모)에서는 98년도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수여식을 지난 3월 25일(목) 오후2시에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의구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기술인 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격수여 대상자 1천7백86명에게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했다.

인하대건축·원정수교수 35년 기념 건축전시회

5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인하대건축과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2층 제3전시실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인하대건축·원정수교수35년 건축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조성룡, 안길원, 동정근, 이종상, 전은배, 손기찬, 김의성, 송광섭씨 등 45명의 인하대 출신 건축가들이 참여한다. 한편 전시기간 중인 5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에서는 「건축교육과 실무」라는 주제로 원정수교수의 강연과 토론회 있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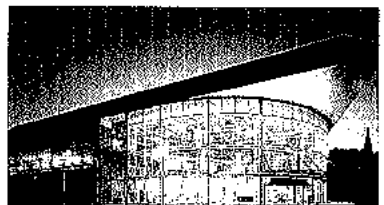
99포스코 강구조작품상

금상에 통영대교

포철이 후원하고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한 99포스코강구조작품상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영예의 금상에는 통영시가 발주해 동명기술단이 설계하고 한진중합건설이 시공한 「통영대교」가 선정됐다. 은상에는 삼우설계와 석산구조가 공동설계한 「웅진교통박물관」과 소라건축과 영남대 구조연구실이 공동 설계한 「경주실내체육관」이 각각 선정됐다. 동상에는 범건축과 전우구조가 공동설계한 강남구 역삼동의 「한국중공업사옥」과 간·삼건축과 정일구조의 충북 진천 「이월초등학교」와 대영엔지니어링의 「인천국제여객부두연락교」가 각각 선정됐다.



금상/통영대교



은상/웅진교통박물관



은상/경주실내체육관

제17회 공간학생건축상 공모요강

주제는 SPAZI - 복합 상업·문화공간

SPAZI - 복합 상업·문화공간,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들의 유형을 건축으로 만들어보고자 의류를 주업종으로 하는 S사라는 복합 상업·문화공간을 주제로 설정한 올해 공간학생건축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S사에서 원하는 공간에는 의류업체로서 필요한 매장과 패션쇼가 가능한 쇼룸, 다양한 분야의 젊은 미술인들이 작업을 할 창작스튜디오, 이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임으로써 미술과 사회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전시장,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지나치게 상업적이지 않은 특색을 위한 크지 않은 규모의 공연장 등이 이번 공모전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응모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가, 보충할 수 있다. 대상 1점에는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우수작 1점에는 상장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되며, 가작과 입선작에는 각각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특별상인 썸지상에는 상장과 상금 2백만원이 수여된다.

▷ 참가신청접수: 1999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우편, 팩스도 가능)

▷ 작품접수일: 1999년 6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마감당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방법: 지방이나 해외 학생들과의 시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사 접수는 불가하여 작품을 CD에 수록하여(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

▷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의 학생신분이면 전공을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다. 개별 또는 3인 이하의 팀별 참가 가능.

▷ 참가비: 작품당 5만원, 우체국발행 우편환 또는 은행온라인, 상업은행(113-04-110779), 주. 공간사로 접수

▷ 작품작성요령: 작품이 수록된 파일(참가자의 이름과 웹, 이미지는 별도 폴더로 작성), 60cm×60cm의 이미지4장

(작품외의 설계설명서 별도 접수 안함)
▷ 제출 및 문의: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19번지 공간대상 사무국 전화 02-747-2892, 팩스 02-747-2894, 전자우편 spacem@sgk.co.kr

제12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인 대전 공모요강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원서교부

가인디자인그룹이 주최하고 월간 인테리어가 주관하는 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이 올해로 12회를 맞아 다각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디자이너 신예들의 등용문으로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 원서교부: 1999년 9월 6일~10월 29일

▷ 작품접수: 1999년 12월 10일(당일 우체국 소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양식: A3규격의 보고서 양식으로 작품보고서 총 2부(사본 1부 포함)

▷ 제출내역: 표지, 목차, 개요, 도면 및 투시도 등 20매 내외(그림화일을 제외한 개요부분만 한글을 이용하여 3.5인치 디스켓 제출)

▷ 출품자격: 팀별 1인 또는 2~3인의 공동출품 가능, 국적 및 신분 불문

▷ 수상내역: 대상 1점(상장 및 상금 3백만원), 우수상 2점(상장 및 상금 1백5십만원), 특선 약간, 장려상 약간, 입선 다수(상장)

▷ 심사발표: 2000년 1월 4일(개별통지 및 월간 인테리어 게재)

▷ 접수 및 문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1-12 가인디자인그룹 전화 02-3443-3443, 팩스 02-3443-0430

제6회 간향건축문학상 공모요강

오는 7월 24일까지 접수

월간 건축인 포아는 베카르코리아(주) 협찬으로 제6회 간향건축문학상 공모요강을 발표했다.

▷ 주제: 도시락(살기에는 재미있지만 공부하기에는 딱딱할 수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도시공간의 해부를 전제로 한다.)

▷ 형식: 산문(사진 등 보충자료 첨부 가능)

▷ 원고량: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50매 안팎(워드작업시 A4용지 5매 내외)

▷ 작품접수: 1999년 7월 24일까지(당일 우편소인 도착분까지 접수, 디스켓동봉 권장,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접수 불가)

▷ 수상자발표: 월간 건축인 포아 1999년 9월호(8월중 개별통보 예정)

▷ 접수 및 문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 청호빌딩 201호 월간 건축인 포아 간향건축문학상 전화 02-637-3890

한국·캐나다, 「도시근교 주거단지 개발」 공동세미나

5월 19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택산업연구원(KHI)과 캐나다 주택저당공사(CMHC)는 오는 5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도시근교 주거단지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정희수 KDI국제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는 Sebastion Moffat(캐나다, Sheltair그룹 대표)와 Robert Worden(캐나다, Ramsay Worden Architects Ltd. 대표) 그리고 강남진박사(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와 박환용교수(경원대)가 발표자로 참여하고, 토론자

로는 김영희(남양주시장), 추병직(건교부 주택도시국장), 김홍규(연세대교수), 황성민(주·서원 대표이사)씨가 참여한다.

건축·만화·재즈의 만남

5월 16일(일) 오전 1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건축문화의 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축가, 만화가 이원목(덕성여대교수), 음악가(서울재즈아카데미)들이 모여 시민들에게 건축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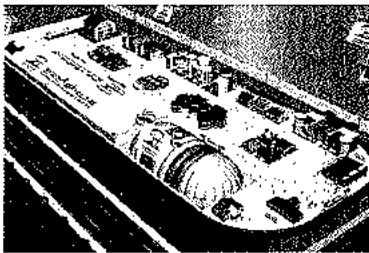
- 일시: 99. 5. 16(일) 오전11시~오후1시
-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 주최: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서울재즈아카데미
- 문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사무국 762-8090



국내 최대규모의 『건축문화 EXPO』 개최

올 10월 여의도 1만여평에
다양한 전시·정보교류의 장 마련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건축박람회가 될 「한국건축문화 EXPO '99」를 오는



전시장 조감도

10월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서울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한달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서강대교 남단 한강 고수부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건축박람회는 약 1만여평 규모의 대형 행사장에 ▶미래의 건축을 소개하는 '주제관'과 ▶다양한 형태의 모델하우스들이 선보일 '모델하우스관' ▶건축설계, 자재, 인테리어, CAD, 조경 등 건축관련산업의 최신 정보를 망라한 '건축산업관' 등이 들어서 한국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래건축전'으로 명명된 주제관의 경우 밀레니엄건축, 초대형 빌딩, 첨단건축, 해양·지하·우주건축, 의료·복지건축, 환경친화적 도시건축 등 모두 9개의 테마별 전시실이 마련돼 각종 모형과 사진,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미래의 건축유토피아를 앞서 볼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중 각 메인 전시관 주변에서는 '미래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무료 건축상담의 날', '건축인력 구인·구직 마당' 등 대국민서비스 차원의 부대행사가 동시에 열리며, 행사 참가기업과 각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마당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밖에 미술·음악·연극 등 건축과 타 분야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과 관람객을 위한 팝오케스트라 연주회, 고적대 퍼레이드, 인기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펼쳐진다. 한편 행사위원회측은 연인원 약 70만명이 행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건축의 대중화는 물론 건축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국대 건축공학과, 연례 특강 및 세미나

주제는 '구축으로서의 건축'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대학원에서는 '구축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99년 봄학기 연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세대별로 선정된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 개별 건축물들의 구축과정을 도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될 것이며, 참석자들은 건축가들의 논리와 실험 속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건축논단을 연재중인 신에 건축가 서현(현 건축)씨의 '논리의 도전', 중원건축 김낙중씨의 '향성으로서의 구축'이 오는 5월 11일(화)과 5월 13일(목)에 각각 강연된다. 아울러 포스에이씨의 강춘만씨가 5월 14일(금) '월드컵전주경기장의 설계'라는 주제로 초대형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단국대건축공학과 이경훈 교수 (02-709-2565)

영남대 건축공학과 특강

우경국 "관계와 흐름의 논리" 등

영남대 건축공학과는 공대 강당에서 외부인을 초청, 특강을 갖는다.

5월 24일(월) 15:00~17:00	민대식 (건축가)	Architecture for Next Generation
5월 26일(수) 14:00~16:00	유홍준 (영남대 교수)	고건축의 멋과 수렴
9월 16일(목) 14:00~16:00	우경국 (건축가)	관계와 흐름의 논리
9월 17일(금) 14:00~16:00	김광우 (서울대 교수)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물계획

호서대 건축학부 공개세미나

21세기의 건축

호서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95년부터 건축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더욱 그 내용을 알차고 실속있게 마련하였으며, 세기가 바뀌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21세기 건축'이라는 대주제 하에 매달 한차례씩 실시된다.

일정

- 4월 13일: 건축가 류춘수의 작품세계 (류춘수/주 이공건축 대표)
- 5월 25일: 건설사업관리의 발전 방향 (이시관/범건축 소장)
- 6월 15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거주지 계획(이규인/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

문의: 0418-540-5490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수요일포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매주 수요일 19시에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수요일포럼을 개최한다.

내용

- 4월 7일: 환경을 망치는 환경건축가들 (유정길)
- 4월 21일: 이미지-영화속의 도시공간 (조성룡)
- 4월 28일: 근작(서해림)
- 5월 12일: 지역문화와 21세기(민산주)
- 5월 26일: 최신 건축물의 내부공간 비평(정재민)
- 6월 2일: Space Syntax(권 영)

문의: 02-910-4590

- EBS 직업의 세계 「건축사」편 방영 -

우리협회 청년건축사 위원회(위원장: 최영집)에서 EBS 방송과 함께 제작한 직업의 세계 「건축사」편이 방영된다.

▷ 방송시간

- 5월 15일(토요일) 오후 7시 35분
- 5월 16일(일요일) 오전 11시 20분 (재방송)
- 약 40분간 방영

▷ 내용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건축사가 되고, 또 건축사로서 활동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임.

테이프의 구입을 원하는 건축사나 사무소 등에서는 건축사협회 사무처 또는 청년건축사 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건위 위원장 최영집 (2213-3721)

총무 윤재현 (579-4876~7)

건축만평

건축사의 아르바이트



그림 / 유원재(다건축)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의재미술관

영상만화고등학교

샤우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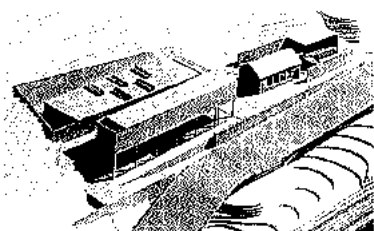
서울도시가스 사옥 및 아파트

의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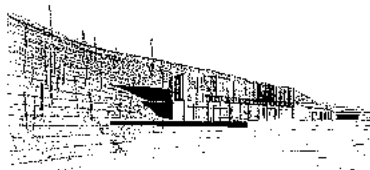
Uijae Museum

의재문화재단이 실시한 의재미술관의 현상설계경기의 결과가 지난 3월 26일에 발표됐다. 총 18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조성룡도시건축(조성룡)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작에는 건축사사무소 팀반(정순근·김광수)안이, 그리고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식)안과 건축사사무소 광장(신정철)안은 가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당선작 / 조성룡도시건축(조성룡)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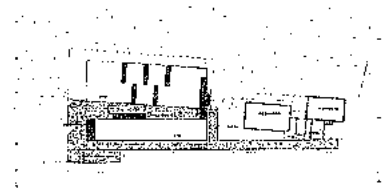


투시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5-1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248㎡
연면적	1,468.94㎡
건축면적	641.63㎡
건폐율	10.27%
용적률	23.51%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삼목패널, 투명/반투명유리, 폴리카보네이트패널

〈의재미술관〉은 의재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의재 허백련 화가의 한국화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호남 한국 화가들의 작품을 기획하여 전시하는 공간과 그의 생전의 활동을 보여주는 특별전시 기능을 수용할 미술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서 광주시의 재정지원으로 수립되었다. 미술관 부지는 등산로에 길게 면하여 있고 건물의 뒤편은 울창한 수림으로 덮인 금경사지이며 산등성이의 차 재배밭으로 연결된다. 경사진 길을 따라 미술관은 전시동, 특별전시동(구 농업학교 건물=삼애원), 관리동 등 직렬로 배치된 세 개의 건물은 경사로와 담으로 구성된 긴 기단 위에 놓여 있으며, 주변의 풍경과 공존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되어 있다. 미술관은 몇 개의 단을 구성하면서 금경사의 지형에 순응하며 배열된다. 1층의 개방된 공간은 전시장 입구 홀과 안내·정보기능과 상·하 연결 이동장치, 휴식공간으로 구성된 공공영역이며 계곡 건너의 춘설다원과 마주한다. 이 유리공간에서 지형의 경사를 따라 상설전시장이 이어지고 2개층이 뚫린 지하의 부대기능(세미나/강연실/자료실/수장고 등)과도 연결된다. 전시동은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시장으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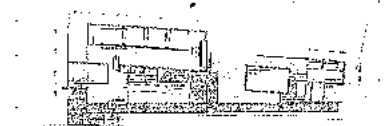
사로는 기존건물의 축과 일치하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특별전시장과 시각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상설전시장은 작품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2개의 레벨로 나눈 좁고 긴 갤러리이다. 〈의재미술관〉은 서양화 위주의 전시공간과 달리 한국화 전용 전시공간의 성격과 정서를 담아내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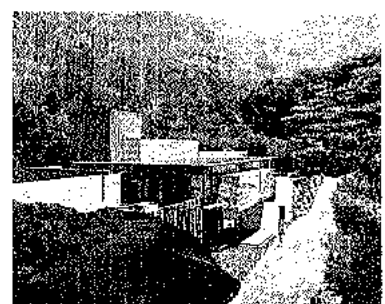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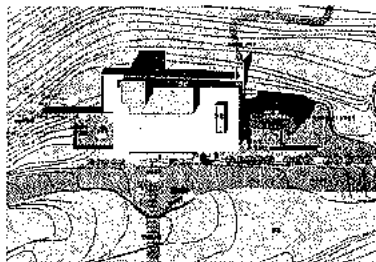
▶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팀반(정순근·김광수)



조감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5-1, 산 137-2, 산 138-18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248㎡
도로현황	동측 약 7m도로(등산로)
연면적	1,513.0㎡
건축면적	756.3㎡
건폐율	12.10%
용적률	20.8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8.65m
외부 마감	외벽: 파식 세로 쌓기, 적삼목 사이딩, 오석 지붕: 철골조화 목재 조합위 등판 거열접기
설비개요	기계설비: 열원, 공조, 위생, 소화, 지동제어설비 전기설비: 전력(수변전, 예비 전력 등), 정보통신설비 등
설비개요	허재혁, 변수진, 이정원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입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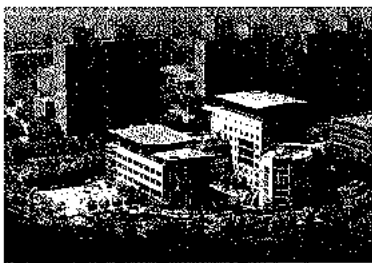
영상만화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Cartoon and Animation High School
& Sawoo Hing School

경기도 교육청이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기하며 미래 교육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시설의 마련을 위해 실시한 영상만화고등학교와 사우고등학교의 현상설계경기의 결과를 지난 3월 10일 발표했다. 총 20개 작품이 접수된 영상만화고등학교는 두울건축사사무소(김경숙)안과 (주)건축사사무소 머릿돌에이스(이만출)안이 당선작과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되었고, 총 23개 작품이 접수된 사우고등학교는 (주)인터월드건축사사무소(김익성)안과 (주)삼간종합건축사사무소(정진오)안이 당선작과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영상만화고등학교

▶ 당선작 / 두울건축사사무소(김경숙)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신장택지개발지구내
대지면적	7,152.50㎡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건축면적	1,810.86㎡
연면적	교사동-10,505.07㎡ 기숙사동-2,352.88㎡
건폐율	25.30%
용적률	159.06%
시설규모	1교사동-지하1층, 지상7층 기숙사동-지하1층, 지상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차대수	63대
외장재료	외단열 시스템+THK18 복층유리

배치계획

- 협소한 부지내에서 일부 실습실 및 체육관동을 고층(7~8층)으로 유도하여 협소한 대지를 최대한 극복
- 일반교실 및 행정동, 실습실동, 기숙사동 등 기능에 따른 Mass의 자연스런 분절 및 연속성 배치
- 축과 향 및 조망을 최대한 고려한 배치
 - 일반교실동은 전면 남향으로 배치
 - 실습실 및 체육관동은 북측 후면부에 배치
 - 조망 확보 및 조형성을 고려한 기숙사동의 타원형 배치
- 전면 진입부에 피로티와 연결된 중정형 배치로 각 건물동의 자연스런 연계성을 도모
- 학생의 전일 체류에 따른 기능 및 동선을 고려
- 학생의 창작동기를 끊임없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
- 중정과 연결된 선근가튼을 이용하여 기숙사동 지하에 식당을 배치함으로써 유기적 동선 연결과 냄새 및 소음으로부터 배제시킴

평면계획

- 교사동
 - 기능에 따른 Zoning 및 상호 연관성 부여
 - 일반교실동 및 실습동의 기능적 분리 및 동선의 연계성
 - 학과의 특성별 Grouping으로 효율적 관리 측면과 교육성과를 고려한 평면계획
 - 학생의 창작동기를 끊임없이 유발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내 자율성 부여
 - 소규모 발코니, 휴게공간, Roof Garden
 - 장 Span이 요구되는 체육관 및 대형 시사실은 건물 상층부로 구성
 - 특수 실습실의 기능을 고려한 평면계획(설비, 방법, 보안 등)
- 기숙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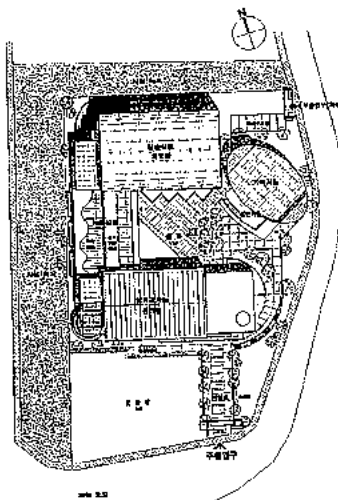
- 학생 전일 체류에 따른 관리의 효율적 실 배치
- 남녀 출입구 및 층별 분리(1~3층 - 여학생용, 4~6층 - 남학생용)
- 타원형 Mass를 이용한 객실의 조망 (Good View) 확보 및 조형성 부여
- 기능 및 동선을 고려 기숙사동 지하에 식당을 계획(냄새 및 소음 배제)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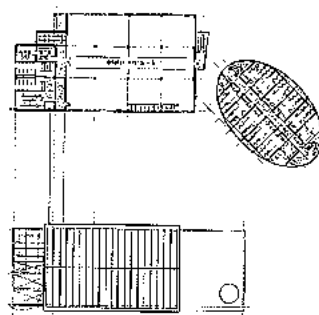
- 한국의 전통미를 고려
- Mass의 조합에 의한 다양한 변화성을 부여
→ 자연스런 Sky Line 형성
- 피로티와 테라스 설치로 건물의 깊이감 표현
- 학교의 인지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붕선과 외벽 표현
- 영상창작의 분위기 창출을 위한 외관 표현(컬러, 슈퍼그래픽, 자유곡선 도입)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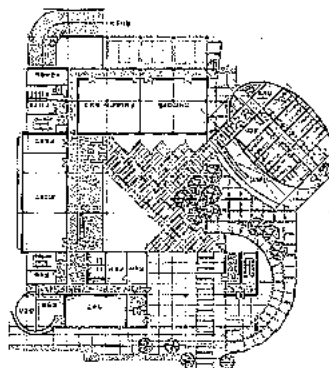
- 장 Span이 요구되는 대형 시사실 및 체육관을 건물 상부에 배치하여 구조 해결
- 각 기능실들의 층별 Zoning
- 기숙사 남녀 구분에 따른 층별 분리(1~3층 - 여, 4~6층 - 남)
- 특수실의 장비나 설비를 고려한 적절한 단면 계획
- 기숙사동 층고는 교사동과 분리하여 경제적인 단면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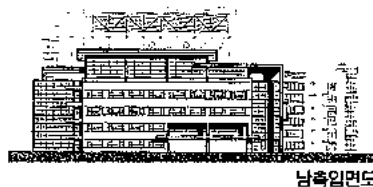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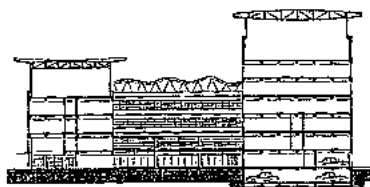
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입면도



종단면도

▶ 우수작 / (주)건축사사무소 머릿돌에이스(이만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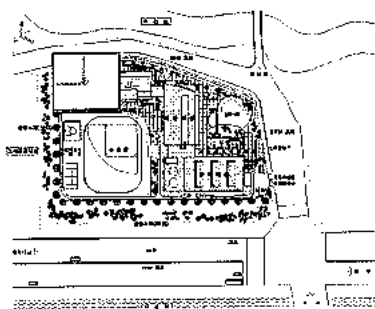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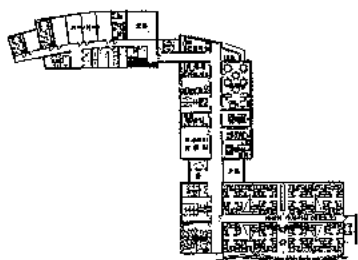
대지위치	하남시 창우동 523-4(신장택지개발지구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7,152.50㎡
건축면적	1,957.70㎡
연면적	14,425.00㎡
건폐율	27.30%
용적률	161.50%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적벽돌 치장쌓기, 외단열코트재, T18 복층유리
조경면적	1,516.00㎡
주차대수	48대
설비	공조설비, 승강설비, 정보통신설비, 자동제어설비
특기사항	수직중축고려, 장애자편의시설설치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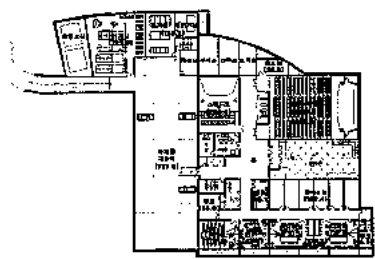
일반 고등학교와 영상만화 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가지는 서로 다른 두가지의 기능과 이미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질서와 자유로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사이의 적절한 기능과 이미지 배분을 배치와 옥외공간 개념에 적용하였다. 교과교실형 수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내부동선과 각실 내부 레이아웃에 반영하였다. 또한 설비적 유지 관리비와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 등 건축주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장재를 선택하였다. 외장재로 사용된 부드러운 색조의 적벽돌과 커튼월을 대비시킴으로써 청단의 이미지는 곧 현란함과 화려함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조심스럽게 배제하고 클래식한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의 대비를 통하여 절제된 표현으로 미래와 청단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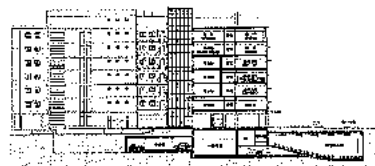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사우고등학교

▶ 당선작 / (주)인터월드건축사사무

소(김익성)

대지위치	김포시 사우 택지개발지구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학교용지
대지면적	15,028.4㎡
도로현황	35m도로, 45m도로
용도	교육연구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2,142.47㎡
연면적	6,161.31㎡
건폐율	14.25%

용적률	50.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화강석, 붉은벽돌 치장쌓기, 18mm 복층유리
설비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 배치 계획에 있어 2가지 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대지의 구석에 있는 진입로에서 건물과의 접근성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
둘째: 학교 소음으로 주변 아파트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 교과교실형의 교실형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사우고등학교의 평면계획은 이선구 교수의 연구보고서 "신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모형연구"를 근거로 주어진 여건(면적제한)에 맞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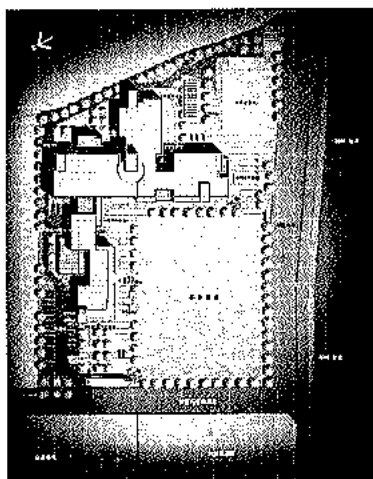
- 담임교실의 개념과 큰 학교내 학교 (School-in-school System) 개념을 적용시켰고

- 4개학급을 1개의 기본 유닛으로 구성하여 수업시간 편성, 학생지도 등 교과과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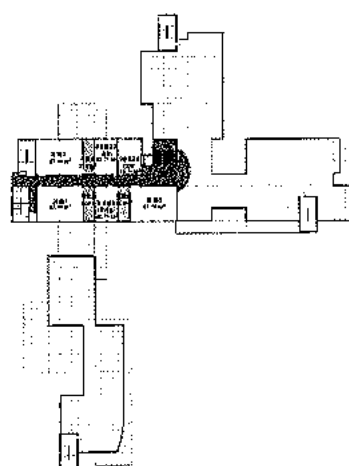
- 일반교과영역과 특별교과영역을 분리하여 U+V형에서 V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의 평면계획을 시도하였다.

- 주어진 면적제한으로 홈페이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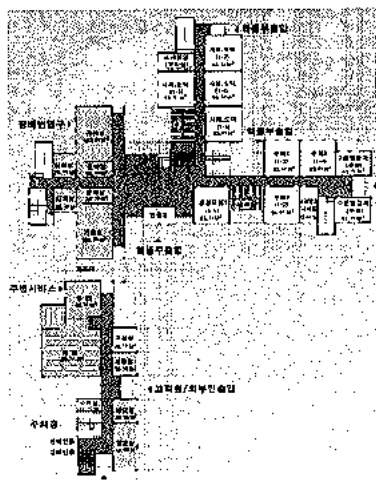
• 입면은 90cm격자형 그리드를 기본모듈로 계획하였고 벽돌을 바탕을 바탕 마감재료로 하고 화강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재료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배치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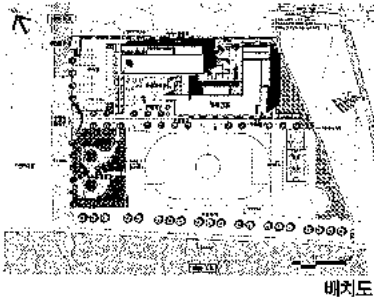
단면도

▶ 우수작 / (주)삼간종합건축사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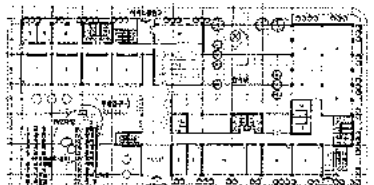
소(정진오)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 택지개발지구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15,028.4㎡
도로현황	40m도로, 12m도로
건축면적	2,007.61㎡

연면적	6,121.26㎡
용적률	39.69%
건폐율	13.3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6.2m
외부마감	18mm 적색 복층유리+붉은 벽돌/콘크리트
설비개요	냉·난방, 위생, 환기, 소화, 전화 및 방송설비
주차개요	41대
조경개요	2,801.06㎡
기타사항	주차, 화장실, Ramp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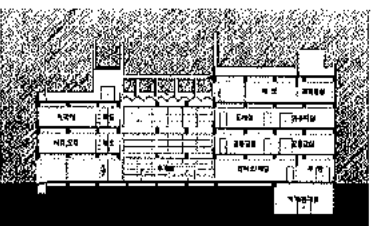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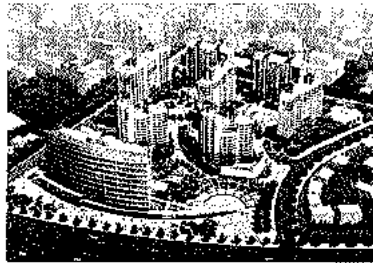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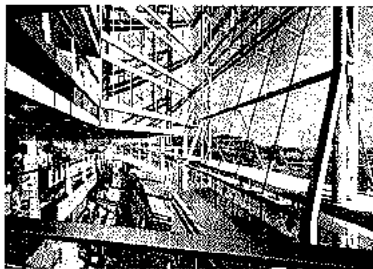
서울도시가스 사옥 및 아파트

The Office and Apartment of Seoul Urban Gas Co.

▶ 당선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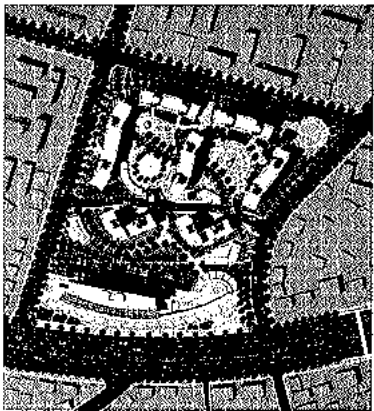


조감도



투시도

- 상징성 및 인지성
 - 서울도시가스 사옥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중후하면서도 High-Tech한 Image 형상화
 - 지역적 랜드마크로서의 조형성 창출
- 공공성/친근성/연계성
 - 전면공지 확보로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 제공
 - 주변환경과의 조화 도모
 -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성 극대화
- 첨단성/가변성
 - 사무 자동화 빌딩 개념 도입(IFS)
 - 장래 변화에 대응한 공간의 융통성 확보
- 쾌적성/경제성
 - 사무공간 및 업무환경의 질적 향상
 - 에너지 절약 설비 시스템 도입



배치도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영창동 281번지의 19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2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특별설계구역)
대지면적	사옥부지 - 7,580.20㎡
건축면적	1,682.14㎡
건폐율	22.20%
용적률	167.67%
규모	지하2층, 지상1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3.4m
주차대수	171대(지상 - 59대, 지하 - 112대)
엘리베이터	3대(16인승), 비상용 1대(10인승)
조경면적	1,840㎡
주요외장재	유리(커튼월)

Domus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a+u

建築文化

新建築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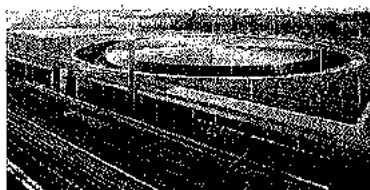
1999년 2월호

이번 호는 원
과 사각형의
순수 기하학을
취하여 두 개
의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풀어
낸 Dominique
Perrault의 베
를린 사이클 경기장을 다루었으며,
Hans Hollein의 작품에서 보이는 지하
공간에 대한 그의 사고를 읽을 수 있는
글이 실렸다. 또한 디자인의 근원을 자
연물이나, 사회현상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내는 디자이너의 사고과정을 통해
밝혀보는 글과 함께 각 디자이너의 작
품 등을 소개하였다.



■ 근작소개

▶ Dominique Perrault의 베를린 사이
클 경기장



벨로드롬과 수영장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450ha의 직사각형 대지 아래에 내
려앉아 있어서, 오직 원과 사각형 지붕만
이 스틸망으로 덮여져 있는 채로 외기에
면하고 있다. 수백개의 스틸망 매트로 이
루어진 지붕은 날씨에 따라 다르게 보이
며, 광학적인 효과를 연출한다. 특히 근
처 Tegel 공항에서 착륙하는 비행기 안
에서 이 건물은 마치 거대한 순수 기하학
으로 이루어진 그림처럼 보인다. 파리 국
립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대부
분을 숨기는 그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유
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운동경
기장은 홀로 서서 그 도시의 상징물이 되

는데, 반해 Perrault는 사과나무 정원을
도시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도시적 상
징물로써의 시설에 접근하였다.

▶ Hans Hollein의 지하 프로젝트

1989년의 오스트리아 도시의 지배적 경
관을 이루는 Munberg 바위산 지하에
위치한 Salzburg 미술관 당선안의 스케
치는 Hollein의 지하공간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지하공간은 극탈함기
지나 구멍보트처럼 외부에 대하여 완전
히 닫혀있는 환경으로, 이러한 내향적 환
경일수록 건축가의 기본적 의무는 더욱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지하공간은 모
든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조직될 수 있으
며, 외부에 대해서는 지면에 대한 면만을
고려하면 된다.

그 밖에 ▶ Mecanoo의 네델란드, 델프
트 대학도서관 ▶ Propeller z의 독일,
에센, 'Metropolite' 전시관 등이 소개
되었다.

■ 디자인의 근원

디자인된 사물에서 그것이 디자인되는
과정을 그려보기란 쉽지 않다. 사용자나
디자이너까지도 결과물 자체만으로 그것
을 판단하기 쉬우며 그 디자인의 근원이
나 진화과정을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 이
리포트는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디자이너
의 아이디어라는 자양분 안에서 형태의
근원과 실마리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그
것은 디자이너의 내적, 개인적 취향에 근
거하기도 하며 그 개인적 진화과정에서
역사적 사례의 참조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엄밀한 전문적 디자
인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 건축 특집으로, OMA, Mvrdv 등의 랜드스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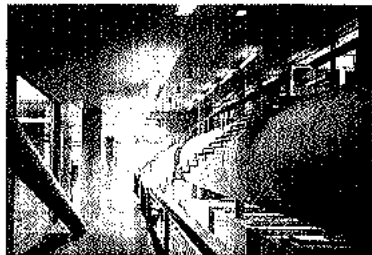
를 주된 디자인 테마로 삼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창고 건물을 아파트로 개조한 안을 다루었으며, Van berkle & bos의 다리구조를 계획한 등을 소개하였다.

■ 네덜란드 건축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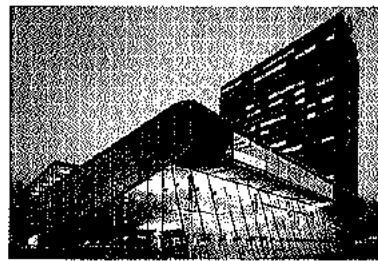
네덜란드와 모더니티는 많은 의미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인공 대지, 그리드 패턴의 수포와 전적으로 공학과 계획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네덜란드는 최근 20년간 건축적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건축협회 기금, 그리고 건축관련 출판물의 양산, 베를라헤 인스티튜트 등의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Herman Hertzberger를 포함하여, Aldo van Eyke의 후기작품에 영향을 받은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건축가들과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Rem Koolhaas의 OMA를 거처간 건축가들은 다양한 건축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실용주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Paper Architecture를 거부하고, 값싸고 재활용되는 재료 사용에 주저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건축가들에 비해 Context의 제약으로부터 더 자유롭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마치 부족한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인지, 이들은 랜드스케이프를 주된 디자인 테마로 채택하고 있다. 일례

로 ▶Mecanoo의 Delft대학 도서관의 지붕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인접한 60년대에 지어진 오토리움의 정원으로 쓰이게 되며, ▶Neutlings Riedijk의 Minnaert Building은 땅이 움기된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Mvrdv의 Villa VPRO는 OMA의 Educatorium과 마찬가지로 판으로 구성되어, 판의 단면이 유리면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Jussieu 도서관 계획안의 연장선상에 있다(Mass와 van Rijs는 당시 OMA에서 함께 일했다). Villa VPRO의 나선형의 내부공간은 여러 레벨에서 만나고 있으며, 연속되면서 잡히는 슬랩은 때로는 바닥이 되었다가 벽이 되기도 한다. 공간적 시퀀스는 건축적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나선형평면이 꼬여 점차적으로 지붕층까지 올라가는 구성을 하고 있다.



▶OMA의 Educatorium은 대학이라는 복합체로서, 캠퍼스 랜드스케이프의 연장으로 기능한다. 유리벽은 다이내믹한 램프와 계단 등을 노출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휘어진 판과 중첩되어 표현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공학에 의한 공간적 다양함의 획득을 보여준다. 일례로 접어들어진 판 아래에 위치하며 경사진 유리면으로 둘러 싸여있는 식당은 독특한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비평가들은 치밀한 건축적 산책로의 조직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고, 우연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벤치나 가로대 등 인간적 요구의 수용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업적인 재료의 선택으로 따뜻한 느낌과 가족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Koolhaas는 혁신적인 형태와 시각 경험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비일상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Herman Hertzberger의 Uden 극장 ▶Neutlings Riedijk의 Ede 신문사와 인쇄소 ▶Erick van Egeraat의 Leiden 실험실 ▶Weil Aret의 Breda 가구공장 본사 ▶Kraaijvanger-Urbis의 헤이그 영국인 학교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 인테리어 디자인- Fokkema Architecten의 벨기에 Antwerf 아파트먼트

19세기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다섯 식구를 위한 현대적인 아파트먼트를 만들었다.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고 건물의 비결정적인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빛 도입장치, 브릿지, 계단, 메자닌층, 그리고 자기충족적인 캡슐 - 각각 침실과 화장실 - 등이 만들어졌다. 이 세 개의 캡슐은 흰색 플라스틱 큐브의 형태를 이루며, 수직 수평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 낸다.

■ 디자인 리뷰- Van berkle & bos의 다리구조물 계획안

절제된 디자인의 다리 콘트를 센터는 네덜란드 북부의 Purmerend에 있는 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다리는 비동시적으로 개폐되는 세 개의 평행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리를 지키는 스테이션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세밀한 구멍의 스틸 메쉬에 의해 덮여서, 특히 밤에는 빛이 확산되어 영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소홀히 다루지기 쉬운 도시 하부구조물을 구축적 서정미를 구체화시키면서 주변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였다.

Architecture

1999년 4월호

이번호는 P/A Awards 와 Awards for Architectural Research 당선작들을 소개하였다. 각각 디자인과

연구부분에 수여되는 상으로 작품과 함께 심사위원의 코멘트가 수록되었다. 또한 60년대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아키텍트의 주장과 현대에 있어서 그 영향을 살펴보는 칼럼이 실렸으며, 비계구조물의 디자인과 기술적 정보를 최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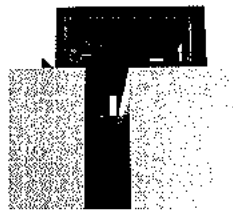
■ P/A Awards 와 Awards for Architectural Research 당선작 특집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올해의 P/A Awards는 모더니즘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Modern은 더 이상 과거의 독단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의 인용에서 보이듯, 현대 건축계의 흐름을 읽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수상작으로서, • Shim-Sutcliffe Architects의 마네아 폴리스 보트하우스, • Gabellini Associates의 베로나, Piazza Isolo, • Wendell Burnette Architects의 피닉스 Tocker/McCormack House, • Willis, Bricker & Cannady의 휴스턴 Jones Plaza 리노베이션, • Office dA의 Wayland 단지 계획 등 이상 5개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가장 부분으로 선정된 12개의 작품을 간략히 다루었다. Awards for Architectural Research는 1. 에너지와 생태건축부분, 2. 역사분야, 3. 행동, 사회과학분야, 4. 기술, 컴퓨터, 재료관련 연구부분 등 네 개의 부분에 걸



쳐 수여되는데, 올해는 • Lawrence Berkley 국립연구소의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위한 통합 외피 시스템 연구, • Siegle & Strain Architects의 Emeryville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연구, •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과 홍콩 Chinese 대학 공동 프로젝트로서, 건축공간에서의 대체 광원연구 등이 수상하였다. SOM의 뉴욕, 메디슨 애버뉴, 오피스 타워와 Sharples Holden Pasquarelli의 Sex Museum

■ 아키텍트 - 그들이 전망했던 미래를 되돌아봄



아키텍트는 1961년과 1974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룹으로 기술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움직일 수 있는 건물, 신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도시 등을 글과 그들의 현란한 드로잉을 통해 소개하였다. 아키텍트의 유산은 공항이나 유럽의 오피스 건물, 쇼핑몰, 정부 청사에서 쉽게 찾아질 수 있으며, 영국의 하이테크 건축은 세계적인 양식이 되고 있다. 우리가 워크맨, 핸드폰, 컴퓨터 등을 지니고 앉아 있는 넓고 유동적 공간은 아키텍트가 꿈꾸었던 Plugged-in Utopia일 지 모른다.



■ 기술정보 - 비계 구조물

워싱턴시의 상징탑인 오벨리스크가 보수공사를 위해, 탑 주위로 비계가 세워졌다. 미적으로 고려된 이 구조물은 또 다른 기념탑으로의 변신을 가능케 하였다.

넓은 푸른색의 스틸망이 석조의 패턴을 이루며 전체 탑을 감싸고 있으며, 이 구조물위에서 18달 동안, 거대한 석재의 오염을 닦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비계 시스템은 알루미늄 튜브가 전체 골조를 이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싸지만 더 유연하여 비정형 건물에 적합하고, 스틸보다 더 많은 하중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뉴욕 소재의 비계구조물 전문회사인 Universal Builder Supply는 오벨리스크 비계구조 외에도 워싱턴 도서관 돐 보수 작업을 위한 비계구조물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돐 지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Erro Saarinen의 Dulles 공항 재보수 공사에서는 내부에 바퀴 달린 작업 플랫폼을 공중에 설치하여 작업중 승객들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 기타

파나마, Soberania 국립공원의 조류 관찰대가 소개되었으며, 도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Mack Architects와 Roland Haggmuller Architects의 비엔나 하우징 프로젝트, ArchitectureDenver의 덴버 16번가 육교 계획안 등이 다루어졌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근작 Heikkinen Komonen의 맥도널드 핀란드 본사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건물 유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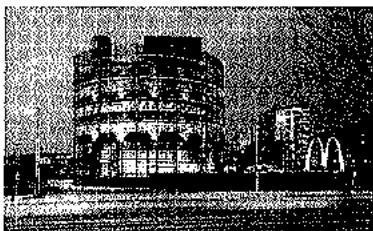


부분으로 법원을 다루었는데 현대적인 법원건물 디자인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화, 보안성,

접근성을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근작소개

▶Heikkinen Komonen의 맥도널드 핀란드 본사



절제된 형태와 투명한 유리면에 의해 주변 경관이 투과되는 원통형의 이 건물은 주변환경에 대비되어 수정체와 같은 독특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또한 건축가는 도시구조물을 종착지점을 요구하는 미완성된 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원통형태는 360° 주위로 건물이 초점이 되는 동시에 종착지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 건물은 핀란드에서 맥도널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 뿐 아니라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역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투명한 파사드는 실내에 충분한 채광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된 평면과 유리 칸막이의 사용으로 모든 작업자에게 자연광원이 닿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 건축법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작업장을 만들어 내었다.

▶Jonathan Segal, Public Architects, Ted Smith & Lloyd Russell 등 6개 건축설계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샌디에고 리틀 이태리 구역 주거단지 개발

▶John McAslan의 이스탄불 Yapi Kredi 사옥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건물 유형연구 - 법원

컴퓨터기술, 보안성, 접근성이 새로운 법원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인자가 되고 있다. 특히 보안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보안성을 위해 주도로로부터 깊게 물러나면서 시민들을 위한 광장이나 플라자

를 형성함으로써 오히려 제약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법원디자인에 있어서 컴퓨터기술의 도입은 전자 매체를 통한 증언, 비디오를 통한 증거제시, 재판 녹화, 증대되어가는 판사나 변호사들의 컴퓨터에 의한 법률조회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Perkins Eastman Architects의 켄즈 법원청사



법원이용자들의 대부분이 갖 어민은 거주자들이므로 이 건물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명확한 방향성과 평면구성이 고려되었으며 위협적인 건물이 아니라 친밀감을 주는 분위기의 조성이 강조되었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평면은 아트리움의 로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B)각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물의 입구가 되고 있다. 배심원실의 전면은 유리벽으로 처리하여, 광장부분을 내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 밖,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갖도록 디자인되었다.

그 밖에 ▶Pei Cobb Freed & Partners의 보스턴 법원청사 ▶Gruen Associates의 캘리포니아 Santa Ana 연방법원 ▶Shepley Bulfinch Richardson의 뉴햄프셔 법원청사 ▶DLR Group의 위스콘신, La Crosse County 법원청사 등이 사례별로 소개 되었다.

■ 기 타

▶뉴욕주 Gold Medal 수영장의 지붕 트러스 구조와 설비시스템 ▶재질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두꺼운 석재판을 사용하는 사례와 기술적 정보를 다루었다.

a+u

1999년 4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런던의 새로운 건축가들'이란 제목으로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런던의 건축



흐름들에서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과 경향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하였다. 윌리엄 맨(William Mann)의 소개와 함께 토니 프래튼, 홀튼 테일러, 카루소 세인트 존 등 9명의 작가·스튜디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시대의 시점(視點)' - 제3회: 도시주거의 가능성 - 매스 하우스를 넘어서'가 게재되었다.

■ 특집: 런던의 새로운 건축가들

▶단순한 기하학형태의 미학

최근의 런던에서의 변화는 놀라운 수준이다. 도시 내 곳곳에서 건설중인 건물이 보이고 점포나 호텔, 레스토랑이 차례차례 오픈하고 있다. 또한 런던을 무대로 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나 콤플렉스가 소개되어, 지금 런던은 활기에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태임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콤플렉스, 리처드 로저스가 제안하는 「어번 르네상스」계획, 노먼 포스터가 진행하는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 헤르쾅그와 드 무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테이트 갤러리의 리노베이션 등 앞으로의 런던의 위상을 좌우할 중요한 공공건축의 프로젝트가 넘쳐나,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상황속에서 런던의 젊은 건축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취재해 보면 주류를 이루는 건축가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게 된다. 그들의 건축이념을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를 찾다 보면 '청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청빈’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간소한 미학이다. 이 청빈의 사상을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곤란한 일도 없을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런던 시내의 오래된 주택을 보면 그것은 바로 청빈이라는 단어에 잘 어울리고 있다. 외벽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흔한 벽돌이며, 특별히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 공간도 심플하여 장식적인 면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빈곤한 건축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단순한 기하학 형태가 만들어내는 풍부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며 소재는 소재 스스로가 갖는 맛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젊은 런던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들 전통적인 주택 건축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건축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윌리엄 맨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겸손한 외관, 재료에의 깊은 관심, 자연광을 풍부히 끌어내는 심플한 내부공간 등 그 어느 것도 단순하지만 풍부하고, 추상적이면서도 상징적이다.

그들의 건축이 앞으로의 런던의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의 영국의 상황과 중첩해서 보면 흥미롭다. 윌리엄 맨의 자신의 에세이에서 “Shifting Sands”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영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 런던의 건축가들이 이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



토니 프레튼(Tony Fretton)의 Quay Arts Center

토니 프레튼(Tony Fretton)의 Quay Arts Center, Laban Dance Center, 첼시의 미술품 수집가를 위한 집, 홀턴 테일러(Houlton Taylor)의 Riverside School, Children's Home, Derwent 의료 센터, 카루소 세인트 존(Carusos St John)의 Walsall Art Gallery, 부룩스 스테이지 랜덜

(Brooks Stacy Randall)의 The Boating Pavilion, Philip Gumuchdjian의 Think Tank/Boathouse, Studio E Architects의 Haileybury Pool, Glenn Howells의 Hereford Art Center의 코트야드, Julian Wickham의 Bank Restaurant, Tim Ronald의 'The Landmak' 등이다.



Glenn Howells의 Hereford Art Center의 코트야드

建築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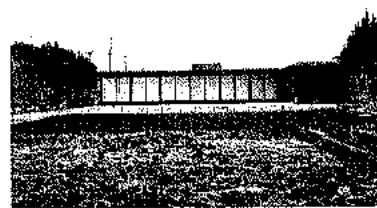
1999년 4월

이번호는 최근 일본에서 준공되어진 주요 작품들의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소개된 작가와 그 작품들은

미카구미의 아츠시로 공민관(公民館)과 사쿠라 주택, 아오키 준의 '눈의 파울 피레관', 아틀리에 COSMOS의 하카이잔(八海山) "이즈미" 프로젝트, 호리바 히로시와 쿠도 카즈미, 실라칸스 K&H가 공동작업한 오오사카시 수상(水上) 소방서 등 13개 작품이다. 연재물로는 '알바 알토-행복한 건축가' 제7회분이 게재되었다.

■작품

▶아츠시로 공민관(公民館): 미카구미
아츠시로 공민관의 대지는 아직 택지보다는 농지(주로 밭이다)가 더 많은 態本현 아츠시로시의 신흥 주택지에 자리잡고 있



아츠시로 공민관(公民館)

다. 건물의 크기는 40평이 조금 못되는, 거창하게 공민관이라기 보다는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값싼 절판(絶版)을 외벽과 지붕에 사용하고 인근의 목재를 일부 사용하였으며, 천장은 알루미늄 세시의 규격에 맞추는 등 저예산 건축의 기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이는 마을 사람들이 매월 900엔씩 모아 마련된 소중한 기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건물의 형태는 커다란 세간의 방을 연결하고 거기에 현관부분의 덩어리를 덧붙인 단순한 모양이나, 이것은 예산의 절감과 함께 일정한 프로그램을 규정하지 않으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마을사람들이 공공건물에 필요한 기능들을 마땅히 생각해내지 못하여 건축가가 프로그램까지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모두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주된 기능이 되지 안겠는가'라는 마을 회의의 담당자 말처럼 마을사람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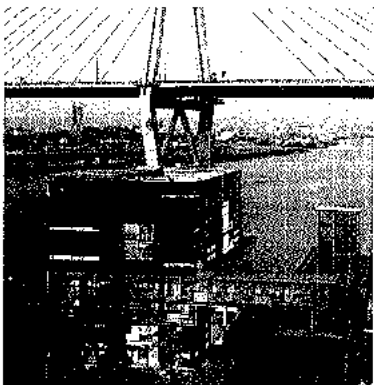


아츠시로 공민관(公民館)

▶오오사카시 수상(水上) 소방서: 호리바 히로시와 쿠도 카즈미, 실라칸스 K&H 공동작업

이 소방서의 설계에서 건축가는 '소방서원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건축'이라는 어찌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테마로 삼고 있다. 소방서원은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낮에만 근무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대기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소방서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4배에 해당하는 대기실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이들은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건물의 주변부를 따라 배치하였고 긴급 출동시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소방서의 마당위에 걸친 브릿지도 계획 되었다. 또한 24시간 직원이 상근하는 사무소의 창들은 거대한 적색의 프레임으로 묶여져 야간에는 거대한 촛대처럼 시내를 밝히면서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서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동시에 구조대 차량의 출동 모습을 가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소방서의 모습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오오사카 수상 소방서

▶Amuser Kashiwa

이 건물은 공민관과 근린 센터, 콘서트 홀의 세 가지 기능이 복합화된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다. 세 개의 기능을 세 개의 부서가 각자 관리하는 체제였으므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기대하기 힘든 점이 많았다. 건축가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 상에서 활기있는 각 기능들간의 연결을 시도하였으며, 공연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 비어있는 홀의 포이어 부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전원을 유리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주도록 하고 있다.

新建築

1999년 4월

이번 호에서 소개된 최근 작품 들로는 유사하라 구름위의 수영장(건축가: 호소키), 눈의 마을 미래관(아오키 준), 카미츠 보건복지 센터(사카쿠라 건축사무소), Speak for Building(테루이 신조 건축연구소), 미야가와 초등학교(요시카와 건축설계사무소) 등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소재로 보는 90년대의 공간과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호에서는 그 첫회로 목소재(木素材)편이 게재되었으며 “구조의 계보”는 20번째 순서(하이테크 건축)를 맞았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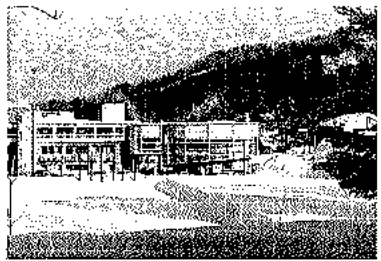
▶유사하라 구름위의 수영장: 호소키 설계



구름위의 수영장

대지는 해발 430m정도의 고원지대이다. 부근에는 기존에 건립된 호텔 및 온천시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구름위의’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수영장은 호텔의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 위의 산장과 같은 분위기를 위해 전체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으나 지붕을 목조로 하고, 목재 패널을 붙임으로써 목조건물과 같은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눈의 마을 미래관: 아오키 준설계



눈의 마을 미래관

대지가 위치한 粟 町은 호설(豪雪)지역으로 눈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는 ‘유키다루마(눈사람) 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눈이 많은 설국(雪國)에서 가능한 생활 스타일을 연구하고 확대시키려는 일을 맡고 있다. 이 건물은 이 단체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점을 상징하기 위해 눈을 이용한 시설을 구상하던 중 겨울철의 눈을 건물내에 보존하였다가 여름철 냉방에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건물의 중앙무에는 거대한 눈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미야가와 초등학교: 요시카와 건축설계사무소

이 초등학교는 기존의 교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사를 짓는 1년동안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통의 경우 운동장에 프리페브린 가설 교사를 두는 방법을 사용하나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1년을 가설교사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가설 건물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존의 교사를 부분적으로 해체하면서 신축 교사를 완성해나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졸업생들이 모교를 찾았을 때 구 교사에 대한 기억을 보존시키기 위해 거닐 수의 일부를 남길 수는 없었으나 다음의 두 가지를 남겨 놓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신축 교사의 중정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인데 다른 나무들은 기존의 나무들을 공사중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다가 다시 심는 방식으로 옮겨졌으나 이 나무는 기존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남겨진 또 다른 하나는 문의 이름들이다.

제17회 서울시 건축상

길가석/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장

현재 바람직한 건축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상으로는 서울시 건축상이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민간부문의 상들이 대부분 설계우수작을 공모하여 창작성을 강조하는 반면, 서울시 건축상은 그 대상을 서울이라는 도시내로 한정하여 기존공된 우수한 건축물의 장려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관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상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이 서울시 건축상이 '79년에 제정된 이래 올해로 제17회 시상식을 갖게 된다. 올해 1999년은 문화관광부에서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우리 건축문화의 창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해이며 새 천년으로 가는 문화의 전환점에서 갖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 시상식은 어느 해보다 그 의미

와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상의 연혁

건축상은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여 서울의 도시경관개선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아래 시장방침으로 '79. 2. 5 시당한 제1회 건축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80년, '81년에만 사회적 혼란으로 건축상 수상이 유보되었을 뿐 그 외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왔다.

'79년부터 '84년까지는 응모대상을 전년도 준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85년부터는 전 2개년도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응모기회를 확대하였고, '86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건축상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상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98년부터는 비주거용과 주거용의 건물 특성이 틀린 점을 고려하여 주거부문의 응모장려차원에서 일정비율로 입상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99년 올해부터는 준공건축물부문외에도 야간경관조명상부문을 신설하여 앞으로 서울의 야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법을 도입, 개선해나갈 것이다.

제17회 건축상 수상작 선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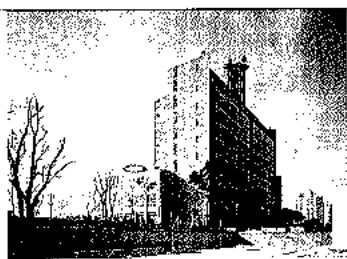
1) 응모작품현황

올해는 IMF라는 경제침체기 때문에 응모작이 적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다행히 그전에 시공을 착수했던 건축물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응모작이 44점으로 예년에 비해 적지 않았고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야간경관조명분야도 생각보다 많은 작품(18점)이 접수되어 총 62점을 심사하게 되었다.

2) 수상작 심사현황

'99. 3. 15. 고려대 이정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한건축학회(이경희), 건축가협회(김한근), 서울건축사회(우남용)를 포함한 건축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준공건축물부문을 심사하여 입상작으로 금상1, 은상2, 동상4, 장려상3 등 총10작품을 선정하였다. 다음날 3. 16.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조명분야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2 등 총5작품을 선정하였다.

심사방법은 우선 작품설명 및 사진이 기록된 패널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 일단 입상대상작 선정을 한 후, 현장답사를 통하여 입상작의 순위를 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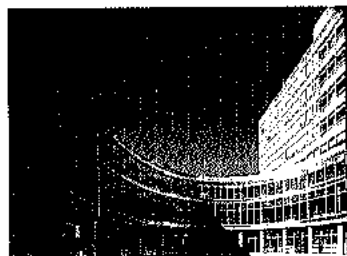
기상청 청사 1



한국중공업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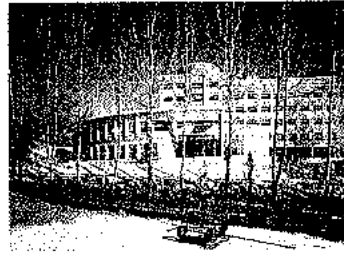
고려프리머사옥



기상청 청사 2



초록마을



연세대상남경영관

3) 시상계획

시상은 설계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건축주에게는 상장과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수상기념동판을, 그리고 시공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설계자에게 수여되는 상금내역은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고 기타 특전으로는 금상수상을 한 건축사는 전시회때 수상작의 본인의 기타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개인전시공간을 제공받게 되며, 그의 업무관련 건축사행정처분시에도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99. 5. 12. 세종문화회관 제1, 2 전시실에서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심사위원, 건축관련단체장, 시의원 및 하객 등을 모시고 가질 예정이며, 동알정소에서 5. 17.까지 일주일간 전시회를 갖게 된다.

수상작과 심사평

올해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에서 특이사항은 관공서 건물이 2건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1건이 금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관공서 현상설계시 종래의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상징성있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디자인이 선호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수상작 심사평을 간단히 소개하면 금상을 받은 기상청 청사는 후면의 독특한 원형 중정을 중심으로 회랑주위의 전시, 교

〈표1〉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 현황

구분	건물명	위 치	층수	건물용도	설계자	건축주
금상 (1)	기상청 청사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8/2	공공업무 시설	원도시건축 변용외1	기상청장 신동아외1
은상 (2)	한국중공업 사옥	강남구 역삼동 838외3	22/9	업무시설	법건축 강기세외 1	한국중공업 동부건설
동상 (4)	초록마을	강서구 화곡동 1139	12/2	공동주택	한빛종합 민승렬	도시개발공사 동원건설
	고려포리머사옥	서초구 방배동 807-3,4	7/2	업무시설	한·공간환경원 한재원	고려포리머 LG건설
	연세대 상남경영관	서대문신촌동 57-8 일대	6/1	교육연구 시설	창조건축 창조건축	연세대학 LG건설
	양천소방서	양천구 목동 919-6	3/1	공공업무 시설	에지원종합호 권명호	소방본부장 대이건설
장려 (3)	도곡우성 캐티타199	강남구 도곡동 467-24	31/4	주상복합	건원국제 한현호	우성건설 우성건설
	김옥길 기념관	서대문 대신동 92	2/1	근생시설	아르키움 김연철	김옥길 세진주택
	호혜섬유 사옥	서초구 서초동 사옥1464-30	10/5	업무시설	코아종합 전병직	호혜섬유 전역산업
	한미레지던스	관악구 남현동 602-65	4/1	연립주택	아르텍 김권석, 장문규	성제개발 성제개발

〈표2〉 야간경관조명 부문 수상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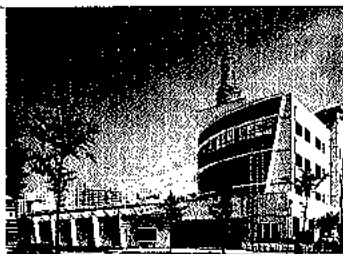
구분	건물명	위 치	층수	건물용도	설계자	건축주
금상 (1)	코스모 타워	강남구 대치동 1002	20/6	업무시설	나남전기(주) 이종일	한국대인상공사 나남전기
은상 (1)	포스코 센터	강남구 대치동 892	30/6	업무시설	크리룩스 임경자	포스코 대민전기
동상 (1)	송려문	중구 남대문로 1가	1/10	건축문화재	(주)알토	문화관광부 (주)두보기(술단)
장려 (2)	갤러리아 백화점	강남구 압구정동 515	4/1	판매시설	에너켄 로버슨	한화유통 에너켄로버슨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9/2	국제조형 박물관	코아종합 전병직	한국방송공사 대원건설

육기능의 배치가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징적인 Open톱구조로 기상청사로서의 기능과 미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것과 공개공지 조경 등 옥외공간이 잘 설계되어 지역환경 개선에도 기여도가 큰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받은 한국중공업사옥은 대부분의 고층빌딩이 단일형으로 설계되는 반면 원형과 옥면체가 조합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서 부드러운 곡선과 외관 직선의 반복이 잘 조화되어 도시미관의 개선에 기여도가 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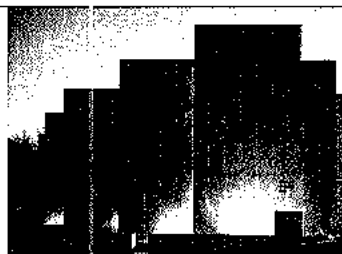
또하나의 은상수상작인 초록마을은 저밀도의 서민APT로 일반APT와는 달리 주거동 입면이 다양하고 색채가 깨끗한 느낌을 주며, 부속동들도 독특하고 친근감 있게 설계되어 있고 옥외공간도 조화있게 잘 설계되어 있다.



양천 소방서



도곡우성캐릭터 199



김옥길 기념관



한미레지던스



호혜섬유사옥

다음 동상 수상작 중 고려포리머사옥은 고 급주거단지라는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외관과 경사로에 접한 대지특성을 잘 살린 설계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연대상남경영 관은 MBA과정의 교육을 위한 건물로서 하부원형건물과 상부육면체건물의 일면분 절과 조화가 조형미를 살리고 있고, 양천 소방서는 소방서의 특성 및 기능을 만족하 면서도 새로운 개념의 소방서디자인이라 는 평가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도곡우성캐 릿터199는 남향위주의 일률적인 주변아 파트단지와 차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고층 주거복합형태로 인근의 개방감과 도시경 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신설된 야간경관조명 부문 수 상작에서 특이사항은 수상작대부분이 민 간대형건축물이었던 반면 유일하게 우리 문화재인 남대문의 야간조명설계가 동상 으로 추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외에도 동상, 교각 등 각종 시설물에도 야간조명 이 확산되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금상을 받은 코스모타워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을 선적으로 재구성하고 건 축표면의 소재를 그림자를 통해 재인식 하도록 유도하여 경관 조명의 표현 가능 성을 크게 높인 가장 바람직한 야간조명 방법으로 평가받았다.

은상을 받은 포스코센터는 철골과 유리 라는 건축소재와 조화를 이룬 경관 조명

으로 저층부는 황색으로 포철의 웅광로 이미지를, 상층부는 강한 백색으로 기업 의 진취성을 부각하는 등 조명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다음 동상 수상작인 남대문은 국보 1호인 역사문화재에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밤에도 송례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생동감있 게 보여주고 우리 고유의 한복에서 느낄 수 있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색감과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타 수상작들도 나름대로 설계수준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것이 심 사위원들의 공통된 평으로 수상작 수가 한정된 관계로 장려상에 그치거나 탈락 한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감 이 남아있으나, 전시회는 수상에 관계없 이 전 옹모작을 전시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상 개선사항

서울시 건축상은 그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계인 중에서도 아직도 이 상의 주취나 취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시상금이나 특권이 여타 상보다 적다는 점과 또한 건축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을 유도할 수 있는 언론, 방송사를 통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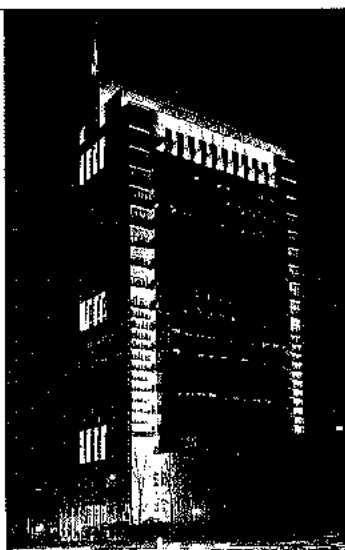
서울시 건축상 행사를 통하여 서울이라 는 도시의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를 확산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라는 점

에서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 홍보비를 충 분히 편성,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 러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시상금도 다 른 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금상에게만 특전으로 주어지던 행정처분상 경감혜택을 동상까지 대상을 늘려 참여동기를 높려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도판과 함께 제출하고 있는 설 계설명서는 실제 심사시 시간관계상 활 용치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 제출받아왔 으나, 향후에는 응모자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판에 개 략적으로 수록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상의 취지, 역사와 올해 수상작 소개 및 앞으로 운영상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피력해 보았다.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이라는 도시내 우수한 건 축물을 찾아 상을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도시경관의 개선을 촉진시키자는 목 적외에도 전시회를 통해 건축관계자외에 도 일반시민들의 참관을 유도하여 서울 의 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본 전시회 를 일반시민들에게도 알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 가 하나의 건축상시상식차원을 넘어서 서울시민들의 공동된 축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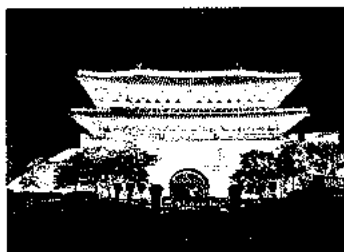
코스모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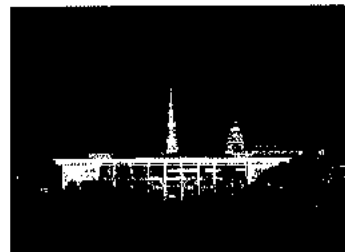
포스코 센터



갤러리아 백화점



송례문



KBS 한국방송공사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3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98.3) 5백4십7만5천3백11㎡ 보다 18.9%(1백3만4천5백5㎡) 감소한 4백4십4만8백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 누계분 1천8백1십8만2천5백61㎡ 보다 51.4%(9백3십5만9백70㎡) 감소한 8백8십3만1천5백91㎡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2월분(99.2) 2백5십2만1천7백73㎡ 보다 76.1%(1백9십1만9천33㎡) 증가한 4백4십4만8백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 구	53,357	74,332	20,975	39.3
인 천	225,374	656,450	431,076	191.3
광 주	49,169	124,035	74,866	152.3
울 산	36,395	62,655	26,260	72.2
전 남	52,923	61,433	8,510	16.1
경 북	73,908	148,725	74,817	101.2
경 남	161,749	165,451	3,702	2.3
채 주	24,767	25,491	724	2.9
감소지역				
서 울	3,125,486	2,172,003	(953,483)	-30.5
부 산	255,947	45,568	(210,379)	-82.2
대 전	166,650	41,884	(124,766)	-74.9
경 기	893,686	541,771	(151,915)	-21.9
강 원	138,551	70,211	(68,340)	-49.3
충 북	118,297	91,060	(27,237)	-23.0
충 남	133,938	107,846	(26,092)	-19.5
전 북	165,114	51,891	(113,223)	-68.6
합 계	5,475,311	4,440,806	(1,034,505)	-18.9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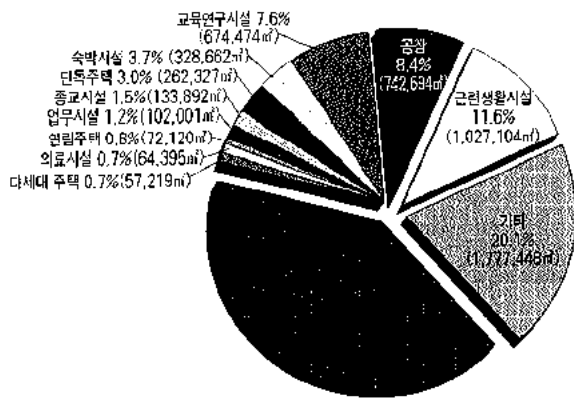
(용도)

단 독 주 택	61,830 138,792 (124.6%)	
다 세 대 주 택	14,307 27,197 (90.1%)	
연 립 주 택	25,443 30,199 (18.7%)	
아 파 트	1,134,227	1,972,669 (73.9%)
근린생활시설	310,516 419,045 (35.0%)	
종 교 시 설	42,627 47,402 (11.2%)	2월
의 료 시 설	22,984 25,457 (10.8%)	3월
교육연구시설	136,509 234,795 (72.0%)	연면적 합계/ 2월: 2,521,773㎡ 3월: 4,440,806㎡ (76.1%)
업 무 시 설	27,207 35,795 (31.6%)	
숙 박 시 설	9,624 264,493 (2,648.3%)	
공 장	172,199 347,230 (101.6%)	
기 타	564,300 897,732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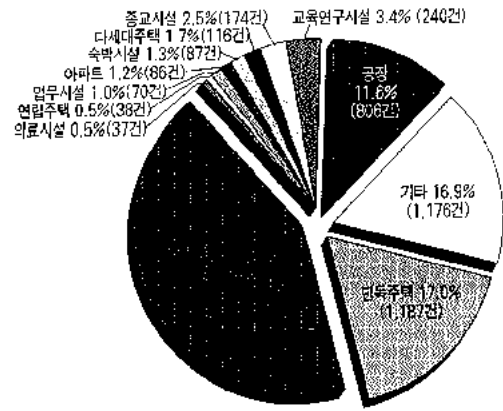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 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744	778	187,024	643	690	138,792	(101)	(88)	(48,232)	-25.8	
다 세 대 주 택	163	174	107,303	54	56	27,197	(109)	(118)	(80,106)	-74.7	
연 립 주 택	53	53	89,779	16	20	30,199	(37)	(33)	(59,580)	-66.4	
아 파 트	65	178	2,662,677	42	114	1,972,669	(23)	(64)	(690,008)	-25.9	
근린생활시설	1,227	1,273	540,500	1,314	1,371	419,045	87	98	(121,455)	-22.5	
종 교 시 설	82	93	83,330	80	85	47,402	(2)	(8)	(35,928)	-43.1	
의 료 시 설	10	11	24,321	17	17	25,457	7	6	1,136	4.7	
교육연구시설	77	86	228,499	88	96	234,795	11	10	6,296	2.8	
업 무 시 설	49	50	579,445	26	30	35,795	(23)	(20)	(543,650)	-93.8	
숙 박 시 설	60	63	40,835	43	46	264,493	(17)	(17)	223,658	547.7	
공 장	250	323	251,167	355	452	347,230	105	129	96,063	38.2	
기 타	488	560	680,431	508	599	897,732	20	39	217,301	31.9	
합 계	3,268	3,642	5,475,311	3,186	3,576	4,440,806	(82)	(66)	(1,034,505)	-18.9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3월 누계)



연면적 (총 8,831,591㎡)



건수 (총 6,971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718	728	3,125,486	340	341	2,172,003	(378)	(387)	(953,483)	-30.5	
부산	102	212	255,947	98	130	45,568	(4)	(82)	(210,379)	-82.2	
대구	99	99	53,357	129	129	74,332	30	30	20,975	39.3	
인천	265	266	225,374	68	87	656,450	(197)	(179)	431,076	191.3	
광주	69	87	49,169	167	196	124,035	98	109	74,866	152.3	
대전	95	95	166,650	87	87	41,884	(8)	(8)	(124,766)	-74.9	
울산	51	52	36,395	116	116	62,655	65	64	26,260	72.2	
경기	613	727	693,686	763	929	541,771	150	202	(151,915)	-21.9	
강원	184	211	138,551	148	167	70,211	(36)	(44)	(68,340)	-49.3	
충북	189	220	118,297	241	269	91,060	52	49	(27,237)	-23.0	
충남	190	170	133,938	192	192	107,846	2	22	(26,092)	-19.5	
전북	107	107	165,114	108	112	51,891	1	5	(113,223)	-68.6	
전남	125	136	52,923	173	180	61,433	48	45	8,510	16.1	
경북	164	189	73,908	195	227	148,725	31	38	74,817	101.2	
경남	230	274	161,749	271	312	165,451	41	38	3,702	2.3	
제주	67	70	24,767	90	102	25,491	23	32	724	2.9	
합계	3,268	3,642	5,475,311	3,186	3,576	4,440,806	(82)	(66)	(1,034,505)	-18.9	()=미이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3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088	2,108	10,272,537	756	759	4,251,659	(1,332)	(1,349)	(6,020,878)	-58.6	
부산	696	1,117	1,237,803	204	311	182,868	(492)	(806)	(1,054,935)	-85.2	
대구	208	208	197,701	281	281	227,810	73	73	30,109	15.2	
인천	461	469	510,724	208	227	742,966	(253)	(242)	232,242	45.5	
광주	294	367	263,453	356	420	245,166	62	(53)	(18,287)	-6.9	
대전	327	327	358,888	166	166	85,115	(161)	(161)	(273,773)	-76.3	
울산	154	158	114,275	206	210	115,826	52	52	1,551	1.4	
경기	3,269	3,718	2,328,265	1,554	1,876	1,188,592	(1,715)	(1,842)	(1,139,673)	-48.9	
강원	608	684	360,607	379	408	147,781	(229)	(276)	(212,826)	-59.0	
충북	564	702	691,043	478	540	189,544	(86)	(162)	(501,499)	-72.6	
충남	461	403	288,750	399	399	198,029	(62)	(4)	(90,721)	-31.4	
전북	223	223	236,448	281	285	156,821	58	62	(79,627)	-33.7	
전남	317	338	145,401	435	446	187,528	118	108	42,127	29.0	
경북	607	684	374,024	479	573	462,818	(128)	(111)	88,794	23.7	
경남	831	1,009	744,306	591	679	394,959	(240)	(330)	(349,347)	-46.9	
제주	167	194	58,336	198	212	54,109	31	18	(4,227)	-7.2	
합계	11,275	12,709	18,182,561	6,971	7,792	8,831,591	(4,304)	(4,917)	(9,350,970)	-51.4	()=미이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3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6,863	2,706	646	511	213	222	243	120	806	161	178	173	183	100	232	303	67
급 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회 원 수	6,841	2,700	645	511	212	222	242	120	802	161	177	169	180	99	231	303	67
회 입 회	9	0	2	8	5	4	2	4	6	15	4	6	3	3	3	2	3
재 입 회	9	0	2	4			1						2				
전 입	13	0	5		1	1		1	2		1	1	1				
전 출	-16	0	-3	-1	-1	-1	-1	-1	-6			-3					
사 패 업	-27	0	-10	-1		-1	-1	-1	-8		-1	-2	-1			-1	
사 망	-1	0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6,811	2,716	655	515	215	225	245	125	805	165	182	168	185	102	234	304	70
계	6,933	2,721	656	515	216	225	246	125	809	165	183	172	188	103	235	304	70

99년도 회원변동사항(3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입 회	214	0	38		17		11		9		5		11		7		36		11		17		8		6		6		13		11		6	
재 입 회	18	0	6		5						2						1						1		2						1			
전 입	47	3	15		3		1		2		1		2				10		3		1		5	1	3	2					1			
소 계	279	3	59	0	25	0	12	0	11	0	8	0	13	0	7	0	46	0	14	0	18	0	14	1	11	2	6	0	13	0	13	0	6	0
계	282		59		25		12		11		8		13		7		49		14		18		15		13		6		13		13		6	
전 출	40	1	11		1		1		2		1		1	1			12		1		1		5		2		1		1					
폐 업	73	1	34		1		2		2		2		1		2		18		1		2		3		1				1	4				
사 망	2	0	1				1																											
등록 취소	0	0																																
소 계	115	2	46	0	2	0	4	0	4	0	3	0	2	1	2	0	30	0	2	0	3	0	8	0	3	0	1	0	1	1	4	0	0	0
계	117		46		2		4		4		3		3		2		30		2		3		8		3		1		2		4		0	
누 계	165		13		23		8		7		5		10		5		19		12		15		7		10		5		11		9		6	